

たの

1981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부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한(韓)·미(美) 정상(頂上)의 백악관(白堊館) 대좌(對坐)



◇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잠시 담소를 나누고 있다. (2. 3)

◇ 역사적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3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2. 7 김포공항)





표지화 · 차례화 : 최 영, 컷 · 삽화 정운섭

공군 제 174·175 합병호

권두언(卷頭言) 정훈감(政訓監) 이상민(李相敏) (2)

취임사(就任辭) 참모총장(參謀總長) 이희근(李喜根) (4)

한미관계(韓美關係)의 재정립(再定立) 윤종현(尹宗鉉) (6)

새 시대(時代) 새 국면(局面)

특 집 국제정세(國際情勢)와 한국(韓國)의 안보(安保) 민병천(閔丙天) (12)

환율(換率)과 오늘의 우리 경제(經濟) 왕연균(王然均) (19)

特 輯 원색문화(原色文化)의 새로운 접근(接近) 최창섭(崔昌燮) (27)

미소(美蘇) 군사전략(軍事戰略)의 새로운 국면(局面) 최영(崔榮) (34)

북괴(北傀)의 정치이념(政治理念) 정민식(鄭民植) (45)

북괴(北傀)의 군사정책(軍事政策)과 군사전략(軍事戰略) 송근원(宋根元) (53)

북괴경제정책(北傀經濟政策)의 변천(變遷)과 실태(實態) 박상익(朴相翊) (64)

공산주의(共產主義)란 무엇인가 김영태(金永台) (77)

북괴(北傀) 『민족해방론(民族解放論)』 주장(主張)의 허구성(虛構性) 편집실(編輯室) (92)

남북(南北) 연방제론(對邦制論) 비판(批判) (1) 편집실(編輯室) (99)

항공 항공	(80년대(年代)의 미소(美蘇) 공군(空軍)의 장비(裝備) [하(下)]) 장용순(張溶淳) (117)
군사 軍事	소련(蘇聯)의 군항공기(軍航空機) 수출실태(輸出實態) 최양수(130)
과학 科學	다목적 전투기(戰鬪機)의 찬반양론(贊反兩論) 하원훈(河元勳) (140)
	핵확산(核擴散)과 미국(美國)의 대응전략(對應戰略) 박종언(朴鐘彦) (145)
	전략군(戰略軍)과 핵전쟁(核戰爭) 억지(抑止) 편집실(編輯室) (156)

공군만상(空軍漫像) 정운섭(鄭雲燮) (115)

충무공(忠武公)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편집실(編輯室) (169)

군가 (軍歌)	비행행진곡 (165)
	보라매의 꿈 (166)
	진군가 (167)
	전선의 용사 (168)

살 모 사 < 단 편 > 이범선(181)

경(慶)

제 15 대
참모총장

이희근(李喜根) 대장(大將) 취임(就任)

축(祝)

공군 참모총장 이 취임식이 지난 3월 10일 국방부장관을 비롯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
장, 한미 연합사령관, 각군 참모총장 등 군 고위 장성과 역대 참모총장, 내외 귀빈 그리고
전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본부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취임사를 하고 있는 이희근(李喜根) 참모총장(參謀總長)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으로부터 공군기를 수여받고 공군의 지휘권을
이양받는 이희근(李喜根) 참모총장(參謀總長)



공군

제 174·175 합병호

1981년 제 2 호



참모총장(參謀總長) 통솔방침(統率方針)

완벽(完璧)한 영공방위태세(領空防衛態勢) 확립(確立)

항시전장(恒時戰場)

정병강군(精兵強軍)

절용증강(節用增強)

조국번영(祖國繁榮)과 국방의식(國防意識)

정훈감(政訓監) 대령(大령)
이상민(李相敏)

민주(民主)·정의(正義)·복지(福祉)에 대(對)한 국민적(國民的) 여망(興望)을 실은 새 공화국(共和國)의 출범(出帆)을 맞아 국내(國內)는 물론(勿論) 해외동포(海外同胞)들까지도 새 시대(時代), 청명한 사회(社會)에 대(對)한 부푼 희망(希望)과 벽찬 기대(期待)에 가득차 있다. 5천년(千年) 역사(歷史)에 찬연(燦然)히 빛날 제(第)5공화국(共和國)의 출범(出帆)을 맞게 된 것은 새 영도자(領導者)를 중심(中心)으로 온 국민(國民)이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국가적(國家的) 위기(危機)를 극복(克服)하고 번영(繁榮)된 조국(祖國)을 탄생(誕生)시키기 위(爲)해 민족적(民族的) 예지(叡智)를 집약(集約)하여 합심노력(合心努力) 한 피와 땀의 결정(結晶)이요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무릇 국가발전(國家發展)이 견고(堅固)하고 영속적(永續的)이라면 그 국가(國家)의 내(內)·외적(外的) 위협(威脅)을 막아 내어야 하므로 국방문제(國防問題)가 선결과제(先決課題)로 대두되는 것이다. 국방(國防)에는 외침(外侵)을 막아 자국(自國)을 방위하는 적극적(積極的) 개념(概念)도 있지만 소극적(消極的)인 안보개념(安保概念)도 포함되는 것이다. 특(特)히 오늘날 국제정세(國際情勢)는 영원(永遠)한 우방(友邦)도 적(敵)도 없는 상황(狀況)이므로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의 정의(正義)란 강자(强者)의 이익(利益)에 불과(不過)하고 평화(平和)도 열강(列強)을 위(爲)한 기존질서(既存秩序)의 유지수단(維持手段)에 불과(不過)한 바, 각국(各國)이 자국(自國)의 권익(權益)을 지키고 신장(伸張)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努力)을 경주(傾注)하는 것은 당연(當然)한 일이요, 어떤 의미(意味)에서는 이것이 바로 정의(正義)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 강대국(強大國)의 세력신장을 위(爲)한 각축전(角逐戰)의 와중(渦中)에서 우리의 생존(生存)을 어떤 요행(僥倖)이나 어느 특정(特定) 강대국(強大國)의 불확실(不確實)한 의지(意志)에 의존(依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의식(國防意識)을 국민적(國民的) 확신(確信)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이는 곧 우리의 생존권(生存權)을 수호(守護)하고 조국(祖國)의 번영(繁榮)을 이룩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에서 국방의식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전국민(全國民)이 국방의식(國防意識)을 신념화(信念化)해야 할 것이다. 군인복무규율에 나타난 『국가(國家)의 정통성(正統性) 수호(守護)와 국민(國民)의 생명(生命) 및 재산(財産) 보호(保護)』와 같이 전 국민이 지녀야 할 구체적(具體的)인 가치(價値)가 제시되어야 하는 바, 『내가 이 나라의 주인(主人)이며, 내가 이 나라를 수호(守護)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리라.

다음으로 우리는 북괴(北傀)의 남침위협(南侵威脅)을 막아내어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現實)을 분명(分明)히 인식(認識)해야 한다. 조국통일(祖國統一)과 남(南)·북(北)의 동질성(同質性) 회복은 우리의 염원(念願)이지만, 국방(國防)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얼핏 모순되는 것 같지만, 북괴의 남침(南侵)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국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국력(國力)을 신장시켜 북괴가 스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끝으로 국방은 국민적 합의(合意)에 바탕을 둔 총력전(總力戰)임을 분명(分明)히 인식(認識)해야 한다. 국방은 결코 일부 특정인(特定人)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며, 또한 누가 대신(代身)해 줄 수도 없는 현실(現實)인 바,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군인(軍人)은 물론(勿論)이고 국민일반(國民一般)의 관심(關心)과 참여(參與)가 필수요건(必須要件)이다.

제(第)1차(次) 세계대전(世界大戰) 이후에 전쟁양상(戰爭樣相)은 총력전화(總力戰化) 되어 군사(軍事)·정치(政治)·경제(經濟)·외교력(外交力)과 국민(國民)의 정신력(精神力)이 종합적(綜合的)으로 전력개념(戰力概念)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국방(國防)의 역군(役軍)이 되어야겠고, 총력안보태세(總力安保態勢)를 확고(確固)히 해야겠다. 국민 각자가 저마다의 직분(職分)에 최선(最善)을 다할 때 우리가 바라는 복지사회건설(福祉社會建設)은 앞당겨 실현(實現)될 것이고 번영(繁榮)된 조국(祖國)은 단단히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취임사 (就任辭)

참모총장(參謀總長) 공군대장(空軍大將)
이희근(李喜根)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입법회의 외교 국방위원장님, 위검사령관님, 각 군 총장님, 역대 총장님,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오늘 명예에 의하여 본인이 공군참모총장직에 취임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절감하면서 그동안 불초 본인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상사, 선배, 동료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영명하신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탁월한 영도하에 제5공화국의 역사적인 서장을 맞이하여, 80년대의 영광된 조국의 번영을 성취하기 위하여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본인이 공군의 지휘권을 맡게 되어 그 사명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국가와 공군을 위해 맡겨진 대입에 신명을 다 바쳐 성실 히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새역사 창조의 80년대의 국제정세는 계속 분쟁과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주변정세 또한 격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력적화통일 아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북괴의 도발위협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절대 보장하여 기필코 새시대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안보 태세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번영과 정치 발전 등의 국력신장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우리 조국의 평화로운 영공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는 곧 필승의 제공태세를 확립하여 북괴의 무모한 전쟁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과감히 베제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필승의 제공태세는 곧 항시 물샐틈 없는 고도의 경계와 즉각 응징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전적 훈련을 거듭하여 일기당천의 정예전투요원들을 더욱 확보 유지하고 지상 및 해상군과의 합동작전 효율을 제고시키고, 한-미공군 간의 연합작전 체제를 강화 발전시키는 한편 군의 전력증강사업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조기경보 체제와 경계태세 및 신속 정확한 작전운영 체제와 출격태세의 확립, 그리고 전력증강 사업과 현존 전력의 극대화 사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성심과 투철한 반공정신, 필승의 신념, 희생을 무릅쓴 사명감이야말로 참다운 군인정신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마된 전력은 승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리의 정신전력은 더욱 강화되고 장병의 정예화는 계속 이룩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군 운영을 위하여 내핍과 절약이 적극 실천되고 군 운영체제 개선에도 끊임없는 창의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습니다.

군의 존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불가결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엄정한 기강 속에 인화단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단결은 창군 이래 우리 공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서 여러 특기분야 요원들의 긴밀하고 조화된 체제운영과 공지 일체로 통합될 때 완벽한 전력발휘가 가능한 것이 공군의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공군이라는 조직속에 흡수 승화시켜 우리의 공동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전임 윤자중 총장님과 역대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선배님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 공군은 창설 이후 30년의 역사 속에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조국과 더불어 우리의 후배, 우리의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공군의 전통을 오늘 이 순간부터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국군 최고통수권자이신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탁월하신 영도력을 받들어 우리 공군을 세계 최강의 공군으로 육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신명을 다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장병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와 배전의 분발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공군의 육성 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육군 및 해군 전우들의 계속적인 협조, 그리고 미 공군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2년간 군의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고 오늘 군문을 떠 나시는 윤자중 장군님과 그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가호 속에 영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취임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논단(論壇)

한·미(韓·美) 관계(關係)의 재정립(再定立)

윤종현(尹宗鉉)

〈한국일보사(韓國日報社) 논설위원(論說委員)〉



〈I〉

한(韓)·미(美) 관계는 81년 새해와 함께 발전적인 재정립(再定立)이 있을 게 분명하다. 이는 1월 20일 「레이건」 미(美) 제40대 대통령(大統領)의 행정부가 발족할 뿐더러 6월까지의 우리 제5공화국(共和國)의 정부(政府)를 비롯한 모든 새 기틀이 마련되는 데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외교적(外交的) 과제에 속한다.

아주 오랜 옛일은 그만 두더라도 한(韓)·미(美) 두 나라 사이에는 8·15 이후 우리 정부(政府) 수립과 함께 혈맹(血盟)유대관계가 지속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근자에는 카터 행정부(行政府) 등장 이래 한때 인격(人格) 문제 시비로 긴장하고 세칭 박동선(朴東宣)사건을 갖고 미국(美國)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양국 관계가 휘말려 흥역을 치르기도 했다.

특히 미국(美國) 조야의 진보적인 세력들은 인격(人格)과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 문제를 결부시켜 한국(韓國) 내정문제에 개입하려 했으며, 나아가서 북한(北韓) 집단과의 관계개선 움직임도 보이기가 했다.

다행히도 미의회(美議會)와 군부(軍部)측의 반발, 많은 서방국가(西方國家) 정치인 및 전문가들의 이의(異議)와 반대(反對)· 그리고 북괴(北傀)의 놀라운 군사력(軍事力) 증강동태 등에 비추어 미지상군(美地上軍)의 철군 일정이 도중유보(途中留保)되기는 했으나 어떻게든 카터 행정부의 출현으로 종래보다는 양국 관계에 우여곡절이 더해진 게 틀림없었다.

불의(不意)의 10·26사태 발생 후 거듭된 미국(美國) 정부의 한국(韓國)방위결의 표명과 몇 차례에 걸친 우리 국내불안 사태하에서 취했던 긴급(緊急)지원 출동태세 과시 등으로 미국(美國)의 대한안보공약(對韓安保公約) 이행은 변(變)함 없을 것이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정치(政治) 발전에 대한 기대나 우의(友誼)어린 충고(忠告)가 간혹 지나쳐 보기에 따라서는 「간섭적」인 듯한 인상이 없지 않았고 「김대중(金大中) 사건」을 둘러싼 미(美)측 일부의 비판적 태도 또한 다소나마 「불편(不便)한 관계」를 엿보인 것이 사실이다.

근자에 빚어진 이런 상황으로 한(韓)·미(美) 관계가 자칫 수직(垂直) 관계로만 오해되는 데서 야기된 어색한 관계(關係)· 불균형 관계를 바로 잡아 보다 새로운 차원(次元)의 수평적 관계로 정립(定立)하기 위한 노력이 더 보태져야 한다는 견해(見解)가 양측에서 함께 높아졌다. 참다운 동반(同伴) 관계로의 지향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안보(安保)·경제(經濟)·문화(文化) 모든 분야에 걸쳐 대미외교(對美外交)를 가장 중시하며, 미국(美國)을 핵심적(核心的) 맹방(盟邦)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한(韓)·미(美)정부(政府)의 기본 입장이었다. 현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정부 역시 여러 차례 이런 입장과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제 레이건 행정부(行政府)의 출현(出現)과 함께 한(韓)·미(美) 양국간의 기존(既存) 우호관계를 더욱 다짐하고 지난 날의 외교적(外交的) 마찰이나 불균형 관계를 정리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군사(軍事)· 외교(外交)면에서의 동반자(同伴者) 관계를 재정립(再定立)하려는 쌍방의 노력은 본격화 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선거(選舉)유세 때 레이건은 당선(當選) 후 방한(訪韓)의사를 비친 바 있었다. 측근 보좌관을 통해 적당한 시기에, 한(韓)·미(美)정상회담(頂上會談)을 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작년 7월 디트로이트시(市)에서 열린 미공화당(美共和黨) 전당대회가 채택한 당(黨)정강정책(政綱政策)은 한(韓)·미(美) 양국간의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 유지를 공약(公約)한 것이었다. 또 카터 행정부(行政府)의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 발표로 극동(極東) 및 동(東)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미국(美國)과의 동맹관계 가치를 의심케 됐다는 점(點)을 분명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레이건은 카터대통령과의 TV선거 토론(討論)에서 『한국(韓國)과 같은 강력한 반공(反共)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는가 하면 「헤이그」 새 미(美)국무장관(國務長官)도 같은 뜻을 말하면서 『한반도(韓半島)에선 전쟁이 동결된지 근 30년이 지났는데도 깨지기 쉬운 휴전(休戰)이 계속되고 있을 뿐』 이고 아시아에서는 중공(中共)과 소련이 8천 km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음을 강조[81.1.9. 미(美)상원외교위(上院外交委)서 발표한 대외(對外)정책성명(聲明) 전문(全文)], 이 지역의 위험성(危險性)을 강조하였다.

우리 국내(國內)사정의 발전 또한 양국관계의 재정립(再定立)을 촉진시키기에 족(足)할만하다. 정치(政治)발전은 매우 순조롭고 나라의 체제는 제4공화국(共和國) 당시보다 월등하게 민주화(民主化)하였다. 자유경쟁(自由競爭)을 이념으로 하는 양대선거(兩大選擧) 제도와 실시 체비가 활발하게 갖춰져 가고 경제적(經濟的) 상향세(上向勢)의 회복(回復)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곱쳐지는 중이다. 김대중(金大中)사건도 합법적인 공판(公判)절차로 사법(司法)기관에 의한 마무리를 보게 될 단계이다.

두 나라의 이런 현실(現實)·사정(事情)은 양국(兩國)관계 양정립(兩定立)의 조건과 필요성을 무르익힌 게 틀림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나 레이건행정부(行政府)의 기반(基盤)정리와 우리 양대선거를 통한 정치(政治)발전· 새 정부(政府)탄생 전망 등으로 미루어 금년 중반기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견(豫見)들이 많다.

〈II〉

양국(兩國)관계의 양정립(兩定立)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그 성격·방향·내용면에서의 발전은 과연 어떠한 것일는지 물론 아직 속단 할 수는 없다. 다만 앞에 말한 것 같은 불편하고 어색했

던 그늘이나 구름이 가셔지면서 지난 날보다는 명랑하고 튼튼한 축대 유대(紐帶)가 보태질 것은 십분 내다 볼 수 있을 듯하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 요인으로 우선 레이건의 정치(政治) 스타일부터 생각하게 한다. 그는 이른바 권모(權謀)술수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뒷전정치(政治)」를 싫어하고 직접 대화(對話)를 잘하며 충고를 중시하나 일단 결정(決定)된 정책(政策)은 고침 없이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헤이그 국무장관(國務長官)이 다음 미국외교(美國外交)정책의 기본이념을 ① 일관성(一貫性) 있는 외교행동성(外交行動性)을 강조하고 ② 공약(公約)을 준수하여 미국(美國)의 힘과 위신을 맹방들로부터 신뢰(信賴)받게 하며, ③ 정책수행에서 미국(美國)의 옷만을 강요하지 않고 접근 방식 등에 균형을 추구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도 레이건 스타일의 반영(反映)으로 생각된다.

이런 스타일의 레이건이 당선(當選) 4일만에 로스앤젤리스교외(郊外) 어느 교회(教會) 앞뜰에서 한국(韓國) 문제에 대해 국내 한 일간지지사(日刊紙支社) 기자(記者)에게 한 즉석회견담(卽席會見談)은 매우 비중이 있어 보인다. 그는 10분간 문답 중 3분 동안 한국(韓國) 문제를 말하였는데 요점(要點)은 ① 새로 출범(出帆)한 한국(韓國) 정부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② 동맹관계 우호증진을 위하여 외교정책(外交政策)은 양국간 신뢰(信賴)에 바탕을 두며, ③ 주한미군(駐韓美軍)을 감축없이 주둔(駐屯)시키는 문제는 더 이상 논쟁(論爭)의 대상(對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④ 자유(自由)선거에 의하여 수립되는 한국(韓國) 정부와 반공(反共)의식이 높은 한국인(韓國人)에 대한 지지(支持)는 변(變)함이 없으며, ⑤ 오랜 맹방(盟邦)인 한국(韓國)에 대한 자기 자신과 공화당(共和黨)의 선거공약은 반드시 지키고 ⑥ 통일(統一)문제에도 미국(美國)은 평화(平和)와 자유(自由)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北韓)의 무력통일(武力統一) 방안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계속하여 ⑦ 한국(韓國)이 과거의 가난에서 탈피하여 현재 아시아에서 공산주의(共產主義)를 신봉하는 이웃 국가보다 더 나은 경제안정과 번영을 지속시키고 있음을 찬양하고 ⑧ 경제협력이나 인권(人權)에 있어 미국(美國)의 가치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종래의 미국정부(美國政府) 방침을 탈피할 것과 ⑨ 공화당(共和黨)과 그의 당선(當選)을 지지해 준 많은 한국인(韓國人)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 달라면서 사인까지 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짧은 이 언급(言及)에서 레이건의 대한관(對韓觀)과 접근 스타일은 피부에 와닿는 실감(實感)이 없지 않아 크다. 그에 보태서 미공화당(美共和黨)은 전통적으로 대아(對亞)지향성이 강(強)하고 레이건 시대(時代)의 개막을 전후하면서 특히 불어 닳치고 있는 미국(美國) 내 신보수(新保守)파와 진로(進路) 회전(回轉)은 관계 재정립(再定立)에서의 내면진전을 점치게 하는 가장 큰 또 하나의 바탕이 아닐 수 없다.

원래 보수(保守)란 진보(進歩)가 이상(理想)에 치우치는 것과는 대조적(對照的)으로 현실(現實)에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진보파(進歩派)의 이상(理想)이 법(法)과 도덕(道德) 등을 앞세우

는데 비해 보수주의적(保守主義的) 현실(現實)에서는 「힘」을 내세운다.

미국(美國)의 보수주의는 곧 아메리카 제(第)1주의(主義)를 말한다. 세계에서의 미국(美國)의 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여 「위대(偉大)한 미국(美國)·강대(強大)한 미국(美國)」의 기틀·지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집약된다. 강력한 군사력(軍事力)·경제력(經濟力)과 달러의 위력(威力)을 구축·발전 시키려는 경향을 필연적으로 띠게 된다.

따라서 지난 날 카터 외교(外交)의 틀이 미(美)·소(蘇)간의 대등(對等)한 군사력(軍事力) 유지를 도모하며, 서구(西歐)·일본(日本)·중공(中共)과 협력(協力), 소련(蘇聯)의 팽창주의를 막고 세계평화를 확보하려던 것과는 달리 레이건정부(政府)는 그런 협력(協力)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우선 보다 우세한 미군사력(美軍事力)으로 소련(蘇聯)을 위압(威壓), 평화(平和)달성을 하려 할 것이다.

대(對) 중공(中共) 정책에 있어서도 종래 카터시절(時節)에는 「강력(強力)한 중공(中共)」이 소련(蘇聯)을 견제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펼쳤으나 레이건정부(政府)는 「강력(強力)한 중공(中共)」이란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 「강력(強力)한 미국(美國)」이 소련(蘇聯)을 누르며, 평화(平和)유지에 기여해야 할 것을 앞세우는 것이다. 중공(中共)의 반대(反對)를 무릅쓰며, 대만(臺灣)·자유중국정부(自由中國政府)와의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의도에서도 그 방향감각은 잡히고 남을 만하다.

신보수(新保守)의 이런 물결을 타면서 밀려들 레이건 행정부(行政府)의 한반도(韓半島) 정책에서 몇 가지 기대해 봄직한 점이 떠오르게 된다. ① 한반도(韓半島)를 중심으로 동북아(東北亞)의 세력을 균형잡히게 하여 이 지역 평화(平和)유지의 한 추축(樞軸)으로 삼고자 할 것이다. ② 이는 곧 한국(韓國)의 전략적(戰略的) 지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③ 그에 따라 주한(駐韓)미(美)지상군의 철수 문제는 사실상 폐기될 것이다.

④ 인권(人權)시비를 비롯한 양국간의 마찰 요인은 불원 해소될 가망이 크며, ⑤ 경제(經濟)·문화(文化)면에서의 협력(協力)관계가 더욱 증진 되되 ⑥ 상호 수평(水平)·동반(同伴)관계에서 ⑦ 안보(安保)협력 관계를 굳건히 이어갈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에 반(反)해 레이건 정부(政府)의 대북한(對北韓) 관계는 카터 대통령 때보다 훨씬 냉(冷)해 질 것으로 내다 보는 게 일반적이다. 카터정부(政府)는 과거 여러 차례 북한(北韓)집단과의 공식 접촉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작년 여름엔 미하원(美下院) 의원(議員) 1명이 한국전쟁(韓國戰爭) 이후 처음으로 북한(北韓)을 돌아왔고, 그 후 미(美)·북괴(北傀)간의 비정치적 접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미(美) 민주(民主)·공화(共和) 양당의 정당정책에도 한반도(韓半島) 부문에서 차이는 뚜렷하여 민주당(民主黨)이 남(南)·북한(北韓)간의 「대화(對話)」를 중시하는 가 하면 공화당(共和黨)은 「군사(軍事)균형」을 앞세우는 터였다.

평양(平壤)집단도 이런 차이점(差異點)을 포착하면서 카터행정부(行政府) 시대때는 등장초기부터 미국(美國)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접근신호를 보내고 한국(韓國)문제 해결을 위해 대미(對

美)직접 협상과 미(美)·북괴(北傀)간 평화협정(平和協定)체결 등을 되풀이 주장했었으나 레이건 새 정부(政府)를 상대로는 아직 유사한 동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레이건 대통령(大統領)의 시대와 함께 그간 다소 침침한 기류현상이 없지 않았던 미국(美國)의 대한반도(對韓半島)정책 문제는 점차 제 줄기를 잡아가고 있다 하여 무방할 것 같다.

〈Ⅲ〉

어제와 비교해서 한(韓)·미(美)관계 재정립(再定立)의 전망을 이렇게 좀 더 밝아지고 호전될 것으로 바라 보면서도 차분히 「노트」해 뒤야 할 비망(備忘)사항이 그 흐름 속에 적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하다. 자기를 가다듬으며, 바른 진로(進路)를 잊지 말아야 할 내일의 과제는 그렇기에 언제나 엄숙하게 따라 나선다 할 것이다.

우선 ① 레이건의 그 어떠한 발언을 체크해 봐도 더 이상 소련(蘇聯)의 공세(攻勢) 앞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 상한선(上限線)이다. ② 그에 따라 주한미군(駐韓美軍) 수준(水準)도 증강(增強)시킨다는 내용은 없고 더 이상의 감축(減縮)이 없으리라는 점(點)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한다.

그러므로 ③ 대소군사(對蘇軍事) 우위성의 보수 반응의 성격을 보태갈 레이건 새 행정부(行政府)로서 장차 주요 맹방(盟邦)의 일환인 한국(韓國)에 대하여 자체방위력(自體防衛力)을 더 강화하도록 요구해 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

실제 미국(美國)의 힘이 전능(全能)하다는 시대는 벌써 폐막(閉幕)된지 오래다. 인플레이와 실업(失業)이 점증하고 있을 뿐더러 탈(脫) OPEC를 겨냥 하면서 국내(國內)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판국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레이건은 선거 때 국민앞에 감세(減稅)공약을 해 놓았다.

이 경우 미(美) 군사비(軍事費)의 증액(增額)은 필연적으로 한계점(限界點)을 갖게 마련이다. 레이건 측근에서 마련했다는 새 군사력(軍事力) 증강 5개년 계획은 카터행정부안(行政府案)보다 1천 5백억 「달 러」를 더 계상하고 있는데 그 엄출에도 의문의 꼬리를 붙이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다.

원래 ④ 보수(保守)주의란 일면 자국(自國) 에고이즘과 직결된다. 남의 처지에 동참(同參)하지 않는 고립성(孤立性)을 보이는 실상도 없지 않다. 한국전(韓國戰)의 휴전(休戰)처리 과정에서 우리는 이를 이미 체험한 일이 있다.

그에 보태 ⑤ 미국(美國)의 정치(政治)는 행정부의 정책정(政策的) 일관성보다 국민(國民)여론에 좌우되는 경향이 진하다. 1979년 9월 미국인(美國人) 1546명을 표본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 여론(輿論) 조사는 전세계(全世界)를 통하여 미국(美國)의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한국(韓國)이 차지한 순위는 15번째이다. 일본(日本)은 3위, 자유중국(自由中國)은 10위며, 북한(北韓)은 17위로 우리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같은 조사(調查)에서 미국(美國)의 주요 동맹국(同盟國)이 외부로부터 공격(攻擊)을 받았을

적에 「미국(美國)이 군사력(軍事力)으로 방위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문에 관한 대한여론(對韓輿論) 반응은 찬성 32%, 불찬성 56%였고 나머지 12%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대만(臺灣)과는 비슷한 반응도였고 일본(日本)의 찬성 54%, 반대 35%보다는 훨씬 뒤진 내용이었다.

여론(輿論)경향이란 물론 가변적(可變的)인 것이다. 그러나 그 추세를 변경시키는 일이 그리 만만치 않은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카터행정부가 한국(韓國) 정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온 것과는 달리 레이건은 『한국 정부가 정치 참여와 개인의 자유를 신장 하도록 고무해 나가겠다』고 한다는 한 미국유력지(美國有力紙)의 비교보도는 미국인(美國人)의 여론과 우리 국내(國內)문제의 조화성을 비쳐 놓은 것 같다.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의사(意思)와 능력(能力) 진로(進路)를 확고하게 다잡아 갈 것을 가르치는 문제상황들이라 하겠다. 외교(外交)란 본 우리 내면(內面)의 대외적(對外的)인 반영이며 결과다. 국민 모두가 정부(政府)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나라의 발전을 추구하는 자세 속에 남들의 간섭이나 일방적인 요구는 있을 수 없게 된다.

이 진실(眞實)을 앞으로 구현시킬 경우 레이건 미(美) 행정부(行政府)와의 한(韓)·미(美) 관계 재정립(再定立)은 기대보다 더 진한 밀도(密度)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韓國)이 차지하는 전략적(戰略的) 지위(地位)나 불어나는 자체방위(自體防衛) 및 공동방위기여능력(共同防衛寄與能力)과 함께 어제보다 훨씬 수평적(水平的)이며, 푸르른 내일을 터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 진다.

국제정세(國際情勢)와 한국(韓國)의 안보(安保)

민 병 천 (閔丙天)

〈동국대(東國大) 안보연구소장(安保研究所長)〉

급변하는 국제정세(國際情勢)의 흐름에 순응(順應)하면서도 자아(自我)에 대한 주체성(主體性)을 확립(確立)하고 자기존립(自己存立)을 위해서는 자주역량력(自主力量力)을 배양(培養)해야 한다.

1. 서언(序言)

우리는 불변수적(不變數的)인 세 가지의 여건(與件) 속에 살고 있다.

첫째, 수천년간 단일생활권(單一生活圈) 속에서 살아오던 하나의 민족(民族)이 남(南)과 북(北)으로 갈리어 민족적 분열과 국토적 분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 주위에 미국(美國)과 중공 및 소련과 일본 등 사대국(四大國)이 이해대립(利害對立)을 하는 가운데 남쪽은 미(美)·일(日) 등과 더불어 해양(海洋) 세력권(勢力圈) 속에 있고 북쪽은 중(中)·소(蘇)와 더불어 대륙세력권(大陸勢力圈) 속에 편입 되어 각각 두 세 력의 첨단적(尖端的)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셋째, 앞에서 제시된 두 개의 불변수적(不變數的)인 여건(與件)이 결합되어 남쪽과 북쪽에 각각 대립되는 힘의 안보체제(安保體制) (안보협력(安保協力) 체제(體制))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남쪽에서는 미국(美國)과 일본(日本)이 각각 한국을 지원하는 안보협력(安保協力) 체제(體制)가 형성되어 있고, 북쪽에서는 중공(中共)과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는 안보(安保) 협력체제(協力體制)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문제(國際問題)와 관련지으면서 안보문제(安保問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여건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사강관계(四強關係) 및 사강자체(四強自體)의 정세(情勢)를 우리의 안보(安保)와 연결지으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사강(四強)은 세계 정치를 주도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전반적(全般的)인 국제정세의 흐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전반적(全般的) 국제정세(國際情勢)에서 제기되는 안보(安保)에 대한 도전(挑戰)과 시련요인(試練要因)이 무엇이고 주변(周邊)의 사강관계(四強關係) 및 남(南)·북한관계(北韓關係)에서 제기되는 도전(挑戰)과 시련요인(試練要因)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2. 전반정세(全般情勢)의 특징(特徵)과 영향(影響)

국제정세는 급격히 변모하고 있어서 어제의 상황(狀況)이 오늘의 시점(時點)에서는 큰 뜻이 없고 오늘의 상황이 내일에 그대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급변하는 정세(情勢)를 너무도 세밀히 보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랜동안 계속되고 있는 조류(潮流)를 파악하여 그러한 흐름의 특징(特徵)이 우리 안보(安保)에 제기하는 문제(問題)를 뽑아보려는 것이다.

지금 국제정세(國際情勢)의 두드러진 현상(現象)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의 안보(安保)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를 추려본다.

첫째,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가 크게 일어 주요자원(主要資源) 특히 석유(石油)가 정치무기화(政治武器化)하여 우리의 국가존립(國家存立) 및 발전(發展)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70년대에 이르러 신생국(新生國)의 종주국(宗主國) 및 대국(大國)에 대한 저항적(抵抗的)인 민족주의(民族主義)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한 민족주의(民族主義)가 행동화(行動化)되는 과정에서 석유(石油) 등의 주요자원은 하나의 수단(手段)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산유국(產油國)은 유가(油價)의 자의적(恣意的)인 인상(引上)과 유류공급량(油類供給量)의 자의적인 증감(增減)을 함으로써 공업국가(工業國家)에게 막대한 경제적 시련(試鍊)을 안겨 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석유(石油)나 고무 등과 같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필수적인 주요(主要) 자원(資源)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인구밀도(人口密度)는 매우 높은 수준(世界)에서 9위(位) 정도이다. 이 두 가지의 불변수적(不變數的)인 취약여건(脆弱與件) 속에 있는 우리는 국가발전(國家發展)이라는 목표(目標)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석유무기화(石油武器化)는 국가발전(國家發展)과 존립(存立)을 위한 산업화(產業化)에 큰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원료(原料)의 가격인상(價格引上)에 따르는 제품가(製品價)의 인상(引上) 및 원료확보난(原料確保難) 등으로 우리는 상품수출(商品輸出)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경기(景氣)가 후퇴하여 국가존립(國家存立)의 경제적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狀況)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狀況)에서는 원유확보(原油確保)를 위한 아랍국가들과의 친선(親善), 수입지역(輸入地域)의 다변화, 대체(代替)에너지의 개발(開發) 등의 국가정책차원(國家政策次元)에서의 노력은 물론이고 소비(消費)(특히 전력(電力)과 유류(油類)) 절약운동(節約運動)의 대대적인 전개가 요구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국이기주의(大國利己主義)가 크게 발동됨으로써 대국(大國)의 이해(利害)가 얽혀 있는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희생(犧牲)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70년대에 들어와 대국(大國)은 국제주의(國際主義)보다는 국가중심주의적(國家中心主義)의 인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우방(友邦), 동맹(同盟) 및 이념적(理念的) 공감지대(共感地帶)라는 것들은 퇴색되고 자국중심(自國中心)의 실리(實利)가 중요시 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韓國)을 지원하는 핵심우방(核心友邦)으로서의 미국(美國)의 이기주의(利己主義)와 북한을 지원하는 소련의 이기주의(利己主義)는 그 나타나는 양태(樣態)의 성격(性格)이 거의 반대이다. 미국(美國)은 자국(自國)이 지원하고 보호(保護)해 주던 국가(國家)를 포기하여 다른 보다 큰 이익(利益)을 추구하는 형태로 대국이기주의(大國利己主義)를 전개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美國)의 지원을 받던 나라들이 불안(不安)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는 달리 소련의 대국이기주의(大國利己主義)는 다른 대국(大國)의 영향(지원)하에 있는 나라들을 자국(自國)의 영향력권 속에 편입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련의 주변국(周邊國)이나 소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나라로서 미국(美國)이나 중공(中共)의 단연한 보호결의가 없는 곳에 대한 공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우방(友邦)(한국방위(韓國防衛)를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미국(美國)의 대국이기주의(大國利己主義)는 소극적, 수세적(受勢的), 포기적(拋棄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부정적(否定的) 국가(國家)인 소련의 그것은 적극적, 공세적, 팽창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이 요망된다.

사강포위(四強包圍) 속에서의 미(美)·소(蘇)의 대(對) 한반도(韓半島) 관계(關係)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날 그들 대국(大國)에 의해서 희생된 역사경험(歷史經驗)을 가졌기 때문에 대국이기주의(大國利己主義)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되는 것이다. 근대사(近代史)에서 볼 때 19세기까지는 청(淸)(중(中))에 의한 희생을 받았고 20세기 전반의 거의 대부분은 일본(日本)에 의해서 희생되었으며, 해방(解放)과 더불어 미(美)·소(蘇)에 의한 분단(分斷)의 희생을 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희생(犧牲)의 역사(歷史)는 우리로 하여금 대국이기주의(大國利己主義)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대국이기주의(大國利己主義)에서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에 순응(順應)하면서 극복하는 길과 그것에 대응(對應)함으로써 극복하는 길을 같이 가야만 할 것이다. 순응(順應)의 방법은 우리를 지원하는 대국(大國)에게 이익(利益)을 제공함으로써 「포기(拋棄)」에 의한 희생을 막는 것이고, 대응(對應)의 방법은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가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길이다. 이 두 가지 길은 병행되어야만 할 길이다.

세째, 소련(蘇聯)의 팽창주의(膨脹主義)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중동(中東)에서는 경제적 시련을,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위협을 더 받게 된다는 점이다.

소련(蘇聯)은 70년대 이후 미국(美國)이 신생국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는 것을 이용하여 많

은 신생국을 친소국(親蘇國)으로 만들어 갔다. 아프리카 및 중동(中東)에서는 콩고, 기니, 알제리, 에치오피아, 남에멘 등을 쿠바군(軍)을 이용하거나 현지공산당(現地共產黨)을 활용하여 친소공산국(親蘇共產國)으로 만들었다. 아시아에서는 공산화된 인지반도(印支半島)를 친소지대(親蘇地帶)로 만들었고, 80년에는 중동(中東)에 힘을 기울여 아프가니스탄을 점령(占領)하고 말았던 것이다.

소련이 중동(中東)으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원유공급(原油供給)(그곳에서 연간 원유 수요의 약 85%를 수입한다.)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간접적으로는 미국(美國)의 관심(關心)이 그곳으로 쏠림으로써 한국(韓國)에 대한 지원(支援)의 약화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자본주의(資本主義) 공업국(工業國)인 미국(美國)은 중동(中東)이 사활적(死活的) 이해지대(利害地帶)이기 때문에 그곳이 소련(蘇聯)의 지배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를 위해서 극동의 미(美) 해군(海軍) 및 해병대(海兵隊)가 그곳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소련의 팽창주의(膨脹主義)가 중동(中東)에서 뺏는 동안은 우리의 안전(安全)이 직접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극동(極東)으로 뺏치는 경우는 한반도(韓半島)가 중대한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미군철수(美軍撤收)와 같은 현상이 날 경우 소련의 팽창주의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진행된다면 한반도(韓半島)에서의 행동화(行動化)로 나올 염려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3. 주변정세(周邊情勢)의 특징과 영향(影響)

우리는 사강(四強)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정세(周邊情勢)는 이를 사강(四強)의 상호관계나 개별상황에서 생각될 수 있다.

먼저 상호관계면(相互關係面)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그것이 우리 안보(安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자.

첫째, 미(美)·중(中)·일(日) 협상(協商)이 점차로 증대되어 감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대국관계(大國關係)의 긴장(緊張)은 보다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한반도평화(韓半島平和)에 기여할 것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소련의 태도(態度)에 따라 긴장요인(緊張要因)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미(美)·일(日)의 대중협력(對中協力) 특히 미(美)·중협력관계(中協力關係)는 그들간의 긴장을 축소시키는 요인뿐만 아니라 미(美)·중(中)의 남(南)·북(北)한(北韓)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충고로 남(南)·북한긴장(北韓緊張)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중공(中共)의 영향력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의 노선을 중공(中共)이 거역하면서 대남화해(對南和解)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강력한 충고를 북한의 소련으로의 경도(傾倒)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美)·중협력(中協力)은 남(南)·북한관계개선(北韓關係改善)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급속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편 소련의 태도(態度)와 관련하여 미(美)·일(日)·중(中)협력(協力)은 오히려 긴장을 증대시키고 있다. 소련은 다른 삼강(三強)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강(三強)의 군사력에 대응할 힘을 이 곳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美)·일(日)해군력(海軍力)보다 더 많은 해군력(海軍力)이 이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잠수함이 120 내지 150척, 기타 함정이 650~700척 배치 되어 잠수함은 미국(美國)의 10배 이상이고 총 해군력도 미국(美國)의 약 2배나 된다. 그리고 항공기(航空機)도 약 1천대나 되며, 고성능(高性能) 항공기(航空機)도 있고 항공모함(航空母艦)까지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소련이 이렇게 미(美)·중(中)·일(日)협력(協力)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증강(軍事力增強)을 함으로써 우리는 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미(美)·중(中)·일(日)협력(協力)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련은 북한에 대한 협력(協力)에 적극성을 나타내게 된다. 북한이 중공세력권(中共勢力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련은 북한에 대해 무기지원(武器支援) 등을 계속하게 된다. 중(中)·소의 대북군사경쟁지원(對北軍事競爭支援)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도 한국(韓國)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위협의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미(美)·일(日)양국(兩國)의 북한에 대한 접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공(中共)과 소련은 전혀 한국(韓國)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美)·중(中)·일(日)의 협력(協力)이 점차로 늘어나면서 미국(美國)과 일본(日本)은 북한에 대한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에의 접근을 통하여 북한의 태도변화(態度變化)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日本)의 대북접근(對北接近)은 일본(日本)이 해결해야 할 양대 과제(兩大課題)(북한과의 정치관계 해결, 소련과의 북방영토해결(北方領土解決)과 평화조약(平和條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미국(美國)과 일본(日本)은 기자(記者)나 문화(文化) 교류(交流)와 경제교류(經濟交流)는 물론이고 정치인(政治人)의 방문(訪問) 등에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美)·일(日)의 대지접근(對地接近)은 서로의 상응(相應)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인데 중(中)·소는 한국(韓國)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북한에 대해 경쟁관계(競爭關係)에 있기 때문에 대한접근(對韓接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대한 지원국(支援國)의 그러한 태도는 한국(韓國)의 유일성(唯一性)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일본(日本)의 대북교역품중(對北交易品中)에는 고속정(高速艇)과 통신기기(通信器機) 및 잠수용품(潛水用品)이 있어서 그것들이 북한의 대남침략(간첩용 등)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 북한에 대해서는 중공(中共)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군사지원(軍事支援)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국(韓國)에 대한 군사지원국(軍事支援國)은 미국(美國) 뿐이어서 미국사정(美國事情)에 따라 한국방위(韓國防衛)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중(中)·소(蘇)양대국(兩大國)으로부터 경쟁적 무기지원(武器支援)을 받기 때문에 결정권은 북한(北韓)이 갖게 된다. 그러

나 한국(韓國)은 경쟁지원을 받지 못하여 무기(武器)의 종류와 수량 및 제공시기는 미국(美國)이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그 결과로 북한 장비는 항상 한국보다 우월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결정권(決定權)을 갖기 위해 방위산업(防衛産業)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고 주한(駐韓) 미군(美軍)의 철수에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남북관계(南北關係)의 정립(定立)과 방위태세(防衛態勢)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상은 사강(四強)의 상호관계(相互關係)에서 생기는 영향이거니와 이제 개별적(個別的)인 주변국(周邊國)의 정세에서 오는 영향을 전망한 보자.

첫째, 미국(美國)에 보다 보수적인 정권(政權)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대한관계(對韓關係)가 개선되고 대한방위태세(對韓防衛態勢)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레이건대통령당선자(大統領當選者)는 대한방위공약(對韓防衛公約)의 준수와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에 대한 반대 및 소련(蘇聯)의 팽창에 대한 힘에 의한 저지(沮止)를 뚜렷이 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東北亞)에서 소련에 비하여 뒤지고 있는 군사력(軍事力)을 보다 강화해 갈 것이 기대되며, 앞으로 4년간은 적어도 미군철수(美軍撤收)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중단된다는 것은 아니다. 전면남침(全面南侵)이 어려워 지게 될 것이므로 북한은 간접침략(間接侵略)이나 비정규전(非正規戰) 등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전면남침(全面南侵)이 억제될 수 있는 그 기간에 자주방위능력(自主防衛能力)을 크게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중공(中共)에서의 정치적 안정(安定)이 점차로 확립되어 감으로써 대외체계(對外體系)에 보다 적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중공(中共)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숙청을 위한 재판을 진행시키고 있고 그것이 곧 결말을 보면서 정치적(政治的)인 잠재불안요인(潛在不安要因)이 있기는 하나 안정성(安定性)이 확립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공(中共)은 미(美)·일(日)과의 교류(交流)와 협력(協力)을 보다 증진시킬 것이며, 그것이 이 지역 평화(平和)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북한에 김정일(金正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強硬派)가 등장함으로써 남·북관계(南北關係)가 개선될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김정일(金正日)은 남한에서의 「혁명공작(革命工作)」에 보다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남협상파(對南協商派)가 후퇴하여 남(南)·북대화(北對話)는 쉽게 성립되기 어려우며,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생산(生産)과 성과(成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네째, 일본(日本)이 대북접근정책(對北接近政策)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일본(日本) 국민(國民)의 보수화(保守化)로의 회귀(回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日本) 정부(政府)는 자민당외석(自民黨議席)의 증가로 안정된 정부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같은 자유민주세력(自由民主勢力)이 지배하는 한국(韓國)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日本)의 새 정부는 대북접근(對北接近)을 서두르고 있어서 우리에게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경향마저 보이게 된다. 물론 일본(日本)의 대북접근(對北接近)은 미국(美國)이 북한을 승인하지 않는 한에는 한계성(限界性)을 갖게 될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분명히 부정적(否定的)인 현상(現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結言)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전반적인 면과 주변정세의 면에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우리의 안보(安保)에 대하여 부정적(否定的)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역작용요인(逆作用要因)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은 매우 장기적으로 존속되는 항수적(恒數的)인 것들을 알 수 있었다. 순기능적(順機能的)인 정세변화(情勢變化)가 있기는 하나 우리에게 시련(試鍊)을 주는 변화나 정세도 적지 않은 것이다. 실사 주변의 국제 관계가 우리에게 순기능적(順機能的)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혁명(革命)과 흡수(吸收)라고 하는 유일주의적(唯一主義的)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본질적인 상황변화(狀況變化)(평화확립(平和確立)과 평화통일실현(平和統一實現))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하(狀況下)에서는 미국(美國)과의 협력(協力)이 불가피하지만 우리 민족(民族)의 문제(問題)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결의(決意)와 의지(意志) 및 노력(努力)이 더욱 요청된다고 본다. 우리가 국제 정세의 흐름에 순응(順應)하면서도 자아(自我)에 대한 주체(主體)를 확립하여 자기존립(自己存立)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고아(國際孤兒)는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흐르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시점(時點)(80년 대 전반에 걸쳐)은 자주역량배양(自主力量培養)을 중요시하는 시점(時點)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자주역량배양(自主力量培養)을 위해서는 자결주의(自決主義)와 힘을 가지겠다는 실력주의(實力主義) 및 주인 의식(主人意識)의 민족주의(民族主義) 등을 사고(思考)의 바탕에 깔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는 민족(民族)의 장래에 떳떳한 역사적(歷史的) 존재(存在)로서 자아(自我)를 정립(定立)하고 평화적(平和的) 조국통일(祖國統一)의 주체(主體)로 등장될 수 있을 것이다.

환율(換率)과 오늘의 우리 경제(國際經濟)

왕연균(王然均)

〈경박(經博) 국제경제(國際經濟) 수석연구원(首席研究員)〉



물가의 안정(安定)은 환율(換率)의 안정(安定)을 가져올 수 있으나 환율(換率)의 안정(安定)만으로는 물가(物價)의 안정(安定)을 기할 수 없다.

1. 서언(序言)

환율(換率)은 국내통화(國內通貨)의 대외가치(對外價值) 또는 외국통화(外國通貨)의 국내통화(國內通貨)에 대한 가치(價值)를 나타낸다. 예(例)컨대 달러화(貨)의 가치(價值)는 국민(國民)의 달러화(貨)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반적(一般的)으로 달러화(貨)의 구매력(購買力)이 클수록 달러화(貨)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므로 각 통화(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은 그 통화의 대외가치(對外價值)를 장기적(長期的)으로 반영(反映)하게 된다.

1973년(年) 이후(以後) 세계 주요국들은 변동환율(變動換率) 제도(制度)를 택하여 환율이 그 실제(實勢)를 찾아 움직이도록 허용하였다. 미(美) 달러화(貨)는 일본, 독일, 스위스통화에 대하여 평가절하되어 왔으나 이태리, 영국통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세(強勢)를 보여왔다. 한국은 미(美) 달러화(貨)에 원화가치(價值)를 고정 시켜오다가 1964년(年)부터 단일변동환율제(單一變動換率制)를 채택하여 점진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나 사실상은 몇 년(年) 후(後)마다 급격한 평가절하를 단행하곤 하였다. 1974년(年) 말(末)부터는 1\$에 484원으로 묶어둔 채 1980년(年) 1월(月)까지 5년간(年間) 환율을 고정(固定)시켜 왔다. 1974~75년(年)의 제1차(第一次) 「오일」 쇼크에 의한 물가폭등, 1976~78년(年) 기간중(期間中)의 해외(海外) 건설 「붐」에 의한 해외(海外)로부터의 송금 증가 때문에 환율변경을 회피하였다. 국내 인플레이션이 해외 인플레이션보다 높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국내 상품의 수출경쟁력 상실은 수출에 대한 금융, 재정상의 지원으로 보상(報償)되어 왔다. 그리고 수입대상품(輸入對象品)이 국내 경쟁

수입품에 대하여 가지는 경쟁력이 커짐에 따라 수입 수요가 늘어남에 대처(對處)하여 수입의 직접규제(直接規制)가 계속 되었다.

1979년(年)에 실질수출이 「마이너스」 3%를 기록하고 유가(油價)의 폭등과 더불어 1980년(年)에도 수입(輸入) 단가지수(單價指數)(\$화(貨)기준)가 크게 늘어나고 수출수요의 감소, 각국 수출품 재고량의 격증에 의해서 수출 단가지수가 완만히 상승하여 무역적자가 크게 될 전망에 접하여 1980년(年) 1월(月) 정부는 복수통화군(複數通貨群)에,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 점진적 연동(連動))하는 제도로 전환(轉換)함과 동시에 미(美) \$화(貨)에 대(對)하여 약 20%의 평가절하(評價切下)를 단행(斷行)하였다. 1979년(年) 7월중(月中) 현재(現在) 적정환율(適正換率)은 당시(當時)의 환율에 비(比)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計算)되었다. 1975년(年) 환율을 기준환율로 삼고 구매력 비교에 의하여 계산(計算)한 바에 의하면 원화는 미(美)\$화(貨)에 비(比)하여 -23.0%, 일본 엔화(貨)에 대해서는 7.7% 고평가(高評價)되어 있고 10대(大) 교역국(交易國)에 대(對)하여는 31.7% 고평가(高評價)되어 있다. 위의 계산은 단순(單純)도매물가의 비교에 의한 것이며 실제 무역대상(貿易對象)이 되어 있는 교역재(交易財)의 가격을 비교한 바에 의하면 원화는 미(美)\$화(貨)에 대(對)하여 12.6% 고평가(高評價), 일본(日本) 엔화(貨)에 대하여는 1.2% 저평가(低評價)되어 있었다.

도매물가변동 비교는 적정환율(원/\$)의 상한(上限)을, 교역재물가(交易財物價)의 변동(變動) 비교는 적정환율의 하한(下限)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식료품(食料品)의 가격상승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는데 식료품은 교역재(交易財)에서 아주 작은 비중(比重)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복수통화제도로 전환하게 된 역사적 이유를 우선 들자면 다음과 같다. 원화가 미(美)\$화(貨)에 고정된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게 되어 원화의 대교역국(對交易國) 통화에 대한 가치(價値)는 부단(不斷)히 변동하게 되었으며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작아지고 일본(日本)과의 교역비중(交易比重)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별 무역다변화정책(貿易多邊化政策)이 수행됨에 따라 미(美)\$화(貨)에 고정시키는 의미(意義)가 감소되었다. 1979년(年) 총 교역량 중 대일본(對日本) 교역(交易)이 30.0%, 대미국(對美國) 교역(交易)이 26.3%를 차지하였다.

II. 복수통화연동제도(複數通貨連動制度) (Crawling Basket-Currency System)

복수통화군(群)에 연동(連動)시키는 현제도(現制度)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선 원화(貨) 가치(價値)를 복수 통화군에 고정(固定)시키는 제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바스켓통화 「페그」(고정(固定))란 원화의 대개입통화(對介入通貨) (Intervention Currency : \$화(貨)) 환율(換率)을 복수 통화군의 화폐 가치가 불화(弗貨)에 대하여 가지는 환율변동율과 같도록 움직이는 제도이다.

복수통화군(群)의 대불화가치변동율(對弗貨價値變動率)(실효(實効) 환율(換率))은 다음과 같이 수식화(數式化)할 수 있다.

$$\sum_{j=1}^n S_i (R_i / R_{bi})$$

n : 바스켓통화군의 통화수(通貨數)

S_i : i국(國)의 가중치(加重值)

R_i : 비교시점(比較時點)에 있어서 국통화(國通貨)의 \$화표시환율(貨表示換率) (\$/국(國) 통화단위(單位))

R_{bi} : 기준시점(基準時點)에 있어서 국통화(國通貨)의 \$화표시환율(貨表示換率) (\$/국(國) 통화단위)

복수통화군에 연동(連動)시킨다는 의미는 원화의 대개입(對介入)통화(\$화(貨)) 환율을 대(對)\$화가치변동율(貨價値變動率)과 같이 변동시키고 추가적(追加的)으로 국내(國內)·외(外)인플레이션(率) 차이(差異)를 감안하여 원화의 환율을 계속적, 점진적으로 변동시키는 제도이다. 즉 국내인플레이션(率)이 해외(海外)보다 빠르면 그 차이(差異)만큼 가산(加算)함으로써 원화(貨)의 평가절하폭(評價切下幅)을 크게하거나 평가절상폭(評價切上幅)을 줄이는 것이다. 복수통화군(群) 연동제(連動制)가 가지는 장(長)·단점(短點)은 다음과 같다.

장점(長點)으로는 첫째, 복수통화들의 대(對)\$화가치(貨價値)의 평균치(平均值)(즉, 실효환율(實効換率))가 상승하는 경우 원화(貨)의 대(對)\$화(貨)가치가 똑같이 상승하여 국내수출품은 전(前)과 동일(同一)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 수입업자는 전(前)과 동일(同一)한 비용으로 수입 할 수 있다.

둘째, 무역다변화(貿易多邊化)를 기할 수 있다. 예(例)를 들어서 엔화(貨)가 10% 평가절상(評價切上)할 때 「바스켓」 통화가치는 \$화(貨)에 대하여 3.3% 상승(上昇)하므로 원화의 대화(對貨)가치는 3.3% 상승(上昇)한다. (1976~78년(年) 중(中) 한국과의 총교역량의 1% 이상(以上)을 점유(占有)하는 15개국의 교역량은 총교역량의 89%, 그 중(中) 일본(日本)은 33%를 차지한다. 국내 상품은 일본상품에 대하여 경쟁력이 강하여지나 기타(其他) 국(國)들에 대하여는 동일(同一)한 정도의 경쟁력을 상실하여 대일(對日)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며 기타 국들에 대해서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세째, 경제안정(安定)에 기여한다. 복수통화군에 고정(固定)시키는 경우에는 외부의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원화의 환율을 변동시켜 국내 경제에의 파급을 적게 하고, 국내의 인플레이션 클 때에는 환율을 불변(不變)케하여 국내교역재의 가격을 교역국의 교역재가격에 가깝게 할 수 있다.

네째, 복수통화군에 연동(連動)함으로써 거래국(去來國)들의 환율변동과 국내(國內)·외(外)의 인플레이션(率) 차이를 동시에 반영 할 수 있고 대외(對外) 경쟁력을 유지 또는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점진적 지속적인 변동이므로 급격한 조정이 가지는 폐해를 피할 수 있다.

단점(短點)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가중치(加重值) 선정의 문제로서 이국간(二國間) 교역가중방법(交易加重方法) (Bilateral-Weighting Scheme)은 상품과 용역의 이국간(二國間) 거래량(去來量) 비중(比重)에 따른다. 단기(短期)(주(週), 월(月)) 교역재(交易財) 가격의 변동폭(變動幅)(Variance)은 교역의 계약통화(契約通貨)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단기(短期)에 가격안정과 환차(換差)의 감소를 위해서는 계약통화의 비중도 고려되어야 된다.

둘째, 효과적(效果的) 운용(運用)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예(例)컨대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육성(育成)(예약환시장(豫約換市場) 포함)과 거래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情報) 및 전문인(專門人)이 필요하다.

셋째, 원화의 평가절하(評價切下)는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정부에서는 어떤 통화들이 복수통화군(群)에 속(屬)하는지, 그 통화들이 가지는 가중치(加重值)가 어떤지, 그리고 내(內)·외(外) 인플레이율(率)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 시키는데, 환율변동폭(幅)의 「마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힌 바 없다.

가중치(加重值)를 시산(試算)하여 보자면 교역(交易)의 중요성과 결제통화(決済通貨)로서의 미(美)\$화(貨)와 엔화(貨)의 비중(比重)을 고려하여 두 통화에 70~80%의 가중치(加重值)를 주고 나머지 30~20%를 기타 통화에 할당하는 것이 한 예(例)가 될 수 있다. 표(表) 1에서는 무

〈표(表)1〉 독자적(獨立的) 통화 바스켓의 시산(試算)

통화 바스켓에서의 각 통화의 가중치(加重值) 예(例)

국별(國別)	대한교역가중치(1) (對韓交易加重值)(1)	무역 결제(決済) 통화가중치(비중(比重))		조정후가중치 (調整後加重值)
		수입(收入)	지급(支給)	
미국(美國)	26.3	98.5	94.3	50
일본(日本)	30.1	0.1	1.2	20(30)
사우디	7.3	0	0	8.4
서독(西獨)	4.2	0.4	2.3	4.9
쿠웨이트	4.2	0	0	4.8
영국(英國)	2.3	0.8	0.6	2.6
캐나다	2.2	0	0	2.5
호주	2.1	0	0	2.4
인도네시아	1.9	0	0	2.2
프랑스	1.9	0	0	2.2
계(計)	84.3	99.8	98.4	100.0

주(註) (1) 1976~78년간(年間) 교역량(交易量)에 대(對)한 비중(比重)

역량(量)에 의한 가중치(加重值), 무역결제(決済)통화 가중치(加重值), 그리고 두 가치를 감안한 조정후(調整後) 가중치(加重值)를 예(例)로써 보였다. 계산의 간편성을 위해서 \$, 엔, 마르크를 1/3씩 포함하는 최소(最少) 「바스켓」(「미니 바스켓」)을 생각할 수도 있다.

IMF 회원국(會員國)들의 환율정책현황을 보면 현재 1개국통화(個國通貨) 및 SDR에 고정(固定) (Peg)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전부 일차상품(一次產品) 수출형 구식민지(舊植民地)들이다. SDR 이외의 통화군(通貨群)에 고정시키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개방선진국(開放先進國) 및 키프러스, 말레이시아, 말타, 싱가포르, 태국(泰國) 등(等)의 선발개도국(先發開途國)을 포함한다. 복수통화군에 연동(連動)하는 제도는 78년(年) 현재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알젠틴, 칠레, 이스라엘, 우루구아이의 7개국(個國)이 채택하고 있으나 79년(年)까지 사이에 후고(後考) 5개국(個國)이 탈락하고 포르투갈이 새로 시작하였다. 그 외는 유럽통화제도(EMS군(群)), 자유변동제(自由變動制) 등(等)이 있다. \$화(貨)의 가치가 크게 변동함에 따라 복수통화군에 고정(固定) 또는 연동(連動)시키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III. 평가절하(評價切下)의 효과(效果)

원화의 평가절하는 일차적(一次的)으로 국산품(國產品)의 \$화표시(貨表示)가격을 평가절하폭(評價切下幅)만큼 낮게 하고 외국상품(外國商品)의 원화표시 가격을 평가절하폭(評價切下幅)만큼 높게 하기 때문에 수출을 증진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킨다.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생산 비용상승에 의해서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며 수요측면에서는 수출의 증가에 의하여 수요 증가 때문에 가격 상승의 압력이 있게 된다. 수입품을 원료로 많이 사용하는 물건일수록 가격상승은 환율인상에 민감하게 움직이며 수입품과 관련 없는 국산품도 어느 정도 시차(時差)를 두고 다른 상품의 가격상승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게 마련이다. 생산의 증가는 투자와 소비증가를 통하여 고용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의 수입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필자의 계량 모형에 의한 모의실험(模擬實驗)(Simulation)을 통하여 환율의 평가절하가 미치는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年代)의 우리 경제의 경험을 토대로 하였다.

첫 해에 5%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다음 해부터는 역사적(歷史的)인 실제환율의 변동률과 같이 하는 경우에 그 효과는 첫해부터 시작하여 수년(數年)에 이르게 된다. 환율변동이 없었던 경우와 변동이 있었던 경우의 두 가지 경제변수들의 경로(經路)를 비교하여 (환율변동성 후(後)의 값 - 환율변동이 없을 때의 값) × 100 ÷ (환율변동이 없을 때의 값)을 구하였다. 이러한 백분비(百分比)를 승수(乘數)라고 부른다. 표(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매물가는 첫 해 1.8%, 둘째 해에 2.5%, 세째 해에 3.0% 인상(引上)을 갖게 되며 이는 GNP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보다 약간 높은 변화이다. 둘째 해와 세째 해에 등기율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둘째 해의 순효과(純效果) 0.7%, 세째 해의 순 효과 0.5%가 누적적으로 승하여지기 때문이다. 수입 가능재(可能財)물가 변화는 대부분 첫해에 실현되지만 수출 가능재(可能財)물가는 임금증가를

통하여 첫 해 이후에도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며 주요한 효과는 첫 3년(年) 내(內)에 실현된다. 실질 GNP는 첫 해에 약 1% 증가하며 경상수출(\$화가격(貨價格))은 첫 해에 0.8%, 3년(年)째에는 1.5%의 차이를 나타낸다. 경상수입(\$화(貨)가격)은 초기에 1.2%, 차기(次期)에 1.5% 감소하나 3년(年)째부터 감소율이 차차 작아진다.

GNP의 증가로 인해서 원자재(原資材)(SITC 2와 4로써 좁은 의미의 원자재)와 석유류의 경상수입은 증가하고 제조품과 기타 원자재의 수입은 감소한다. 고용량은 0.3%에서 0.7%까지 증가하며 각 부문의 부가가치는 증가를 보여준다. 건설, 전기, 가스부문의 부가가치는 변화가 거의 없으며, 섬유·중화학부문은 1.2%~1.8% 증가를 보인다. 용역(用役)수출입은 모두 약간 감소하며 정부 세입은 첫 해에 5.2% 증가한다. 불변(不變)가격에 의한 재화, 용역의 수출은 첫 해부터 3년(年)째까지 1%에서 2%까지 증가하나, 재화, 용역의 수입은 첫 해와 둘째 해에 0.5%와 1.2% 감소를 보인다.

〈표(表) 2〉 변수설명(變數說明)과 5% 평가절하(評價切下)의 효과분석(效果分析)

- PG : GNP디플레이터
- PW : 도매물가지수
- PG : 소비자물가지수
- PR : 원재료 도매물가지수
- PNFX : 비(非)식료품수출 가능재(可能財)의 도매물가지수(1975년(年))
수출구성비로 가중평균(加重平均))
- PNFM : 비(非)식료품 수입가능재(可能財)의 도매물가지수(1975년(年))
수입구성비로 가중평균)
- PXG : 상품수출 디플레이터
- PMG : 상품수입 디플레이터
- WR : 월임금율(月賃金率)(전산업(全産業))
- GNP : 국민총생산(불변(不變)가격)
- XG\$: 상품수출(경상\$)
- MG\$: 상품수입(경상\$)
- M2, 4\$: SITC 2, 4(원자재) (경상\$)
- M3\$: SITC 3(석유류) (경상\$)
- M59\$: 기타 수입(식료품과 위의 원자재, 석유류 제외), (경상\$)
- EMP : 고용량(전(全)산업)
- IO1 : 농림수산업 부가가치(불변(不變)가격)
- IO2 : 광업 부가가치(불변(不變)가격)

- IO3 : 식음료(食飲料)공업 부가가치 (불변(不變)가격)
- IO4 : 섬유공업 부가가치 (불변(不變)가격)
- IO5 : 기타 경공업 (가구, 종이, 도자기, 유리, 인쇄 등) (불변(不變)가격)
- IO6, 7, 8 : 화학, 금속, 기계공업 부가가치 (불변(不變)가격)
- IO9 : 건설, 전기, 가스업(業) 부가가치(불변(不變)가격)
- IO10 : 서비스업 부가가치 (불변(不變)가격)
- XS\$: 용역수출 (경상가격)
- MS\$: 용역수입 (경상가격)
- REVW : 일반정부(一般政府)수입 (경상 10억원)
- XGS : 재화와 용역의 수출 (불변(不變)가격)
- MGS : 재화와 용역의 수입 (불변(不變)가격)

(첫 해 5% 평가절하한 효과)

(단위(單位) %, △ : 변화율(變化率))

	△PG	△PW	△PC	△PR	△PNFX	△PNFM	△PMG	△PXG	△WR	△GNP	△XG\$
첫 해	1.68	1.81	1.17	2.92	2.02	2.40	4.41	3.61	2.11	0.95	0.81
두째해	2.07	2.46	1.76	4.08	3.05	2.72	4.51	3.70	2.37	0.76	1.15
세째해	2.28	2.95	2.23	4.75	3.63	2.75	4.54	3.82	2.99	0.99	1.50
네째해	2.64	3.20	2.60	5.01	3.91	2.92	4.48	3.89	3.51	1.19	1.61
다섯째해	2.83	3.46	2.76	5.15	4.23	3.08	4.73	4.12	3.75	1.23	1.91

	△MG\$	△M3\$	△M24\$	△M59\$	△EMP	△IO1	△IO2	△IO3	△IO4	△IO5
첫 해	-1.18	1.37	0.40	-1.65	0.28	0.68	1.14	0.59	1.44	0.87
두째해	-1.51	1.04	0.20	-1.90	0.35	0.34	1.03	0.38	1.24	0.75
세째해	-0.93	1.60	0.69	-1.17	0.38	0.54	1.29	0.68	1.60	1.01
네째해	-0.28	2.08	1.12	-0.56	0.46	0.74	1.39	0.94	1.92	1.26
다섯째해	-0.12	2.26	1.34	-0.58	0.50	0.72	1.55	0.80	1.82	1.16

	△678	△IO9	△IO10	△XS\$	△MS\$	△REVW	△XGS	△MGS
첫 해	1.83	0.17	0.54	-1.64	-0.59	5.16	1.02	-0.54
두째해	1.46	-0.19	0.50	-1.08	-0.77	5.40	1.60	-1.20
세째해	1.53	-0.13	0.78	-0.74	-0.46	5.90	1.94	-0.84
네째해	1.38	-0.07	1.02	-0.36	-0.08	5.99	2.25	-0.30
다섯째해	1.52	-0.17	1.04	-0.15	-0.15	6.56	2.31	-0.69

IV. 결론(結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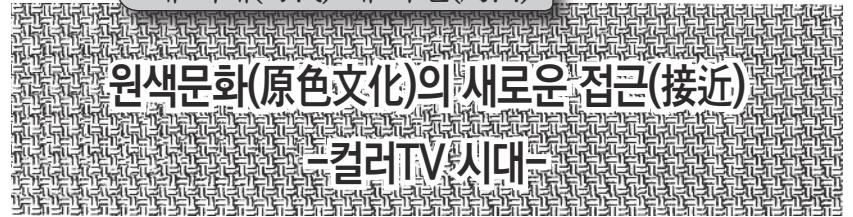
원화가치를 \$화에 고정(固定)시키는 경우에는 교역 상대국들의 통화가 \$화(貨)에 대(對)하여 무단히 변동함에 따라 교역국 통화들에 대한 원화가치도 똑같이 변동하여 대외거래(對外去來)의 불안정과 위험이 크게 따른다. 교역국통화(交易國通貨)에 대한 원화가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복수통화군(群)이 \$화(貨)에 대하여 변동하는 만큼 원화의 대(對)\$화가치(貨價値)를 변동시키면 된다. 그 결과로는 교역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불변(不變)하게 되고 수입 비용 역시 불변(不變)하게 되어 무역이 안정되고 무역의 다변화(多邊化)에 도움이 된다. 수입 비용이 안정적 이므로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미(美)·일(日), 구주공동체, 사우디 등(等) 주요(主要) 거래국통화(去來國通貨)들에 대한 가중치(加重値)가 적절히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화(貨)는 결제(決濟)통화로써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무역량이 가지는 비중(比重)보다 더 큰 가중치(加重値)를 가져야 한다.

해외 인플레이션보다 국내 인플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국산수출품이 가지는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차이만큼 원화의 평가절하를 도모할 수 있다. 적정환율의 유지는 무역의 자유화(自由化)를 위한 선결요건(先決要件)이다. 지나친 수출지원을 피할 수 있고 수입의 자유화(自由化)를 동시에 도모하며 관세 인하도 병존시킬 수 있다. 더우기 국내자원배분의 효율화(效率化)에 큰 도움을 준다.

국내생산성의 증가로 인하여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출경쟁력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의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때에는 교역재물가의 비교가 좋은 지표(指標)가 된다.

변동환율제의 채택에 따라 투기(投機)와 환차환(換差換)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물환(先物換)(예약환(豫約換)) 시장(市場)을 활성화(活性化)하여야 한다. 선물환시장(先物換市場)의 활성화(活性化)를 위해서는 정부가 환율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期待)를 안정(安定)시켜야 한다. 향후(向後) 6개월(個月) 또는 1년간(一年間) 몇%의 평가절하가 예상되는가를 미리 발표하고 이 기대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여야 선물(先物)이 매입(買入)뿐 아니라 매각(賣却)도 발생할 것 이다. 예(例)컨대 10% ± 2% 또는 7% ± 2%로 미리 공포하여야 이에 준(準)하는 선물환가격(先物換價格)이 형성되고 거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포(公表)된 가격보다 선물환을 약간 높은 가격에서 매매하는 것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

물가만을 생각하고 환율을 고정시키는 것은 결국 대폭적인 환율변경을 자초(自招)하고 자본이득을 노리는 단기자본을 유입시키며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자금의 배분(配分)에 큰 무리를 가져온다. 물가의 안정은 환율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환율의 안정만으로는 물가의 안정을 기할 수 없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환율의 변동폭(變動幅)에는 매일(每月) 일정(一定)한 「마진」 이상(以上) 변동하지 않도록 매우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최창섭 (崔昌燮)

〈서강대(西江大) 신문방송학과(新聞放送學科) 교수(教授)〉



이제 컬러 TV 시대(時代)를 맞이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채색(彩色)된 TV가 아닌 생명력(生命力) 있는 “채색 문화(色彩文化)의 창조(創造)” 바로 그것이다.

I. 서론(序論)

1980년(年) 12월(月) 1일(日)! 원색문화(原色文化)의 막(幕)이 오른 날이다. 다시 말해 컬러 TV방영(放映)의 시작(始作)과 함께 채색문화(色彩文化)가 우리 생활(生活)의 일부(一部)로 밀착(密着)하기 시작(始作)한 역사적(歷史的)인 순간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25년전(年前)인 1956년(年) 5월(月) 12일(日)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흑백 TV가 방영(放映) 될 당시(當時) 미국(美國)의 RCA사장(社長)인 조셉·밀러씨(氏)는 한국(韓國)에도 곧 “컬러 TV시대(時代)가 온다”고 예언(豫言)한 바 있다. 그 후 TV방송(放送)은 질량적(質量的)인 면(面)에서 발전(發展)을 거듭하여 바야흐로 밀러씨(氏)의 예언대로 컬러 TV시대(時代)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본래(本來) 우리 나라는 1956년(年) 당시(當時) 세계(世界)에서 17번째로 TV방송(放送)을 시작(始作)하게 된 나라로 RCA 한국지점(韓國支店)과 수상기수입업자(受像機輸入業者)의 합작(合作)으로 된 KORCAD가 바로 기원(起源)이 된다. 그러나 1959년(年) 2월(月) 10일(日) 화재로 시설일체(施設一切)를 소실당하고 주한(駐韓) 미군방송국(美軍放送局)인 AFKN의 시설을 통해 저녁에 30분(分)씩 방영(放映)하다가 마침내 1961년(年) 10월(月) 15일(日) 부터 중단(中斷)이라는 고비를 맞기도 했다. 그 후 5·16을 거치면서 1961년(年) 12월(月) 31일(日)을 기(期)하여 KBS-TV인 서울 텔레비전방송국(放送局)을 발족(發足)시켰으니 이것이 곧 국영(國營) 텔레비전 방송국(放送局)의 효시(嚆矢)로서 채널 9로 등장하였다. 그 후 1964년(年) 12월(月)에 들어서면서 상업방송인 동양(東洋) 텔레비전방송(放送)(DTV)이 서울과 부산(釜山)에서 각

각(各) TV방영(放映)을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에 다시 문화(文化)(서울)·영남(嶺南)(대구(大邱))·문화(文化)(부산(釜山))·남양(南陽)(청주(淸州)) 등(等)에 방송국(放送局)이 생기면서 우리 나라에도 본격적(本格的)인 TV문화(文化)가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방송초기(放映初期)에는 사치품으로 취급되었던 TV수상기가 이제는 생활(生活)필수품 내지는 기호품으로 변(變)하였으며 1979년(年) 말(末) 현재(現在)로 우리 나라 TV수상기 보급대수가 6백만대 (80년 현재 비공식통계는 6백 2십만대)에 육박하기에 이르면서 전국적(全國的)으로 TV의 가구수 보급률이 79.27%에 이르게 되었다. 대당가구수는 1.3이고 대당인구수는 6.3명(名)이며 전국적(全國的)인 분포상황을 보면 역시 서울이 26.6%로 전체(全體) TV수상기의 ¼ 이상(以上)이 서울에 편중·분포(分布)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6백만대라는 흑백 TV수상기와 2십만대 (비공식통계) 라는 컬러 TV수상기 보급현황을 배경으로 지난 8월(月)부터 컬러 TV수상기의 국내시판(國內市販)이 시작(始作)되었고 아울러 흑백시청(黑白視聽)도 가능(可能)한 양립성(兩立性)을 띤 미국식(美國式)의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方式)에 따른 컬러방영(放映)이 허용(許用)될 것이라는 정부(政府)의 발표(發表)에 따라 금년(今年) 하반기(下半年)부터 방송위(放送委)는 시설·기재·제작기법(製作技法) 등(等) 제반(諸般) 측면(側面)에서 나름대로의 시설준비와 연수(研修)를 포함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加)하여 왔던 것이다.

실제 컬러 TV방영(放映) 기준을 GNP 1천 달러 이상(以上)과 연간(年間) TV수상기 공급능력 1백만대 이상(以上)으로 본다면 이미 우리 나라는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을 조성(造成)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物理的)인 여건보다는 소비(消費) 및 사치성향 조성(造成) 등(等) 경제(經濟)·사회(社會)·심리(心理)·문화적(文化的) 제반(諸般) 측면(側面)의 복합적 요인(要因)으로 인(因)해 컬러 TV방영실현(放映實現)을 이제까지 늦추어 왔던 것이다.

즉(卽) 우선 경제적(經濟的)인 측면(側面)을 본다면 에너지절약과 소비절약이라는 대전제(大前提)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컬러화(化)에 따른 수상기의 대체비용은 물론(勿論)이러니와 컬러수상기의 전기(電氣)소비량이 흑백(黑白)수상기에 비(比)해 1.8배이며, 프로그램의 컬러화(化)에 따른 시청시간의 증대, 제작비(製作費)의 상승, 광고(廣告) 효과(效果)의 증대에 따른 소비 풍조 조장, 방송국측의 시설·기재 대체비용의 증대 등(等)이 문제(問題)가 되어 왔다.

게다가 컬러 TV구입이 가능(可能)치 못한 일반서민들이 갖게 되는 위축감도 크게 대두되어 왔다.

이와 같이 소비절약에 역행(逆行)하고 가진 자(者)와 갖지 못한자(者) 사이의 양극화(兩極化) 현상을 초래할 컬러 TV의 시기상조론(時機尙早論)을 펴는 쪽의 견해를 염두에 두면서 컬러화(化)의 장점(長點)과 긍정적(肯定的)인 측면을 신중히 발전(發展)시키려는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인 방송계(放送界)의 내적(內的) 노력(努力)이 요구(要求)된다. TV의 컬러화(化)는 새로운

기술(技術)의 도입(導入)이라는 측면(側面)에서 분명(分明)히 어떤 갈등을 던져주고 있으며 이 갈등이란 발전(發展)을 위(爲)한 불가피한 과정임에 틀림없다. 이 과정 속에서 시련을 통(通)한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색채문화(色彩文化)에 신중하게 접근(接近)하려는 생산적(生產的) 노력(努力)의 자세가 범(汎) 방송계적(放送界)인 차원(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I. 컬러 TV란?

TV의 컬러화(化)는 자연성(自然性)을 추구하려는 인간(人間) 본래(本來)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연현실(自然現實) 속의 색채(色彩)를 있는 그대로 담지하여 피부로 느끼고자 하는 본능적(本能的) 발로에 기인한다. 인간(人間)이 자연미(自然美)를 있는 그대로 추구하려는 경향(傾向)은 전세계적(全世界的)인 TV의 컬러화(化) 현상에서도 볼 수 있다. TV를 이미 컬러화(化)했거나 준비 중인 나라가 TV보유국 1백 6십여개국 중 90여개국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컬러 TV가 총천연색은 아니다. 즉(卽), 육안으로 보듯 자연색(自然色) 그대로도 표현(表現)할 수 있는 기술(技術)은 아닌 것이다. 컬러 TV란 흑백(黑白) TV의 기술(技術)에 다 적(赤)·청(靑)·녹(綠) 삼광색(三光色)의 수단(手段)을 통(通)해 색상(色相) 이미지를 재생(再生)시키는 하나의 종합예술(結合藝術) 또는 기술(技術)이라고 할 수 있다.

컬러 카메라는 광학적(光學的) 이미지를 적(赤)·청(靑)·녹(綠)의 신호(信號)로 바꿀 수 있는 빛 분해 광학(光學) 시스템을 이용(利用)한 3개의 촬상관(攝像管)(Pick-up Tube)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상(映像)의 질(質)을 향상(向上)시키기 위해 4개의 촬상관을 이용(利用)하고도 있다. 3원색(原色)에 따라 분리된 색(色)이 안방의 TV화면에 나타날 때는 흑백 TV처럼 잘 조화(調和)되어 재생(再生)되며, 이를 위(爲)해 컬러 시스템에서는 기호화(Encoding)와 해독(Decoding)의 문제(問題) 및 행렬화(行列化)(Matrixing), 주파대 형성(Band-Shaping), 이상변조(二相變調)(Two-Phase Modulation), 주파수 혼조(Frequency Interlace) 등(等)에 따른 기술(技術)이 전제(前提)된다.

따라서 컬러 TV는 새로운 세계(世界)라기 보다는 일면(一面) 오히려 흑백(黑白) TV의 기술적(技術的) 연장(延長)이라고 할 수 있다. 단(但) 흑백(黑白)의 연장(延長)이되 단순(單純)히 컬러라는 옷을 입힌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생명력(生命力)을 불어 넣어주는 신중한 작업(作業)을 요(要)한다. 즉(卽), 컬러 TV는 한 마디로 색(色)의 문화(文化)를 창조(創造)하며, 색(色)은 흑백(黑白)의 인공적(人工的)인 영상을 현실화(現實化) 시키며 컬러는 무색(無色)의 문화(文化)를 유색(有色)의 문화(文化)로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임을 인식(認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컬러 TV는 인간(人間)의 사고(思考)와 생활(生活)환경 및 문화양식의 일대변혁(一大變革)을 초래하는 매개체로서 신중하고도 새로운 접근의식(接近意識)이 절대적으로 필요시(必要視)된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컬러 TV방영(放映)이 시작(始作)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變化)는 어떠한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떠한 변화(變北)가 예상되고 있는가?

III. 예상되는 변화(變化)현상

우선 물리적(物理的)인 현상으로 컬러 TV수상기의 구매율이 급증되고 있어 심지어는 일시적(一時的)으로 수상이 품귀소동까지 일고 있다. 이는 곧 흑백(黑白) TV에 비(比)해 컬러방영(放映)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關心)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청시간의 증대와 시청자의 증가와 직결(直結)되며 동시(同時)에 여가이용 구조상의 변화(變化)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텔레비전 매체(媒體)에 대한 수용량(受容量)의 증가는 보다 많은 고급문화(高級文化) 및 대중문화(大衆文化)의 접촉과 수용(受容)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文化)의 확산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컬러 이미지로 재현(再現)된 메시지는 보다 생생한 현실자체(現實自體)를 전달(傳達)함에 따라 심리적(心理的) 및 심미안적(審美眼的)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며 아울러 이같은 컬러의 영향력은 메시지의 소구력(訴求力)을 증대시켜 TV의 매체가치(媒體價值)가 매우 상승되리라 예견된다.

또한 컬러 텔레비전은 국민(國民)의 색채감각(色彩感覺)에 영향을 주어서 색채(色彩)·문화(文化)에 대한 안목(眼目)이나 수용능력(受容能力)을 개선(改善)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자체(生産自體)에도 변화(變化)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예(例)를 들어 의상(衣裳)이라든가 화장술(化粧術)·주택(住宅)·가구(家具)·실내(室內)장식·커튼색깔 및 심지어는 시중(市中)의 대소간판(大小看板)에 이르기까지 정선(精選)되고 미화(美化)되며 다양화되고 세련될 것이 예상된다.

광고(廣告)의 측면(側面)에서도 변화(變化)가 예견된다. TV의 컬러화(化)에 따라 컬러광고(廣告)는 시청자의 소비적(消費的) 구매욕(購買慾)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광고주(廣告主)의 입장(立場)에서는 큰 매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現在)도 TV 광고(廣告)의 대중(大宗)을 이루고 있는 식품(食品)·음료·화장품류(類)의 TV선호도(選好度)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런 점에서 TV의 광고수입(廣告收入)은 증가될 것이다. 이는 동시(同時)에 소비자의 과다부담이라는 결과(結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면(反面) 경제적인 측면에서 컬러 TV 수상기의 국제시장 개척이 활발해지면서 수출이 활발해지고, 이에 관련된 제반 전자산업이 크게 성장(成長)함으로써 고용증대의 효과(效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제작적(製作的)인 측면에서의 질적향상(質的向上)을 통(通)해 국제적인 컬러 프로그램의 교환 및 수출도 활발해지리라 전망(展望)된다.

한편 텔레비전의 컬러화(化)는 영화산업이나 잡지를 포함하는 출판계(出版界) 등(等) 타매체(他媒體)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즉(卽), 영화산업은 텔레비전 영화와 경쟁하고, 텔레비전으로 빼앗길 수도 있는 수용자(受容者)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필연적(必然的)으로 영화의 장점(長點)인 심미성과 예술성(藝術性)이 높은 작품(作品)을 제작(製作)해야 할 것이다. 컬러 TV의 도전으로 영화계가 일시적으로는 시련기에 접어들게 되었으나 결국(結局)은 컬러 TV와 상호보완적(相互補完的)이고 의존적(依存的)이고 호혜적(互惠的)인 입장(立場)에서 공존(共存)과 협조(協助)의 길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는 양매체(兩媒體)의 발전(發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잡지를 비롯한 인쇄매체(印刷媒體) 또한 텔레비전 컬러에 익숙해진 수용자(受容者)의 색깔에 호응기 위한 세심한 노력(努力)과 변화(變化)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變化)는 긍정적(肯定的)인 측면(側面)에서 새로운 색채문화(色彩文化)뿐만 아니라 내용상(內容上)의 불가피한 변화(變化)도 수반하게 마련이다.

이 외(外)에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컬러화(化)로 어린이와 청소년(靑少年)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어 교육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의 순(順)기능적 효과성(效果性)은 물론이려니와 반면(反面) 비행(非行)이나 범죄에 대한 역기능적(逆機能的) 측면의 영향력도 증가할 가능성(可能性)도 다분히 내재(內在) 되어 있다.

또 컬러 프로그램에서 묘사될 호화로운 쇼프로나 무대, 부유층의 생활환경에 대한 컬러묘사 등(等)은 이른바 기대 수준과 현실(現實)과의 괴리현상을 극대화(極大化)하여 심리적(心理的) 좌절감이나 빈부간의 격차의식을 고조(高潮)시킬 수도 있다.

이상(以上)과 같은 개개(個個)의 제반(諸般) 예견되는 변화사항(變化事項)은 전체적(全體的)인 효과(效果)로서 대중(大衆)시청자의 물리적(物理的), 정신적(精神的) 생활(生活)양식에 직(直)·간접적(間接的)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이러한 영향 내지는 변화(變化)의 방향(方向)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할 것인가는 방송(放送)을 내다보는 측(側)과 수용(受容)하는 측(側) 모두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그 결과(結果)는 순기능적(順機能的) 측면(側面)과 역기능적(逆機能的) 측면(側面)을 공유(共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역기능적(逆機能的) 측면을 극소화(極小化) 시키고 순기능적(順機能的) 측면을 극대화(極大化)시켜 전자문명(電子文明)의 꽃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컬러 TV를 현대문명(現代文明)의 이기(利器)로서 우리 발전(發展)을 위(爲)해 활용(活用)할 수 있겠는가?

IV. 새로운 접근(接近)의 방향(方向)과 과제(課題)

첫째, 방송계(放送界)는 컬러화(化)를 계기로 우선 무엇보다도 새로운 방송이념(放送理念)의 설정(設定)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면(一面) 지금 우리의 TV는 컬러화(化) 못지 않게 시청자 대중(大衆)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주는 방송(放送)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히 TV에 색채(色彩)웃을 입혀 “우리도 컬러 TV를 갖고 있다”는 피상적(皮相的) 의식의 형성(形成)에 앞서 어떻게 프로그램에 활력소(活力素) 내지는 생명력(生命力)을 불어넣어 공익(公益)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좀 더 나은 메시지를 좀 더 나은 제작기법(製作技法)을 통(通)해 대중(大衆)의 이익(利益)·편의·필요성(必要性) 충족(充足)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념설정(理念設定)이 앞서야 한다. 경영진에서부터 제작진(製作陣)에 이르기까지 컬러 방영(放映)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다짐해보는 기본적 자세가 절실(切實)하게 요구(要求)된다.

둘째, 색(色)에서 시작(始作)해 색(色)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 컬러 TV방영(放映)에 따른

색채(色彩)에 대한 광범하고 전문적(專門的) 연구(研究), 특(特)히 우리 국민의 피부색에 맞는 스킨-톤(Skin Tone)과 한국인(韓國人)의 기호색(嗜好色) 개발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세제, 컬러의 도입(導入)에 따라 새로운 편성(編成)·제작(製作)의 아이디어가 개발되어 그 폭(幅)을 넓혀줌으로써 시청자의 주의집중(注意集中)을 더욱 강력(強力)하게 해주며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內容)이 주는 영향력이 더 강(強)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특(特)히 호화무대를 배경으로 하는 쇼 프로그램 류(類)와 폭력적 내용(內容)을 주제(主題)로 하는 수사물 등(等)의 제작(製作)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소품(小品)이나 소도구(小道具)·대도구(大道具)·무대설정·출연자의 의상에 이르기까지 더욱 철저한 검토를 거쳐 청소년을 선정적으로 자극하거나 서민층 시청자의 위화감을 조성(造成)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네제, 컬러 방영(放映)을 계기로 TV는 대중(大衆)의 문화적(文化的) 에너지를 정확(正確)히 파악하여 프로그램 제작(製作)이 이윤(利潤)의 극대화(極大化)나 최대공약수적(最大公約數的)인 시청자 획득이 아니라 문화적(文化的) 가치추구(價值追求)라는 명제(命題)를 확고(確固)히 해야 한다. 만일(萬一) 컬러 TV가 흑백(黑白) TV 시대(時代)에서처럼 계속 심불조작을 통(通)해 허구적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대중을 이미 완성(完成)된 틀 속에 집어 넣어 일방적(一方的)으로 문화(文化)가 아닌 상품(商品)을, 향유(享有)가 아닌 소비(消費)만을 강요한다면 대중(大衆)의 건전한 욕구충족은 극(極)히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① TV 매체(媒體)는 방송(放送)과 시청자간(間)의 쌍방(雙方)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수립해야 하며, ② 시청자의 수준을 과소평가하기 보다는 과대평가 함으로써 편성(編成)기준이 언제나 시청자보다 적어도 반(半)발짝 앞서야 할 것이며, ③ 시청자 조사는 수량적(數量的)인 단편적이고 평면적(平面的)인 지수(指數) 뿐만 아니라 감상적인 지수면(指數面)도 중요시(重要視)해야 하며 ④ 문화(文化)·예술적(藝術的) 내용(內容)을 취급함에 있어서 외형적(外形的)이고 유형적(有形的)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내용적(內形的)인 무형(無形)의 지혜(智慧)와 “얼”을 통(通)해 대중(大衆)이 문화(文化)의 창조적(創造的) 기능(機能)과 활용자적(活用者的) 기능(機能)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確立)해 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TV가 진정(眞正)한 공익성(公益性)을 띤 매체(媒體)이기 위(爲)해서는 매체(媒體)가 속한 그 사회(社會)를 보는 일정(一定)한 안목(眼目)과 철학(哲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個人)이나 조직적인 차원(次元)에서 가치체계가 혼미해 있는 도덕적인 규범(規範) 부재(不在)의 상태를 재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TV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개인(個人)과 가정, 사회(社會)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를 사회(社會)·교육(教育)·경제적(經濟的) 측면(側面)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정보(情報)와 교양을 제공(提供)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다원주의시대(多元主義時代)에서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을 심어준다는 차원(次元)에서 TV는 인간관계(人間關係)의 형성(形成)에 새로운 처방을 제시(提示)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각기(各其) 프로그램마다 분명(分明)한 자기목적(自己目的) 설정(設定)에 따라 초점을 분

명(分明)히 맞춰가야 함이 요청(要請)된다. 즉(卽) TV는 사회화(社會化)의 강력(強力)한 도구(道具)로서 순기능(順機能)을 십분 발휘해야 함을 재인식(再認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방송인(放送人)의 창의성(創意性)·융통성·전문성(專門性)·생동성(生動性)을 고양시킬 제도적(制度的) 보완작업(補完作業)을 서둘러야 하겠다.

일곱째, 이와 같은 TV의 중차대한 사명감(使命感)과 책임성(責任性)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전면(全面) 컬러 방영(放映)을 서두르기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실현방안(方案)을 검토하여 졸속주의에 따르는 시행착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즉(卽), 현재 위축되어 있거나 시청자로부터 일반적으로 외면시(外面視)되고 있는 사회교양프로그램이나 교육(教育)프로와 제작비(製作費)가 적게 드는 스포츠·뉴스 프로그램 등(等)부터 정책적(政策的)인 차원(次元)에서 부분적(部分的)인 컬러화(化)를 실현(實現)시켜 질적(質的)·내용적(內容的)인 향상(向上)을 꾀하는 방안(方案)이 바람직 하겠다.

또한 현실적(現實的)으로 이미 늦은감이 있으나 공(公)·민영(民營)이 동시(同時)에 컬러화(化)를 시도하기보다는 공영방송(公營放送)부터 단계적으로 컬러방영(放映)을 시도함으로써 방송(放送)의 계도적(啓導的)·교육적(教育的) 기능(機能)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끝으로 전면(全面) 컬러방영(放映)이 실현(實現)되기까지의 과정은 실(實)로 지속적인 실험과 보완(補充) 작업(作業)을 요(要)하며, 이에 대비한 철저한 연구(研究)와 충분(充分)한 사전(事前)준비가 선행(先行)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특(特)히 색채학(色彩學)의 연구(研究), 기술(技術)·제작(製作) 분야(分野)의 단계적인 연수(研修) 등(等)이 장(長)·단기적(短期的) 차원(次元)에서 계획·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各) 방송국(放送局) 차원(次元)에서 컬러화(化)의 기본 방향설정(方向設定)과 컬러방영(放映)을 효과적(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爲)한 특별연구(特別研究) 위원회(委員會)나 추진위원회(推進委員會)가 설치되어 컬러화(化)에 따른 새로운 조직과 인력(人力)관리, 자원(資源)의 합리적(合理的) 운영방안(運營方案)이 과학적(科學的)이고 체계적(體系的)으로 연구(研究)·검토(檢討)되어야 한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단순히 채색(彩色)된 TV가 아닌 생명력(生命力) 있는 색채문화(色彩文化)의 창조(創造)인 것이다.

미·소(美·蘇) 군사전략(軍事戰略)의 새로운 국면(局面)

최 영 (崔榮)

〈정박(政博) 외교안보연구원(外交安保研究院) 교수(教授)〉



소련(蘇聯)은 군사력(軍事力)을 증강(增強)함에 따라 미국(美國)의 결의(決意)를 시험(試驗)하고자 보다 커다란 위험(危險)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른다.

1. 변천(變遷)하는 소련(蘇聯)의 군사전략(軍事戰略)

미국(美國)과 소련(蘇聯)이 공(共)히 1960년대 후반(後半)부터 전쟁한정(戰爭限定)의 의사(意思)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서방측(西方側)으로 볼 때에는 환영할 만한 것이었으나, 소련(蘇聯)은 아주 다른 의미(意味)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정전쟁론(限定戰爭論)은 비핵소규모전(非核小規模戰)이 핵(核)의 공포(恐怖)에서 해방(解放)되었다는 것을 의미(意味)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또한 1950년대 중엽(中葉)에 미국(美國)의 핵위협하(核威脅下)에 포기(拋棄)할 수밖에 없었던 정통(正統)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에로의 복귀가능성(復歸可能性)도 의미(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련(蘇聯)의 유연반응전략(柔軟反應戰略)에로의 전환(轉換)이 초래한 소련(蘇聯) 내(內)의 일련(一聯)의 새로운 변화(變化) 중에서 가장 주목(注目)할만한 것은 소련(蘇聯)의 전쟁론(戰爭論)의 변화(變化)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전쟁론(主義戰爭論)이 50년대(年代)의 중기(中期)에 핵병기(核兵器)의 출현(出現)이라는 새로운 군사기술(軍事技術)의 진보(進歩)에 의하여 기본명제(基本命題)였던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을 수정(修正)할 수밖에 없었는데 반(反)하여, 60년대후반(年代後半) 즉 브레즈네프 시대(時代)에 들어와서는 바로 이 핵병기(核兵器)의 한정적(限定的) 사용(使用)이라는 군사기술상(軍事技術上)의 진보(進歩)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이 표방(表揚)되던 것이다. 어떤 논자(論者)는 이러한 소련(蘇聯)의 전략전환(戰略轉換)이 초래한 전쟁론(戰爭論)의 변화(變化)를, 「50년대(年代) 중기(中期)의 비전쟁주의(非戰主義) 전쟁론(戰爭論)」, 「60년대후반(年代後半)의 선택적(選擇的) 비전쟁주의(非戰主義)

전쟁론(戰爭論)」이라고 표현(表現)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徵候)는 1968년경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나, 이 변화(變化)는 전략(戰略)의 전환(轉換)에 의하여 핵병무(核兵武)의 한정적(限定的) 사용(使用), 한정전쟁(限定戰爭)의 사상(思想)을 미(美)·소(蘇)가 암묵적(暗默的)으로 공유(共有)함으로써, 소련(蘇聯)은 비핵한정전쟁(非核限定戰爭)인 민족해방전쟁(民族解放戰爭)이 억지(抑止)의 구속(拘束)에서 해방(解放)되었다고 감지(感知)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문제를 창출(創出)케 된다. 즉 이 징후(徵候)가 나타나기 전까지 소련(蘇聯)은 모든 전쟁(戰爭)이 억지(抑止)될 수밖에 없으며, 모든 전쟁(戰爭)이 혁명(革命)을 위해 합목적적(合目的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으나, 68년경부터 이 자세(姿勢)가 달라진다. 비핵한정전쟁(非核限定戰爭)인 「민족해방전쟁(民族解放戰爭)」은 혁명(革命)을 위해 합목적적(合目的的)이라는 해석이 부각되기에 이른다. 드디어 1970년에 들어와서는, 민족해방전쟁(民族解放戰爭)을 정의(正義)의 합법적(合法的) 저항(抵抗)이라고 확언(確言)하기에 이른다.1)

이러한 민족해방전쟁긍정(民族解放戰爭肯定)에로의 자세(姿勢) 변화(變化)가, 소련군사력(蘇聯軍事力)의 사명(使命)의 확대(擴大), 제(第)3세계(世界)에 대한 지원(支援)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월남(越南), 앙골라, 이디오피아 등에 대한 소련(蘇聯)의 적극적(積極的) 개입(介入)은, 이러한 전략전환(戰略轉換)이 초래한 전쟁관(戰爭觀)의 변화(變化)를 배경(背景)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70년대(年代) 후반(後半)이 되면 소련(蘇聯)의 전쟁관(戰爭觀)의 변화(變化)는 한층 심화(深化)되어 간다. 예컨대 루이브킨대령(大領)은 1977년 1월의 『전사(戰史)저널』 지(誌)에 발표한 논문(論文) 『제(第)25차(次) 소련(蘇聯) 공산당대회(共產黨大會)와 사회주의(社會主義)·자본주의(資本主義)의 평화공존(平和共存)의 제문제(諸問題)』에서, 「착취체제(搾取體制)에 고유(固有)한 적대적(敵對的) 사회관계(社會關係)는 불가피(不可避)하게 전쟁(戰爭)을 잉태(孕胎)한다」 2)고 논단(論斷)하고 있다. 착취체제하(搾取體制下)에서 「전쟁(戰爭)이 불가피(不可避)하게 발생(發生)한다」는 주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전쟁론(主義戰爭論)의 고전적(古典的) 기본명제(基本命題)인 것이다.

1956년의 제(第)20차(次) 당대회(黨大會)에서 「전쟁(戰爭)은 숙명적(宿命的)으로 피(避)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라는 흐루시초프의 언급(言及)이 있는 이래, 이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에 수정(修正)을 제기한 최초의 논문(論文)이 바로 이 루이브킨대령(大領)의 논문(論文)인 것이다. 루이브킨은 1977년 5월와 『군(軍)콰무니스트』 지(誌)에서 다음과 같이 레닌의 어록(語錄)을 인용(引用)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主義者)는 무조건(無條件) 모든 전쟁(戰爭)에 반대(反對)하는 것은 아니다. …… 지배계급(支配階級)에 의하여 야기(惹起)된 전쟁(戰爭)은, 노동계급(勞動階級)의 혁명(革

命)에 의해서만 종료(終了)된다. 신속(迅速)한 평화(平和)가 획득되는지의 여부(與否)는, 혁명(革命)의 진행(進行)에 의존한다.4)

이와 같이 루이브킨대령(大領)의 논문(論文)은 「새로운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의 효시를 작동(作動)케 하였거나와 1977년, 78년 내내 일련(一聯)의 소련(蘇聯) 군사논문(軍事論文)이 이 「불가피론(不可避論)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1977년 10월의 『군(軍)공무니스트』 20호(號)는, 「공산주의(共產主義)가 전지구(全地球)에서 승리(勝利)할 때, 모든 전쟁(戰爭)이 없어지며, 영원(永遠)한 평화(平和)가 도래(到來)한다」 5)고 서술(敘述)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의 23호(號)는 「세계(世界) 사회주의(社會主義) 체제(體制)가 세계혁명운동(世界革命運動)의 기지(基地)이다. 여기서 모든 지원(支援)이 나온다」 6)라고 언급(言及)하고 있다.

또한 1978년 11월의 『전사(戰史)저널』 지(誌)에 발표한 『제(第)25차(次) 소련공산당대회(蘇聯共產黨大會)와 현시대(現時代)의 제해방전쟁(諸解放戰爭)』이라는 논문(論文)에서 루이브킨대령(大領)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전쟁교의(主義戰爭教義)의 「새로운 발전(發展)이 제(第)25차당대회(次黨大會) (76. 3.)를 출발점(出發點)으로 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7)

「제(第)25차당대회(次黨大會)는 현대(現代)에 있어서의 전쟁(戰爭)의 사회정치성(社會政治性)과 형태(形態)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의 교의(教義)를 발전(發展)시켰으며,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정치(政治)가 전쟁(戰爭)의 원천(源泉)이며, 폭력수단(暴力手段)에 의해 모순(矛盾)의 해결(解決)을 기도(企圖)코자 하는 투쟁(鬪爭)의 주(主)된 원인(原因)이라고 재삼(再三) 지적(指摘)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主義者)는 다른 방법이 무익(無益)할 경우, 인민(人民)을 해방전쟁(解放戰爭)으로 동원(動員)하는 것을 의무(義務)로 삼아야 한다.」

「해방전쟁(解放戰爭)은 필요(必要)한 것이며, 역사적(歷史的)으로 합법칙적(合法則的)인 것이다.」

「제(第)25차(次) 당대회(黨大會)는 현대(現代)의 해방전쟁(解放戰爭)에 대한 이념(理念)을 한번 더 확인(確認)했다.」

따라서 1976년의 제(第)25차(次) 소련공산당대회(蘇聯共產黨大會)가 마르크스-레닌주의전쟁론(主義戰爭論)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轉換點)이었으며, 또 전쟁가피론(戰爭不可避論)에서 새로운 불가피론(不可避論)으로 전환(轉換)하는 일대분기점(一大分岐點) 구실을 담당(擔當)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蘇聯)이 서방측(西方側)과의 평화공존(平和共存)을 포기(拋棄)하고 다시 자본주의박멸노선(資本主義撲滅路線)으로 복귀(復歸)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루이브킨대령(大領)은 『제(第)25차소련공산당대회(次蘇聯共產黨大會)와 사회주의

(社會主義)·자본주의(資本主義)의 평화공존(平和共存)의 제문제(諸問題)』라는 논문(論文)에서, 요지(要旨) 다음과 같이 서술(敘述)하고 있다. 「평화공존(平和共存)은 자본주의(資本主義)로부터 사회주의(社會主義)에로의 이행(移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조건(條件)이다.……평화공존(平和共存)의 불가결성(不可缺性)을 지배(支配)하고 있는 것은 핵전쟁(核戰爭)이라는 위험(危險)의 존재(存在)이다.」 8) 이제, 1977년에 간행(刊行)된 문헌(文獻) 『전쟁(戰爭)과 군대(軍隊)』에 기술(記述)되어 있는 「전쟁(戰爭)의 불가피성(不可避性)을 살펴볼 필요(必要)가 있다.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가 잔존(殘存)하고 있는 한(限), 현대전쟁(現代戰爭)의 총체적(總體的) 근본적(根本的)인 원천(源泉)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戰爭)은 숙명적(宿命的)으로 불가피(不可避)한 것은 아니다.」 9)

「사회주의세력(社會主義勢力), 평화세력(平和勢力)의 증대(增大)에 의하여 사회주의(社會主義)가 전지구적(全地球的)으로 승리(勝利)하기 전(前)에도, 세계전쟁(世界戰爭)은 없앨 수 없다. 사회주의(社會主義)의 전지구적(全地球的) 승리후(勝利後)에는 모든 전쟁발생(戰爭發生)의 원천(源泉)이 최종적(最終的)으로 제거(除去)된다.」

이 『전쟁(戰爭)과 군대(軍隊)』에서 표시(表示)되어 있는 것은, 말하자면 「타협적(妥協的)」 불가피론(不可避論)이다. 세계전쟁(世界戰爭)에 대해서 소련(蘇聯)은 「가피론(可避論)을 택(擇)하고 있으며, 그밖의 전쟁(戰爭)에 대해서는 「불가피론(不可避論)을 택(擇)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소련(蘇聯)은 전쟁(戰爭)을 창출(創出)하는 원천(源泉)이 있는 한(限), 전쟁(戰爭)은 불가피(不可避)하게 발생(發生)하는데, 이 중에서 세계전쟁(世界戰爭)은 억지(抑止)가 가능(可能)하고 그 밖의 전쟁(戰爭)에 있어서는 억지(抑止)가 효험(効驗)이 없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즉, 소련측(蘇聯側)에 억지(抑止)의 의지(意志)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전쟁(世界戰爭)에 한(限)해서 그 불가피성(不可避性)을 부정(否定)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련(蘇聯)의 「불가피론(不可避論)이 스탈린 시대(時代)의 그것과 상이(相異)한 점(點)이다. 「새로운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이라고 불리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논리(論理)로 해서 「새로운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이 동(東)·서간(西間)의 평화공존(平和共存)을 거부(拒否)하고 있지 않다고 관측하는 소이(所以)가 있는 것이다.

이상(以上), 분석(分析)한 것과 같이, 1960년대(年代) 후반(後半)에 미(美)·소(蘇)의 핵전략(核戰略)의 변화(變化)로 말미암아 창출(創出)된 마르크스-레닌주의전쟁론(主義戰爭論)의 「선택적(選擇的) 비전주의(非戰主義)에로의 변화(變化)가, 1976년의 제(第)25차당대회(次黨大會)를 분기점(分岐點)으로 하여, 드디어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의 부활(復活)로까지

이르렀다.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혁명(革命)에 플러스가 되는 전쟁(戰爭)에 대해서는 소련(蘇聯)이 긍정적(肯定的)인 태도(態度)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새로운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은, 세계핵전쟁외(世界核戰爭以外)의 전쟁(戰爭)을 혁명(革命)의 플러스로서 긍정적(肯定的)으로 평가(評價)하는 소련(蘇聯)의 태도(態度)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혁명(革命)의 플러스 라는 의미(意味)는 다분(多分)히 「소련측(蘇聯側)에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시사(示唆)하거나와 아몽든 당면(當面)한 소련(蘇聯)의 군사전략(軍事戰略)은 이 「새로운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이라는 명제(命題)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美國)의 「소련위협론(蘇聯威脅論)」

미국(美國)이 소련(蘇聯)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미국(美國)의 대소위협평가(對蘇威脅評價)는 어느 수준(水準)이며 이에 대한 미국(美國)의 대응조치(對應措置)는 그 규모(規模)가 어느 정도(程度)인지, 이 기본적(基本的)인 문제는 「동북아시아안보유지(東北亞地域安保維持)」에 직접적(直接的)인 영향(影響)을 주는 것이다.

미국(美國)에서 소련(蘇聯)의 위협론(威脅論)이 눈에 띄게 제고된 것은 1978년 초(初)부터이다. 미국(美國)의 평론가(評論家) 로울랜드-에반스와 로버트-노바크는 78년 3월 6일자 워싱턴-포스트 지(紙)에 『새로운 반소감정(反蘇感情)』이라는 평론(評論)을 게재했다. 이 평론(評論)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서술(敘述)하고 있다.

소련(蘇聯)의 아프리카에 대한 모험(冒險)이 SALT의 템포를 지연시키는 원인(原因)이 되는지의 여부(與否)를, 카터대통령(大統領)이 검토(檢討)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美國)의 유권자(有權者)들은 반소적(反蘇的)인 무드로 태도(態度)를 바꾸고 있다. 이것은 월남전쟁후(越南戰爭後) 군사비(軍事費)를 낮게 억제(抑制)코자 하는 경향(傾向)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프린스톤의 여피니언-리서치사(社)가 최근 실시(實施)한 여론조사(輿論調查)는, 소련(蘇聯)의 군사력(軍事力)에 대한 일반시민(一般市民)의 걱정이 급격히 증대(增大)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주목(注目)할만한 점(點)은, 1,015명(名)의 조사(調查)샘플에서, 대소군사력우위(對蘇軍事力優位)를 생각하고 있는 미국인(美國人)(전체(全體)의 48%) 중 74%라는 놀랄만한 다수자(多數者)가 증세(增稅)를 해서라도 군사비(軍事費)를 증가(增加)하는 데에 찬성(贊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1)

미국내(美國內)에 대소경계론(對蘇警戒論)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아프리카의 뿌리」에 대한 소련(蘇聯)의 개입시(介入時)부터이다. 1977년 11월 13일 소말리아는, 소련(蘇聯)의 군사고문단(軍事顧問團)을 일제(一齊)히 추방(追放)했다. 2주일(週日)이 지난 11월 26일, 소련(蘇

聯)은 이디오피아에 대한 대공수작전(大空輸作戰)을 전개(展開)함과 동시(同時)에 앙골라사태(事態) 때와 같이 무장(武裝) 쿠바병(兵)을 투입(投入)했다. 지중해(地中海), 수에즈운하(運河), 홍해(紅海), 바벨-만데브해협(海峽)을 통과(通過)하여 아라비아해(海), 페르시아만(灣), 인도양(洋)으로 빠지는 전략상(戰略上)의 요충(要衝)에 소련(蘇聯)이 눈독을 들인 것이다. 당시(當時) SALT-II교섭(交涉)의 타결(妥結)을 목전(目前)에 두고 있었던 시기(時期)인 것만큼, 미국국민(美國國民)을 자극한 것은 쉽게 상상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蘇聯)의 위협(威脅)이 78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제창된 것은 결코 아니다. 소련(蘇聯)과의 전략균형(戰略均衡)과 미국(美國)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위기감(危機感)을 갖고 있었던 보수계(保守系)의 인사(人士)들이 「현재(現在)의 위기(危機)에 관한 위원회(委員會)」를 발족(發足)한 것은 76년 11월 11일이었다.12)

미공군정보전문가(美空軍情報專門家) 키이건장군(將軍)은 은퇴 직후(直後) 다음과 같이 경중(警鍾)을 울리고 있다.

「미국(美國)은 과거(過去) 25년간에 걸쳐 소련(蘇聯)의 전략군사력(戰略軍事力)의 개발(開發), 전개(展開)를 과소평가(過小評價)해 왔다. 미국(美國)이 82년경까지 소련(蘇聯)의 전략군사력(戰略軍事力)을 따라 잡으려 노력(努力)한다 해도 소련(蘇聯)의 군사비(軍事費)는 이 무렵에는 69년도 예산(豫算)의 배(倍)가 될 것이다.13)

하버드대학(大學)의 리차드·파이프교수(教授)14)가 ACDA(군비관리군축국(軍備管理軍縮局)) 원키국장(局長)의 대소낙관론(對蘇樂觀論)15)을 정면(正面)으로 비판(批判)한 것도 이 무렵이다.

소련(蘇聯)의 세계전략(世界戰略)을 잘 정리, 미국(美國)이 곧 강력(強力)하게 대처(對處)할 것을 촉구한 차알즈 컷퍼먼도 「현재(現在)의 위기(危機)에 관한 위원회(委員會)」의 회원(會員)이었다. 그는 요지(要旨) 다음과 같이 경고(警告)하고 있다. 「소련(蘇聯)은 데탕트를 표방하면서도 이것을 이용(利用)하여, 역사상(歷史上) 가장 대규모적(大規模的)인 군비확장(軍備擴張)에 혈안(血眼)이 되어있다. 미(美)·소(蘇)간의 군사력균형(軍事力均衡)을 시정(是正)하여 미국(美國)이 우세(優勢)로 되는 조치(措置)를 지금 곧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중대사태(重大事態)를 초래(招來)할 것이다.16)

이제, 미국정부(美國政府)의 공식문서(公式文書)로 대소관(對蘇觀)과 대소전략(對蘇戰略)이 어떻게 변화(變化)했는지를 분석(分析)해 볼 필요(必要)가 있다. 미국정부(美國政府)와 대소전략(對蘇戰略)은 매년(每年) 1월(月) 국방장관(國防長官)이 의회(議會)에 제출(提出)하는 『국방보고(國防報告)』와 합동참모본부의장(合同參謀本部議長)이 제출(提出)하는 『군사정세보고(軍事情勢報告)』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 두가지 보고(報告) 중에서 『군사정세보고(軍事情勢報告)』는 국제정세분석(國際情勢分析)에 중점(重點)을 두고 있으므로 미국(美國)의 대소관(對

蘇觀)을 이해(理解)하는데는 중요한 자료(資料) 구실을 한다.

78년 1월 20일 브라운합참의장(合參議長)이 의회(議會)에 제출(提出)한 79년도의 군사정세보고(軍事情勢報告)는 『미국(美國)의 안보보장(安全保障)에 대한 도전(挑戰)』이라는 항목(項目) 하에 다음과 같이 서술(敘述)하고 있다.

미국(美國)과 미국(美國)의 동맹국(同盟國)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대한 주(主)된 도전(挑戰)은 소련(蘇聯)의 군사력(軍事力)이다. 소련(蘇聯)의 공격용(攻擊用) 군사력(軍事力)은 바로 이 20년 간에 계산(計算)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規模)로까지 확대(擴大)했다. 소련(蘇聯)은 핵능력(核能力)의 우산하(雨傘下)에 군사적(軍事的)인 힘과 유연성(柔軟性)—특히 해군력(海軍力)과 공수능력(空輸能力)—을 전개(展開) 확대(擴大)하고 있으며, 보다 광범(廣範)한 범위에서 그것도 소련(蘇聯)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군사행동(軍事行動)을 수행할 수 있다. 소련(蘇聯)의 핵병력(核兵力)과 통상병력(通常兵力)의 계속적(繼續的)인 개선(改善)은 소련(蘇聯)의 기본적인(基本的)인 군사목표(軍事目標)가 무엇이나하는 문제(問題)를 제기(提起)한다. 소련(蘇聯)의 군사력(軍事力)의 확대(擴大)와 개선(改善)은 커다란 전쟁(戰爭)의 위험(危險)을 수반하는 행동(行動)을 소련(蘇聯)이 떠 맡는다는 것을 의미(意味)하는 것일까. 소련(蘇聯)은 전쟁(戰爭)을 감행(敢行)하여 생존(生存)할 뿐만 아니라 보다 강국(強國)이 되기 위해 통상(通常) 핵병력(核兵力)이라는 수단(手段)을 보유(保有)코자 작정한 것 같이 보인다. 소련(蘇聯)은 군사력(軍事力)을 증강(增強)함에 따라 미국(美國)의 결의(決意)를 시험(試驗)하고자, 보다 커다란 위험(危險)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른다.17)

1980년도(年度)의 군사정세보고(軍事情勢報告)는, 79년 1월 25일 존즈 합참의장(合參議長)에 의해 의회(議會)에 제출(提出) 되었다. 전문(前文)은 존즈합참의장(合參議長)이, 본문(本文)은 합참(合參)이 작성(作成)한 것이다. 존즈의장(議長)은 전문(前文)에서 요지(要旨) 다음과 같이 「걱정」을 토로(吐露)하고 있다. 「과거(過去) 10년 이상에 걸쳐서 소련(蘇聯)은 점점 더 불길(不吉)한 성격(性格)을 띠어 왔던 것이다. 나의 관점(觀點)으로 볼 때, 가장 곤란(困難)한 문제(問題)는 소련(蘇聯)이 일관(一貫)하여 가차(假借)없이 공격적(攻擊的) 군사력(軍事力)의 건설(建設)에 힘을 집중(集中)하고 있다는 점(點)이다. 이 군사력증대(軍事力增大)의 방향(方向)과 세(勢)는, 방위상(防衛上)의 필요성(必要性)에서 볼 때에는, 합리적(合理的)으로 계산(計算)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적(大規模的)이어서, 나는 이 점(點)을 깊이 걱정하고 있다.18)

3. 아프가니스탄사태(事態)와 미국(美國)의 대소군사전략변화(對蘇軍事戰略變化)

1980년은 소련군(蘇聯軍)의 79년 12월 27일의 아프가니스탄침공(侵攻)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새로운 냉전(冷戰)」의 서막(序幕)이 되었다. 이 소련(蘇聯)의 군사확장강경노선(軍事擴張強硬路線)에 맞서 표방된 것이 「카터·독트린」이다.

80년 1월 23일의 『연두(年頭) 일반교서(一般敎書)』에서 카터대통령(大統領)은 소련(蘇聯)의 페르시아만(灣)에로의 침공(侵攻)에는 무력(武力)으로써 이것을 저지(沮止)한다고 하는 강경노선(強硬路線)을 표방했다. 잇달아 동(同)월 29일 의회(議會)에 제출(提出)된 브라운 국방장관(國防長官)의 『국방보고(國防報告)』는 세계적(世界的)인 전략(戰略), 특히 대소(對蘇) 전략(戰略)에 중점(重點)을 두어, 「카터·독트린」의 군사면(軍事面)을 명확히 천명했다. 동보고(同報告)는 소련(蘇聯)이 세계적(世界的) 규모(規模)로 대폭(大幅) 군사력(軍事力)을 확충(擴充)하여 중동(中東), 서남(西南)아시아, 북(北)아프리카, 인도차이나, 한반도(韓半島), 카리브해 지역(海地域)에서의 소란상황(騷亂狀況)에 편승(便乘)하며 진출(進出)을 기도하고 있는데 대해 심대한 위기(危機)를 표명(表明)했다. 이어 동보고(同報告)는, 소련(蘇聯)의 이와 같은 진출(進出)에 대해, 미국(美國)은 세계최강국(世界最強國)의 지위(地位)를 수호(守護)할 결단(決斷)을 내려야 할 시기(時期)에 직면(直面)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美國)의 군사력강화(軍事力強化)의 필요성(必要性)을 호소(呼訴)했다.19)

그리고 아시아의 현상(現狀)에 언급(言及)한 부분(部分)에서는 주일(駐日) 미군(美軍)이 동북아시아지역(東北亞地域)의 억지력(抑止力)으로 크게 기여(寄與)하고 있다고 서술(敘述)함과 아울러 오키나와와 미(美) 해병대(海兵隊)와 공군부대(空軍部隊)는 미본토(美本土)에 주둔(駐屯)하기 보다 더 빨리, 더 경험적(經驗的)으로 위험지점(危險地點)에 출동(出動)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評價)했다.20)

또한 이 소련(蘇聯)의 진출(進出)에 대항(對抗)하기 위해 미(美)·서구(西歐)·일본(日本)에 의한 군사력증강면(軍事力增強面)에서의 「공동방위계획노력(共同防衛計劃努力)」이 필요(必要)하다고 서술(敘述)하고 있는데,21) 일본(日本)이 미군(美軍)의 대소전략(對蘇戰略)에 있어서 크게 역할(役割)이 기대(期待)되고 있음이 분명(分明)해졌다.

아프가니스탄사태(事態) 발생후(發生後), 존즈합참의장(合參議長)이 의회(議會)에 제출(提出)한 81년도(年度)의 군사정세보고(軍事情勢報告)는 종래의 보고(報告)하고는 아주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다. 존즈의장(議長)은 다음과 같이 분명(分明)히 언급(言及)했다.

나는 성명(聲明)속에서 「소련(蘇聯)에 의한 군사면(軍事面)에서의 행동자유(行動自由)의 범위가 크게 되면 될수록 경제(經濟), 외교(外交), 이데올로기 상(上)의 영향력(影響力) 행사의 군사력(軍事力)의 지렛대를 사용코자 하는 위험(危險)이 증대(增大)한다」고 서술(敘述)한 적이 있는데, 최근(最近)의 사태(事態)로 나는 확실히 이 성명(聲明)을 회상했다. 아프가니스탄사태(事態)는 이 우려(憂慮)를 뒷받침했으며, 소련(蘇聯)의 행위(行爲)와 의도(意圖)를 가장 낙관적(樂觀的)으로 해석해 온 사람들마저 과거(過去) 20년 가까이 우리의 안보보장(安全保障)에 영향을 준 몇 가지 주요(主要)한 전제(前提)가 이제는 완전(完全)히 무의미(無意味)해져 버렸다는 점(點)에 유의(留意)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기타(其他) 지역(地域)에 있어서의 소련(蘇聯)의 동기(動機)와 중

국적(終局的) 의도(意圖)가 나변(那邊)에 있는지 명확(明確)히 알고 있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기본원리(基本原理)에 직면(直面)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²²⁾

이 기본원리(基本原理)에 관해서 예컨대 존즈의장(議長)은 다음과 같이 서술(敘述)하고 있다. 『우리 측(側)이 군사력(軍事力)의 수준(水準)과 전개(展開)를 제한(制限)하면 그것이 아물든 소련(蘇聯)을 <교육(教育)>하여, 상호(相互) 자제(自制)코자 하는 지혜(知慧)를 낳아 관계 개선(關係改善)에 연결되어 개선(改善)된 관계(關係)를 유지(維持)하기 때문에, 파괴적(破壞的)인 행동(行動)에 브레이크를 거는데 한 몫 한다고 하는 전제(前提)는 70년대(年代) 말엽(末葉)에는 믿어지지 않게 되어 버렸다.』²³⁾

동의장(同議長)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침공(侵攻)의 목적(目的)을 어떻게 평가(評價)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침공(侵攻)은 소련(蘇聯)이 과거(過去) 30년간 지켜온 직접적(直接的)인 군사개입(軍事介入)에 관한 지침(指針)을 결정적(決定的)으로 포기(拋棄)했다는 엄연한 사실(事實)을 대변(代辯)하는 것이다」²⁴⁾라고 단언(斷言)하고 있다. 더우기 결론(結論)으로서, 존즈미합참의장(美合參議長)은 다음과 같이 경고(警告)하고 있다. 「세계(世界)는 1년(一年) 전(前)에 비(比)해 많은 점(點)에서 변화(變化)하고 있으며 시간(時間)이 경과(經過)함에 따라, 보다 큰 위험(危險)이 있다는 것을 모든 징후(徵候)가 표시(表示)하고 있다.」²⁵⁾

아물든, 이 『군사정세보고(軍事情勢報告)』가 주장(主張)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프가니스탄 사태(事態)를 계기(契機)로 하여 미국(美國)의 대소전략(對蘇戰略)은 크게 바뀌어졌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사태(事態)를 계기(契機)로 표출(表出)된 「카터-독트린」의 구체적인(具體的)인 대소군사전략(對蘇軍事戰略)을 「81회계년도(會計年度) 국방보고(國防報告)에 따라 간단히 항목(項目)만 살펴보기로 한다.

① 소련(蘇聯)에 대한 국지적(局地的)인 억지력(抑止力)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 이란으로 소련(蘇聯)의 손길이 뻗칠 경우 사용될 「신속전개부대(迅速展開部隊)」(RDF) 구상(構想)²⁶⁾

② 두번째의 대소전략(對蘇戰略)은 중동(中東), 서남아(西南亞) 제국(諸國)을 중심(中心)으로 한 안전보장(安全保障)의 「틀」²⁷⁾

③ 가장 중요한 대소핵전략구상(對蘇核戰略構想) 즉, 「핵상살전략(核相殺戰略)」의 채택(採擇)

이 구상(構想)에 대해 『국방보고(國防報告)』가 전개하고 있는 논리(論理)를 간추리면 이러하다.

즉, 소련(蘇聯)의 전략적(戰略的) 전력(戰力)의 증대(增大)에 수반(隨伴)하여, 미국(美國)이 신뢰(信賴)할 수 있는 저지력(沮止力)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의존(依存)한다.

(가) 정치(政治), 군사(軍事), 경제(經濟)의 제목표(諸目標)를 포함한 일련(一聯)의 목표공격(目標攻擊)에 필요한 제(第)2격공격력(擊攻擊力)

(나) 선택적(選擇的) 목표(目標)에 대한 보복력(報復力)의 보유(保有)

(다) 소련경제기반(蘇聯經濟基盤)의 상당부분(相當部分)을 파괴(破壞)할 수 있도록 항상 목표(目標)를 설치(設置)

(라) 전략핵공격(戰略核攻擊)의 응수후(應酬後), 상당(相當) 기간(期間) 예비전력(豫備戰力)을 보유(保有)²⁸⁾

아물든 1979년의 소련(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공(侵攻)은 규모(規模)와 성격면(性格面)이 틀리기는 하나, 1968년에 월맹(越盟)과 베트남이 수행(遂行)한 「테트공세(攻勢)」와 닮은 충격(衝擊)을 미국(美國)에 가(加)하여, 미국(美國)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정책선택(政策選擇)을 하도록 강요(強要)하고 있는 것이다.

〈주(註)〉

(1) Communist of the Armed Forces (Kommunist Vooruzhennykh Sil), No. 12, June. 1970.

(2)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1, 1977, pp.3~9.

(3) Balslevik, No. 2, October 1956.

(4) Communist of the Armed Forces, No. 10, May 1977, p. 8.

(5) Communist of the Armed Forces, No. 20, October 1977, pp. 82~89.

(6) Communist of the Armed Forces, No. 23, December 1977, pp. 69~77,

(7) Journal of Military History, No. 11, 1978.

(8) 주(註) 2, 참조(參照)

(9) War and Army(Moscow : Voennoye Izdatel'stvo, 1977), p. 37.

(10) Ibid., p. 130.

(11) Rowland Evans and Robert Novak, "New Anti-Soviet Feeling", WashingSton Post, March, 6, 1978.

(12) 이 동안의 경제(經濟)는, 동위원회(同委員會)의 이사(理事)인 차알즈-티롤러 2세(世)가 미상원의외위원회(美上院外交委員會) 앞으로 보낸 서간(書簡)에 명기(明記)되어 있다. 이 서간(書簡)은 동외교위원회(同外交委員會)가 78년 12월 31일에 공표(公表)한, Perceptions :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U. 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pp. 317~318에 게재(掲載)되어 있다.

(13) Major General George J. Keagan, Jr., "New Assessment Put on Soviet Threat,"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 March 28, 1977.

(14) Richard Pipes, "Why the Soviet Union Thinks It Could Fight and Wins a

Nuclear War”, Commentary, July, 7, 1977.

(15) Paul Warnke, “The Real Paul Warnke”, New Republic, March, 26, 1977.

(16) See Charles M. Kupperman, “The Soviet World View”, Policy Review Winter 1979.

(17) Statement by General George S. Brown, USAF,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Congress on The Defense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for FY 1979, Prepared 20 January, 1978, p. 4.

(18) United States Military Poecture for Fy 1980, An Overview by General David C. Jones, USAF,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With Supplement Prepared by The Organizatio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Preface p. iv.

(19) Report of Secretary of Defense Harold Brown to the Congress on the FY 1981 Budget FY 1982, Authorization Request and FY 1981~1985 Defense Programs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 29, 1980), pp. 45~61.

(20) Ibid., p.51.

(21) Ibid.,

(22) United States Military Posture for FY 1981, An Overview by General David C. Jones, USAF,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With Supplement Prepared by the Organizatio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Challenges of a Changing World”, pp. i~ii.

(23) Ibid., p. ii.

(24) Ibid.

(25) Ibid., p. iv.

(26) Report of Secretary of Defense Harold Brown to the Congress on the FY 1981 Budget, FY 1982 Authorization Request and FY 1981~1985 Defense Programs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 29, 1980), pp. 115~117.

(27) Ibid., pp.53~56.

(28) Ibid., pp. 65~68.

북괴(北傀)의 정치(政治) 이념(理念)

정 민 식 (鄭民植)

〈영남대 강사(嶺南大 講師)〉

I. 서(序)

북괴가 정치이념으로 주체사상(主體思想)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부터였다. 1946년 8월에 제정된 노동당규약(勞動黨規約)은 조선노동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삼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조선혁명의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날 북괴는 마르크스·레닌사상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최고의 정치 이념으로 승격시켰다. 그들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은 『당(黨)의 유일사상(唯一思想)』으로 체계화 되었는데 이것은 <사상(思想)에서의 주체(主體), 정치(政治)에서의 자주(自主), 경제(經濟)에서의 자립(自立), 국방(國防)에서의 자위(自衛)의 원칙으로 일관된 당의 혁명사업>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 김일성 외에도 허다하다. 유고의 티토, 중공의 모택동, 그리고 서구 공산국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다. 뿐만 아니라 유일사상체계의 핵심 내용이라는 주체·자주·자립·자위개념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각기 자기 나라의 기본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유일사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김일성(金日成)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즉, 1인독재(人獨裁)를 가능케 하는 권위(權威)를 조작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결국 주체사상이란 한낱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조잡한 이론에 불과하다.

II. 본문(本文)

1. 주체사상(主體思想)의 형성과정(形成過程)

북괴는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칼·마르크스 이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던 공산

주의 활동의 어려운 문제에 명쾌한 회답을 준 <독창적 이론>이라 찬양하면서 1930년대에 항일투쟁의 불길 속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김일성이 창안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주체」라는 말이 나타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였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중소연계(中蘇關係)는 대립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문에 중간에 낀 김일성의 위치는 곤경에 빠졌으며 한편 스탈린 사망을 계기로 북한내의 반김세력(反金勢力)은 저항을 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대회(黨宣傳煽動大會)에서 <사상에서의 주체>를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의 선전선동사업(문학·예술·신문·방송 및 교육)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김일성(金日成)의 항일투쟁사(抗日鬪爭史)와 혁명사상(革命思想)을 교양시켜 김일성 체제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수립하려 했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1955년의 당 선전선동대회에서 사상(思想)에서의 주체(主體), 1956년 12월 1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經濟)에서의 자립(自立), 1957년 12월 5일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政治)(내정(內政))에서의 자주(自主), 1962년 12월 10일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방(國防)에서의 자위(自衛), 1966년 10월 5일의 당 대표자회의에서 정치(政治)(외교(外交))에서의 자주(自主), 1970년 11월 12일의 당 제5차 대회에서 종합화·체계화되었던 것이다.

2. 주체사상(主體思想)의 구조(構造)

북한의 당 이론가들은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에 있어 <자주적(自主的) 입장(立場)>과 <창조적(創造的) 입장(立場)> 즉,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하는 사상이며, 이러한 사상을 구현하는 지도적 원칙으로 4가지를 들고 있다.

김일성은 자주적(自主的) 입장(立場)을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自力更生)의 정신을 발양하여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 지고 풀어나가는 혁명적 입장이다.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黨)과 인민(人民)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어떤 나라도 주체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은 승리할 수 없다』고 하여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사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창조적(創造的) 입장(立場)에 대해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思考)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와 국제혁명운동(國際革命運動)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의 이론적 근거를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구하려 하고 있다.

가. 사상(思想)에서의 전체(全體)

김일성은 각 나라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각 나라의 당(黨)이므로 그 나라의 당(黨)이 혁명과 건설의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나라 당(黨)의 지배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기의 독

자적 두뇌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1955년 12월에 김일성이 주체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명분아래 중공식이나 소련식이 아닌 조선식(朝鮮式)을 주장함으로써 김일성 지배체제의 확립을 위한 초보적인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정치(政治)에서의 자주(自主)

이는 대국주의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 내치(內治) 특히 당정책(黨政策)에서 자주성을 발휘하자는 것으로 주체사상을 정치분야에 구현한 것이 당(黨)의 자주노선이라고 김일성은 말하고 있다.

다. 경제(經濟)에서의 자립(自立)

김일성은 경제적 자립에 대하여 <자립적이며 자주적인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러한 자립경제의 목적(目的)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없애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 공업을 건설하는데 있다는 것으로, 김일성은 <경제적 자립 없이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자립경제를 주장하게 된 이유는 1차5개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를 위시한 공산국가들의 원조를 크게 기대하였으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좌절되었다. 따라서 1956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앞으로의 경제적 발전의 결정적 고지(高地)>는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이라는 전투적 구호를 내걸고 <생산내부의 예비들을 백방으로 동원하여 이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자립 경제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라. 외교(外交)에서의 자주(自主)

이는 정치에서의 자주(自主)를 내치(內治)로 볼 때 외교(外交)를 특히 강조한 것이다. 이는 대공산권외교(對共產圈外交)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의 기초위에 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외교(外交)에서의 자주(自主)를 내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중(中)·소분쟁(蘇紛爭)의 격화, 중(中)·소대국주의(蘇大國主義)의 내정간섭으로부터의 자기방어(自己防禦), 중(中)·소양국(蘇兩國)으로부터의 실리(實利) 추구(追求) 등을 꼽을 수 있다.

마. 국방(國防)에서의 자위(自衛)

1963년 김일성은 자위노선에 대하여 『……원조를 준다면 받는다. 그러나 안 줄 때도 문제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자위노선은 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지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나라의 『주체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의 독창적 이론이 아니며, 김일성 1인지배 체제의 강화, 경제-국방건설의 병진정책 달성을 위한 동원체계 확립의 합리화, 중·소분쟁에서 중립 노선과 실리 추구, 대남혁명(對南革命) 수행, 제 3세계에의 접근 등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방적(模倣的)·방편적(方便的) 통치 이데올로기라 하겠다.

3. 유일사상체계(唯一思想體系)와 수령론(首領論)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강요하는 당적(黨的) 사상(思想)이 『유일사상』이다. 유일사상체계의 핵심은 바로 김일성의 사상 즉, 주체사상(主體思想)에 따라 영구혁명(永久革命)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자. 『모든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이다.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革命)과 건설(建設)에 대하여 모든 인민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중략……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사상체계이다.』 이른바 김일성 주체사상이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한반도화(韓半島化)』 한 것이다. 양자(兩者)간에는 본질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김일성이 하는대로 사고(思考)하고 그의 사상(思想)으로 무장하고 행동하며 대를 이어 김일성의 적화통일계획을 이전하여 완성하라는 것 뿐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강요하는 이른바 『유일사상교양체계(唯一思想教養體系)』란 수령에 대한 충성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성의 최고형태로 인식케 하는 교육체제임을 명백히 했을 뿐이다. 북한 노동당의 문헌에 나타난 수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역사적(歷史的) 시대(時代)의 혁명사상(革命思想)과 혁명이론(革命理論)을 창시하고 발전시켜 혁명 승리의 앞길을 훤히 밝혀주는 것이며,

둘째,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人民大眾)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 세워 강력한 주체적 혁명역량을 꾸림으로써 혁명승리의 결정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셋째, 노동계급의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를 혁명승리의 밑천으로 되는 혁명전통을 창조하며 그것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며,

네째, 노동계급의 당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와 근로단체들을 창건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의 무기를 마련하는 것이며,

다섯째, 노동계급과 그 당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반적 행정을 직접 들어 쥐고 통일적으로 영도하며 혁명발전의 매단계, 매시기의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괴는 이른바 수령론(首領論)을 내세워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역사관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즉, 역사를 계급혁명이로가 아니라 수령의 역할로 창조되고 발전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4. 절대충성교육체계(絕對忠誠教育體系)

노동당은 수령론과 유일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유일사상교육체계』라는 것을 만들었다. 즉, 당정책교양(黨政策教養), 혁명전통교양(革命傳統教養), 계급교양(階級教養),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애국주의교양(愛國主義教養)이 그것이다.

첫째, 당정책교양(黨政策教養)이다.

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김일성 개인숭배로 점철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당정책으로 무장되지만 하면 그것을 자 막대기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 볼 수 있고 수정주의가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교조주의(教條主義)도 막을 수 있으며 자본주의 사상, 봉건적 유교사상도 다 막을 수 있다.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성하려면 당과 수령이 내놓은 정책들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사업의 지침으로 삼으며 조선혁명(朝鮮革命)의 완성(完成)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정책교양의 자료는 『김일성(金日成)의 교시(敎示)』와 『김일성(金日成)의 역작(力作)』이라고 한다. 이 교시가 바로 모든 사건(事件)과 사고(思考)를 재는 자 막대기이며 수령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가 된다고 하였다. 당정책교양은 북한 노동당의 강령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김일성 교시의 정당성(正當性)과 충성심(忠誠心)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다.

둘째, 혁명전통교양(革命傳統教養)이다.

이는 김일성으로부터 혁명전통이 기원(起源) 되었다고 한다. 즉, 『혁명 전통은 오직 마르크스-레닌주의 깃발아래 진행된 근로 인민의 사회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하에서만 이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운동-공산주의 운동 이전의 과거 역사에서 이룩된 모든 애국 전통(愛國傳統)이나 문화유산은 노동계급의 당이 이어받을 혁명전통으로 될 수 없다. 또한 노동계급의 투쟁에서도 선행시기(先行時期)의 운동일반(運動一般)이 혁명전통으로 될 수 없다. 노동계급(勞動階級) 투쟁(鬭爭)이 혁명(革命)의 뿌리로 되는 혁명전통(革命傳統)으로 되자면 위대한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 ……중략……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조선혁명 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김일성(金日成) 동지에 의하여 이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반만년 우리의 모든 역사는 물론 1920년대의 『조선공산주의 운동』마저도 연구해 볼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혁명전통교양은 민족사(民族史)를 김일성(金日成)과 그 일가(一家)의 역사(歷史)를 바꾸어 놓는 가공할 범행을 정당화 시키려는 이론이다.

셋째, 계급교양(공산주의 교양)이다.

북괴가 말하는 계급교양의 특징은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그들 모두를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계급적 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것과 집단적으로 교양하는 것, 그리고 천리마작업반 운동과 청산리 방법과 같은 대중교양을 통해 사상개조운동을 전개해야 한

다는 것이다.

결국 공산주의 계급교양은 수령(首領)을 보위하기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쟁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당성의 강약을 재는 자 막대기로 된다고 규정, 동족에 대한 처참한 살육행위도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성으로 인식케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주의(共産主義) 교양(敎養)이 다른 공산국가의 계급교양과 다른 점은 바로 김일성을 목숨으로 수호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교육하는데 있다.

네째,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애국주의교양(愛國主義敎養)이다.

이는 계급적 본질에서 행하는 애국주의 즉,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나라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수호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국가라고 믿게 하는 것이 애국주의다.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이 일어나지 않은 국가의 국민들이 자기 국가에 대해 충성하는 것은 반인민적 행위라고 규탄한다. 즉, 이러한 나라의 국민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비공산당 집권층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우선시켜야 하며 이러한 행위만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은 <노동계급의 본질에서 출발한 애국주의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서 애국심을 표명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바로 김일성(金日成)의 유교적·봉건적 왕조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며, 김일성은 봉건왕조적(封建王朝的) 사회주의체제(社會主義體制)를 갖추고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결정(決定)하였다. 그리고 대(代)를 이어 봉건왕조(封建王朝)를 유지하기 위해 김일성(金日成)과 김정일(金正日)에 대한 충성(忠誠)이 곧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교양시키고 있는 것이다.

5. 혁명관(革命觀)

북괴(北傀)의 지상과업(至上課業) 즉, 「사회주의(社會主義)·공산주의건설(共産主義建設)과 남조선혁명(南朝鮮革命) 및 세계혁명(世界革命)」이라는 세 가지 혁명사업에 대한 혁명관은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주체사상(主體思想)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들 세 가지 혁명과업간(革命課業間)에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지역(北韓地域)에서의 사회주의(社會主義)·공산주의건설(共産主義建設)은 남조선 혁명(전한반도(全韓半島)의 공산화(共產化))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세계 혁명의 일부분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 사회주의건설관(社會主義建設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은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할 때까지의 혁명 단계구분과, 혁명의 목표, 그리고 전략적(戰略的) 과업(課業)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혁명론의 특징은 프롤레타리아 정권이 수립 되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

한 기반이 마련된 이후부터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고 무계급사회(無階級社會)가 실현된 사회주의의 완전(完全)한 승리까지를 과도기(過渡期)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 과도기 혁명의 목표로는 사상적(思想的) 요새(要塞)와 물질적(物質的) 요새(要塞)의 점령이 제시되고 있다. 사상적 요새의 점령이란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 계급화하는 것을 말하며, 물질적 요새의 점령이란 사회주의적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북괴는 이와 같은 과도기 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상·문화·기술의 이른바 3대 혁명이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 남조선혁명관(南朝鮮革命觀)

북괴는 「남조선 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 완성을 위한 지역혁명(地域革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성격(性格)을 민주해방(民主解放) 인민(人民)·민주주의(民主主義) 혁명(革命)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의 목표는 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민주연합정부 형태의 인민정권(人民政權)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남한에 「마르크스·레닌주의당(主義黨)」을 건설하여 주력군(主力軍)을 편성하고 보조 역량을 동원하는 통일전선형성을 추진함으로써 반 혁명노력을 약체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일전선 형성은 「혁명적 군중 단체의 건설」과 「대중투쟁의 지도」를 통하여 우선 「하층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다시 「지배 정당내의 진보적 인사」나 「중간적 정당의 상층부」와의 「상층통일 전선」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방침 아래 투쟁방법으로는 정치(政治)투쟁과 경제(經濟)투쟁, 합법(合法)투쟁과 비합법(非合法)투쟁, 폭력(暴力)투쟁과 비폭력(非暴力)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 등 각종 형태와 방법을 결합해야 하며 모든 것은 주권(主權)을 투쟁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특히 남한(南韓)에서의 인민정권 수립을 위해 대중운동이나 시위방법과 같은 평화적(平和的) 방법(方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혁명의 정치적 참모부인 당(黨)을 중심으로 현 정권을 혁명적 폭력(暴力)으로 타도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 세계혁명관(世界革命觀)

세계혁명의 완성(完成)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社會主義)의 승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담보(擔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重要視)된다. 세계혁명관에서 혁명 역량의 편성과 배치, 그리고 타격 목표를 설정한 것을 보면 사회주의 역량(공산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해방 투쟁역량(제3세계의 자유독립)을 2대(大) 세계혁명역량(世界革命力量)으로 규정하고, 당면 투쟁의 목표를 「현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와 「반미 투쟁의 중요한 고리인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로 잡고 있다.

따라서 세계 혁명의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반제·반미 공동 행동과 국제적인 반제·반미 통일전선의 형성에 모든 혁명 역량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III. 결(結)

북한 공산집단이 그들의 정권을 수립한 이래 변함없이 추구하는 것은 다음 아닌 「무력(武力) 남침(南侵)에 의(依)한 남한(南韓)의 적화(赤化)」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군사(軍事) 목표(目標)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정규전(正規戰)과 비정규전(非正規戰)을 배합한다는 전략 개념을 구사하고 있다. 1950년 한국동란 당시에 비하면 현재의 사정은 너무나 크게 달라져 남침(南侵)의 가능성(可能性)은 점차 희박해지고 이에 조급해진 그들은 군비증액에 의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결함을 보완하기 힘들어 갈팡질팡하는 입장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등도 결국은 국방에서의 자위(自衛)를 염두에 둔 것이며 김일성 개인의 권력 유지를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의 궁극목표가 전 세계의 공산화(共產化)에 있는 만큼, 북괴는 우선 남한의 적화(赤化)를 위해 광분하고 있으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민족적(反民族的) 범죄(犯罪)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북괴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는 부자체제(父子體制)와 권력세습체제(權力世襲體制)를 공식(公式) 발표(發表)함으로써, 김일성(金日成)의 음흉한 속셈이 드러난 셈이다. 35년에 걸친 김일성(金日成) 우상화 운동이 거의 한계점(限界點)에 달하여 오히려 북한 주민들은 무관심(無關心) 내지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어쨌든 그들이 내세우는 주체사상(主體思想)이란 것은 결코 독창적(獨創的)인 이론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김일성(金日成)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교묘히 호도한 허구에 가득찬 이론이다. 그의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3대 혁명소조운동이니,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이니,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등은 모두가 김일성(金日成), 김정일(金正日) 부자체제(父子體制)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북괴(北傀)의 군사정책(軍事政策)과 군사전략(軍事戰略)

송근원 (宋根元)

〈청주대(淸州大) 교수(敎授)〉

I. 서론(序論)

북괴는 지난 10월 14일에 끝난 제 6차 북괴 노동당(勞動黨) 전당대회(全黨大會)에서 그들의 세습체제(世襲體制)를 공식발표(公式發表)한 셈이다. 1960년대(年代)부터 김일성주체사상(金日成主體思想)을 내세워 유일체제확립(唯一體制確立)에 힘써왔다.

지난 9월 4일 재개(再開)된 대남(對南) 비방방송의 저의는 드러났지만, 그들의 세습체제 구축에 대한 대내외적(對內外的) 반발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흥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 사회의 목적이 전(全) 세계(世界)의 공산화(共產化)에 있는만큼, 밖으로 어떤 위장 수단을 쓰더라도, 이는 그들의 목적을 보다 비밀리에 수행하는 음모에 불과한 것이다. 「……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라고 했던 7·4 남북공동성명, 1·19대북제외(對北提議), 6·23 선언(宣言) 등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대해 항상(恒常)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을 저들의 야욕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어쨌든 믿을 수 없는 그들이기에, 공산사회의 궁극적인 목적(目的)이 전(全) 세계(世界)의 공산화(共產化)에 있는 이상(以上), 결코 우리의 대공투쟁(對共鬪爭)은 중단(中斷)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點)을 감안해서 우리는 더욱 그들의 움직임에 관심(關心)을 두고, 좀더 그들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 군(軍)으로서는 누구보다도 그 필요성(必要性)이 크다.

“적(敵)을 알아야만 적(敵)을 이길 수 있다”는 평범하면서도 뚜렷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북괴의 군사정책(軍事政策)과 군사전략(軍事戰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II. 군사사상(軍事思想)과 전쟁관(戰爭觀)

1. 김일성(金日成)의 군사사상(軍事思想)

북괴는 1960년대부터 김일성(金日成)의 소위 주체사상(主體思想)을 내세우고 있으며, 「김일성 군사선집(軍事選集)」까지 발간해 김일성의 군사사상(軍事思想)이 독창적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군사사상(軍事思想)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基調)로 한 혁명전쟁론(革命戰爭論)과 모택동의 군사사상(軍事思想)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자본주의(資本主義)가 존재(存在)하는 한 전쟁(戰爭)은 불가피(不可避)하다는 레닌의 「계급전쟁불가피론(階級戰爭不可避論)」은 아시아 후진국가에서 공산주의혁명(共產主義革命)의 좋은 핑계가 되어 왔다. 레닌의 전쟁론(戰爭論)이 처음으로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에게 교조주의적(教條主義的)으로 받아들여진 곳이 바로 중공(中共)이며 여기서 모택동(毛澤東)은 「…총구(銃口)로부터 정권(政權)이 탄생한다…」고 강조하면서 전쟁(戰爭)이 곧 공산주의 혁명수단의 최고형태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레닌의 전쟁관이 그대로 모택동에게 계승되었고, 다시 이를 본받은 것이 바로 김일성(金日成)의 전쟁관인 것이다.

김일성은 1968년 2월 28일 「조국통일(祖國統一)」지(紙)에서 「무장(武裝)을 들어야 정권(政權)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 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혁명(暴力革命), 무장투쟁(武裝鬪爭), 민족해방전쟁(民族解放戰爭)인 것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金日成)은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 전쟁론(戰爭論)을 그대로 신봉하고 모택동(毛澤東)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수백만 인명(人命)과 엄청난 재산(財産)을 소실시킨 반민족적 범죄인 6·25남침(南侵)을 감행(敢行)하고도 이는 정의(正義)의 전쟁이었고 공산주의혁명(共產主義革命)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불가피한 희생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2. 변천과정

북한 공산정권의 군사정책은 군사력 증강정책으로 일관된 전쟁준비정책(戰爭準備政策)으로서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國防)에서의 자위(自衛)」원칙에 따라 4대군사노선(四大軍事路線)을 채택한 때를 기점으로 하여 그 변천과정을 전기와 후기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전기(前期)는 휴전 이후 1962년까지인데 군사력(軍事力) 재건기(再建期)로서 「의존정책」을, 후기(後期)는 1962년 이후인데 증강기(增強期)로서 「자위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가. 전기(前期)(1953. 7~1962. 12.)

북한 공산정권은 휴전 이후 방위에 관한 문제는 소련과 중공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경제건설에 주력하였다. 전기의 군사정책(軍事政策)을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58년 북한지역에서 중공군의 완전철수라는 상황에 따라 의존정책은 군비재건(軍備再建) 정책(政策)으로 바

꾸어 군사력을 가일층 강화 시켜나갔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비재건정책은 실질적인 중(中)·소(蘇) 의존정책으로 바뀌어 1961년 7월 6일과 7월 11일에 각각 소련 및 중공과 동맹조약(同盟條約)을 맺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소와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을 북괴가 체결한 것은 중·소로부터 안전(安全)을 보장받으려는 의존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즉, 전기에서는 의존정책 속에 군비증강을 추구한 시기이다.

나. 후기(後期)(1962.12~현재)

후기의 군사정책은 한 마디로 「수령정책(首領政策)」이라 하겠다. 1962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情勢)와 관련한 국방력(國防力) 강화문제(強化問題)」를 토의하고 「자위정책」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자위정책은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되었다.

북한이 자위정책(自衛政策)을 채택하게 된 것은 중·소 대립 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태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소련의 원조중단은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소 대립 속에서 북괴가 친(親) 중공적(中共的)인 외교정책(外交政策)을 취하자 소련의 군사·경제원조가 중단 및 삭감되어 북괴는 어쩔수 없이 방향전환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북괴는 4대 군사노선을 군사정책으로 확정하여 계속 관철해 나갈 것을 강조해 왔으며, 1978년 9월 9일 공산정권 창건 30주년 기념 보고에서 김일성은 「4대 군사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당(黨)의 군사노선을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 무력으로 강화하였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고 장담하고 4대 군사노선이 북한 노동당의 변함없는 기본노선임을 명백히 하였다.

3. 4대(大) 군사노선(軍事路線)

4대 군사노선은 전인민(全人民)의 무장화(武裝化), 전(全) 지역(地域)의 요새화(要塞化), 전군(全軍)의 간부화(幹部化), 전군(全軍)의 현대화(現代化)이다.

가. 전인민(全人民)의 무장화(武裝化)

원래 공산주의 혁명이란 노동계급을 혁명군화(革命軍化) 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대중(大衆) 군사상(軍思想)이 기본이므로 다병력주의(多兵力主義)를 기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괴는 이른바 무산계급(無產階級) 전원을 공산주의 혁명의 전투요원화(戰鬥要員化) 함으로써 계급적 적(敵)과 투쟁하도록 하고 전 주민(住民)의 사상무장과 전투기술 수준을 높여 김일성 독재의 안정(安定)을 기하며 전쟁시에는 정규군(定規軍)에 편입시켜 전선과 후방지역 및 직장단위 방어와 게릴라전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6·25남침 당시 민병(民兵)조직과 같은 예비군을 보유치 못하여 병력보충이 어려웠다는 점과 지역단위의 방어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후방을 사수(死守)하려는 주민들의 전의(戰意)를 불러 일으키지 못한 까닭에 무질서한 후퇴가 불가피했고 이것이 패전요인(敗戰要因)이 되었다고 단정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한 북한 전주민(全住民)을 무장화(武裝化)하며 병원(兵員)으로서의 훈련을 실시 하려는 「전인민(全人民)의 무장화(武裝化)」 노선(路線)은 공격시(攻擊時)의 정규군(定規軍) 병력(兵力)의 보충(補充)을 기하고, 수세기(守勢時)에 비정규군(非正規軍)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고 있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교도대(教導隊)·붉은청년근위대(靑年近衛隊) 등을 전투병력화하는 다병력주의(多兵力主義)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전지역(全地域)의 요새화(要塞化)

이는 북한 전 지역을 전장화(戰場化)하려는 것으로 선제공격(先制攻擊)을 감행하여 전쟁을 치르 게 될 때 공격과 방어의 완벽을 기하려는 전략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6·25의 경험을 기초로, 유사시(有事時) 최소한의 희생으로 전쟁을 수행토록 대비한다는 방침 아래, 전지역에 지역단위(地域單位) 방어 지탱점과 요새화 진지를 형성함은 물론 중요산업 시설과 전략물자 적치소(積置所)를 지하화(地下化)하여 북한전지역을 요새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북한 주요시설의 지하화(地下化)가 강력히 추진되고 특히 각급 기업소에서도 진지축조작업(陣地築造作業)을 강행하여 교도대(教導隊)를 중심으로 한 대공진지(對空陣地)를 구축하고 지상전대비진지(地上戰對備陣地)가 축조되는 등 전·후방에 걸쳐 완전한 요새화가 추진되었다.

다. 전군(全軍)의 간부화(幹部化)

이는 장병(將兵)을 막론하고 한등급 높은 제대(梯隊)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각개 병원(兵員)에게 함양시킴을 뜻한다. 그 목적은 전면전쟁(全面戰爭) 유발시 급증(急增)될 병력에 대한 지휘관을 확보하며 현대전 수행에 요청되는 군사과학(軍事科學)과 군사기술(軍事技術)을 흡수시키고 전투력의 질적강화(質的強化)를 꾀하는 것이다. 기본방침은 군대열(軍隊列)을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으로 단련시켜 전장병이 현재의 직책상 부과된 임무는 물론, 병사로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한등급 이상의 상급직무(上級職務)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25 때의 패배요인(敗北要因)으로 북괴는 전쟁 지도 능력이 없는 지휘관이 많았고, 우세한 유엔군의 현대전에 대응할 작전수행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각군 부대간의 협동작전(協同作戰)이 미숙(未熟)했다는 점, 사상교양(思想教養)의 미비와 군사훈련(軍事訓練) 부족으로 인(因)한 전의상실(戰意喪失)과 패배주의(敗北主義)경향 등을 감안하여 간부화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전군(全軍)의 간부화정책(幹部化政策)은 다병력주의(多兵力主義)에서 파생되는 취

약점을 보완(補充)하기 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정병주의(精兵主義)를 표방한 전력 증강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북괴 군(軍) 지도층은 간부화정책에 의해 군대(軍隊)가 질적(質的)으로 향상되었다고 자찬(自讚)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전군(全軍)의 현대화(現代化)

이는 가능한 최신 무기 도입(導入) 및 개발(開發), 고도의 전투기술 습득, 각종 기재의 보강으로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전력보다 상대적(相對的)인 우위(優位)를 확보하여 현대전(現代戰)과 전면전(全面戰)에 대처(對處)하려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북괴군(北傀軍)은 특히 정규전 수행에 있어 유격전의 측면을 중시, 속공과 기습에 필요한 무기도입 및 한국지형(地形)에 맞는 장비 개발, 그리고 전술교리연구 등을 군현대화작업(軍現代化作業)의 핵심과제(核心課題)로 삼았다.

이와 같은 정책(政策)에 따라 북괴군은 현대전에 대처할 수 있는 최신무기와 각종 전투기술, 기재 등을 개발함으로써 우세한 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최신무기조작(最新武器造作)과 현대적 군사(軍事)·과학(科學)·기술(技術)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괴군은 경제적 파탄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정책을 고수하여 1970년대에 이르러 강력하고 기동성 있는 공격무기를 대량화(大量化) 및 자급화(自給化)하는데 어느 정도의 목표(目標)는 달성한 것 같다.

III. 군사전략(軍事戰略)

1. 변천과정

북괴의 군사전략은 소련의 군사전략 모방에서 시작되고 6·25를 통하여 정립(定立)되었으며, 4대 군사노선을 내세우면서 자위노선(自衛路線)에 따른 군사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가. 소군사전략(蘇軍事戰略) 모방(模倣)

북한 공산당이 발행한 문헌(文獻) 속에는 1930년대에 김일성(金日成)이 소수의 게릴라에 의한 매복전법(埋伏戰法)을 사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김일성(金日成)의 매복기습전법(埋伏奇襲戰法)은 단순한 소부대, 그것도 게릴라의 전술적 차원에 해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북한 공산군의 고위 지휘관 중에는 많은 중공군(中共軍) 출신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소부대의 지휘관만을 역임했을 뿐 전략적(戰略的) 차원(次元)이나 전쟁지휘(戰爭指揮)의 경험(經驗)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광복(光復) 후(後) 근대적인 정규군을 보유하였어도 훈련(訓練)·작전계획(作戰計劃)·장비운용(裝備運用)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北韓) 공산군(共產軍) 간부(幹部)들의 독자적(獨自的)인 능력(能力)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북괴군 창설(創設)은 물론 제공된

장비가 100% 소련군 무기체계였고 교본(敎本), 교리(敎理), 전술(戰術), 전략(戰略)도 역시 소련군의 것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공산군은 창설초부터 전적으로 소련군을 모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김일성의 독창적인 군사전략(軍事戰略)이란 애당초 있을 여지조차 없었다. 그러나 6·25남침(南侵)의 패배(敗北)와 중공군(中共軍) 개입에 의한 3여년(年餘)의 전투경험(戰鬪經驗)을 쌓게되자 비로소 북괴군 지휘관들은 소련군 작전교리(作戰敎理)의 무조건 모방(模倣)이 잘못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김일성(金日成)은 이른바 독자적(獨立的) 군사전략(軍事戰略)의 필요성(必要性)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6·25남침(南侵)이 소련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고, 1950년(年) 7월 20일 인민군 총사령부 참모장 명의로 시작된 전투명령 제1호(1950.9.18.)와 당시 최고사령관인 김일성(金日成)과 방호산(方虎山)의 명의로 하달된 정찰명령 제1호 원본이 노어판(露語版)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소련 계획에 의한 남침(南侵)이었음을 입증(立證)해주는 것이다.

나. 6·25남침(南侵)과 군사전략(軍事戰略)의 정립(定立)

6·25 당시 북괴군이 한만(韓滿)국경선까지 후퇴하고 봉괴직전의 운명에 직면하게 되자 드디어 중공군이 개입(介入)하여 그들의 괴멸을 방지해 주었다. 휴전직전 전선(戰線) 교착단계에서 유엔군의 화력(火力)위주 작전에 대처코자 북괴군은 부득이 갱도전(坑道戰), 야간전(夜間戰), 접근전(接近戰)을 비롯한 토막동의 이른바 「대부대 유격전」이라고 불리는 기동공격(機動攻擊), 침투분할전(浸透分割戰), 일시 방어전 등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군사작전 경험은 김일성(金日成)으로 하여금 새로운 전술 교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을 하게 했다. 특히 휴전 후 핵시대(核時代)의 대두와 중·소대립 및 1958년 중공군의 완전철수(完全撤收)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김일성의 군사전략은 「중공식(中共式) + 소련식(蘇聯式)」 군사전략의 모방으로부터 독자적인 군사사상(軍事思想) 즉, 정치전략 우위의 총력전체제(總力戰體制) 완비(完備)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겠다는 자성(自省)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새로운 군사전략의 정립을 위한 방향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1960년말 월남에서 베트남 공작이 정치전과 월맹 지역내를 근거지로 한 성역전술(聖域戰術)을 배합하여 월남전을 게릴라전으로 몰고갈 수 있었다는 교훈을 김일성(金日成)에서 지득(知得)케 했다. 따라서 김일성(金日成)의 군사사상은 6·25전쟁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항일 빨치산 투쟁의 교훈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치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정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1961년 8월 30일 「...군사활동과 정치활동의 결합, 피아간(彼我間)의 역량관계, 적(敵) 약점 파악, 공격방향의 선택, 공격과 방어, 습격과 매복, 분산과 집중 및 이동 등을 교묘히 배합한 전법은 인민군 전투 승리를 보장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라는 공언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김일성(金日成)은 자신의 군사사상과 군사전략을 「중공식(中共式) + 소련식(蘇聯式)」

군사사상이란 도식으로부터 「항일무장투쟁(抗日武裝鬪爭) + 6·25의 경험(經驗)」으로 교체하면서 여기에 월남전의 교훈과 중동전쟁의 교훈 등을 가미하여 혁명전쟁사상에 입각한 총력전체제 하의 정치전략 우선을 그 내용으로 바꾼 셈이다.

다. 자위노선(自衛路線)에 따른 군사전략(軍事戰略)

북한은 1962년 12월 결의한 4대 군사노선을 표방하면서 독자적 성격을 띤 군사전략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68년 8월 이른바 「자주노선(自主路線)」을 선포하고 중·소대립의 틈새에서 탈출할 것을 선포한 시기를 기점으로 이를 구체화 하였다.

김일성은 59년부터 60년대 전반기에 이르는 동안 중·소 국경으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을 것이며, 어느 일방으로 기울어질 경우 다른 일방으로부터 압력(壓力)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더구나 소련의 무기체계로 구성된 북한 괴뢰군의 경우 소련의 군사지원이 중단(中斷)되었을 때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으며, 반면 중공의 문화혁명을 계기로 가해졌던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압력을 경험한 이상 유사시(有事時) 과연 상호군사협력(相互軍事協力)이 뜻대로 진행(進行)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懷疑)를 느낀 것이다.

「국방에 있어서의 자주(自主)」란 소극적 의미에서는 북한 단독의 방위체제(防禦體制)를 구축하자는데 있으며, 적극적 의미에서는 김일성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임의의 시기에 중·소의 지원없이 독자적인 대남 혁명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자위노선에 따른 군사전략은 어떤 내용의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김일성(金日成)은 1969년 1월 「인민군 당4기 4차 확대 전원회의」에서 당시의 북한 군간부(軍幹部)들이 독자적 군사전략 수립의 핵심인 한국적(韓國的) 지형(地形)에 맞는 전략, 전술의 개발과 장비의 도입을 게을리하였다고 지적했다. 그 대책(對策)으로 김일성이 지시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사상교양(思想敎養)의 강화(強化)

인민군 당위원회를 더욱 강화하여 사상 교양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군정치간부(軍政治幹部)들의 비서국(秘書局) 장악, 군내 정치간부의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의 장악과 사단(師團) 및 연대(聯隊)에 정치위원 증원조치를 지시했다.

둘째, 실정(實情)에 맞는 훈련(訓練)

6·25 당시와 같이 소련의 것을 모방(模倣)하지 말고 이른바 「조국해방전쟁(祖國解放戰爭)」의 경험을 참작해서 북한 실정(實情)에 맞는 전쟁훈련을 실시할 것과 정규전(正規戰) 및 유격전(遊擊戰)의 배합과 산악전의 연구,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부대인 경보병(輕步兵) 부대를 속히 경량화된 무기로 무장시킬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1969년 이후 북괴군은 경비병 부대의 재편 강화와 무장의 경량화, 산악전 및 야간전투의 중시 등을 비롯한 정규, 비정규전의 배합이란 극히 다양한 전략전개를 전망케하는 군사전략을 정립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독자적 군사전략의 골간(骨幹)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군사활동은 종래의 각종 훈련에 추가하여 산악전, 공수 낙하훈련, 폭격훈련을 비롯하여 어뢰 공격 및 지상목표사격 등 공격훈련(攻擊訓練) 치중(置重)으로 전환되었고 MIG-21, Su-7, FROG-5/7, KOMAR 및 OSA급 유도경비정 등 기습과 속공에 유리한 장비들을 도입 하면서 재래식(在來式) 화기(火器)의 양산으로 장비를 전반적으로 현대화(現代化)하기 시작했다. 한편 1975년 4월, 월남(越南)의 공산화(共產化)는 김일성(金日成)에게 모택동식(毛澤東式) 유격전략의 위력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독자적 군사전략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북괴는 임의의 시각에 부대(部隊)의 재편(再編)이나 이동(移動)없이 현(現) 위치(位置)에서 즉각 공격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육·해·공군과 특수전력을 배치하였다. 아마도 북괴의 군사전략 핵심은 기습정규전(奇襲正規戰)과 비정규전(非正規戰)의 배합을 통해 남한 전역을 동시(同時) 전장화(戰場化)하는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78년 4월 25일 인민군(人民軍) 창건일(創建日)을 기념하여 북괴군 총정치국장 서철(徐哲)은 「전투 준비훈련을 진공적(進攻的)으로 벌여 전투력(戰鬪力) 강화를 위한 “5대방침(大方針)”을 관철하며 “10대준수사항(大遵守事項)”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각급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 준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한 바, 이는 곧 북괴군 전체를 주체사상(主體思想)으로 일색화시킨다는 방침아래 제기된 군사정책의 핵심인 것이다.

- 5대방침 -

이는 1975년 2월 제5기 10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의된 것으로, 군복무에 있어서 정신적 무장과 기율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침으로 규정된 것이다. 즉 강인(強靱)한 혁명정신(革命精神), 기묘(奇妙)하고 영활한 전술, 무쇠같은 체력(體力), 백발백중(百發百中)의 사격술(射擊術), 그리고 강철(強鐵)같은 기율(紀律)이 그것이다.

- 10대 준수사항 -

이것은 1977년 11월 30일 평양에서 있었던 북괴군 선동원대회에서 북괴군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서, 김일성이 제시하고 그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① 언제나 군사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언제나 자기의 무기에 정통(精通)하며 그를 잘 관리 한다. ③ 어떤 조건하에서든지 군사명령을 철저히 집행한다. ④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을 어김없이 집행한다. ⑤ 국가기밀, 군사비밀, 당 조직비밀을 엄밀히 지킨다. ⑥ 국가의 사회주의적 법(法) 및 질서(秩序)를 철저히 준수한다. ⑦ 군사정치훈련에 어김없이 참가하며 열심히 공부한다. ⑧ 인민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재산을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는다.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그를 절약하기 위해 투쟁한다. ⑩ 동지(同志)를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군대에 상하 일치단결의 미풍을 철저히 세운다.

2. 당면(當面) 군사전략(軍事戰略)

가. 총력전(總力戰) 전략(戰略)

현대전(現代戰)의 성격(性格)이 단순한 군사적(軍事的)인 영역(領域)에서 벗어나 총력전의 성격을 띠며 따라 북괴도 이를 당면전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 군사적 관점을 배격하고 정치우선주의(政治優先主義)를 견지하면서 군사(軍事)와 정치(政治)를 결합(結合)시키며 외교(外交)·심리(心理)·선전전(宣傳戰)으로 군사를 보조하고, 군사(軍事)와 사회문제(社會問題)를 결합하는 등 이른바 무력전술(武力戰術)만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냉전적(冷戰的)이고 평화적(平和的)인 모든 방법까지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북괴의 총력전 전략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평화공세(平和攻勢)와 기만전술(欺瞞戰術)로 구성된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대표적인 예(例)의 하나로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대화를 계속하면서 휴전선 일대에 남침용(南侵用) 땅굴을 파 내려왔던 사실이다.

둘째, 군사(軍事)와 경제(經濟)를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말하기를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특히 군사전략상 중요지대를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며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단 유사시에는 모든 경제를 급속히 전시 체제로 개편하여 전시에도 생산(生産)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군사(軍事)와 외교전(外交戰)의 결합(結合)이다.

특히 6·25당시 거의 성공적 단계에서 미군(美軍)의 개입으로 패퇴(敗退)한 경험이 있는 김일성은 주한 미군철수를 대남적화전쟁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외교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군사력의 지원기지이며 한반도의 정세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한 일본(日本)이 한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는 현실은 김일성 외교전(外交戰)의 중요한 표적이 되고있다. 또한 제3세계에 대한 외교활동(外交活動)을 강화하여,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함으로써 상대적(相對的) 우위(優位)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끝으로, 군사(軍事), 심리전(心理戰), 선전전(宣傳戰)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사상전파, 흑색(黑色)선전, 평화공세 등의 대남심리전, 선전전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의 전쟁(戰爭) 의지력(意志力)을 약화시키고 한국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정치체제 파괴에 의하여 효과적(效果的)인 전쟁지도기구를 무력화시키며, 위장기만전술에 의한 착각을 유발시켜 신속한 전쟁동원체제를 파괴하려고 기도(企圖)하고 있다.

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전략

1972년(年) 4월 19일자 「로동신문」에서는 「김일성은 대부대작전(大部隊作戰), 소부대작전(小部隊作戰)을 밀접히 결합하여 유격전쟁경험과 현대적 군사기술을 배합하고, 유격전법(遊擊戰法)과 현대전법(現代戰法)을 결합하여 유격대의 적극적인 전법에 배합하며 전인민적 항쟁을 조직 전개하는데 대한 방침 등 적을 전략전술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탁월한 방침들을 창조하였다.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의 결합은 집중과 분산, 기동성 등으로 적을 타격하고 소멸하는데 대한 유격대의 전술적 원칙에 전적으로 맞으며 유격대로 하여금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 쥐고 적을 타격할 수 있게 하는 현명한 전략전술적 방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합전략은, 모택동식(毛澤東式) 유격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6·25전쟁과 대남도발의 경험 및 소련식 군사전략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다. 기습전략(奇襲戰略)

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예상하기 힘든 시기와 장소 및 방법을 택하여 공격하고 상대방을 강타하는 전투방식으로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에서 시간의 이(利)를 극대화하여 신속, 비밀, 위계(偽計)로 행하여지는 전략으로, 최소(最小)의 노력(努力)으로 최대(最大)의 효과(效果)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이미 1950년 6·25남침시 김일성에 의해 시도된 바 있는데, 김일성은 정규군은 기동력을 극대화하고 비정규군은 무장을 경량화시킴으로써 군사력에서 속도(速度)의 요소를 크게 강조하여 전투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은 124군, 283군 부대와 경보병여단을 통합하여 특수 8군단을 조직 강화하고, 전선 각 집단군 산하의 경보병연대를 여단으로 증편하여 「무장(武装)의 경량화(輕量化) + 주력(走力)」에 의한 고도의 특공적 준비를 강화시켰으며 『폭력·비폭력전쟁, 정치투쟁·경제투쟁, 합법·반(半)합법·비합법(非合法)투쟁, 대규모·소규모투쟁』의 배합수행(配合遂行)을 지시하고, 1·21사태를 중심으로 하는 특공게릴라를 대량 남파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함으로써 정규군 공격을 위한 유리한 상황을 조성시키려 하였으며, 4대 군사노선을 강행함으로써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고 스스로 제5차 당대회에서 호언하기에 이르렀다.

라. 속전속결전략(速戰速決戰略)

이는 전통적 군사전략이론에서 강조되어온 것으로, 우세한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상대방의 주력부대를各個격파함으로써 전쟁에서 짧은 시간 내에 승리를 쟁취(爭取)하자는 것으로,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이 전략을 당면전략(當面戰略)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속전속결 전략 아래 김일성은 4대 군사노선에 따라 항공기·미사일·전차 등 정규군의

기동능력을 다음과 같이 대폭 증강시켰다고 호언한 바 있다.

① 1977년 9월 현재, Su-7 20대, MIG-21 130대 ② 야간폭격, 맹목(盲目) 폭격 훈련의 강화 및 유격, 관제능력 대폭 향상, ③ FROG-5/7이 1977년 9월 현재 24기, SAM-2가 250기 배치, ④ T-59형을 포함한 T-34중전차, T-54, T-55의 총대수는 1977년 9월 현재 1,750대, PT-76경전차 150대, T-62 경전차 50대, ⑤ 최근 기갑작전이 가능한 서부 및 중부지역에서 탱크부대를 집중배치 25개사단 중 3개 기계화보병사단, 2개 전차사단을 보유하는 등 기동력(機動力)의 증강에 총력을 경주.

그런데 북한의 속전속결전략(速戰速決戰略)은 획득한 성과(成果)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무모한 전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초로 거둔 성과를 확보하여 두고, 즉 일단 유리(有利)한 전략적 상황을 조성하여 놓은 다음 정치협상을 제의하는 공산주의 특유의 정치(政治)·군사배합전략(軍事配合戰略)의 기본수단이기도 하다.

IV. 결론(結論)

1848년(年) 「공산당선언(共產黨宣言)」이 발표(發表)된 이래(以來) 공산주의 국가들에 의한 자유세계(自由世界)에의 도전이 시작되고 현재(現在)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혁명(革命)에 의한 전(全) 세계(世界)의 공산화(共產化)에 있는 이상(以上) 그들의 도전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연적(必然的)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유수호(自由守護)를 통한 인류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이상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북괴는 그 어느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극악하여 항시(恒時)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차 노동당대회에서 공식화된 북괴의 세습체제(世襲體制) 구축은 바로 「대(代)를 이어 혁명을 이룩하자」는 그들의 망상을 현실화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결코 당황하거나 동요될 필요없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통일(民族統一)을 이룰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소홀히 하지 말고 각자의 직분 완수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시대(時代)는 각국(各國)이 자국(自國)의 이익(利益)을 먼저 내세우고, 자국(自國)에 이익(利益)이 없으면 오늘의 우방(友邦)도 바로 내일에는 적국(敵國)이 될 수 있는 냉엄한 때이다. 이런 때일수록 민족고유(民族固有)의 독창성(獨創性)과 단결심(團結心)을 최대로 발휘하여 내외적(內外的)으로 알차게 전진해야 할 때이다.

북괴(北傀) 경제정책(經濟政策)의 변천(變遷)과 실태(實態)

박상익(朴相翊)

〈숭전대(崇田大) 교수(教授)〉

북한 경제는 전면적(全面的)인 계획제(計劃濟) 내지 지령경제(指令經濟) 체제하(體制下)에서 운영 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기구(市場機構)에 의한 조절기능(調節機能)을 북한에서는 중앙계획국(中央計劃局)에서 관장하고 있다.

1947년부터 경제계획을 실시해 왔으나 완벽한 계획경제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57년~61년간의 제1차 5개년계획기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58년 이래 북괴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 기구를 설치하고 생산자원(生産資源)의 할당제, 소비재의 배급 등 모든 경제활동을 중앙으로부터의 명령에 따르는 「지령경제(指令經濟)」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북한에서도 중장기계획(中長期計劃)이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차별계획(年次別計劃)이 작성된다.

1. 연차별(年次別) 경제계획(經濟計劃)

가.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人民經濟計劃)

북괴는 1947년에 최초로 경제발전을 위한 인민경제계획(人民經濟計劃)을 수립하였다. 총생산량을 2배로 늘리려는 이 계획을 위하여 북한은 약 8.8억원을 예산에서 지출함으로써 주요공장, 기업소, 발전소와 탄광 등의 개건(改建)·복구(復舊) 등 산업 부문의 발전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그리하여 기업 부문의 흑색금속(黑色金屬)과 기계류(機械類) 생산(生産)만이 계획에 미달했을 뿐 타부문은 모두 계획을 초과달성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1947년에는 산업부문의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쟁말기에 파괴된 공장, 기업소, 발전소와 탄광 등의 복구에 힘쓴 결과 선철과 코크스의 생산을 개시케 하였으며, 청진 방직공장은 인견생사를 생산하게 되었고, 16개 광산이 복구되었다. 1947년도 산업 부문에서는 계획에 비하여 102.5% 초과달성했고, 각종 기술전문학교와 공장기술학교의 신설확장과 지배인 학교의 설치 등을 통한 기술자, 기능자 양성사업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고 이와 동시에 변압기 선연

(旋延)로라, 동선(銅線), 카바이트, 알콜, 축전지, 선반, 링카타 등 각종 공구 수십종의 신제품 생산에 성공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 파종면적은 100.4%, 곡물수확고는 전년보다 18만톤 증산되었고, 2,600여 정보가 관개되었다.

운수부문에서는 화물운송, 여객운송, 도로공사, 교량공사, 하천공사, 항만공사 등 모든 부문에서 초과달성되었다. 체신부문에서는 평양~원산간, 평양~함흥간의 전신·전화노선의 신설공사가 완성되었고, 산간벽지까지 우편물 배달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문에서는 학교수 및 학생수가 크게 늘었고, 16,000명에게 고등교육을 이수시켰고, 84만명의 문맹자들에 대한 문맹퇴치사업을 진행시켰다.

문화부문에서는 17개 연극단과 8개 음악단을 조직하고 북조선 영화촬영소도 신설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병원, 전염병원, 진료소, 간이진료소가 많이 신설되었는데, 1년간 중앙보건기관의 치료인원은 607만 5천명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기간중에 200% 초과달성이 되었는데도 나타난 결함이 적지 않았다.

첫째,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의 정확한 실시가 미약하여 계획성있는 원가절하가 불가능했으며, 제품의 질적향상이 여의(如意)치 못하여 수익성 제고에 지장을 주었다.

둘째, 도급제(都給制)를 정확히 실행치 않아 설비능력을 완전히 이용하지 못했고 사회적 재낭비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셋째, 지하자원(地下資源) 탐사작업(探查作業)의 미비로 고원의 완전(完全)한 이용을 못하였다.

네째, 수확고(收穫高)의 향상사업(向上事業)이 광범히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면화재배(綿花栽培)에 대한 조직과 기술적 지도가 불충분하다.

끝으로, 조림사업(造林事業)이 부진했다.

나. 1948년도 계획

이 계획에서는 각종 생산품의 증산(增産)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이에 따라 기계기구, 산업기계부속품, 생활필수품 등의 증산과 그 생산원가의 절감에 주력하는 동시에 식량 및 공업원료의 확보를 위한 농업부문의 발전추진과 운수사업, 교육·문화·보건시설의 확충강화를 통한 인민 생활 수준향상에 주력한다는 수행방향을 설정하였다.

다. 인민경제(人民經濟) 2개년계획(個年計劃) (1949~1950)

북한은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민경제 2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였는데, 각 부문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공업부문(工業部門)〉

야금(冶金)·기계(機械)·조선공업(造船工業)에 역점을 두고 생산조직의 개선, 신기술 도입, 설비비용의 고도화 등에 따른 원가절감(原價節減)과 공업 생산증대에 주력하여 1949년도 사회화 부문 총생산액 1,922,347만원, 1950년도에 2,605,349만원으로 늘린다. 또 전매품 생산을 증대시켜 소금의 총생산고를 1950년에 22만톤으로, 인삼의 총생산액은 1,474,840천원으로 증가시킨다.

〈농업부문(農業部門)〉

농업의 기술적 낙후성을 타파하고 새로운 영농방법을 적용시키며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 경작면적을 확장시킨다. 또 종자개량과 비료시비량(施肥量)을 증대시켜 화학 비료를 1949년에 263,435톤, 1950년에 273,600톤을 공급한다.

〈운수 및 통신부문〉

철도의 수송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차운전의 기술적 수준을 높이며, 중요화물의 집결수송을 강화한다.

라. 경제복구 및 발전 3개년계획(1954~1956)

북괴는 6·25 전쟁이 끝난 1954년 3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6·25 동란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며, 사회주의적 경제형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촉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성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을 기한다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북괴는 이 3개년 계획이 소련·중공 등 공산 제국으로부터 경제기술원조와 근로자, 농민들의 노력을 토대로 2년 4개월 만에 계획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괴는 이 3개년 경제계획 기간 중 가장 중요한 특징적 변화의 하나로 사회주의 제도의 강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현저한 변화와 농업·공업부문에서의 질적개선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노농동맹(勞農同盟)의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화가 더욱 촉진되어 사회주의적 경제형태가 강화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마. 인민경제발전(人民經濟發展) 제(第)1차(次) 5개년 계획(計劃)(1957~1961)

북괴는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강화와 의식주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 그리고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따른 경공업(輕工業), 농업(農業)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본 계획(計劃)을 수립했는데, 그 역점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족경제(民族經濟)의 자립토대(自立土臺)를 공고화하여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공업화(工業化)의 토대를 조성기 위해 노동생산능률(勞動生產能率)의 제고(提高)와 엄격한 절약

제도의 확립 및 내부원천을 광범히 동원한다.

둘째, 경공업(輕工業)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하여 인민 소비품의 공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식량, 주택조건의 개선을 위주로 한 주민생활(住民生活)의 향상을 보장한다.

셋째, 농업(農業)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업 및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시켜 경제의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경제형(經濟型)의 유일적지배(唯一的支配)를 확보한다.

네째, 농촌 및 도시에서도 문화혁명을 추진하며 기간중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中等義務教育制)를 실시한다.

다섯째, 소련, 중공 등 공산진영과의 경제기술적 협조를 강화하여 대외 무역을 증대시킨다.

북괴는 식량문제(食糧問題)의 해결과 경공업 원료확보를 위해 알곡을 위주로 한 공예작물(工藝作物), 축산, 잠업 등 각 부문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화학비료(化學肥料), 자급비료(自給肥料)의 시비량 증대, 관개공사(灌溉工事) 추진과 수원(水源)의 종합적 이용, 다수확작물의 파종면적확장, 선진적 영농방법의 적극적 도입과 농업협동화의 완성, 그리고 협동경리의 강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기술분야(技術分野)에서는 낙후성을 탈피하며 일부 부문에서는 선진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과학기술 성과를 실정에 맞게 도입, 보급하고 기존 기계설비의 현대화(現代化)와 연구사업의 개선강화를 지적했다. 이리하여 국민소득을 2.2배, 노동자·사무원의 실질소득을 1.5배로 각각 증대시킬 계획을 밝혔다.

대외무역(對外貿易)의 확대를 추진하여 수출품 생산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켜 수출품의 질(質) 및 포장의 개선과 규격 등을 엄수케 하며 수출자원의 탐구동원과 무역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기로 했다.

농업부문(農業部門)에서는 농업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강화와 농업생산의 급속한 성장을 목표로 농업협동화를 추진함에 따라 수리화(水利化), 전기화(電氣化), 기계화(機械化)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개조에 착수하였다.

교육(教育), 문화부문(文化部門)에서는 교육사업(教育事業)을 개선 강화하고 근로자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민중문화예술을 발전시킬 목표로 인민교육과 민족간부 육성사업의 강화와 인민교육체계의 개편에 주력하였으며, 이 기간 중의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를, 1958년부터는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했다. 1959년부터는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하여 중진의 고급중학교 체계(高級中學校體系)를 폐지하고 중등 및 고등기술학교체계를 창설함으로써 일반 기초교육과 기술교육을 병진시켰으며 산업협동체(產業協同體)와 유사한, 일하며 배우는 원칙하에 각급학교의 교과내용을 재편하여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高等教育機關)을 확장하였다.

바. 인민경제발전(人民經濟發展) 7개년(個年) 계획(計劃) (1961~1967)

북괴가 사회주의제도(社會主義制度)에 의거하여 전면적 기술개신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주민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방침 아래 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공산주의국가(共產主義國家) 간(間)의 복잡한 정세와 군사력 강화 등으로 차질을 빚게 되고 그 결과 1966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린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계획기간을 3년 연장함에 따라 목표연도는 1970년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당초계획과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동(同)7개년(個年) 경제계획(經濟計劃)의 주요내용과 실적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다.

7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사회주의(社會主義) 공업화(工業化)를 실현하는데 중점목표를 두어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제품의 질적개신과 품종 다양화 및 원료 기지 확보에 주력 하는 동시에 기술개신을 적극 추진하였다. 중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중공업부문의 정비 보강과 야금(冶金)·화학(化學)·기계제작·연료·동력·건재공업(建材工業) 등 자체의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 기지의 확대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1961~69년간 중공업 부문에 총4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와함께 주민소비품(住民消費品)의 증대를 위해 대규모 중앙공업과 중소기업도 지방공업을 병진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새로운 현대적 공업공장들의 건설과 지방산업공장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한편 농촌(農村)에서 기술(技術)·문화(文化)·사상(思想)혁명을 강화하고 농촌에 대한 집중지원을 강화하여 농산물·축산물·과실(果實) 등의 증산을 기해 식량자급(食糧自給)을 실현하였으며, 특히 중공업의 지원하에 농업의 기술적 개조에 주력하였다.

또 계획기간 중 평양~청진, 평양~신의주간을 비롯하여 850km의 전철화가 완성되어 기본간선의 전기화(電氣化)가 완료되었으며 철도전인력을 높여 전기기관차의 견인력 비중이 1960년의 12%에서 1969년의 55%로 증대되었다.

그밖에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 사업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여 기술자·전문가의 양성과 전반적 교육수준의 제고 및 교육내용의 질적 강화에 주력하였다.

또한 기술자(技術者)·전문가(專門家)의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교(大學校)·기술학교(技術學校)를 신설하였으며, 일하며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강화하여 1970년에 129개의 대학과 500여 개의 고등기술학교에서 학생 20여 만명이 공부하였다.

2. 6개년(個年) 경제계획(經濟計劃)(1971~1976)

이는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확정된 것이며, 1974년에 계획의 조기단축 달성과 차기 전망계획연도의 과업지표인 이른바 「10대 건설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1974년 김일성 신년사(新年辭)에서 밝힌 「건설(建設)의 해」라는 구호에 맞춰 5대전선(기본건설, 공업,

농업, 수송, 수산)을 제시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건설토록 강요하였다. 또한 이른바 「70일 전투」라는 명목으로 당·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리 부처에서 전제노동자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증산운동(增産運動)을 전개토록 하였으며, 특히 75년에 들어와 「김일성 교시를 이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權利)조차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전체인민들이 6개년 경제계획의 조기달성에 사활(死活)을 걸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1975년 9월 노동당 선전기관인 중앙통계국보도(中央統計局報道)를 통해 6개년계획을 75년 8월말 현재 생산액상으로 1년 4개월 조기달성(早期達成)했다고 발표하고 76년과 77년을 「완충(緩衝)의 해」로 설정하여 미완성 부분의 조기완수를 독려하였다.

가. 부문별실적(部門別實績)

<총량부문>

국민소득은 74년에 70년비 1.7배로 증대되고, 공업총생산액은 75년 8월말 현재 70년비 2.2배로, 양곡생산은 74년에 700만톤을 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과도한 목표설정, 획일적 경영관리방식, 생산시설의 노후화, 낙후된 기술수준, 수송의 애로 등 내재적(內在的)인 성장저해요인(成長沮害要因)과 73년 8월 이후의 세계적인 자원파동에 따른 수입 가격의 폭등과 무역수지의 급격한 악화 등 외적인 경제성장 저해요인 때문에 경제성장은 정체상태를 탈피치 못했다. 따라서 기간중 공식적 발표는 14.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60년대 전반에 걸쳐 수행되었던 7개년 계획기간 중의 목표성장률 10.4%에도 훨씬 미달된 7.8%의 저조한 성장을 밖에 기록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업부문>

75년 8월말 현재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으로 1년 4개월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70년비 2.2배가 늘어나 지난 4년 8개월 동안 공업성장률은 18.4%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전력은 북창(北倉)화력발전소 제2단계 공사와 서두수발전소(西頭水發電所) 제1단계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금속부문에서는 황해제철소를 비롯한 강선(降仙)제강소에서 산업 TV화와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되었고, 기계부문에서는 300마력 볼도저, 10m3 대형굴착기, 2,500마력 중속(中速)엔진 및 내연기관차 등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부문(化學部門)에서는 정유가공공장과 총100만톤의 인비료직장(隣肥料工場)이 건설되고, 2.8비닐론 공장의 공정이 자동화되었고 건재(建材)부문에서는 2.8시멘트 공장, 승리호 시멘트 공장 및 천내리 시멘트공장 등의 소성로에 산업 TV화와 자동화가 실현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실적을 볼 때 강철(鋼鐵)·선철(銑鐵)·입철(粒鐵) 그리고 시멘트를 제외한 중공업부문의 계획수행률은 당초 계획의 하위지표 기준으로 달성된 것으로, 또 경공업부문은 상위지표보다도 높은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70년대에 들어와 전략수출산업(戰略輸出產業)으로 집요하게 추진했던 강철·선철·입철 그리고 시멘트부문의 성장은 당초 계획목표에 비하여 훨씬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농업부문〉

기간중 북괴는 수리화(水利化) 및 전기화(電氣化) 성과를 더욱 확대 공고화하는데 주력하고 수리화(水利化)는 45개 저수지와 3,872개의 양수장 및 배수장을 건설하여 밭 관개면적은 1.9배로, 2중 분수식 밭 관개 면적은 3.4배로 증대되었다고 발표했다.

기계화는 75년 6월말 현재 70년비 트랙터 대수가 3.6배, 자동차 대수가 2.5배, 연결차는 2.1배, 연결보습은 1.8배, 김매는 기계는 2.7배, 비료살포기는 1.7배, 추수기계는 8.3배, 벼 종합탈곡기는 2.1배가 각각 증대되었고 모 이앙기 3만 대를 농촌에 공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양곡생산은 74년에 700만톤 이상을 생산하여 계획기간을 2년이나 앞당겨 목표달성하고 정보당 수확고는 논벼 5.9톤, 강냉이는 5톤에 이르고, 축산·과수·잡업분야에서는 70년비 고기는 1.4배, 알은 1.8배, 고치는 2.1배로 늘었다고 했다.

북괴는 당초 제시한 6개년계획 곡물생산목표를 2년이나 앞당겨 74년에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74년의 북한 기상조건이 아주 나빴고 강수량이 극히 작고 대한밭이 닦쳐 농작물생산(農作物生産)이 극히 불리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558만톤에 불과하며, 계획목표의 74~79% 수준에 불과한 저 조한 실적이었다.

〈수송부문〉

기간중 신규철도의 전기화는 160km가 달성되었고 일부 철도구간이 내연화(內燃化)되었으며, 420km의 신규철도가 건설되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철도화물 수송량은 1.7배로 확대시켰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수송부문에서는 화물수송량이 1.8배로 늘어났으며, 해운을 통한 무역 화물 통과능력이 2.6배, 선박화물(船舶貨物) 수송량이 1.7배로 증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기간중 수송난(輸送難)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나 지형조건상 남북노선(南北路線)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기존시설의 대부분이 일제(日帝)가 남긴 노후화 된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낙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우기 해운수송분야에서는 동서(東西)가 완전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수송의 난점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3. 제(第)2차(次) 7개년(個年) 경제계획(經濟計劃) (1978~1984)

북괴는 이 기간중 국민소득을 1.9배로 늘리고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면서 생활 향상을 위한 당면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것이며, 노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다 같이 한계급 더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업생산액을 2.2배로 늘려 공업생산 평균 성장률을 12.1%로 지속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농업부문에서 양곡생산을 계획 연도말 1,000만톤으로, 수산부문에서는 수산물 생산을 계획 연도 말에 350만톤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기타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확충방안으로 철도화물수송 1.7배, 자동차 수송 4배, 선박화물수송 4.4배 등 높은 성장계획을 책정했다. 부문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업부문(工業部門)

북한은 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을 기존공업토대의 최대이용으로 공업주체화(工業主體化)를 강화 모든 공업부문을 더욱 현대화하는데 두었다고 밝혔다. 세부실천방침으로는 첫째, 전력공업 및 채취공업의 확고화로 연료공업기지와 원료기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둘째, 새로운 공업부문 창설과 공업생산 구조의 완비로 공업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함으로써 공업주체성(工業主體性)을 강화하고 셋째, 낡은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개조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에 힘쓰으로써 공업기술토대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며 넷째, 공업기술수단의 현대화와 함께 공업의 과학적 운영을 도모하여 모든 공업 부문의 생산조직과 생산방법을 현대 과학적 요구에 맞게 완성시켜 공업의 급속한 성장 추진을 구한다는 점들을 내 세우고 있다.

나. 전력공업부문(電力工業部門)

동 계획기간 중 전력공업부문을 타 공업부문에 선행개발(先行開發)한다는 방침에 따라 발전능력을 500~600억 kwh로 제고키로 하고 이를 위해 화력발전부문에서 기존발전 능력을 더 늘리는 한편 신규화력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도 소재지를 비롯한 주요도시에 열난방을 위하여 저열탄을 주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火力發電所)를 건설하고, 또한 여열(餘熱)과 발열(發熱)을 이용하는 공장화력발전소(工場火力發電所)의 건설도 병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 채취공업부문(採取工業部門)

북한은 자립적 연료 및 원료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인민경제(人民經濟)의 주체화(主體化)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주장하고 이를 위해 동 계획기간 중 석탄 생산량을 7~8천만톤으로 책정하고 기존탄광의 개건(改建)확장과 함께 신규 대규모탄광 및 중소탄광을 적극 개발키로 하고 있다.

라. 금속공업부문(金屬工業部門)

흑색 공업부문에서는 선철(銑鐵) 및 입철(粒鐵) 640~700만톤, 강철(鋼鐵) 740~800만톤, 압연(壓延) 강재(鋼材) 560~600만톤을 각각 생산토록 목표를 정했다.

제철소 및 제강소의 낡은 기술을 개조하고 자동화 및 반자동화 산업, TV 및 원격조정화를 도입하여 광강석(鑛鋼石) 예비처리로부터 제철·제강·압연 그리고 2차금속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의 현대화 및 과학화를 추진키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자원에 의한 알미늄 생산을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마. 기계부문(機械部門)

북괴는 기계공업의 획기적 발전여부가 7개년계획 달성의 관건이 된다고 전제, 동 기간 중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계가공품(機械加工品) 생산(生産)을 500만톤으로 책정하고 있다.

공작기계부문(工作機械部門)에서는 공작기계를 5만대 생산하고 대형 및 특수공작기계의 자동화 및 반자동화, 만능공작기계 생산을 확대키로 하고 있다.

중전기부문(重電氣部門)에서는 대형보일러 및 발전기의 생산, 불도우저, 굴착기, 종합굴진기, 권양기, 마광기 등 운반 및 채굴기 재생산을 확대키로 하고 있다.

수송용 차량부문에서는 중량자동차 생산에 역점을 두었다.

농기계부문(農機械部門)에서는 트랙터 공장의 생산 설비를 보강하여 생산량을 45,000대 수준에 이르게 하며, 이와 함께 모 이앙기, 벼수확기, 강냉이 수확기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의 생산확대에도 주력키로 하고 있다.

조선부문(造船部門)에서는 화물선, 가공모선(加工母船), 냉동운반선, 선미(船尾)트랄선의 선박건조에 주력키로 하고 있으며, 전자공업 부문에서는 반도체 직접회로를 비롯한 전자요소 및 각종 자동화 기구, 계기생산들의 품종 및 생산량 확대에 주력키로 하고 있다.

바. 화학부문(化學部門)

화학비료 생산은 500만톤, 농약생산(農藥生産)은 2배, 화학섬유생산(化學纖維生産)은 1.8배, 그리고 합성수지생산(合成樹脂生産)은 2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기존공장은 더욱 현대화하고 그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인비료생산기지(生産基地)의 신규건설에 주력키로 하고 있다.

사. 건재공업부문(農材工業部門)

시멘트 생산능력을 1984년에 1,200~1,300만톤으로 늘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존 시멘트 공

장의 소성로(燒成爐)를 증설하는 한편 신규 시멘트 공장건설에 역점을 두기로 계획하고 있다.

아. 농수산부문(農水産部門)

알곡생산 목표를 조곡(粗穀)기준 1,000만톤으로 책정하고 무엇보다 알곡생산에 주력할 것을 계획하여 남새 및 기타 특용 작물 생산과 담배·고치·아마를 비롯한 공예작물생산(工藝作物生産)을 확대키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당중앙위 제5기12차 및 13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자연개조(自然改造) 5대방침의 철저한 관철을 위해 우물파기, 졸장박기 등 지하수(地下水)를 뽑아 쓰기 위한 투쟁과 저수지 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81년 4월내로 18만정보의 관개망(灌溉網) 확장 및 관수체계 확립(灌水體系確立)과 계단식 밭건설, 새땅찾기, 치산치수(治山治水), 간석지개간, 중소하천 정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수산부문(水産部門)의 목표(目標)는 수산업에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워 근해(近海)와 원해(遠海)에서 물고기잡이를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1984년에는 수산물 생산량이 350만톤에 이르게 하며 그 중 물고기 생산은 270만톤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자. 수송부문

동 계획기간 중 철도화물수송량은 1.7배, 자동차화물수송량은 4배, 선박화물 수송량은 4.4배로 각각 늘이고, 집중수송의 광범한 도입과 철도·자동차·선박의 연결수송을 강화하여 수송수요의 원활한 보장을 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도부분에서 1,600km를 전기화하고 강계(江界)~무산(茂山)간 철도건설 및 무산(茂山)~청진(淸津)간 정광수도관(精鑛輸途管) 제2단계 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전기기관차공장 및 차량생산 공장을 정비(整備)·보강(補強)하며 새로운 화학생산공장을 건설하고 기관차 및 특수차 생산을 확대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자동차수송부문에서는 화물자동차(貨物自動車) 및 연결차의 증차(增車)로 단거리 및 장거리 수송을 강화하고, 해상운수부문에서는 연해(沿海)와 강하천(江河川) 수송발전으로 무역화물수송을 확대키로 하고 있다.

기본건설분야(基本建設分野)에서는 원산항을 비롯한 무역항을 확장하여 신규 현대적 항구들을 통한 무역화물선박의 운항능력을 2배로 확대키로 계획하고 있다.

4. 북괴 경제의 문제점

북괴는 6개년계획(1971~76)을 1975년 8월말로 1년 4개월 조기달성(早期達成)했다고 발표했으나 완충기(1976~77)를 정하여 완성한 셈이므로 결국 7년 걸린 셈이다. 북괴는 조기달성을 위해 1973년부터 75년까지 소위 「속도전」을 전개하면서 김일성(金日成)에 대하여 절대성, 무조건성의 충성을 전주민에게 강요했는데, 이 운동의 추진부대는 다름 아닌 「3대혁명소조(小組)」였다.

3대혁명소조는 북한 전역의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에서 경제 건설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조기달성운동을 전개한 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그 성과(成果)가 실태(實態)와 동떨어졌고

둘째, 계획성(計劃性)을 무시하여 대규모 건설을 강행했기 때문에 거액(巨額)의 플랜트·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약 25억 달러(77년말 현재)란 외채(外債)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日本)·서구제국(西歐諸國)이 대북과수출(對北僑輸出)을 억제함으로써 많은 건설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성공장의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셋째, 3대혁명소조의 횡포로 인하여 계획조직(計劃組織)과 생산질서(生産秩序)가 비정상화(非正常化)됐다. 이에 경제정상화를 되찾기 위해 3대 혁명 소조운동과 함께 「3대혁명 붉은기쟁취 운동」이란 대중동원방식(大衆動員方式)을 채택, 행정 부문에서 경제실무파를 등용했다.

북괴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해야만 했고, 북괴는 신경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위주로 하는 국제노선(國際路線)을 취하느냐 아니면 경제성장을 희생하는 자력갱생노선(自力更生路線)을 취하느냐 하는 중대 기로(岐路)에 직면하게 됐다. 즉 전자(前者)(국제노선)는 외자도입(外資導入)과 무역촉진(貿易促進)을 도모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경제우선정책(經濟優先政策)이고, 후자(後者)는 자급자족적인 경제적 오오타키(Autarchy)를 도모하여 경제성장을 희생시키는 정치우선정책(政治優先政策)이다.

북괴는 후자의 노선을 취하면서 친소(親蘇) 국제파(國際派)를 일소하면서 중공(中共)에 접근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197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7개년경제계획은 1974년 2월에 장기 전망계획으로서 발표한 10대건설전망목표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북괴는 2차 7개년계획(1978~84)의 기본 목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主體化)·현대화(現代化) 및 과학화(科學化)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경제 토대를 다시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들고 나왔으나 현대화·과학화는 같은 의미이므로 주체화(主體化)와 현대화(現代化)로 사회주의경제(社會主義經濟)를 강화하려고 한다.

경제(經濟)의 「주체화(主體化)」란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경제이다. 이 자력 갱생의 경제 노선은 경제건설의 자력수행(自力遂行)·원자재(原資材)의 자체조달·기술의 자체의존 등을 통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경제적(經濟的) 자립노선(自立路線)이다. 그러나 북괴의 경제자립 노선은 25억달러 외채불이행(外債不履行)으로 그 모순이 드러났다.

2차 7개년계획의 내용에서의 공업생산 연평균증가율(年平均增加率) 12.1%는 제1차 7개년 계획의 18.0%, 6개년계획의 14.0%에 비하면 훨씬 낮은 비율이다. 이는 공업 부문에서의 생산 시설(生産施設) 노후화(老朽化), 원자재(原資材)의 부족화(不足化), 기술의 낙후화(落後化) 등에서 오는 공업성 장의 둔화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2차 7개년계획의 목표치(目標値)를 10대건설 전망목표에 비하면 전망목표치를 상회한 부문은 전력(電力)뿐이고 철강·석탄·시멘트·수산물 및 곡물 등 5개 부문이 하회한 상태이니 전반적으로 기간산업 부문의 생산전망은 불투명한 것이다.

2차 7개년계획의 목적(目的)은 「10대경제건설목표」와 같이 북괴의 적화통일(赤化統一)이란 정치·군사 우선정책을 주관하는 군수공업(軍需工業)을 확대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군수공업을 지원하는 각종 기초산업과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산력을 증가하려는 것이다. 군수공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기초중간재공업(基礎中間財工業)과 기초자본재공업(基礎資本財工業)이 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산업으로서 기초생활필수산업(基礎生活必需品産業)이 있다.

금속부문에서는 철강 및 비철금속 등의 자재생산과정(資材生産過程)에서 가공도(加工度)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기술부족으로 그 난관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

기계공업 부문의 각종 기계류와 플랜트 제작에 있어서 품질향상(品質向上)을 도모하고자 하나 역시 기술부족으로 그 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석유공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화학공업의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재래식(在來式) 화학공업(化學工業)의 계열화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지의 집단적 소유라는 명목적(名目的) 소유(所有)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농촌노동력(農村勞動力) 부족으로 농산물 생산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기술면에서 더욱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의 기계화와 화학화(化學化)에 필요한 영농기계 공급부진·비료 및 농약부족 영농기술미숙 등 술한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

한편 공업은 중화학공업이 군수공업과 링크돼 있으므로 기초생산재 및 기초자본재공업이 소비재공업이나 최종 중화학 제품공업과 연결돼 있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최종 소비재나 최종 중화학제품이 부족하므로 대내(對內) 소비수요 뿐만 아니라 대외수출 무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출선도상품(輸出先導商品)의 생산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출이 부진한 데 반하여 계획건설에 따르는 플랜트·기계류·원자재의 수입이 증대함에 따라 북괴는 만성적(慢性的) 외화부족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장 및 농업 등 각 산업에서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그 수송을 감당하지 못하여 심각한 애로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만성적 수송난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공업부문에서는 양산체제에서 질산체제(質産體制)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니되는데 계획 및 관리의 경직화(硬直化)·생산시설의 노후화(老朽化)·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그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부문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서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영농자금(營農資金)·영농기술(營農技術) 부족으로 인하여 그 전환이 곤란하다.

또한 농업의 명목소유제(名目所有制) 때문에 농민의 생산의욕이 없어 집적생산체제(集約生産體制)는 커녕 조방생산체제(粗放生産體制)(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인 외연적(外延的) 방식(方式)으로, 자본집약적인 집약생산체제에 대칭되는 개념임)하(下)에서도 증산이 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장명언(名將名言)

병사(兵士)들이 자기 부대가 잘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감(自信感)을 잃게 되며 특히 전투(戰鬥)의 위험에 직면할 때 더욱 그러하다.

- 크라크 -

공산주의(共產主義)란 무엇인가

- ◇ 「능력(能力)에 따라 일하고 필요(必要)한 만큼 향유 ◇
- ◇ (享有)한다」는 사회(社會)를 상상(想像)해 본 적이 ◇
- ◇ 있습니까? 그러한 사회(社會)가 진실(眞實)로 인간 ◇
- ◇ 사회(人間社會)에서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소령(少領) 김 영 태 (金永台)

〈공군본부(空軍本部) 정훈감실(政訓監室)〉

서론(序論)

해답(解答)은 바로 불가능(不可能)입니다. 가능하다면 그것이 천국(天國)이라고 결론(結論)이 내려질 것이다. 유구(悠久)한 역사(歷史) 가운데 인류(人類)가 갈구하던 「이상향(理想郷)(Utopia)이 바로 이러한 사회(社會)인 것이다. 그러나 가소(可笑)롭게도 오늘날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이 바로 이러한 사회(社會)를 건설(建設)할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행동(行動)으로 나타내겠다고 장담한다. 그렇지만 결과(結果)는 전체인류(全體人類)가 원하는 반대방향(反對方向)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勞働者)를 자본가(資本家)의 착취에서 해방시킨다는 그들의 구호(口號)가 오히려 거대(巨大)한 집단(集團) 노역장(勞役場)에서 인간(人間)의 근본욕구(根本欲求)인 「소유욕망(所有欲望)」을 무시 당한채 영원(永遠)히 헤어날 수 없는 혹사(酷使)에서 허덕이게 하고 있다.

과연(果然) 공산주의(共產主義)는 실현(實現)될 수 있을까?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 스스로도 이제는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만 공산주의사회(社會主義社會)를 구현(具現)한다고 외친다. 즉 공산주의(共產主義)는 사회주의(社會主義)가 가장 발전된 사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사회주의(社會主義) 자체(自體)도 심각한 자기모순(自己矛盾)에 빠진 채 생존(生存)을 위한 수정(修正)이 불가피(不可避)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소련이나 중공(中共) 특히 북한(北韓)에서 진정(眞正)한 민의(民意)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부(一部) 공산당광신도(共產黨狂信徒)를 제외(除外)한 대다수(大多數) 사람들은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택(擇)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본연(人間本然)의 기본욕구(基本欲求)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유치(幼稚)한 예(例)를 하나 들어 보자. 두 어린 아이들 앞에 사탕 한 봉지를 내밀어 놓고 서로 사이좋게 함께 먹으라고 했을 때와 똑같이 나누어 주고 먹으라고 했을 때의 차이점(差異點)을 한번 생각 해 보자. 반드시 후자(後者)가 전자(前者)보다 오랜 시간(時間)동안 애들의 손에 남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人間)은 어릴 때부터 벌써 개인(個人) 소유의식(所有意識)을 지닌 채 아껴서 사용(使用)할 줄 알고 또한 남겨놓고 오랫동안 음미(吟味)하려는 본성(本性)에 기인(起因)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부모 밑에서 핏줄을 함께 한 형제지간(兄弟之間)에도 이러는데 하물며, 서로 다른 집단(集團)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능력(能力)에 따라 일하고 필요(必要)에 따라 향유(享有)한다.」는 잡꼬대가 실현되리라고는 삼척童子(三尺童子)조차 믿기 어려운 거짓인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오늘날 우리의 주위(周圍)에서는 이러한 공산주의(共產主義)의 허구성(虛構性)을 오해(誤解)한 나머지 심지어는 감상주의적(感傷主義的)인 동경론(憧憬論)까지 대두(擡頭)되어 급기야는 공산주의의 이론(理論)은 아주 좋는데 실제수행과정(實際遂行過程)이 나쁘다는 말을 서슴없이 뇌꺽이는 풍조(風潮)가 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방(國防)의 지주(支柱)인 장교(將校)들로 하여금 공산주의(共產主義)에 대한 올바른 인식(認識)을 갖게 하여 좀더 차원(次元) 높은 반공적(反共的) 국가관(國家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소책자(小冊子)를 준비하게 되었다.

모든 이론(理論)에는 그 시대적(時代的) 배경(背景)이 있고 그걸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인식(認識)을 할 수 없다.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共產黨宣言)」을 기초(起草)한 100년 전 당시(當時)를 고려(考慮)해 볼 때 지극히 타당성(妥當性)이 있었고, 또한 자본가(資本家)의 횡포(橫暴)에 원한을 품은 산업혁명(產業革命) 당시의 노동자(勞動者)에게는 상당한 호소력(呼訴力)이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론(理論)이 정반대(正反對)의 현상(現象)을 유발시켰음이 역사적(歷史的)으로 증명(證明)되었고 공교롭게도 「공산주의(共產主義)」란 미명(美名) 아래 새로운 노예사회(奴隸社會)가 이룩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제(第)1장(章) 공산주의사상(共產主義思想)의 시대적(時代的) 배경(背景)

18, 19세기 유럽에서는 정치(政治)·경제(經濟)·문화사상(文化思想)의 급격한 변화(變化)가 일어나는 가운데 민족운동(民族運動), 민주운동(民主運動), 전쟁(戰爭)과 혁명(革命) 그리고 분노(憤怒)와 불만(不滿)이 이 시대(時代)를 뒤흔들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시대(時代)에 태

어나서 불만(不滿)과 혁명(革命)의 일생(一生)을 살게 됨에 따라 자연(自然)히 그의 혁명이론(革命理論)은 냉정성(冷靜性)과 객관성(客觀性)을 갖지 못한 채 이러한 시대(時代)의 분노(憤怒)와 불만(不滿)을 수용(收容)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의 이론(理論)은 한마디로 「복수철학(復讐哲學)」이라 할 수 있다.

1. 산업혁명(產業革命)과 그 영향(影響)

산업혁명(產業革命) 이후, 유럽은 급속도로 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마르크스사상(思想)은 바로 산업혁명(產業革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1769년 왓트(Watt)가 증기기관을 발명(發明)함과 더불어 모든 공업(工業)은 수공업생산(手工業生産)에서 기기공업생산화(機器工業生産化) 되었고, 특히 방직(紡織), 채탄(採炭), 제철방면(製鐵方面)에는 급속(急速)한 성장(成長)이 시작(始作)되었다. 다방면(多方面)에서 보다 많은 기기(機器)가 필요(必要)함에 따라 진일보(進一步)되어 석탄과 제철공업의 시대로 발전하게 되었으므로 영국(英國)의 공업(工業)은 대대적(大大的)인 발전(發展)이 일어났다.

상품(商品)의 질(質)이 개량(改良)되고 증가(增加)되었으며, 교통수단(交通手段)이 혁신(革新)되어 영국인(英國人)의 육해상(陸海上) 상업활동(商業活動)이 눈부시게 가속화(加速化)되었다.

그러나 기기공업(機器工業)의 발전(發展)과는 반대(反對)로 그 당시(當時) 공업(工業)의 주축(主軸)이었던 수공업(手工業)은 생산량(生産量), 효율(効率) 그리고 가격면(價格面)에서 경쟁력(競爭力)을 잃고 몰락(沒落)의 길을 치닫(馳蹶)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연(自然)히 일자리를 구(求)하기 위하여 수공업자(手工業者) 및 그 가족(家族)은 대공장(大工場)부근으로 운집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영국(英國) 곳곳에는 이전에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도시(都市)들이 생기게 되었다. 인구(人口)의 도시집중(都市集中)으로 자연(自然)히 취업기회(就業機會)가 심각화되고 따라서 자본가(資本家)들은 재부(財富)의 축적(蓄積)을 위하여 임금(賃金)이 낮은 부녀(婦女), 아동(兒童)들을 고용하여 작업 시간을 연장(延長)시키는 등,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 당시(當時) 작업시간(作業時間)은 매일(毎日) 14시간(時間)에 달했고, 심지어 공장 굴뚝 청소(掃除)를 위해 못먹고 여원 어린이들을 골라서 작업을 시켰다. 이는 굴뚝 속을 들어가자면 몸이 여위어야 하는 이유(理由)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현상(社會現象) 속에서 공급과잉(供給過剩)에 의한 실업률(失業率)이 높아져서 거리에는 온통 실업자(失業者)들로 들끓게 되고 빈민가(貧民街)에서 굶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안 부유층(富裕層)에서는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날새는 줄 모르는 모순(矛盾)이 당연한 것처럼 자행되고 있었다. 특히 도덕(道德)은 땅에 떨어져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부녀(婦女)들이 정조를 팽개치는 일은 보편화(普遍化)되었다. 이 죄악(罪惡)의 시대(時代)를 목도(目睹)한 청년(青年) 마르크스는 소위(所謂) 산업예비군(產業豫備軍)(실업자(失業者))을 이용(利用)하여 자본가

(資本家)를 타도(打倒)하고 사유재산(私有財産)이 없는 공산주의(共產主義)를 꿈꾸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의 그 당시 판단(判斷)은 옳았고 또한 지극히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 입장(立場)에서 취해진 행동(行動)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이나 유럽의 각 국가들은 자국(自國)의 공업발전(工業發展)과 부국강병(富國強兵)의 제국주의(帝國主義) 측면에서 이러한 자본가(資本家)의 행위(行爲)를 간섭(干涉)함이 없이 자연현상에 맡겨두는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가(資本家)는 갈수록 부유해졌고, 노동자(勞動者)는 점점 궁핍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업국가(工業國家)는 점차 자체내(自體內)의 법(法)과 제도(制度)를 개선하여 이러한 모순(矛盾)을 제거하게 됨에 따라 마르크스의 이론(理論)은 착오(錯誤)였음이 증명(證明)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人間)은 생존(生存)을 위해 투쟁(鬪爭)만 한다는 그의 편협적 견해에서 서로 협조(協助)하며 공생(共生)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立證)시킨 것이다.

2. 사회주의사조(社會主義思潮)

사회주의사조(社會主義思潮)는 하루 아침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사상(思想)이지만, 산업 혁명 후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회적(社會的) 병태(病態)로 인하여 18, 19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발전(發展)되었으며, 특히 그 중심(中心)은 불란서였다.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추방(追放)되어 파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와 이러한 사조(思潮)에 휩쓸려 자연(自然)스럽게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로 변신(變身)하게 되었다. 그 당시 불란서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로 명성(名聲)을 떨치던 사람은 세 사람이었다.

(1) 푸리에(Fourier, 1772~1837)는 불란서 상인(商人)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자본주의(資本主義)를 저주했다. 그러나 그는 폭력(暴力)이나 절대평균(絕對平均)을 반대하고 인성(人性)의 자연적(自然的) 순응(順應)에 따라 인간(人間)의 이기심(利己心)을 이용(利用)하여 기기(機器)를 통(通)한 공동생산(共同生産)을 한 후, 생산(生産)의 삼요소(三要素)(노동(勞動), 자본(資本), 기술(技術))에 따라 합리적(合理的)인 공평분배(公平分配)를 실시(實施)한다는 사상가(思想家)이다.

(2) 상시몽(St. Simon, 1706~1825)은 귀족출신의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로서 평화적(平和的) 수단(手段)으로 국가가 사유재산(私有財産)을 계승하여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노동조합(勞動組合)이 국가권력(國家權力)을 대리(代理)한다는 사상가(思想家)이다.

(3) 푸루동(Pourdron, 1809~1865)은 빈곤한 수공업자(手工業者) 집안에서 태어나 자신(自身)이 인쇄공(印刷工)을 거쳐 인쇄소(印刷所)를 경영하다가 직업적 사회주의사상가(社會主義思想家)로 활동(活動)한 사람이다. 1843년(年) 마르크스가 파리에서 푸루동과 친교(親交)를 맺고 지극히 흠모했으나 얼마 안되어 사상적(思想的) 견해차(見解差)로 결별(決別)하게 되었다. 즉, 마르크스는 폭력혁명론자(暴力革命論者)이며, 푸루동은 자유적호조주의자(自由的互助

主義者)이기 때문에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를 주장하며 개인(個人)의 완전자유(完全自由)를 제창(提唱)했다. 특히 그는 사유제(私有制)는 강자(强者)가 약자(弱者)를 박탈하고, 공유제(公有制)(공산주의(共產主義))는 약자(弱者)가 강자(强者)를 박탈한다고 했으며, 공민(公民)의 자유(自由)는 정치(政治)에 의해 결정(決定)되고 노동자(勞動者)의 자유(自由)는 경제(經濟)에 의해 좌우(左右)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영국(英國)의 저명(著名)한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 오웬(Owen)이 있었으며, 그는 이윤(利潤)과 화폐(貨幣)를 폐지하고 기업경쟁제도(企業競爭制度) 대신에 합작주의(合作主義)를 주장했다. 또한 사회(社會)를 실험적(實驗的) 공산주의조직(共產主義組織)으로 개조(改造)한 후 평화적(平和的) 방법(方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유재산제사회(共有財産制社會)를 이룩할 수 있다고 했으며, 마르크스에게 지대(至大)한 영향을 주었다.

이상에서 말한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들은 당시 사상계(思想界)에 커다란 세력(勢力)을 가지고 각자(各自) 사회(社會)가 노동자생활(勞動者生活)에 관심(關心)을 기울이도록 영향력(影響力)을 행사(行使)했고 특히 정부(政府)가 노동자(勞動者) 문제(問題)를 법적(法的)으로 보장(保障)하도록 압력(壓力)을 가했다. 나아가서 그들의 사상(思想)은 노동자(勞動者) 및 청년(青年)들에게 사회주의(社會主義) 인상(印象)을 깊이 심어 놓았다. 특히 오늘날까지 개발도상국가(開發途上國家)의 청년(青年)들이 감상적(感傷的) 사회주의사상(社會主義思想)을 가지고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에게 이용(利用)당하고 있는 현실(現實)도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사상(社會主義思想)은 마르크스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국가(資本主義國家)에도 커다란 영향(影響)을 주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을 선두(先頭)로 각국(各國)은 노동입법(勞動立法)을 신설(新設) 또는 개진(改進)하고 노동환경(勞動環境)을 개선(改善)하며 임금문제(賃金問題)에까지 간섭(干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자기모순(自己矛盾)이 아닐 수 없다.

3. 독일(獨逸)의 고전철학사상(古典哲學思想)

19세기 중엽까지 독일은 아직도 완전한 통일을 하지 못한채, 영국과 불란서에 이어 겨우 공업발전을 시작(始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독일 지식인들은 비록 공업(工業)은 타국가(他國家)와 비교해서 낙후(落後)되었지만 국가통일(國家統一)을 위해서는 정신적(精神的) 영역(領域)에서 그 해결책(解決策)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며, 그리하여 독일의 철학사상(哲學思想)은 대단히 발전되었다.

18세기 말에 헤에겔(Hegel)이 「변증법(辯證法)」을 통한 유심주의철학체계(唯心主義哲學體系)를 완성했고, 그 후에 포이에르바하(Feuerbach)가 유물론철학(唯物論哲學)을 크게 발

전시켰다. 마르크스는 베를린대학(大學)에서 철학(哲學)과 법률(法律)을 전공하면서 「청년(青年)헤에겔좌파(左派)」에 가입하여 「헤에겔」 사상(思想)을 연구했으며, 스스로 「헤에겔」의 대제자(大弟子)라 일컬었다. 이 단체(團體)는 「포이에르바하」가 중심(中心)이 되어 「헤에겔」 유심철학(唯心哲學)을 유물철학(唯物哲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그의 유물론 철학의 근원(根源)을 찾고 완성(完成)하게 되었다.

제(第)2장(章)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이론구조(理論構造)

「마르크스」 사상(思想)의 근원(根源)은 독일의 고전철학(古典哲學), 불란서의 사회주의(社會主義) 그리고 영국(英國)의 고전경제학(古典經濟學)에 있으며, 그 이론구조(理論構造)는 잉여가치론(剩餘價值論), 유물사관(唯物史觀)과 사회주의(社會主義) 등(等) 3개(三個) 부분(部分)으로 되어 있다.

1. 잉여가치론(剩餘價值論)

잉여가치론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核心)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론(革命理論)의 지주(支柱)이다. 그러면 과연(果然) 잉여가치론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일체상품(一切商品)은 모두 가치(價值)를 가지며, 그 가치(價值)는 「사용가치(使用價值)」와 「교환가치(交換價值)」의 두 종류(種類)로 나뉘어진다. 보통 우리들이 가치(價值)라고 할 때는 교환가치(交換價值)를 말한다. 왜냐하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은 반드시 사용가치(使用價值)가 있게 마련이지만 반대로 사용가치(使用價值)가 있는 물건은 반드시 교환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상품(商品)의 가치(價值)는 어떻게 결정(決定)되는가.

「마르크스」 이전(以前)의 고전경제학과(古典經濟學派)는 「상품가치(商品價值)는 생산시(生產時) 소용(所用)된 노동량(勞動量)」에 따라 결정(決定)된다고 주장(主張)했다.

「마르크스」는 이 학설(學說)을 개조하여 「상품가치(商品價值)의 대소(大小)는 생산시(生產時) 소모(消耗)된 노동량(勞動量)에 따라 결정(決定)된다. 다만, 가치결정(價值決定)은 각(各) 개인(個人)의 노동량(勞動量)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社會) 평균필요노동량(平均必要勞動量)에 의해 결정(決定)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여 「마르크스」는 고전경제학설(古典經濟學說)의 노동가치설(勞動價值說)을 개조(改造)하여 잉여가치론(剩餘價值論)을 창조(創造)해 내었다.

노동자(勞動者)는 자본가(資本家)로부터 임금(賃金)을 받고 상품(商品)을 생산(生産)하고 신가치(新價值)를 창조(創造)하여 자신(自身)에게 지불(支拂)된 임금(賃金)을 상환(償還)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勞動者)가 창조(創造)한 가치(價值)는 그가 받은 임금(賃金)을 항상 초과(超過)하게 되며, 이것이 소위(所謂) 잉여가치(剩餘價值)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勞動者)의 1일

(一日) 임금(賃金)이 500원이라고 한다면 그가 상환(償還)해야 할 가치(價值)는 5시간 동안 생산(生産)해낸 신가치(新價值) 500원이며, 이것을 자본가(資本家)에게 돌려주면 꼭 맞는 양(量)이다. 그러나 노동(勞動) 시간(時間)이 5시간에 그치지 않고 8시간 또는 10시간이 되었다고 할 때 노동자(勞動者)가 창조(創造)해내는 신가치(新價值)는 800원 또는 1,000원이 되게 된다. 그러면 임금(賃金)에 대한 가치(價值)의 초과(超過)는 60% 또는 100%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이렇게 하여 노동(勞動)을 「필수노동(必須勞動)」과 「잉여노동(剩餘勞動)」으로 구분(區分)하고 임금(賃金)을 받은 5시간을 유상노동시간(有償勞動時間)이라고 나머지 3시간 또는 5시간을 무상노동시간(無償勞動時間)이라 한다. 자본가(資本家)는 이러한 무상노동시간 중에 창조(創造)된 잉여가치를 노동자에게 배상치 않은 채 착취한다는 것이 「잉여가치론(剩餘價值論)」의 골자(骨子)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착취이론을 가지고 당시 실업자(失業者) 및 빈곤(貧困)한 노동자(勞動者)를 선동하여 소위 착취자(자본가)의 재산을 몰수하고 프롤레타리아(무산자) 정권을 수립하려고 획책한데서 바로 공산주의(共產主義)가 태동(胎動)하게 된 것이다.

2. 유물사관(唯物史觀)

공산주의이론(共產主義理論)의 두 번째 구조(構造)는 역사유물론(歷史唯物論)이며, 이것은 변증법(辯證法)과 유물론(唯物論)에 기초(基礎)를 두고 있다.

가. 변증법(辯證法)(Dialectic)

변증법(辯證法)은 독일의 대철학자(大哲學者) 「헤에겔」이 집대성(集大成)했다. 그는 우주(宇宙)의 일체(一切) 현상(現象)은 부단(不斷)히 발전변화(發展變化)하는 가운데 스스로 소멸(消滅)하고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헤에겔」은 세계상에 영구불변(永久不變)한 것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변화(變化)는 후술(後述)할 3개정률(三個定律)에 따라 수행(遂行)된다는 것이 바로 변증법(辯證法)이라 했다.

(1) 모순통일율(矛盾統一律) — 일체 「존재(存在)」는 대립통일(對立統一)이다. 통일(統一)은 형식(形式)이며, 모순(矛盾)은 내함(內涵)이다. 통일(統一)은 모순(矛盾)으로 인하여 존재(存在)하며 모순(矛盾)은 바로 통일(統一) 가운데 존재(存在)한다. 즉, 모순(矛盾)이 아닌 통일(統一)도 없으며, 통일(統一)이 아닌 모순(矛盾) 또한 없다. 존재(存在) 중에 모순(矛盾)이 있어서 상호대립(相互對立) 및 투쟁(鬭爭)을 통(通)하여 「존재(存在)」의 변화(變化)와 발전(發展)을 시킨다.

(2) 질량호변율(質量互變律) — 통일체(統一體) 내의 모순(矛盾)이 상호대립, 투쟁을 일으켜 자체(自體) 내부(內部)의 변화(變化)를 촉진시키며, 먼저 수량(數量)이 변화(變化)하고 최후(最後)에 양적(量的) 변화(變化)가 질적(質的) 변화(變化)를 유발시킨다. 양(量)에서 질(質)로의 변

화(變化)를 「돌연변화(突然變化)」 또는 「비약변화(飛躍變化)」라하며 소위 이것을 「돌변율(突變律)」이라고도 한다.

(3) 부정(否定)의 부정율(否定律) — 원래의 통일체(統一體)는 모순(矛盾)에서 분열(分裂)되어 새로운 대립체(對立體)를 발생하므로 원래의 통일체(統一體)가 부정(否定)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제1부정이고 다시 여기에서 새로운 대립체(對立體)가 발생되어 제(第)1부정(否定)이 다시 부정(否定)을 당하게 되니 그것을 제(第)2부정(否定)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부정(否定)의 부정(否定)」이다.

다시 말해서 원래(原來)의 통일체(統一體)는 「정(正)」이고 대립체(對立體)의 출현(出現)이 「反」이다. 다시 이 대립체(對立體)를 극복한 통일체(統一體)가 생성되니 그것은 「정(正)」·「반(反)」 양방면의 적극적 인소(因素)를 함유(含有)한 새로운 긍정(肯定)이 형성(形成)되며, 이것을 「합(合)」이라고 한다. 이러한 3단(三段)의 나선형발전(螺旋形發展)과 변화(變化)를 부정율(否定律)이라 한다.

나. 유물론(唯物論)(Materialism)

유물사상(唯物思想)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고대(古代) 희랍(希臘)에서부터 이미 존재(存在)했던 것을 「포이에르바하」가 근대과학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시킨 이론(理論)이며 그 핵심 내용(核心內容)은 바로 세계(世界)의 물질성(物質性)과 객관존재성(客觀存在性)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주만물(宇宙萬物)은 인류(人類)의 의식(意識) 바깥에 존재(存在)하며, 의식(意識)에 관계(關係)없이 존재(存在)하는 객관현실(客觀現實)이다. 즉, 물질(物質)은 제(第)1성적(性的)현상(現象)이고 의식(意識), 정신(精神)은 제(第)2성적(性的)현상(現象)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存在)는 의식(意識)을 결정(決定)하지만 의식(意識)은 존재(存在)를 결정(決定)하지 않는다. 또한 물질(物質)은 정신(精神)을 결정(決定)하나 정신(精神)은 물질(物質)을 결정(決定)치 않는다. 이는 유물론(唯物論)의 기본사상(基本思想)이다.

다. 역사유물론(歷史唯物論)

「마르크스」가 유물론(唯物論)과 변증법(辯證法)을 역사(歷史) 및 사회현상(社會現象)에 도입하여 해석(解釋)한 것이 바로 역사유물론(歷史唯物論)이다.

그러면 「마르크스」는 왜 유물론(唯物論)과 변증법(辯證法)을 종합(綜合)하여 운용(運用)했을까를 생각해 보자. 변증법(辯證法)은 영구불변(永久不變)하는 사물(事物)이 없다는 이론(理論)으로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資本主義)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武器)로 사용(使用)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는 영구(永久)히 존재(存在)할 수 없으며 모순율(矛盾律), 돌변율(突變律), 부정(否定)의 부정율(否定律)에 의해 필연적(必然的)으로 사회주의사회(社會主義社會)로 전이(轉移)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에겔」은 본래 유심론자(唯心論者)로서 그는 「절대정신(絕對精神)」이 우주의 일체현상을 발전(發展) 및

변화(變化)시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마르크스」의 요구에 적합치 않으므로 유물론적(唯物論的) 관점(觀點)을 추가(追加)하여 개조(改造)했던 것이다. 즉, 물질존재(物質存在)는 인류의식(人類意識) 바깥의 객관현실(客觀現實)이므로 사회현상(社會現象)의 발전(發展) 및 변화(變化) 또한 물질인소(物質因素)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로의 이전(移轉)은 인력(人力)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필연적(客觀必然的)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러한 두 개의 부동(不同) 이론(理論)으로 그의 역사철학(歷史哲學)을 창조(創造)하여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의 「필연성(必然性)」을 증명시키려 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소위 「역사적(歷史的) 규율(規律)」이며, 「유물사관(唯物史觀)」인 것이다.

3. 사회주의사상(社會主義思想)

「마르크스」의 사회과학(社會科學)은 공산주의이론(共產主義理論)의 제3부분(第三部分)으로서 경제학(經濟學)과 역사유물론(歷史唯物論)의 실제적(實際的) 운용(運用)의 핵심(核心)이다.

그는 역사발전(歷史發展)을 원시공산사회(原始共產社會), 노예사회(奴隸社會), 봉건사회(封建社會),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 및 사회주의사회(社會主義社會)로 5등분(等分)하고 사회주의사회(社會主義社會)는 인류(人類)의 최후단계(最後段階)이며, 가장 완미적(完美的) 사회(社會)라고 규정짓고 또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목적(目的)은 바로 이러한 사회건설(社會建設)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이론(理論)의 뒷받침으로서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 내의 각종모순(各種矛盾)(자본집중(資本集中), 경제위기(經濟危機) 등(等))으로 인하여 실업자(失業者)(산업예비군(產業豫備軍))가 증가(增加)된다. 하지만 노동자(勞動者)는 평화적(平和的) 수단(手段) (선거권(選舉權)—당시(當時)는 재산(財産)에 따라 제한(制限)됨)으로서 자기(自己)의 목적달성(目的達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폭력수단(暴力手段)을 통하여 자산가(資產家)를 뒤엎고 스스로 통치계급(統治階級)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정권(政權)을 탈취한 후에는 독재정치(獨裁政治)를 실시해야 하며, 자산가(資產家)의 재산몰수(財産沒收), 사유제도철폐(私有制度撤廢)를 단행한 후 재산(財産)을 공유화(共有化)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댓가를 받는 사회」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생산력(生産力)이 증대되고 도시(都市)와 농촌(農村)의 차별(差別)이 없으며, 노동력(勞動力)과 노동욕구(勞動欲求)의 차별(差別)이 소멸(消滅)된 후 비로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향유하는 사회(社會)」를 건설(建設)한다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계급(階級), 국가(國家), 국경(國境) 그리고 전쟁(戰爭)도 완전(完全)히 사라지는 풍요로운 사회(社會), 다시 말해서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상(以上)으로 공산주의이론(共產主義理論)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진실(眞實)로 그런 사회(社會)가 인류역사(人類歷史)에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與否)를 살펴 보기로 하자.

제(第)3장(章) 공산주의이론(共產主義理論)의 허구성(虛構性)

모든 이론(理論)에는 반드시 객관적(客觀的)이고 과학적(科學的)인 비판(判斷)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실(其實) 자기네들의 학설(學說)이 과학적(科學的) 사회주의(社會主義)라고 주장(主張)하는 자(者)들이 그 내용(內容)을 분석(分析)해 보면 지극히 주관적(主觀的)이고 편면적(偏面的)이란 것을 쉽게 발견(發見)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객관적(客觀的)이고도 공정(公正)하게 공산주의이론(共產主義理論)의 허구성(虛構性)을 해부(解剖)하고자 한다.

1. 잉여가치론비판(剩餘價值論批判)

「마르크스」는 고전경제학과(古典經濟學派)의 노동가치설(勞動價值說)을 표절하여 잉여가치론(剩餘價值論)을 만들고 모든 잉여가치(剩餘價值)는 노동자(勞動者)의 잉여노동(剩餘勞動)에 의해서만 창조(創造)된다고 했으나 이것이야말로 비과학적(非科學的) 분석(分析)이다.

생산(生産)의 3요소(三要素)는 노동(勞動), 자본(資本) 및 자원(資源)이므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결핍되어도 생산단계(生産段階)로 접어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오직 「노동(勞動)」만이 잉여가치(剩餘價值)를 창조(創造)한다고 주장함은 허구(虛構)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자본(資本)과 자원(資源)에 의한 잉여가치(剩餘價值)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지금부터 농업(農業)과 공업생산(工業生産)에서 그 해답(解答)을 찾아 보기로 하자.

가. 농업생산(農業生産)에서의 예(例)

농업생산(農業生産)에서 첫 요소(要素)는 토지(土地)(自然資源)이다. 여기 동일한 면적(面積)의 두 필지의 밭이 있다고 하자. 하나는 비옥(肥沃)하고 다른 하나는 메마르다고 가정해서 동일(同一)한 자본(資本)과 노동(勞動)을 투자(投資)해서 수확(收穫)을 했을 때 비옥(肥沃)한 토지(土地)에서 30%의 잉여수확량(剩餘收穫量)이 생겼다면 이 잉여생산량(剩餘生産量)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연(自然)이 인간(人間)에게 준 것인지 결코 자본(資本)이나 노동력(勞動力)에 의한 것이 아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두 번째 요소(要素)는 자본(資本)(도구(道具), 기계(機械) 및 기술조건(技術條件) 등(等))이다.

여기 한 필지의 토지(土地)를 3등분(三等分)하여 생산(生産)을 하려고 한다. 물론 노동력(勞動力), 면적(面積), 비옥성(肥沃性)이 동일(同一)한 조건하(條件下)에서 각각(各各) 투자(投資)한 자본(資本)을 다르게 하려고 한다. 제1부분(第一部分)은 자본(資本)을 가장 적게 하고 수도

도구(手動道具)를 사용(使用)하며 농업기술(農業技術)이 저급(低級)이다. 제2부분(第二部分)은 비교적 많이 자본(資本)을 투자하고 비교적 발달된 기기(機器)를 사용하며 농업기술(農業技術)은 중급(中級)이다. 제3부분(第三部分)은 자본(資本)을 가장 많이 투자(投資)하고 최신기기(最新機器)를 사용(使用)하며 농업기술(農業技術) 또한 고급(高級)이다.

이렇게 하여 수확(收穫)한 결과(結果)를 살펴보자. 제1부분(第一部分)은 겨우 생산(生産)에 소비된 가치(價值)만큼 수확했고, 제2부분(第二部分)은 소모된 가치(價值)이 외에 20% 정도 잉여가치(剩餘價值)를 얻었으며, 제3부분(第三部分)에서는 100%의 효과(效果)를 거두어 들었다. 여기서도 완전히 자본(資本)에 따른 잉여가치(剩餘價值)의 결과(結果)이지 결코 노동량(勞動量)에서 얻은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要素)인 「노동(勞動)」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동일(同一)한 크기와 비옥(肥沃)한 조건(條件)을 가진 토지(土地)에 약간의 신체조건(身體條件)과 연령(年齡), 그리고 지식(知識)이 다른 노동자(勞動者)가 동일(同一)한 농구(農具)와 기술(技術)하에 생산(生産)을 하였다면 그 수확량(收穫量)은 거의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勞動)은 다른 노동(勞動)과 비교하여 특별히 많은 가치(價值)를 창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生産)의 3요소(三要素) 가운데 가장 크게 잉여가치(剩餘價值)에 작용(作用)하는 것은 바로 자본(資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농구(生産農具) 및 기타(其他) 필요한 기술(技術), 지식(知識) 등(等)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資本)은 적극적 요소(因素)로서 생산능력(生産能力)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唯一)한 조건(條件)인 것이다. 만약 「노동(勞動)」이 기술(技術)과 기기(機器)의 조건(條件)을 떠난 상태에서 고려(考慮)할 때에 가치창조(價值創造)에 미치는 영향은 무력(無力)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가 잉여가치(剩餘價值)를 창조(創造)하는 것은 오직 「노동력(勞動力)」 뿐이라는 이론(理論)은 사실무근(事實無根)인 것이다.

나. 공업생산(工業生産)에서의 예(例)

방직공장(紡織工場)에서 동일(同一)한 설비(設備)와 원료(原料)를 가지고 연령(年齡)과 성별(性別) 및 지식(知識)은 다르지만 동일(同一)한 기술지식(技術知識)을 가진 노동자(勞動者)가 생산(生産)을 개시(開始)했다고 하자. 과연 그 결과는 어떠한가? 반드시 별다른 차이(差異)가 없는 생산량(生産量)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생산(工業生産)에서도 노동(勞動)이 잉여가치창조(剩餘價值創造)에 무관(無關)함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자본(資本)의 투자조건(投資條件)에 따라 생산성(生産性)이 어떻게 변(變)하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반드시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

첫번째 노동자(勞動者)는 완전수동식기계(完全手動式機械)로 작업(作業)하고 두번째 노동자(勞動者)는 반자동식기계(半自動式機械)로, 세번째는 완전자동식기계(完全自動式機械)로 작업(作業)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첫번째 노동자가 생산한 방식

(紡織)은 두번째, 세번째 노동자에 비하여 겨우 자기가 받은 임금(賃金)에 대한 상환(償還) 정도의 생산량을 창조하지만, 후자(後者)는 엄청난 잉여가치량(剩餘價值量)을 생산(生産)해 낼 수가 있다. 여기에서 본 결과로 우리는 후자(後者)의 잉여가치는 기계(機械)가 해낸 것이지 결코 노동자(勞動者) 자신(自身)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발달(科學發達)과 기술혁신(技術革新)이 이룩된 현대(現代)에 와서는 공업생산(工業生産)에서 더욱 더 「마르크스」 이론(理論)이 모순(矛盾)임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자. 첫째 노동자의 1일(一日) 평균생산량(平均生産量)이 1척(尺)이고, 다른 두 노동자의 생산량이 10척(尺) 그리고 1000척(尺)이라고 가정했을 때 노동자(勞動者)에게 돌아 가는 소득(所得)은 역시 엄청난 차이가 난다.

1척(尺)을 짠 노동자(勞動者)가 50%의 배당을 받는다 해도 0.5척(尺)의 소득(所得)밖에 없지만, 두 번째의 경우 20%를 받아도 2척(尺)의 소득(所得)이 있고, 세번째는 불과 5%를 받아도 50척(尺)이라는 엄청난 소득(所得)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現代)에서 진실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측(側)은 노동자(勞動者)가 아니라 「기계(機械)」인 것이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결과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剩餘價值論)은 시대착오(時代錯誤)이며, 고도(高度)로 자동화(自動化)된 기계(機械)와 기술혁신(技術革新)이 이룩된 현대(現代)에 와서는 완전(完全)히 오류(誤謬)인 것이다.

2. 유물사관비판(唯物史觀批判)

유물사관(唯物史觀)이란 사회(社會)의 하층구조(下層構造)(경제(經濟))의 변화(變化)에 따라 상층구조(上層構造)(정치(政治), 법률(法律), 문화(文化))가 결정(決定)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방식(生産方式)은 경제기초(經濟基礎)를 변화(變化)시키고 생산공구(生産工具)가 또한 생산방식(生産方式)을 결정(決定)짓는다. 다시 말해서 생산공구(生産工具)는 결정자(決定者)이며, 사회제도(社會制度)는 피결정자(被決定者)이다. 그러면 생산공구(生産工具)는 어떻게 변화하며, 누가 생산공구(生産工具)를 변화(變化)시키는 힘을 가지는가? 말할 것도 없이 인간(人間)이 생산공구(生産工具)를 변화(變化)시키지 결코 물질(物質)(생산공구(生産工具) 자체가 변화(變化)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물사관(唯物史觀)에서는 생산공구(生産工具)가 어떻게 진보(進歩)하는가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생산공구(生産工具)는 경제구조(經濟構造)와 사회제도(社會制度)를 변화(變化)시킨다고 하며, 자칭(自稱) 사회혁명가(社會革命家)요, 사상가(思想家)라고 주장(主張)하는 자(者)들이 생산공구(生産工具)의 발전(發展)을 시키기는 커녕 그 진보(進歩)의 원인(原因)이 무엇인지조차 밝혀내지 않고 있으니 진실(眞實)로 위선자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들은 계급투쟁(階級鬭爭)이 사회진화(社會進化)의 원동력(原動力)이라고 주장(主張)하지만 계급투쟁이 사회(社會) 및 생산공구(生産工具)를 파괴할 뿐이지 결코 개선(改善)이나 창조(創造)를 하지 못하는 분명한 사실(事實)이다. 그렇다면 생산공구(生産工具)는 사회(社

會)가 어떤 상황하에서 진보(進歩)될 수 있다는 것인가? 「마르크스」는 이 문제(問題)를 감히 말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공구(工具)를 만들고 진보(進歩)시킨 것은 바로 인간(人間)이기 때문이며, 인간(人間)의 지혜(智慧)는 또한 관념(觀念)의 범주(範疇)이지 결코 물질(物質)의 범주(範疇)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에서 먼저 상층구조(上層構造)를 개조(改造)한 후에 경제기초(經濟基礎)를 건설(建設)하고 있는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 속에서 그들의 자체 모순(自體矛盾)을 쉽게 발견(發見)할 수가 있다.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모든 사물(事物)의 운동(運動)은 영원(永遠)히 변화(變化)하고 사회(社會)도 쉬지 않고 진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는 필연적(必然的)으로 사회주의사회(社會主義社會)로 변천(變遷)하게 되고 오직 사회주의사회(社會主義社會)만이 인류(人類)의 최후(最後) 단계(段階)이며, 영원(永遠)히 불변(不變)한다는 역설(逆說)은 그야말로 전후(前後)가 엇갈리는 유치한 주장(主張)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회(社會)는 불변(不變)하여 영원(永遠)히 정지(停止)한다면 모든 우주(宇宙) 역시 침체된 채 불변(不變)해야만 할 것이요, 이렇게 된다면 변증법이론(辯證法理論)은 바로 자체모순적(自體矛盾的)이며 스스로 그 이론(理論)을 부정(否定)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는 변증법칙(辯證法則)을 오직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에만 적용시키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社會主義)에서는 예외(例外)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유물사관(唯物史觀)이란 논란의 여지도 없이 모순(矛盾)이며, 자기부정(自己否定)임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는 명확한 사실이다.

3. 사회주의비판(社會主義批判)

사회주의(社會主義) 사상(思想)은 「마르크스」가 독창(獨創)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以前)부터 존재(存在)하던 일반적(一般的) 사상(思想)이다. 본래 사회주의(社會主義)의 기본 내용(基本內容)은 인도적(人道的), 윤리적(倫理的) 동기(動機)를 가지고 출발(出發)한 것이지만 인류사회(人類社會)에서 실현(實現)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결론(結論)을 얻었다. 하지만 그 사상(思想) 가운데 「재산(財産)」의 공유문제(共有問題)를 제외(除外)하고는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가 개선(改善), 발달할 수 있게 공헌을 했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가 비난하는 소위 「공상적(空想的)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론(理論)은 본래(本來)가 인도적(人道的), 윤리적(倫理的)인 동기(動機)에 바탕을 두고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인 약자(弱者)를 평등(平等)하고 자유(自由)롭게 하기 위하여 평화적(平和的) 수단(手段)을 통(通)하여 개선(改善)하려는 이론(理論)이다. 물론 개인(個人)의 재산(財産)을 공유화(共有化)한다는 사상(思想)은 인간기본속성(人間基本屬性)에 배치(背馳)되기 때문에 거절(拒絕)되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복지제도(社會福祉制度)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고 이미 복지국가건설

(福祉國家建設)을 추구(追求)하고 있는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國家)에서는 사회복지제도를 실시(實施)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의료보험(醫療保險), 노인복지(老人福祉), 연금제도(年金制度) 등(等) 많은 사회제도(社會制度)를 도입하고 있어 성과(成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혁명시대(產業革命時代)에 나타났던 자본주의상(資本主義上)의 슬한 난제(難題)(선거운 제한, 노동쟁의 금지 등등)들이 제거되고 보다 더 발전된 복지사회(福祉社會)로 성장(成長)해 가고있다.

한편 「마르크스」는 본래의 사회주의사상(社會主義思想) 가운데 이러한 장점(長點)을 무시(無視)하고 오직 「재산공유제(財産共有制)」만을 오용(誤用)하여 거기다 폭력혁명이론(暴力革命理論)을 가미(加味)하여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포악(暴惡)한 자본가(資本家)로서 수많은 인류(人類)를 착취하는 신노예제도(新奴隸制度)를 창조(創造)하였다. 즉, 자본가(資本家)의 착취로부터 노동자(勞動者)를 해방(解放)시킨다는 미명(美名)아래 오히려 그들을 자유(自由)와 정의(正義)가 완전(完全)히 말살(抹殺)당한 노예(奴隸)로 전락(轉落)시켰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주장(主張)하는 소위 「과학적(科學的) 사회주의(社會主義)」-공산주의(共產主義)의 허구성(虛構性)이며 모순성(矛盾性)이다.

결론(結論)

이상으로 공산주의(共產主義) 이론(理論)의 개요(概要)를 살펴 보았다. 무릇 인류(人類)의 존재목적(存在目的)이 이성(理性)의 판단(判斷)아래 의지(意志)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自由)와 제도(制度)를 보장(保障)받는데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는 이러한 인간본성(人間本性)-자유(自由), 소유욕구(所有欲求)에 바탕을 두고 도덕(道德)과 법률(法律)에 의해 질서(秩序)를 유지하면서 자연법칙(自然法則)대로 살아가는 제도인 반면(反面), 공산주의(共產主義)는 그러한 인간속성(人間屬性)을 무시한 채 획일적 방법으로 통치하는 제도(制度)이다.

우리가 속(屬)해 있는 사회(社會)라고 해서 무조건(無條件) 좋은 제도(制度)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류(人類)가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만큼 좋은 제도(制度)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미래(未來)에도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다. 쉬운 예(例)로 미국(美國)과 소련의 노동자 생활수준을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지만, 특히 북한(北韓)의 노동자(勞動者)와 우리들을 비교한 모든 통계(統計)에서도 우리의 생활수준(生活水準)이 월등히 높은 것은 이미 통계(統計)에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능력(能力)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향유(享有)한다」는 사회(社會)는 바로 종교(宗教)에서 부르짖는 「지상천국(地上天國)」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나 이러한 사회(社會)는 결(決)코 인류사(人類史)에 나타날 수 없음을 그들 자신(自身)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날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는 궁색난 변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 공산사회(共產社會)가 오기 전에 당분간은 「능력(能力)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가진다」는 사회(社會)를 건설(建設)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독재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공산당(共產黨)의 철칙(鐵則)이다. 그러나 우습게도 당분간이라는 시간적 개념은 어디서 근거를 둔 것인지 모르지만, 공산정권(共產政權)이 수립된지 이미 100년이 가까와 오는데도 아직도 당분간이라니 그야말로 인류(人類)를 속이는 것도 정도 문제이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가 예수 탄생시부터 말세(末世)가 왔다, 천국(天國)이 가까와 오니 회개(悔改)하고 준비하라고 외치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종교(宗教)를 비난할 의도(意圖)에서가 아니라 바로 공산주의(共產主義)라는 것은 사랑과 정의(正義)가 말살(抹殺)된 새로운 종교성(宗教性)을 갖고 있음을 비판(批判)하고자 함이다.

끝으로 러셀(Russel)이 서양철학사(西洋哲學史)에서 공산주의(共產主義)와 기독교(基督教)를 비교(比較)한 구절(句節)을 살펴보고 결론(結論)을 맺기로 한다.

- 구세주 — 변증유물론(辯證唯物論)
- 하느님 — 마르크스
- 교회(教會) — 공산당(共產黨)
- 부활(復活) — 공산혁명(共產革命)
- 선민(選民) — 프롤레타리아
- 지옥(地獄) — 자본가(資本家)에 대한 징벌(懲罰)
- 천당(天堂) —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

이 몇 구절(句節)에서 명확(明確)히 알 수 있듯이 공산주의(共產主義)는 이론(理論)에서나 실제(實際)에서 모두 종교성(宗教性)을 띠고 있다. 다만 종교(宗教)의 본래 장점(長點)을 모두 제거(除去)한 채 새로이 군림하는 가공(可憐)할 사이비종교집단(似而非宗教集團)임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명장명언(名將名言)

우수한 지휘관(指揮官)이란 남보다 약간 앞을 내다보고 생각한다의 것 뿐이다. 지휘관(指揮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조용히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을 구상하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한다. 잠이 부족하여도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라.

- 톰 멜 -

북괴(北傀) 「민족해방론(民族解放論)」 주장(主張)의 허구성(虛構性)

편 집 실 (編輯室)

1. 「민족해방론(民族解放論)」의 내용(內容)

민족해방론(民族解放論)을 보다 구체적(具體的)으로 풀어 원명(原名)대로 말하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이라고 저들은 일컫는다. 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에 대하여 1973년(年) 12월(月) 31일자(日字) 북한(北韓) 사회과학출판사(社會科學出版社) 발행(發行) 정치사전(政治辭典)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식민지(植民地) 급(及) 반식민지(半植民地) 나라들에서 외래(外來) 제국주의침략세력(帝國主義侵略勢力)과 그 앞잡이인 국내반동세력(國內反動勢力)을 때려부시고 민족(民族)의 독립(獨立)을 이룩하며 봉건적(封建的) 착취관계를 정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이고 자주적(自主的)인 발전(發展)을 실현(實現)하는 혁명(革命),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의 대상은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外來帝國主義侵略勢力)과 그와 결탁한 지주(地主), 매관자본가(買辦資本家), 반동관료배(反動官僚輩)들이다. 이 혁명(革命)의 동력(動力)은 노동계급(勞動階級)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同盟者)인 농민(農民)과 진보적(進步的) 청년학생(青年學生), 지식인(知識人), 애국적(愛國的) 군인(軍人), 애국적(愛國的) 민족자본가(民族資本家)들과 소자산계급(小資產階級)이다.」 이상(以上)과 같이 설명(說明)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北韓)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이른바 김일성(金日成)의 교시(敎示)라는 것을 내세워 「제국주의잔재세력(帝國主義殘在勢力)과 봉건세력(封建勢力)을 반대(反對)하고 민주주의혁명(民主主義革命)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노동계급(勞動階級)이 핵심(核心)이 되고 광범한, 농민(農民)들과 애국적(愛國的) 지식인(知識人)들, 민족적(民族的) 양심(良心)을 가진 민족자본가(民族資本家)들까지 망라하는 민주주의통일전선(民主主義統一戰線)을 형성(形成)함으로써 노동계급(勞動階級)이 영도(領導)하는 인민정권(人民政權)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건설(建設)하여야 한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저들의 주장(主張)을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면 궁극적인 남한적화야목(南韓赤化野慾)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中間) 목표(目標)가 인민민주주의정권(人民民主主義政權)을 세우는데 있어

서 노동자(勞動者)를 중심(中心)으로 각계(各界) 각층(各層)의 동조세력(同調勢力)을 규합하여 먼저 민족(民族) 해방민주주의혁명(解放民主主義革命)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민족해방(民族解放)이란 미국(美國)을 한국(韓國)에 대한 제국주의침략세력(帝國主義侵略勢力)으로 규정(規定)함으로써 이들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민족(民族)의 해방(解放)이 온다는 명분을 가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1주공목표(第一主攻目標)는 미제국주의(美帝國主義)이고 다음 제2(第二)의 공격목표(攻擊目標)는 이들에 앞장서고 있는 현정부(現政府)와 지주(地主)·자본가(資本家)들이라고 표적을 제시(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미국(美國)으로부터 식민지(植民地)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政府)가 미국(美國)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美國)과 우리나라는 하나의 우방(友邦)으로서 상호협력관계(相互協力關係)에 있을 뿐 하등의 주종관계(主從關係)에 있지 않으며 더우기 70년대(年代) 후반(後半)을 들어 오면서부터는 오히려 경제적(經濟的)인 면(面)에서 시혜국(施惠國)과 수혜국(受惠國)이라는 종래의 수직적(垂直的) 관계로부터 상호(相互) 수평적(水平的) 관계(關係)로 전환된 상황(狀況)에 접어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제국주의침략세력(帝國主義侵略勢力)이니 식민지(植民地) 또는 반식민지(半植民地)니 하고 떠벌인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따라서 이것은 한국내(韓國內)의 불만세력에 대한 한낱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2. 「민족해방론(民族解放論)」의 출처(出處)와 배경(背景)

이러한 이론(理論)의 출처(出處)와 근거(根據)는 이미 러시아 볼셰비키혁명(革命) 때부터 레닌일당(一黨)에 의하여 실천된 바 있다.

레닌일당(一黨)은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革命)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국가(資本主義國家)에서의 계급투쟁(階級鬭爭)과 식민지(植民地)에서의 민족해방투쟁(民族解放鬭爭)이 연합전선(聯合戰線)에 있지 않고는 불가능(不可能)하다고 내다 보았다. 그것은 독일·헝가리·폴란드 등의 수도(首都)에 적기(赤旗)가 올라갔다 하강(下降)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한 것이다.

1920년(年) 제(第)2차(次) 코민테른대회(大會)에서 레닌이 기초(起草)한 식민지(植民地) 및 반식민지(半植民地) 제국(諸國)에서의 혁명운동(革命運動)에 관한 체제가 채택된 것은 바로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예비(豫備)를 빼앗으려는 또 하나의 유력(有力)한 전선조직(戰線組織)을 뜻한다. 곧 식민지(植民地) 및 반식민지운명(半植民地運命)의 나라들에서 민족주의(民族主義)를 고취하여 민족해방투쟁(民族解放鬭爭)이라는 이름의 반제투쟁(反帝鬭爭)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1920년대(年代) 초(初)에 마린, 보인틴스키 등 유력(有力)한 코민테른의 지도적(指導的) 인물(人物)이 중국(中國)에 파견되어 반봉건국민혁명(反封建國民革命)의 손문(孫文)을 「연(聯)소용공(容共)」으로 움직이게 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소비에트러시아와 중국국민당(中國國民

黨)의 연계(連繫)를, 대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中國共產黨)을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에 흡수하는 조건으로 통합하여 손문(孫文)의 국민혁명이념(國民革命理念)인 삼민주의(三民主義)를 유일지도이념(唯一指導理念)으로 신봉케 하는 약속의 성립(成立)을 뜻한다.

이에 의하여 1924년 1월(月) 제(第) 1차(一次) 중국(中國) 국민당대회(國民黨大會)에서 중공당수(中共黨首) 진독수(陳獨秀)를 비롯한 중공당원(中共黨員)을 국민당원(國民黨員)으로 받아들이는 용공조치(容共措置)를 취했다. 이것을 흔히 제1차(第一次) 국공합작(國共合作)이라고 칭하는데 결코 1대(對) 1의 합작(合作)도 아니었고 중공당(中共黨)의 별도활동(別途活動)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중공당(中共黨)의 별도활동(別途活動)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흡수적 조건의 조직통합이었기 때문에 어제의 중공당원(中共黨員)은 모두 오늘의 국민당원(國民黨員)으로서 국민당(國民黨)의 조직규율(組織規律)에 복종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聯)소용공(容共)」에 의한 국공합작(國共合作)은 어떤 길을 걸었는가.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에 당원(黨員)으로 들어온 중공당원(中共黨員)은 국민당(國民黨) 안에서 국민당(國民黨)의 좌파(左派) 및 중간파(中間派)와 연합(聯合)하여 우파(右派)를 공격했다. 이것을 제(第)1단계 전술(戰術)로 삼았던 것이다.

국민당(國民黨) 안에서 우파세력(右派勢力)을 타도한 뒤에는 종래의 국민당(國民黨) 좌파(左派)를 신우파(新右派)로 몰아서 공격했다. 이것이 중공당(中共黨)의 제(第) 2단계 전술이었다.

제(第) 3단계 전술(戰術)은 국민당(國民黨)의 신우파(新右派)를 타도하고 난 뒤에 중간파(中間派)를 공격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민당(國民黨) 안에 들어가서 국민당(國民黨)을 잡아 먹었다. 중국(中國)의 최근세(最近世) 정치사(政治史)가 입증(立證)하고 있듯이 「연(聯)소용공(容共)」의 국공합작(國共合作)은 옛날에 “교활(狡狴)이란 짐승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창자를 모두 끊어 먹었기 때문에 그 호랑이는 진통 끝에 죽었다”는 격으로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은 바로 이런 호랑이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물론 위에 예로 든 것은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이 피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 방식(方式) 가운데 일부(一部)인 연공민족통일(聯共民族統一) 방식(方式)이지만 어떻게 김일성(金日成)의 민족해방론(民族解放論)이란 근본적(根本的)으로 그 자신(自身)의 독창적(獨創的) 이론(理論)이 아닌 것만은 기정사실(既定事實)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레닌 때부터의 소위 프롤레타리아 전선(戰線)과 민족해방전선(民族解放戰線)의 연합론(聯合論) 및 중국(中國)에서의 연(聯)소용공(容共)의 국공합작(國共合作)을 모방하여 북한(北韓)의 공산세력(共產勢力)과 남한(南韓)의 민족세력(民族勢力)이 합작(合作)하여 공동(共同)의 적(敵)인 제국주의(帝國主義)를 반대(反對)하는 연합전선(聯合戰線)을 펴자는 것이 바로 이 민족해방론(民族解放論)인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민족좌파(民族左派) 및 중간파(中間派)와 연합하여 우파(右派)를 공격하고 다음에는 중간파(中間派)를 공격하여 민족진영(民族陣營)을 송두리째 제거함으로써 남한(南韓)의 전권력(全權力)을 공산주의세력(共產主義勢力)의 수중(手中)에 집중(集中)하자는 속셈인 것이다.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은 이처럼 북(北)의 사회주의(社會主義)와 남(南)의 민족주의(民族主義)를 연합(聯合)하여 반제혁명(反帝革命)의 통일전선(統一戰線)을 실현하자고 제청(提請)함으로써 중공(中共)의 이른바 제3세계전략이론(第三世界戰略理論)인 반제(反帝) 원칙(原則)(반(反)소사회제국주의(社會帝國主義) 조항(條項)을 빼면 소련(蘇聯)의 제(第)3세계전략이론(世界戰略理論)과 원칙적(原則的)으로 동일(同一)하다)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괴(北傀)의 입장(立場)으로서는 반소사회제국주의조항(反蘇社會帝國主義條項)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를 못한다.

통일정책(統一政策)에 있어서의 당(黨)이데올로기는 한반도혁명(韓半島革命)에 관한 소련당(蘇聯黨) 및 중공당(中共黨)의 이데올로기 정책(政策)과 일치하는 것이 북괴(北傀)로서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혁명(韓半島革命)은 소련당(蘇聯黨)에 있어서는 자기네의 영향력에 의한 변경혁명(邊境革命)이자, 세계혁명(世界革命)의 일환(一環)이 되기 때문이며 중공당(中共黨)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당연히 자기네의 영향력에 의한 주변혁명(周邊革命) 곧 중국혁명(中國革命)의 연장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일정책(統一政策)에 관한 한, 김일성(金日成)의 자주노선(自主路線)이 맥을 못추는 것은 중대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경(北京)과 모스크바 당국(當局)의 동의(同意)를 얻고자 하는데 명백(明白)하다. 75년 봄 인지사태(印支事態)의 종말에 흥분하여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이 북경(北京)을 방문했던 사실 그리고 모스크바 방문이 본의(本意)아니게 좌절되었던 사실이 이것을 잘 입증(立證)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민족해방론(民族解放論)」 주장(主張)의 저의(底意)와 전술적(戰術的) 의미(意味)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이 초기(初期)에 시도(試圖)한 남한혁명(南韓革命)은 농민(農民)을 주력부대(主力部隊)로 하는 소위 고전적(古典的) 후진사회혁명(後進社會革命)이었다. 그러던 것이 60년대(年代)와 70년대(年代)에 걸쳐 꾸준히 추진된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의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한국(韓國)의 농촌(農村)과 도시(都市)는 옛날의 구각(舊殼)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共產主義)의 후진지역혁명적응성(後進地域革命適應性)을 완전 탈피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북괴(北傀)로서는 참으로 다루기 힘든 새로운 난제(難題)를 안게 된 셈이 되고 말았다. 농민(農民)을 바보처럼 간주하여 그들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농민혁명(農民革命)을 지도(指導)했던 고전적(古典的) 후진지역혁명(後進地域革命)은 이제 한국(韓國)에서는 결코 적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북괴(北傀)의 통일문제(統一問題) 전략가(戰略家)들과 전술가(戰術家)들은 한국(韓國)의 농촌(農村)에서 뿐 아니라 도시(都市)에서도 난제(難題)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고전적(古典的) 후진지역(後進地域) 혁명(革命)에 있어서는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은 농민(農民)과 다른 반농적(半農的) 성격(性格)의 과다(過多)한 문맹인구(文盲人口)이며 따라서 자기의 운명(運命)에 대하여 자의식(自意識)으로 자신(自身)의 문제(問題)를 해결할 줄 모르는 군중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공산분자(共產分子)들의 선동에 의하여 폭력혁명(暴力革命)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韓國)의 도시(都市) 노동자(勞動者)들은 그러한 유형(類型)의 인간군(人間群)이 아니다. 근대시설(近代施設)의 대공장(大工場)에서 일하는 노동자(勞動者)들은 물론 채석장(採石場)에서 일하는 석공(石工)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대부분이 중학교(中學校) 이상(以上)의 기본(基本) 학력(學歷)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아무렇게나 공산분자(共產分子)들의 선동에 영합할 그런 문맹인구(文盲人口)로서와 폭력혁명의 도구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韓國)이 근대사회(近代社會)를 성취하여 후진성(後進性)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북괴(北傀)로 하여금 후진지역혁명(後進地域革命)의 정석(定石), 즉, 노동자(勞動者)·농민(農民)을 주축(主軸)으로한 이른바 민족세력(民族勢力)에 의한 폭력혁명(暴力革命)으로 정권(政權)을 탈취하는 혁명방식(革命方式)만으로는 불가능(不可能)하다는 사실(事實)을 알아차리게 하는 요인(要因)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가 1975년(年) 그 전술방향(戰術方向)은 약간 변형(變形)하여 내놓은 것이 다른 연공민족통일론(聯共民族統一論)이라 하겠는데 이같은 변형전술(變形戰術)을 들고 나온 저의(底意)는 대충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대외적으로는 무력남침(武力南侵)의 인상을 덜어야 하며,

둘째, 대내적으로는 대남대화(南北對話)의 단절 책임이 김일성(金日成)에게 있지 않다는 합리적(合理的) 변호를 할 필요가 있고,

셋째, 소련당(蘇聯黨)과 중공당(中共黨)의 한반도혁명(韓半島革命)에 대한 일정(一定)한 주목(注目)으로부터 백안시(白眼視)되지 말아야 하며,

네째, 대남정치투쟁(對南政治鬭爭)의 새로운 전술기조(戰術基調) 설정으로 남한(南韓)에서의 반미제민족해방투쟁(反美帝民族解放鬭爭)에 있어서 반정부민족통일전선(反政府民族統一戰線) 가능성(可能性)을 추구해보자는 이른바 이상 네 가지 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순전한 후진사회혁명방식(後進社會革命方式)이 불가능(不可能)하게 되자 연공민족통일론(聯共民族統一論)을 내세우고 있을 뿐 그 속셈에는 공식적(公式的)인 민족해방론(民族解放論)이 근거(根底)에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호의 변화(變化)도 없음을 실증(實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간취(看取)되는 중대한 사실은 북괴(北傀)가 통일(統一)을 위하여 지금 상대하고자 하는 세력(勢力)은 다른 아닌 민족주의세력(民族主義勢力)이며 이 민족주의세력(民族主義勢力)은 즉, 현실적(現實的)으로 한국(韓國)의 주인(主人)인 부르조아지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럼 한국(韓國)의 부르조아지는 과연 누군가. 북괴(北傀)의 관념에 따르면 한국(韓國)의 부르조아지는 이른바 저들의 표현으로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앞잡이 관료(官僚)와 매관자본가(買辦資本家)가 아닌 사람들 즉 의사, 변호사, 과학자, 언론인, 교육자, 사무원, 사회활동가, 종교가 그리고 진보적 자본가(資本家)와 진보적 지주(地主)·중소상공업자(中小商工業者), 진보적 청년학생(青年學生)·애국적 군인(軍人) 등 이렇게 소수고위관료(少數高位官僚)와 대자본가(大資本家)를 제외한 전국민(全國民)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서두(序頭)에서 지적인 원론적(原論的) 민족해방론(民族解放論)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 범위의 광역화라고 하는 변용(變容)된 속입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괴(北傀)의 저의(底意)와 전술적(戰術的) 방법(方法)과 공업화(工業化)는 도시(都市)·농촌(農村)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한국사회(韓國社會)의 주인(主人)들을 일단 모두 망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큰줄기에서의 민족해방론(民族解放論)이며 변형(變形)한 하나의 전술(戰術)로 서의 연공민족통일론(聯共民族統一論)의 본심(本心)인 것이다.

4. 우리의 대응책(對應策)

북괴(北傀)는 이제 한국(韓國)의 인구체계(人口體系), 교육수준(教育水準) 그리고 소득수준(所得水準)에 있어서 면단위(面單位) 이상의 주민(住民)들까지도 일반적 의미의 민족(民族) 부르조아지 세력(勢力)이 범주에 넣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시대(時代)가 온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력의 성격(性格)을 기본적인(基本的)으로는 반공(反共)의 사회적(社會的)·문화적(文化的) 능력(能力)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공용적(容容的)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노동동맹(勞農同盟)」의 공산혁명(共產革命)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하여 민족(民族)부르조아지를 혁명(革命)으로부터 독립(孤立)시켜 반동집권세력(反動執權勢力)에도 가담하지 않고 또한 공산혁명세력(共產革命勢力)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세력(中立勢力)으로 묶어두는 러시아 혁명(革命)의 볼셰비키방식(方式)이 아니라 민족(民族) 부르조아지를 혁명(革命)진영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그들의 선도(先導)에 따라 반제(反帝) 민족해방투쟁(民族解放鬭爭)에 참여토록 해보려는 전술(戰術) 기조(基調)를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김일성(金日成)의 이러한 연공민족통일(聯共民族統一)은 소위 대민족회의 방식(大民族會議方式)의 남북연방제(南北聯邦制) 실현(實現)을 위한 전술적(戰術的) 측면(側面)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집권세력(執權勢力)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대민족회의(大民族會議)」 방식(方式)의 남북협상(南北協商)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들의 진심(真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차려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북괴(北傀)가 이 같은 저들의 목적(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사회(韓國社會)의 주인(主人)이며 원동력(原動力)인 남한(南韓)의 민주주의세력(民主主義勢力)들을 먼저 연공민족통일(聯共民族統一)이란 미명(美名) 아래 회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반공법(反共法)과 반공운동(反共運動)을 폐기 내지는 완화하는 것이 선결문제(先決問題)라는 것을 이제까지 계산에 넣고 있음이 분명한데 바로 이 점에서 한국(韓國)의 민주세력(民主勢力)이 난공불락이라는데 저들의 고민이 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포섭대상으로 삼고있는 지식인(知識人)과 진보적 청소년학생(青少年學生), 그리고 애국적(愛國的) 군인(軍人)과 소자산계급(小資產階級)이라는 계층(階層)이 북괴(北傀)의 여하한 선전 선동에 대해서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내부(內部)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것은 첫째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적(現實的) 불만이나 개인적(個人的) 이해관계(利害關係)의 집착에서 비롯하는 사회적(社會的) 혼란조성(混亂造成)이 궁극적으로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의 민족해방혁명(民族解放革命)에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이다.

둘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북한(北韓)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음흉한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한채 감상주의적인 평화통일이상(平和統一理想)에 사로잡히거나 정치적(政治的) 인기전술(人氣戰術)에 도취한 나머지 북괴(北傀)의 위장평화통일주장(僞裝平和統一主張)에 맞장구를 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안되겠다는 것이다.

개인적(個人的)인 불만이나 출세욕(出世慾), 그 자체를 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민족(全民族)과 국가(國家)의 안위문제(安危問題)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이것을 보고도 수수방관 할 국민(國民) 또한 없다고 하는 사실(事實)을 우리는 항상 모두가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남북 연방제론 비판 [1] 南北 聯邦制論 批判 [1]

편 집 실 (編輯室)

I. 서언(序言)

1. 문제(問題)의 제기(提起)

북한(北韓)은 통일방안(統一方案)의 일환(一環)으로 1960년(年) 8월(月) 14일(日) 남북연방제안(南北聯邦制案)을 제의(提議)한 후(後), 지금까지 20여 년간 이 주장(主張)을 반복(反復)하고 있다.

북한(北韓)의 연방제(聯邦制) 주장(主張)은 시기(時期)와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따라 그 강조점(強調點)과 내용(內容)을 달리하면서 주요한 대남평화공세(對南平和攻勢)의 하나로 이용(利用)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韓國)은 현재와 같은 남북한(南北韓) 대결구조(對決構造)속에서는 북한(北韓)의 연방제안(聯邦制案)이 통일(統一) 문제해결(問題解決)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거부(拒否)하는 입장(立場)을 취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북한(北韓)의 연방제(聯邦制) 공세(攻勢)에 대해 국내외(國內外) 일각(一角)에서는 적지 않은 관심(關心)을 가지고 거론(學論)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여론조사(輿論調查)에 의하면 1977년(年) 통일안보문제(統一安保問題)에 대한 국내(國內) 대학생(大學生)의 의식구조(意識構造)를 조사(調查)한 결과 연방제(聯邦制) 통일방안(統一方案) 지지(支持)가 4.18%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1978년 4월 12일 초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大統領)과 카터 미국대통령(美國大統領)의 회담(會談)에서 연방제(聯邦制) 통일방안(統一方案)이 초세스쿠에 의해 제기(提起)된 적도 있었다.

또 80년(年) 들어 북한(北韓)은 대외(對外) 평화공세(平和攻勢)의 하나로 연방제안(聯邦制案)을 재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화(對話)에 의해 평화적(平和的) 방법(方法)으로 통일문제(統一問題)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政府)의 기본입장(基本立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북한(北韓)의 연방제(聯邦制) 주장(主張)이 객관적(客觀的) 타당성(妥當性)을 결여(缺如)한 통일방안(統一方案)일지라도 일단 상대방(相對方)으로부터 일관(一貫)되게 제시되고 있는 이상(以上), 우리가 분명한 논거(論據)를 가지고 신중히 대처(對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북한(北韓)의 연방제안(聯邦制案)을 계기(契機)로 연방제(聯邦制)가

한국통일(韓國統一)에 미칠 영향(影響)과 가치체계(價值體系), 성립조건(成立條件) 등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長期的)인 평화통일정책(平和統一政策) 발전(發展)에 필요(必要)하고도 유용(有用)한 연구(研究)라고 생각된다.

2. 연구시각(研究視角)과 접근방법(接近方法)

본(本) 연구(研究)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側面)에서 접근(接近)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北韓)의 연방제안(聯邦制案)을 이론(理論)과 실제(實際)의 양측면(兩側面)에서 분석(分析)한 다음 그 분석(分析) 내용(內容)과 타(他) 공산국가(共產國家)의 연방주의(聯邦主義)와를 비교(比較)함으로써 북한(北韓) 연방제안(聯邦制案)의 배경(背景)과 본질(本質)을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둘째는, 북한(北韓) 연방제안(聯邦制案)과는 직접 관계 없이 서구적(西歐的) 개념(概念)의 연방주의(聯邦主義) 통합이론(統合理論)의 제명제(諸命題)를 도출(導出)한 다음 이것을 현남북한관계상황(現南北韓關係狀況)에 대입(代入)시켜 연방주의(聯邦主義) 성립(成立)의 타당성(妥當性)을 검증(檢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전자(前者)는 북한식(北韓式) 연방제안(聯邦制案)의 원천적(源泉的) 의미(意味)를 발견(發見)하려는 노력(努力)이고, 후자(後者)는 그러한 북한식(北韓式) 연방제안(聯邦制案)이 전략적(戰略的) 개념(概念)이기 때문에 수용(受容)될 수 없다는 전제(前題) 하(下)에 그와는 다른 서구식(西歐式) 연방주의(聯邦主義)의 보편적(普遍的) 원리(原理)를 의미(意味)한다.

II. 국제법상(國際法上)으로 본 국가통합(國家統合)의 유형(類型)

분단(分斷) 또는 분열국가(分裂國家)를 하나로 통일(統一)·통합(統合)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方法)과 형태(形態)를 가상(假想)할 수 있겠으나 대체적(大體的)으로 단일적(單一的) 통합(統合)모델과 복합적(複合的) 통합(統合)모델로 구분(區分)할 수 있다.

단일적(單一的) 통합(統合)모델에는 병합(併合)과 합병(合併)의 유형(類型)이 있다.

병합(併合)이란 일국(一國)이 무력적(武力的) 수단(手段)에 의하여 타국(他國)을 자국(自國)의 일부(一部)로 흡수하여 보다 커지는 것이고, 합병(合併)이란 2개(個) 이상(以上)의 국가(國家)가 주로 비무력적(非武力的) 방법(方法)에 의하여 결합(結合)함으로써 보다 큰 새로운 단일국(單一國)을 형성(形成)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연합(國家聯合)이란 다류(多類)의 주권국(主權國)이 공동된 이익(利益)의 달성(達成)을 위하여 계약(契約)에 의해서 결합(結合)하고 공동기구(共同機構)에 의해 주권(主權)을 공동(共同)으로 행사하기도 하는 국가형태(國家形態)를 말한다.

국가연합(國家聯合)의 구성국(構成國)은 각자(各自)의 국제적(國際的) 인격(人格)을 유지하

나 그 대외적(對外的)인 기능(機能)의 일부(一部)를 연합(聯合)에 이양(移讓)하고 있으므로 연합(聯合)이 존속(存續)하는 한(限) 완전한 주권국(主權國)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연합자체(聯合自體)도 계약(契約)된 한도내(限度內)의 외교능력(外交能力)을 가질 뿐이므로 국제법상(國際法上)의 완전한 인격주체(人格主體)가 못된다고도 볼 수 있는 면(面)이 있다.

연합구성국(聯合構成國)이 국제법인격(國際法人格)을 완전소실(完全消失) 하는 것은 아니나 공통(共通)된 정치적(政治的) 이익(利益)을 위해 주요한 국가적(國家的) 활동(活動)을 구성국(構成國) 대표자(代表者)로 되는 공공기관(共同機關)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각(各) 구성국(構成國)의 정치적(政治的), 법률적(法律的) 생활(活動)의 대부분에도 서로 크게 영향(影響)을 주는 터이므로 제3국(第三國)도 그들 상호간(相互間)의 연합적(聯合的) 계약(契約)을 무시(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외교관계(外交關係)의 보다 효율적(効率的)인 처리(處理)를 위해 국가연합(國家聯合)은 보다 강력한 복합(複合)인 연방(聯邦)으로 전화(轉化)하거나 시초(始初)의 단위주권국(單位主權國)으로 갈라져서나 하는 예(例)가 흔하다.

또한 연합국가(聯合國家), 즉 연방(聯邦)이란 2개(個) 이상(以上)의 주권국(主權國)이 결합(結合)하여 단일적(單一的)인 국제적(國際的) 인격(人格)을 형성(形成)하는 복합형태(複合形態)의 국가(國家)이다.

복수(複數)의 주권국(主權國)이 지분국(支分國)으로서 중앙정부하(中央政府下)에 영구(永久)히 결합(結合)하는데, 연방(聯邦)의 형태(形態)는 주권분할형성(主權分割形成)의 차이(差異)로 인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하튼 연방(聯邦)이란 중앙조직(中央組織) 자체(自體)가 국가(國家)로서 통일적(統一的)인 국제법상(國際法上)의 인격(人格)을 인정(認定)받는다.

연방(聯邦)의 지분국(支分國)과의 연계(關係)는 국내법상(國內法上)의 관계(關係)이다. 지분국(支分國)은 단순한 지방단체(地方團體)와 달라 고도(高度)의 자주성(自主性)이 인정되고 있으나 중앙정부(中央政府)만이 구성국(構成國)의 전영역내(全領域內)에서 최고(最高)의 지위(地位)로 보지(保持)하는 국가형태(國家形態)이다.

연방(聯邦)은 국내법(國內法)인 헌법(憲法)에 의해서 형성(形成) 되고 중앙적(中央的)인 연방정부(聯邦政府)만이 국제적(國際的)인 인격(人格)을 보유(保有)한다. 연방(聯邦)은 지분국(支分國) 국민(國民)에 대해 직접(直接) 권리(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조약(條約) 체결권(締結權)과 선전강화권(宣戰講和權)은 연방(聯邦)에 전속(專屬)되나 국가(國家)에 따라서는 헌법규정(憲法規定)에 의한 다소(多少)의 외교권(外交權)을 연방관리하(聯邦管理下)에 지분국(支分國)에 용인(容認)하는 예(例)도 있다.

상충(相衝)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정치적(政治的) 충성의무(忠誠義務)를 지닌 연방주민(聯邦住民)은 공동(共同)의 국적(國籍)을 보유(保有)하며 구성국간(構成國間)의 전쟁(戰爭)은 내란(內亂)으로 취급(取扱)된다. 그러기 때문에 일국(一國)의 주(州)나 공동체(共同體)가 어떤 목적(目的)을 위해서는 유일한 자주적(自主的) 중앙정부하(中央政府下)에서 통합(統合)되기를 원

(願)하고, 다른 목적(目的)을 위해서는 자주적(自主的) 제(諸) 지방정부(地方政府)로서 조직(組織)되고자 원한다면 이들에게는 연방주의적(聯邦主義的) 정부(政府)가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일화(單一化)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統合)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킨대 연방주의(聯邦主義)는 미국(美國)의 체이스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적했듯이 「파괴될 수 없는……주(州)로 구성(構成)되는 파괴할 수 없는 연합체(聯合體)」인 것이며 「국내법(國內法)으로 결속(結束)되고 각주(各州) 정부(政府) 보다 우위(優位)에서는 연방정부(聯邦政府)를 갖는 중앙집권화(中央集權化) 되지 않는 국가적(國家的) 연합체(聯合體)」인 것이다.

한편 병합(併合), 합병(合併), 국가연합(國家聯合), 연방(聯邦) 등 4개(個)의 통합유형(統合類型)에 관한 역사적(歷史的)인 주요사례(主要事例)를 보면, 병합(併合)에는 1910년에 행하여진 일본(日本)의 한국병합(韓國併合)과 1939년(年) 이태리가 행한 이디오피아 병합(併合) 등이 있다. 그리고 병합국가(併合國家)가 때로는 정치적(政治的) 이유(理由)에서 침략적(侵略的)인 병합(併合)을 평화적(平和的)인 합병(合併)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연합(國家聯合)에는 1778년(年)부터 1787년(年)까지의 미국(美國), 1815년(年)부터 1866년(年)까지의 독일(獨逸), 2차대전(次大戰) 이후 이집트·시리아간에 형성된 통일(統一)아랍공화국(共和國) 등을 그 예(例)로 들 수 있다. 연방(聯邦)에는 1787년(年) 이후의 미국(美國), 1847년(年) 이후의 스위스, 1867년(年) 이후의 캐나다, 18기년(年) 이후의 독일(獨逸) 등을 사례(事例)로 들 수 있다.

국가연합(國家聯合)과 유사(類似)한 형태로서 1867년(年)부터 1918년(年)까지 계속된 오스트리아, 헝가리간의 동맹연합(同盟聯合)이 있으며 연방(聯邦)과 유사(類似)한 형태(形態)는 영연방(英聯邦)과 소연방(蘇聯邦)이 있다.

III. 북한(北韓)의 연방제도(聯邦制度)

1. 제의경위(提議經緯)와 내용(內容)

북한(北韓)이 연방제안(聯邦制案)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4·19혁명후(革命後) 한국(韓國)에서 민주당(民主黨) 정권(政權)이 수립(樹立) 되고 평화통일논쟁(平和統一論爭)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1960년(年)의 8·15기념식(紀念式)에서 행한 김일성(金日成) 연설(演說)에서 비롯된다. 이 연설(演說)에서 김일성(金日成)은 통일방안(統一方案)으로서 외세(外勢)의 간섭(干涉)없는 남북총선거(南北總選舉) 실시(實施)를 주장하면서 만약 남한(南韓)이 남북총선거(南北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일(統一)에 이르는 과정적(過渡的) 조치(措置)로서 남북연방제(南北聯邦制)를 실시할 것을 제의(提議)하였다.

그후 북한(北韓)은 한국(韓國)의 5·16혁명(革命)으로 인한 정세안정(情勢安定) 및 북한내부(北韓內部)의 전쟁준비정책(戰爭準備政策) 추진(推進) 등 정세변화(情勢變化)로 말미암아 연방

제(聯邦制)를 간헐적으로 주장하다가 70년대(年代) 초(初)에 들어와 이것을 다시 강조하였다.

미(美)·중공(中共)간의 화해(和解)무드가 조성(造成)되기 시작한 1971년(年) 4월(月) 12일(日) 북한(北韓)은 외상(外相) 허담(許鎔)이 발표(發表)한 8개항목(個項目)의 통일방안(統一方案) 가운데 연방제(聯邦制)를 포함시킨 후 남북대화기(南北對話期)에 접어들자 군사문제(軍事問題) 해결(解決)과 더불어 연방제(聯邦制) 문제(問題)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남북대화(南北對話)가 정체상태(停滯狀態) 내지 교착상태(膠着狀態)에 들어가자 북한(北韓)은 연방제(聯邦制) 주장(主張)의 강도(強度)를 낮추다가 남북대화(南北對話) 재개(再開)에 관한 국제적(國際的) 관심(關心)이 증대(增大)된 근년(近年)에 들어와 다시 연방제(聯邦制) 주장(主張)의 강도(強度)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0년(年) 8월(月) 14일(日) 김일성(金日成)이 처음으로 연방제(聯邦制)를 거론(擧論)한 이래 북한(北韓)의 공식발언(公式發言) 가운데서 연방제(聯邦制)에 관하여 언급한 주요 대목을 종합해 보면 북한(北韓)이 말하는 연방제(聯邦制)의 내용(內容)은 ① 통일(統一)에 이르는 과도적(過渡的) 조치(措置)로 ② 현존(現存)하는 남북(南北)의 상이(相異)한 정치제도(政治制度)는 존속(存續)한 가운데 두 「정부(政府)」의 독자적(獨自的) 활동(活動)을 계속하며 ③ 두 「정부(政府)」의 대표(代表)도 구성(構成)되는 「최고민족위원회(最高民族委員會)」를 만들어 민족(民族)의 공동관심사(共同關心事)로 되는 문제(問題)를 공동(共同)으로 처리(處理)하고 ④ 연방국가(聯邦國家)의 국호(國號)는 「고려연방공화국(高麗聯邦共和國)」으로 하며 ⑤ 연방제(聯邦制)가 실시되면 민족경제(民族經濟)와 문화(文化)를 통일적(統一的)으로 발전시키고 국방(國防)을 단일화(單一化)하며 대외활동(對外活動)을 유일적(唯一的)으로 전개(展開)할 수 있고 ⑥ 연방제(聯邦制)로 통합(統合)된 한반도(韓半島)는 비동맹중립정책(非同盟中立政策)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으로 1960년(年) 이후(以後) 현재까지 북한(北韓)이 주장(主張)해온 연방제안(聯邦制案)의 경위(經緯)와 내용(內容)을 살펴 보았거니와 여기 서 그들의 제의내용(提議內容), 태도(態度), 방식상(方式上)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特徵的) 양상(樣相)을 지적 하고자 한다.

① 북한(北韓)은 그들이 내세우는 연방제안(聯邦制案)의 성격(性格)이 이민족간(異民族間)의 연합(聯合)이 아닌 단일(單一) 민족간(民族間)의 연합(聯合)이라는 점(點), 또 연방국가(聯邦國家)가 일정하게 갖는 항구성(恒久性)을 배제하고 통일(統一)에의 과도적(過渡的)이고 임시적(臨時的)인 조치(措置)라는 점(點) 등을 들어 타(他) 국가(國家)에서 실시(實施)하고 있는 연방제(聯邦制)와 근본적(基本的)으로 상이(相異)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具體的)인 설명(說明)을 하지 않고 있다.

② 북한(北韓)은 연방제(聯邦制)를 주장함에 있어 남북대화(南北對話) 이전(以前)에는 연방제(聯邦制) 실시(實施)에 관한 선행조건(先行條件)을 붙이지 않았으나 남북대화(南北對話) 이후(以後)에는 까다로운 선행조건(先行條件)을 제시(提示)하고 있다.

즉, 그들은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 남한내(南韓內)의 소위 「민주정권수립(民主政權樹立)」, 「대민족회의(大民族會議)」, 또는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 소집(召集)」과 같은 것을 연방제(聯邦制) 실시(實施)의 선결조건(先決條件)으로 제시(提示)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본장(本章) 4항(項)(북한(北韓) 연방제(聯邦制)와 합작전술(合作戰術)과의 관계(關係)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③ 북한(北韓)이 1960년 8월 14일 연방제안(聯邦制案)을 제의(提議)한 이래, 가장 많이 주장(主張)했던 시기(時期)는 남북대화(南北對話)가 진행되었던 70~73년(年)과 남북변칙대화(南北變則對坐)가 있었던 79년(年)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시기(時期)는 비교적 낮은 빈도(頻度)로서 비슷한 수준(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④ 통일문제(統一問題)에 관한 북한(北韓)의 타(他) 주장(主張), 제의빈도(提議頻度)와의 상관관계(相關關係)를 보면 그들의 「5대강령(大綱領)」중 군사문제해결(軍事問題解決) 주장(主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 소집(召集), 남북(南北) 합작(合作)과 교류(交流), 연방제(聯邦制) 실시(實施), 기타 순(順)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와 주변정세(周邊情勢) 변화(變化)에 따라 이러한 우선순위(優先順位) 및 강조점(強調點)에 변화(變化)가 나타나고 있다.

⑤ 연방제(聯邦制) 주장(主張)의 주체(主體)를 중심(中心)으로 볼 때, 37%가 김일성(金日成)이 그 주체(主體)로서 나타나며, 그것도 김일성(金日成)이 외신기자회견시(外信記者會見時)에 많이 사용하는 주제(主題)로 부각된다.

이것은 북한(北韓)이 해외여론(海外輿論)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平和統一)」 선전(宣傳)에 타(他) 주장(主張)보다도 연방제(聯邦制)를 많이 이용(利用)하고 있음을 입증(立證)해 주는 것이다.

2. 북한(北韓) 연방제안(聯邦制案)의 개념(概念), 성격(性格)

북한(北韓)이 주장(主張)하고 있는 연방제안(聯邦制案)이 국제법상(國際法上) 연방제(聯邦制) 개념(概念)과 동일(同一)한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인지를 고찰(考察)할 필요가 있다.

북한(北韓)을 비롯한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國家)의 연방제(聯邦制)에 관한 일반개념(一般概念)에 의하면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國家)에서 연방제(聯邦制)는 민족문제(民族問題) 해결(解決)의 중요한 수단(手段)의 하나로서 민족자결권(民族自決權)의 원칙(原則)에 기초(基礎)하여 매개(每個) 민족(民族)의 자주적(自主的)인 발전(發展)을 보장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 중앙집권제(中央執權制) 원칙(原則)에서 연방적(聯邦的)인 최고주권기관(最高主權機關)에 복종하나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國家)들의 연방제(聯邦制)는 형식상(形式上) 성원국(成員國)들의 일정한 주권(主權)을 인정하지만, 국내외적(國內外的)인 모든 문제(問題)를 관료주의적(官僚主義的) 중앙집권제(中央執權制)에 기초(基礎)한 연방적(聯邦的)인 주권기관(主

權機關)이 단독(單獨)으로 처리하는 단일화(單一化)된 연방제(聯邦制)에 불과하여 강대국(強大國) 부르조아지가 약소민족(弱小民族)들에 대한 억압(抑壓)과 수탈(收奪)을 보장(保障)하는 수단(手段)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연방제(聯邦制)를 민족문제해결(民族問題解決)의 중요(重要)한 수단(手段)으로 보고 있는 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명백히 입증(立證)된다. 제(第)2차(次) 코민테른에서 채택된 「민족(民族) 및 식민체제(植民體制) 7항(項)」에 의하면 「민족내(民族內)에 있는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요소(要素)가 민족(民族) 사회(社會)를 지배(支配)할 수 있도록 통일(統一)된 노력(勢力)이 되기까지의 과도적(過渡的)인 정치조직(政治組織)으로서 연방제(聯邦制)가 필요(必要)하다」고 못박고 있다.

한편 북한(北韓) 정치사전(政治辭典)에 나타난 연방제(聯邦制) 개념(概念)에 의하면 「나라의 전지역(全地域)에 걸쳐 국가주권(國家主權)을 행사(行使)하는 최고주권기관(最高主權機關)과 그의 최고집행기관(最高執行機關)이 있으면서 해당하는 지역(地域)에서 일정한 범위의 주권(主權)을 독자적(獨立的)으로 행사하고 집행(執行)하는 성원국(成員國)으로 이루어진 국가(國家)이고, 연방적(聯邦的)인 최고주권기관(最高主權機關)과 최고집행기관(最高執行機關)은 전연방적(全聯邦的) 영역(領域)에 대하여 최고주권(最高主權)을 행사하며 행정적(行政的) 통제(統制)를 실시하고……, 연방헌법(聯邦憲法)을 비롯하여 연방최고주권기관(聯邦最高主權機關)의 법령(法令)과 연방최고집행기관(聯邦最高執行機關)의 결정지시(決定指示)는 연방전지역(聯邦全地域)에서 최고(最高)의 법적(法的) 효력(効力)을 가지며 집행(執行)의 절대적(絕對的)인 의무성(義務性)을 띤다」고 규정(規定)되어 있다. 즉, 연방(聯邦)의 구성요건(構成要件)으로 강력한 연방헌법(聯邦憲法), 연방최고주권기관(聯邦最高主權機關), 연방최고집행기관(聯邦最高執行機關), 연방사법기관(聯邦司法機關) 등의 설치(設置)를 전제(前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北韓)은 연방제(聯邦制)와 국가연합(國家聯合)을 다음과 같이 구별(區別)하고 있다. 「일정한 목적(目的) 밑에 이루어진 국가연합(國家聯合)은 연합제국가(聯合制國家)와는 다르다. 국가연합(國家聯合)은 국가(國家)들간의 조약(條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종(一種)의 동맹(同盟)이다. 여기에는 주권(主權)을 대표(代表)하는 최고주권기관(最高主權機關)이란 없고 매개(每個) 연합성원국(聯合成員國) 자체(自體)가 자기주권(自己主權)을 행사(行使)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연방제(聯邦制)에 관한 기본개념(基本概念)을 가지고 있는 북한(北韓)이 소위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說明)하고 있다.

「남북(南北)에 현존(現存)하는 정치제도(政治制度)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연방제(聯邦制)를 실현(實現)하며……, 「통일적(統一的)인 연합정부(聯合政府)가 못되어서 통일적(統一的), 국가지도(國家指導)는 못하더라도, 이 연방(聯邦)의 최고민족위원회(最高民族委員會)에서 전민족(全民族)에 이로운 경제(經濟)·문화적(文化的) 문제들을 협의(協議)하며……, 「필요한

경우 양(兩) 정부동의하(政府同意下)에 최고민족위원회(最高民族委員會)가 대외적(對外的)으로 남북조선(南北朝鮮)을 대표(代表)하며 ……」, 「연방제(聯邦制)에 의해 두 개 나라로 존재(存在)하지만 대외적(對外的)으로는 한 개의 나라가 되어야 하며…」, 「이 남북(南北) 사이에 제도상(制度上) 차이(差異)가 있지만 남북(南北) 쌍방(雙方)이 서로 자기(自己)의 사회제도(社會制度)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원칙(原則)을 견지한다면 남북연방제(南北聯邦制)를 실시하지 못할 조건(條件)이 없다.」

이러한 그들의 말을 종합(綜合)해 보면, 북한(北韓)은 한반도(韓半島)에 두 개(個)의 주권국가(主權國家)가 존재(存在)하고 있음을 인정(認定)하고 있고 연방정부수립(聯邦政府樹立)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일정기간(一定期間) 상호(相互) 내정불간섭원칙(內定不干涉原則)을 견지해야 된다는 점(點)을 밝히고 있다.

이것을 일반국제법상(一般國際法上) 연방개념(聯邦概念)과 공산주의국가(共產主義國家)의 연방개념(聯邦概念)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북한(北韓)의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 개념(概念)은 연방(聯邦)보다는 국가연합(國家聯邦)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가 국가연합적(國家聯合的) 성격(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북한(北韓)은 지금까지 연방제(聯邦制)의 국호(國號), 필요성(必要性), 실시후(實施後)의 효과(效果) 등 형식적(形式的)인 문제에 관해서만 선전(宣傳)할 뿐 실제(實際) 연방성립(聯邦成立)의 선결요건(先決要件)인 연방헌법(聯邦憲法), 연방정부(聯邦政府), 연방재판소(聯邦裁判所), 연방입법기관(聯邦立法機關), 연방정부(聯邦政府)와 지분국간(支分國間)에 권한배분문제(權限配分問題) 등에 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 말이 없다.

북한(北韓)이 이처럼 국가연합(國家聯合)이라는 내용(內容)을 연방(聯邦)이라는 포장지로 애써 위장(偽裝)하려고 하는 것은 분단(分斷) 고정적(固定的) 인상(印象)을 주는 국가(國家) 연합안(聯合案)보다 통일지향적(統一指向的) 인상(印象)이 강한 연방안(聯邦案)의 가치를 표면에 내세우는 것이 그들의 선전목적상(宣傳目的上) 유리하다고 판단(判斷)했기 때문인 듯 싶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볼 때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의 개념(概念)은 외형상(外形上)으로는 앞서 설명한 국제법상(國際法上) 4개(個)의 통합유형(統合類型) 가운데 연방(聯邦)을 가장한 국가연합(國家聯合)에 가까운 것이나, 실제적(實際的)으로는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병합(併合) 개념(概念)이라고 하겠는데 이에 관해서는 본장(本章) 4항(項)(북한(北韓) 연합제(聯合制)와 합작전술(合作戰術)과의 관계(關係)에서 상술(上)키로 한다.

다음으로 이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의 개념(概念)과 관련하여 그 성격(性格)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北韓)은 그들의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가 지금까지 존재(存在)한 타(他) 연방국가(聯邦國家)들과는 성격(性格)이 다르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존재(存在)한 연방국가(聯邦國家)들은 두 개(個) 이상(以上)의 국가(國家)들이 공동(共同)의 목적(目的)을 위해서 서로 연합(聯合)하여 하나의 국가(國家)를 이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연방국가(聯邦國家)는 일정하게 항구성(恒久性)을 띠게 된다. 그렇지만 고려연방공화국(高麗聯邦共和國)은 평화통일(平和統一)의 조건조성(條件造成)을 당면과업(當面課業)으로 하고 단일한 전조선통일정부(全朝鮮統一政府)의 수립(樹立)을 위한 전제(前提)를 마련하는 것을 최종목적(最終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고려연방공화국(高麗聯邦共和國)의 성격(性格)과 존재목적(存在目的)의 과도적(過渡的)이고 임시적(臨時的)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고려연방공화국(高麗聯邦共和國)이 여러 민족(民族)들의 연합(聯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일민족(單一民族)이 일시적(一時的)으로 갈라진 두 부분(部分)을 다시 합치기 위한 연합(聯合)이라는데 있다. 또한 그것이 서로 다른 제도(制度)와 사상(思想), 이념(理念)에 기초해서 실시되지만 나중에는 연방(聯邦)이 아니라 통일정부(統一政府)로 서로 다른 정치제도(政治制度)와 사상(思想), 이념(理念)이 아니라 단일(單一)한 정부제도(政府制度)와 사상(思想), 이념(理念)으로 된다는데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려연방공화국(高麗聯邦共和國)」은 항구적(恒久的)인 것이 아닌 임시적(臨時的)이라는 점(點), 이민족(異民族)의 연합(聯合)이 아닌 단일(單一) 민족간(民族間)의 연합(聯合)이라는 점(點), 처음에는 상이(相異)한 정치제도(政治制度), 사상(思想), 이념(理念)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단일화(單一化)된다고 하는 점(點)에서 북한(北韓)은 타(他) 연방국가(聯邦國家)와 구별(區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과도적(過渡的) 대책(對策)으로서 연방제(聯邦制)」를 임시적(臨時的)으로 만든다고 할 경우, 그것은 일종(一種)의 총선거전담기구(總選舉專擔機構)와 유사(類似)해진다. 북한(北韓)은 연방제(聯邦制)의 중심기구(中心機構)인 「최고민족위원회(最高民族委員會)」의 구체적(具體的) 기능(機能) 역할(役割)에 관해 말을 안 하고 있으나 그것이 총선거(總選舉)에 이르는 일시적(一時的)인 남북조절기구(南北調節機構)로 끝난다고 할 때, 그들이 한 때 주장하던 「조선위원회(全朝鮮委員會)」와 같은 선거관리기구(選舉管理機構)와 비슷해진다. 또한 북한(北韓)은 「고려연방공화국(高麗聯邦共和國)」의 성격(性格)의 하나로서 「처음에는 상이(相異)한 정치(政治) 사상이념(思想理念)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단일화(單一化) 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具體的)으로 어떻게 단일화(單一化)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方法)에 관해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을 놓고 볼 때 「고려연방공화국(高麗聯邦共和國)」의 성격(性格) 또한 심히 애매모호하고 불투명(不透明)하다고 하겠다.

3. 북한(北韓) 연방제(聯邦制)와 평화공존(平和共存)과의 관계(關係)

북한(北韓) 연방제안(聯邦制案)을 이념적(理論的)으로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그것과 공산주의(共產主義) 평화공존론(平和共存論)과 어떠한 관련(關聯)이 있는가를 고찰(考察)코자 한다.

공산세계(共產世界)에서 평화공존(平和共存)에 관한 이론(理論)은 1920년대(年代)의 레닌

과 스탈린에서 그 발단(發端)을 찾아볼 수 있으나 대외정책(對外政策)과 혁명전략(革命戰略)의 이론(理論)으로 발전(發展)시킨 것은 1950년대(年代) 흐루시초프 소련 수상(首相)이다.

흐루시초프는 1956년(年) 2월(月), 소련공산당(共產黨) 제(第)20차대회(次大會)에서 <국제외교(國際外交)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적(原則的) 문제(問題)> 라는 표제(表題)로 「평화적(平和的) 공존(共存)」, 「전쟁방지(戰爭防止)의 가능성(可能性)」, 「자본주의(資本主義)로부터 사회주의(社會主義)로 가는 다양(多樣)한 길」이라는 세 가지 명제(命題)를 천명하였다. 이것은 흐루시초프가 1964년(年)에 실각(失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소련 공산당(共產黨)의 대외(對外) 정책노선(政策路線) 및 국제공산주의운동(國際共產主義運動)의 전략(戰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평화공존이론(平和共存理論)은 요컨대 체제(體制)를 달리하는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國家)와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간(國家間)의 공존(共存)은 종든 싫든 객관적(客觀的) 실재(實在)인 만큼, 전쟁(戰爭)에 의한 세계혁명(世界革命)의 가능성(可能性)이 없는 조건(條件)에서 양체제간(兩體制間)에 공동멸망(共同滅亡)의 근원(根源)인 전쟁(戰爭)을 피하고 영토보전(領土保全)과 주권(主權)의 상호존중(相互尊重), 불가침(不侵略), 내정불간섭(內政不干涉), 평등(平等) 및 호혜(互惠)의 원칙(原則)에 따라 평화적(平和的)으로 공존(共存)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양체제간(兩體制間)의 경제(經濟) 및 사회발전(社會發展)의 경쟁(競爭)에서 이데올로기의 우월성(優越性)을 증명(證明)함으로써 공산주의(共產主義)의 혁명적(革命的) 목표(目標)를 추구(追求)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北韓)은 소련의 이와 같은 평화공존론(平和共存論)에 대하여 일관성(一貫性) 있는 태도(態度)를 갖지 못했는데 그것은 소련의 평화공존정책(平和共存政策)이 북한(北韓)의 대남혁명목적(對南革命目的)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데 기인(基因)하고 있다.

1965년(年), 김일성(金日成)은 「상이한 사회제도(社會制度)를 가진 국가와의 평화공존정책(平和共存政策)은 사회주의(社會主義) 대외정책(對外政策)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결코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반제투쟁(反帝鬪爭)을 용해(溶解)시킨다든가, 또는 그에 의해서 반제투쟁(反帝鬪爭)을 약화(弱化)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평화공존정책(平和共存政策)을 혁명투쟁(革命鬪爭)에 종속(從屬)시킨 북한(北韓)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외국(外國)과의 관계(關係)에서만 인정(認定)할 뿐, 한국(韓國)과의 관계(關係)는 외국(外國)이 아니므로 평화공존정책(平和共存政策)을 적용(適用)할 수 없다는 이론(理論)을 표면상(表面上) 내세우고 있다. 그 까닭은 만약 남북한(南北韓)의 평화공존(平和共存)을 공식적(公式的)으로 인정(認定)할 경우 분단(分斷) 고정(固定)의 책임(責任)을 질지도 모른다는 그들 나름의 계산(計算) 때문인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北韓)의 연방제안(聯邦制案)은 표면상(表面上)으로는 평화공존론(平和共存論)과 대치관계(對峙關係)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연방안(聯邦案)이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평화공존론(平和共存論)의 소산(所產)이라고 볼 수 있는바 여기서 연방제(聯邦制) 논조(論調)에 나타난 남북평화공존(南北平和共存)의 숨은 기도(企圖)를 추출해 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金日成)은 1962년(年) 10월(月) 23일(日), 최고민족(最高人民) 회의(會議) 제(第)3기(期) 제(第)1차회의(次會議)에서 「우리가 제의하고 있는 연방제(聯邦制)는 남북조선(南北朝鮮)에 지금 있는 사회(社會) 정치제도(政治制度)는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와 대한민국정부(大韓民國政府)의 독자적(獨自的)인 활동(活動)을 보존(保存)하면서 두 정부(政府)의 대표(代表)들로 최고민족위원회(最高民族委員會)를 조직하여 민족공동(民族共同)의 관심사(關心事)로 되는 문제(問題)를 공동(共同)으로 처리(處理)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방제(聯邦制) 밑에서 남북(南北)은 서로 상대방(相對方)의 내정(內政)에 간섭(干涉)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自己)의 의사(意思)를 강요(強要)할 수 없습니다. 남북조선(南北朝鮮)은 각각 자기(自己)의 정치적(政治的) 신념(信念)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行動)할 것이며 오직 연방기구(聯邦機構)를 통하여 합의(合意)에 이른 민족공동(民族共同)의 이해(利害)에 관한 문제를 공동(共同)으로 해 결할 것입니다」라고 상호내정불간섭(相互內政不干涉)의 원칙(原則)을 비쳤다.

김일성(金日成)은 그 후 1972년(年) 9월(月) 17일(日), 일본(日本) 매일신문기자(每日新聞記者)와의 회견(會見)에서도 「남북(南北) 사이에 제도상(制度上) 차이(差異)는 있지만 남북(南北) 쌍방(雙方)이 서로 자기(自己)의 사회제도(社會制度)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원칙(原則)을 견지한다면 남북연방제(南北聯邦制)를 실시(實施)하지 못할 조건(條件)이 없습니다」라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북한(北韓)은 이와 같이 남북(南北)이 연방제하(聯邦制下)에서 상호내정불간섭(相互內政不干涉)과 각국(各國)의 자유행동(自由行動)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것은 곧 평화공존원칙(平和共存原則)을 의미(意味)한다고 하였다. 순수한 이론면(理論面)에서 볼 때 분단고정(分斷固定)을 속성(屬性)으로 하는 평화(平和) 공존론(共存論)과 통합지향(統合指向)을 의미(意味)하는 연방제(聯邦制)는 일견(一見) 모순(矛盾) 대립(對立)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성(共通性)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發見)할 수 있다.

즉, 평화공존론(平和共存論)과 연방제(聯邦制)는 공(共)히 ① 한반도(韓半島)에 현실적(現實的)으로 체제(體制)를 달리하는 두 개(個)의 국가(國家)가 존재(存在)하고 있다는 인식(認識)이 전제(前提)되고 있다는 점(點), ② 남북관계(南北關係)는 잠정적(暫時)이나 전쟁(戰爭)에 의한 정복(征服)이 아니라 평화관계(平和關係)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點), ③ 경제(經濟)·사회발전경쟁(社會發展競爭)과 계급투쟁(階級鬪爭)을 배제(排除)하지 않고 궁극적(窮極的) 목표(目標)는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革命)에 있다는 점(點)에서 양자(兩者)는 논거(論據)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北韓) 연방제안(聯邦制案)은 한반도(韓半島)에 사실상 두 개(個)의 국가(國家)

가 실재(實在)한다는 것을 인정(認定)한 기초 위에서 그 관계(關係)는 일정기간(一定期間) 평화적(平和的)으로 공존(共存)하면서 그런 가운데 공산주의(共產主義)가 승리하는 통일(統一)을 노리고 그 길을 개척(開拓)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北韓)이 연방제안(聯邦制案)을 발상(發想)하게 된 당시에는 남북간(南北間)의 경제(經濟)·사회발전경쟁(社會發展競爭), 및 이념투쟁(理念鬭爭)에서 승리함으로써 통일문제(統一問題)에 주도권(主導權)을 잡을 수 있다는 그들 나름의 자신감(自信感)에서 출발(出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의 남북한체제(南北韓體制) 경쟁(競爭)은 그들의 자신감(自信感)을 동요시킴으로써 결국 연방제(聯邦制) 주장(主張)은 전략적(戰略的) 차원(次元)에서 선전적(宣傳的) 차원(次元)으로 궤도수정(軌道修正)을 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남북대화(南北對話) 이후(以後)에 연방제(聯邦制) 실시(實施)의 선행조건(先行條件)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대남(對南) 자신감(自信感)의 동요에 기인(基因)한다고 보겠다.

4. 북한(北韓) 연방제(聯邦制)와 합작전술(合作戰術)과의 관계(關係)

북한(北韓) 연방제안(聯邦制案)의 실제적(實際的) 측면(側面)을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연방제안(聯邦制案)과 그들의 합작(合作) 및 통일전선전술(統一戰線戰術)과의 상관성(相關性)을 분석(分析)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意義)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통일전선전술(統一戰線戰術)이란 공산당(共產黨)이 당면한 혁명적(革命的) 투쟁과제(鬭爭課題)에 이해관계(利害關係)를 같이하는 정당사회단체(政黨社會團體) 및 일체(一切)의 사회계층(社會階層)과 제휴하여 행동통일(行動統一)을 기함으로써 적(敵)을 고립(孤立)타도(打倒)하는 전술(戰術)을 말한다.

공산주의(共產主義)는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구성요소(構成要素)로 주적(主做), 주력군(主力軍), 예비군(豫備軍)을 설정(設定)하고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원칙(原則)으로는 이에 참가(參加)하는 제(諸) 정당(政黨), 정파(政派)의 상대적(相對的) 독립성(獨立性)을 인정해주되, 주도권(主導權)은 역시 공산당(共產黨)이 장악하며 참가대중(參加大衆)을 공산당(共產黨)의 정치사상방향(政治思想方向)으로 개조(改造)하는 것을 그 원칙(原則)으로 삼고 있다.

통일전선(統一戰線)와 형태(形態)는 상층통일전선(上層統一戰線)과 하층통일전선(下層統一戰線)으로 구분(區分)하며 주요(主要) 투쟁형태(鬭爭形態)로는 낮은 형태(形態)의 공동투쟁(共同鬭爭)에서 높은 형태(形態)의 공동투쟁(共同鬭爭)으로, 부분연합(部分聯合)에서 전면연합(全面聯合)으로 발전(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통례(通例)이다. 그리고 통일전선전술(統一戰線戰術)과 유사(類似)한 개념(概念)으로 북한(北韓)은 합작(合作)이란 용어(用語)를 사용(使用)한다. 그들에 의하면 합작(合作)이란 힘을 합쳐 사업(事業)을 같이 하는 것이나, 이것을 대남관계(對南關係)에 적용(適用)할 때는 남한(南韓)의 반공태세(反共態勢)를 철폐한조건에서 북한(北韓)과 힘을 합쳐 사업(事業)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그런데 연방제(聯邦制)는 이와 같은 합작개념(合作概念) 중 「전면합작(全面合作)」 또는 「정치합작(政治合作)」으로 표현된다. 남북대화시(南北對話時), 박성철(朴成哲) 북한측(北韓側) 공동위원장대리(共同委員長代理)는 1972년 12월 4일 기자회견(記者會見)에서 「북(北)과 남(南) 사이의 정치적(政治的) 합작(合作)은 극히 중요한 의미(意義)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진 우리나라의 두 부분이 서로 정치적(政治的) 합작(合作)을 실현(實現)한다면 우리는 경제(經濟)·문화(文化)·군사(軍事)·외교(外交) 등, 각(各) 분야(分野)에서의 합작(合作)을 더욱 힘있게, 보다 원활히 추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더우기 연방제(聯邦制) 같은 것을 실시(實施)하면 남북관계(南北關係)를 개선(改善)하고 조국(祖國)의 자주적(自主的)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이룩하는 데서 결정적(決定的) 국면(局面)을 열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성(金日成)은 1973년 6월 23일 체코공산당(共產黨) 서기장(書記長) 후사크 환영(歡迎) 평양시(平壤市) 군중대회연설(群眾大會演說)에서 「고려연방공화국(高麗聯邦共和國)의 창설(創設)은 나라의 분열(分裂)을 막고 북(北)과 남(南)사이의 연계(連繫)와 합작(合作)을 전면적(全面的)으로 실현(實現)하여 완전한 통일(統一)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決定的)인 국면(局面)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北韓)은 연방제(聯邦制)를 「전면합작(全面合作)」 또는 「정치합작(政治合作)」으로 보고 있거니와 그 이유(理由)는 남북(南北)의 현재(現在)와 같은 대결관계(對決關係)에서는 설사 다방면(多方面)의 교류(交流) 내지 정치협상(政治協商)이 실시(實施)되더라도 상호(相互) 대립(對立)된 이념(理念) 및 체제(體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이라는 울타리 안에 행동(行動)이 제한(制限)되기 때문에 제휴(提携)보다는 경계(警戒)에 중점(重點)이 두어질 것인 만큼 대결(對決)을 「전면합작(全面合作)」으로 전환하고 그 가운데서 합법적(合法的)인 대남침투(對南浸透)와 자유(自由)로운 활동(活動)에 의해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革命)」을 달성(達成)하려는 것이다.

만일 연방제(聯邦制)에 의해서 남북간(南北間)의 「전면합작(全面合作)」이 이루어지면 북한(北韓)의 대남침투공작(對南浸透工作)과 공산화활동(共產化活動)을 규제(規制)하는 한국(韓國)의 법적(法的) 및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폐기되거나 또는 폐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무력화(無力化)될 것이므로 북한(北韓)은 이것을 대남혁명(對南革命)의 계기(契機)로 삼을 가능성(可能性)이 많은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북한(北韓)이 제시하고 있는 연방제(聯邦制) 실시(實施)의 선행조건(先行條件)을 중심(中心)으로 상술(詳述)하고자 한다.

① 북한(北韓)은 연방제(聯邦制) 실시(實施)의 선행조건(先行條件)으로 한국(韓國) 반공정부(反共政府)의 퇴진(退陣)을 요구(要求)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은 1975년 5월 31일 AFP통신(通信)과의 기자회견(記者會見)에서 「우리의 주장(主張)은 남조선(南朝鮮)에서 민주화(民主化) 운동(運動)이 승리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 인사(人士)가 정권(政權)에 올라 앉으면 남북

(南北) 사이에 제도상(制度上) 차이(差異)와 신앙(信仰)의 차이(差異)가 있지만 남북(南北) 연방제(聯邦制)를 실시(實施)하여 통일정부(統一政府)를 수립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현(現) 한국정부(韓國政府)를 전복시키고 용공정권(容共政權)을 세운 다음 이 용공정권(容共政權)과 북한(北韓) 정권(政權)이 합작(合作)을 함으로써 공산화(共產化) 통일(統一)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② 한국(韓國)의 반공태세(反共態勢)를 약화(弱化)시키고 국론(國論)을 분열(分裂)시키려는 것이다.

북한(北韓)은 「진정으로 단결(團結)을 원하고 통일(統一)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공(反共)을 버리고 연공(聯共)의 길에 나서야 하며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과 혼연히 손잡고 합작(合作)해야 한다. 남북연방제(南北聯邦制)를 실시(實施)하는 것은 민족대단결(民族大團結)을 도모하고 조국통일(祖國統一)을 앞당기는 가장 합리적(合理的)인 구호이다」고 남한(南韓)의 연공정책(聯共政策) 채택(採擇)을 주장하면서 연공(聯共)을 위해서는 반공법(反共法)과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북한(北韓)은 연방제(聯邦制) 실시(實施)의 다른 선행조건(先行條件)으로 「대민족대회(大民族大會)」나 또는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 「정치협상회의(政治協商會議)」 등의 소집(召集)을 요구(要求) 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은 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祖國統一) 5대방침(大方針)」을 발표(發表)하는 가운데 「우리는 조성(造成)된 조건(條件)에서 「대민족회의(大民族會議)」를 소집(召集)하고 민족적(民族的) 단결(團結)을 이룩한데 기초(基礎)하여 남(南)과 북(北)의 현존(現存)하는 두 제도(制度)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南北聯邦制)를 실시(實施)하는 것이 통일(統一)을 실현(實現)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合理的) 방도(方途)로 된다고 말했다.

남북한(南北韓)의 제(諸) 정당(政黨), 사회단체(社會團體) 대표(代表) 및 각계(各界) 각층(各層)의 대표(代表)로 「대민족회의(大民族會議)」를 소집(召集)하고 이들 기초(基礎)로 연방제(聯邦制)를 실시하자는 주장(主張)은 남북한(南北韓) 제(諸) 정당(政黨)과 국민간(國民間)의 다각적(多角的)인 접촉을 실현(實現)시켜 「반제투쟁(反帝鬭爭)」과 「반정부투쟁(反政府鬭爭)」을 위한 통일전선(統一戰線)을 형성(形成)하겠다는 기도(企圖)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대민족회의(大民族會議)」라는 하층통일전선(下層統一戰線)을 선행(先行)시킨 후 연방제(聯邦制)라는 상층통일전선(上層統一戰線)을 형성(形成)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연방제(聯邦制) 이전(以前)의 남북교류(南北交流)와 정치적(政治的) 협상(協商)에 있어서도 남북(南北)의 정당(政黨) 및 사회단체(社會團體)의 접촉과 대화(對話)를 예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남북(南北) 당국간(當局間)의 쌍무적(雙務的) 접촉(接觸)이 기간(基幹)을 이루고 또 이 쌍무적(雙務的) 접촉(接觸)은 남북(南北) 제(諸) 정당(政黨), 사회단체간(社會團體間)의 접촉(接觸)의 폭(幅)과 내용(內容)을 제한(制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남통일전선전술(對

南統一戰線戰術) 형성(形成)이 어렵기 때문이다.

④ 북한(北韓)은 연방제(聯邦制) 실시(實施)의 또 다른 선행조건(先行條件)으로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철수를 요구(要求)하고 있다.

평양방송(平壤放送)은 1972년 11월 22일 「연방제(聯邦制)를 실시(實施)해야 통일(統一)의 기본장애(基本障礙)인 미군(美軍)을 거리의 단합(團合)된 힘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고 통일문제(統一問題)에 대한 미국(美國)의 간섭을 제거(除去)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북한(北韓)이 연방제(聯邦制)를 주장하는 이유(理由)는 대내외선전(對內外宣傳)에서 자기(自己)들은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지향하는데 한국(韓國)은 분단고정(分斷固定)만을 추구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통일홍보(統一弘報)의 주도권(主導權)을 장악하려는 저의(底意)도 있다. 또한 연방제(聯邦制) 실시후(實施後) 대남무력행동(對南武力行動)을 자행하고 그것을 내란(內亂)으로 규정(規定), 우리 우방(友邦)의 대한지원(對韓支援)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적화목표(赤化目標)를 달성하려는 가능성(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연방제안(北韓聯邦制案)은 실제적(實際的)으로 대남혁명여건(對南革命與件) 조성(造成)을 위한 주요수단(主要手段)으로서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병합(併合)을 그 최종목표(最終目標)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소결언(小結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北韓)의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 개념(概念)은 외형상(外形上)으로는 연방(聯邦)을 가장한 국가연합(國家聯合)에 가까운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병합개념(併合概念)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北韓)의 연방제안(聯邦制案)은 공산주의(共產主義)의 평화공존론(平和共存論)을 그 이론적(理論的) 배경(背景)을 가지고 북한(北韓)은 20여 년간 연방제(聯邦制) 주장(主張)을 반복하고 있으나 내외(內外)의 환경적(環境的)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따라 연방제(聯邦制) 주장(主張)의 기본의도(基本意圖)가 변화(變化)되고 있다.

북한(北韓)이 연방제안(聯邦制案)을 처음 제의(提議)한 60년대초(年代初), 당시의 생각은 연방제(聯邦制) 실시(實施)를 통하여 남북간(南北間)의 경제(經濟)·사회발전경쟁(社會發展競爭) 및 이념투쟁(理念鬭爭)에서 자기들이 승리(勝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 나름의 자신감(自信感)에서 출발(出發)하였다. 북한(北韓)이 「연방제하(聯邦制下)의 대남경제원조(對南經濟援助)」를 공언(公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감(自信感)의 표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대초(年代初)부터 대남대화(南北對話)가 시작(始作)된 70년대(年代) 초(初)까지는 그들의 연방제(聯邦制) 주장(主張)에 선행조건(先行條件)을 붙이지 않았는데 남북대화(南北對話) 이후(以後)에는 선행조건(先行條件)을 첨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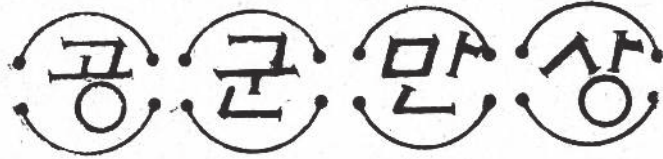
이것은 남북대화과정(南北對話過程)을 통하여 한국(韓國)의 국력신장(國力伸張)과 체제안정(體制安定)을 목격한 북한(北韓)이 조건(條件)없는 연방제(聯邦制) 실시(實施)는 자기들에게 득(得) 보다 실(失)이 많겠다는 판단(判斷)을 하였기 때문인 듯 싶다. 그리하여 그들의 연방제안(聯邦制案)에 대한 기본자세(基本姿勢)는 적극적(積極的)인 태도(態度)에서 소극적(消極的)인 태도(態度)로, 전략적(戰略的) 차원(次元)에서 선전적(宣傳的) 차원(次元)으로 후퇴(後退)한 것으로 분석(分析)된다.

공·군·만·상

정운섭(鄭雲燮)

<통신보안>





정운 섭(鄭雲燮)

<새 역사의 장을 여는

제 5공화국 탄생>



80년대(年代)의 미·소공군(美·蘇空軍)의 장비(裝備) (하(下))

장용순(張瑢淳) 역(譯)

소련(蘇聯)

1. 소련(蘇聯) 전략핵공격무기(戰略核攻擊武器) 시스템 ICBM, IRBM

1975년이래(年以來) 소련(蘇聯)은 제(第)4세대(世代)의 ICBM, SS-17/18/19의 배치(配置)를 개시(開始)했으며 그의 총수(總數)는 현재(現在) 이미 450기(基)에 달(達)한다고 한다.

SS-17은 Mod 1과 2의 2종(種)이 있어 Mod 1은 사정(射程) 1만(萬)km, MIRV 탄두(彈頭)를 4기(基)나 가지며, Mod 2는 사정(射程) 1만(萬)1천(千)km 그리고 탄두(彈頭)는 1기(基)라고 한다.

양형(兩型) 모두 액체연료(液體燃料)를 추진제(推進劑)로 사용(使用)하고 있으나 콜드·란지 방식(方式)이라고 하며 고압(高壓)가스를 사용(使用)해서 로켓·모터에 점화(點火)하지 않고 사이로(Silo)에서 발사(發射)하는 방식(方式)이 실용화(實用化)되었다.

따라서 사이로는 재사용(再使用)이 가능(可能)하며 사이로경화기술(硬化技術)과 공(共)히 미국(美國)보다 우수(優秀)한 점(點)이 되고 있다. 이 SS-17은 약(約) 150기(基)가 배치(配置)를 완료(完了)하였다.

SS-18은 사상(史上) 최강(最強)의 ICBM이라고 하는 강대(強大)한 미사일로서 Mod 1~4가지가 있고 각각(各各) MIRV를 1~8개(個)까지를 탑재(搭載)한다.

특(特)히 최신형(最新型)의 Mod 4는 각종(各種)의 MIRV 탄두(彈頭)를 장비(裝備)할 수 있다고 하는 특성(特性)에다 최근(最近) 행하여진 실험결과(實驗結果)에 의하면 그의 명중정도(命中精度)는 Minuteman III의 것을 상회(上廻)한다고 하는 것이다.

전체형(全體型) 모두 액체연료(液體燃料)의 콜드·란지방식(方式)이며 사정(射程)은 1만(萬)1천(千)~1만(萬)6천(千)km인 것이다. SALT II 협정(協定)에 의하면 소련(蘇聯)은 이 SS-18을 326기(基)까지 배치(配置)할 수 있는데 이미 200기(基) 이상(以上)을 끝내고 있다는 것이다.

탄두중량(彈頭重量)은 SS-18의 약(約) 반(半)이나, SS-17 보다도 2기(基)나 많은 MIRV 탄두(彈頭)를 장비(裝備)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優先順位)가 높아져서 배치(配置)된 것이 SS-19로서 이미 200기(基) 이상(以上)이 전개(展開)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Mod 1과 2의 2종(種)이 있으며 모두 액체연료(液體燃料)를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Silo 내(內)에서 로켓·모터에 점화(點火)해서 발사(發射)하는 Hot-Launch 방식(方式)인데 Mod 1은 MIRV 탄두(彈頭)를 6기(基) 탑재(搭載)해서 사정(射程) 9,600km, Mod 2는 탄두(彈頭) 1기(基)로 사정(射程) 1만(萬) 100km라는 차이(差異)가 있다.

이러한 강력(強力)한 ICBM의 배치(配置)에 의해 소련(蘇聯)의 탄두중량능력(彈頭重量能力)은 1982년(年)까지에는 미국(美國)의 4배(倍)가 된다.

또한 소련(蘇聯)은 SS-18의 MIRV 수(數)를 20기(基) 정도(程度)까지 증대(增大)할 의도(意圖)를 가지고 MIRV를 운반(運搬)하는 비상체(飛翔體)(버스라고 부름)도 현재(現在)의 1기(基)에서 2기(基)로 늘릴 것을 계획(計劃)하고 있는 것 같다.

제(第)3세대(世代)의 ICBM중(中) 현역(現役)으로 남은 것은 SS-16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탄두(彈頭) 1기(基) Hot-Launch 방식(方式)으로서 사정(射程) 9, 200km의 미국(美國)의 Minuteman과 대체(大體)로 같은 크기이나 그의 고체연료(固體燃料)라고 하는 특성(特性)을 살려서 이동발사대(移動發射臺) 방식(方式)이 채택(採擇)되어 있는 것이 특징(特徵)이다.

미국(美國)의 MX 정도(程度)로 본격적(本格的)인 것은 아니나 광대(廣大)한 국토(國土)를 이용(利用)한 이동(移動)은 SS-16의 생산성(生産性)을 크게 높일 것이며, 후술(後述)하는 SS-20과의 혼합운용(混合運用)에 의해 미국(美國)의 대책수립(對策樹立)을 곤란(困難)하게 하고 있다.

SS-16의 제(第)1, 제(第)2단(段)을 이용(利用)해서 개발(開發)한 사정(射程) 5,500km의 IRBM이 SS-20으로서 SALT II의 대상의(對象外)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제국(西歐諸國)에게 큰 문제(問題)를 야기(惹起)시켰다.

MIRV 탄두(彈頭) 3기(基)를 가지고 그의 정도(精度)(CEP)는 약(約) 760m로 추정(推定)되고 있으나, 제(第)1격(擊)으로 서구대도시(西歐大都市)는 물론(勿論) 항공기지(航空基地)도 한꺼번에 괴멸(壞滅)될 염려(念慮)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말(昨年末) 현재(現在) 120기(基) 이상(以上)이 배치(配置)되었다고 하는데 이동식(移動式)라운차 외(外)에 SS-16과 같이 Silo를 사용(使用)하는 배치(配置)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兩者)의 구별(區別)이 대단(大端)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 SS-20의 배치(配置)에 의해서 구형(舊型)인 SS-4, SS-5형(型)이 퇴역(退役)할지는 의문이지만 「The Military Balance 1979/80」 책자에 의하면 적어도 몇 기(基)는 예비(豫備)로 보존(保存)되어질 것으로 기록(記錄)되어 있다.

제(第)5세대(世代)의 ICBM 즉(卽), SALT II에서 말하는 「신형(新型)」 ICBM은 4종(種)이

개발(開發)되고 있다는 바 그 내용(內容)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중의 1~2종(種)은 곧 발사(發射) 테스트 단계(段階)에 있다고 한다.

1982년경(年頃)까지는 소련(蘇聯)의 ICBM 탄두수(彈頭數)는 약(約) 9,000기(基)(72년(年)은 1,600기(基)이었다)가 되고 그의 정밀도(精密度)는 극적(劇的)으로 향상(向上)하여 이미 미국(美國)과 어깨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80년대(年代) 후반기(後半期)에는 제(第)5세대(世代)의 ICBM의 배치(配置)를 시작(始作)할 것이나 SALT III와의 관련(關聯)도 있어 기술면(技術面)에서 확정(推定)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전략폭격기(戰略爆擊機)

미전략공군(美戰略空軍)에 필적(匹敵)하는 소련(蘇聯)의 장거리(長距離) 공군(空軍)은 현재(現在) 약(約) 800대(臺)를 보유(保有)하고 있는데 그 내역(內譯)은 장(長)·중거리(中距離) 폭격기(爆擊機),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탑재(搭載) 폭격기(爆擊機), 공중급유기(空中給油機), 정찰기(偵察機)로서 전략공격능력(戰略攻擊能力)을 가지는 것은 약(約) 150대(臺)의 Tu-95(BEAR)와 M-4(Bison) 그리고 SALT II에서는 「전략폭격기(戰略爆擊機)」로 규정(規定)짓지 않은 Tu-22M(Backfire) 약(約) 100대(臺)이다.

M-4기(機)는 대체로 정찰(偵察) 또는 공중급유용(空中給油用)으로 사용(使用)되며, Tu-95기(機)는 AS-3 또는 AS-4를 장비(裝備)한 소수(少數)의 Tu-95B에 전략공격능력(戰略攻擊能力)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양기(兩機) 모두 다 구식화(舊式化)되어 해군항공부대(海軍航空部隊)의 양상초계(洋上哨戒)/정찰기(偵察機)로서 여명(餘命)을 유지(維持)하고 있는 형편(形便)이어서 장거리(長距離) 공군(空軍)의 주력(主力)은 Tu-22M Backfire가 되는 셈이며, 매년(每年) 25~30대(臺) 정도(程度)가 배치(配置)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근래(近來) 2~3년간(年間)은 그런 정도(程度)의 증가(增加)는 없었다.)

가변후퇴익(可變後退翼)과 저공침입돌진능력(低空侵入突進能力), AS-6 2기(基)의 탑재능력(搭載能力)에 의한 공격력(攻擊力)은 Tu-95 M-4보다 훨씬 우수(優秀)하다 한다.

일단 SALT II 협정(協定)이 준수(遵守)되어지면 Backfire기(機)에는 공중급유장치(空中給油裝置)가 장비(裝備)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미본토(美本土)에 대(對)한 직접공격능력(直接攻擊能力)은 없지만 서구(西歐)나 일본(日本), 중공(中共) 등(等)에는 여전히 큰 위협(威脅)이 된다는 것은 변(變)함이 없다.

소련해군항공대(蘇聯海軍航空隊)도 Backfire기(機)의 이러한 성능(性能)을 인정(認定)하여 이례(異例)의 조기배치(早期配置)를 하여 이미 50대(臺) 이상(以上)이 전개(展開)되어 있다 한다.

앞으로도 Backfire의 생산(生産)은 계속(繼續)될 것이다. Tu-16기(機)의 후계적(後繼的) 임무(任務)를 띠고 있다고 하면 상당수(相當數)(1,000대(臺) 이상(以上))가 배치(配置)되어 질지 모르는 것이다.

보다 장거리(長距離)의 공격능력(攻擊能力)을 가진 폭격기(爆撃機)에는 두 종류(種類)의 신형기(新型機)의 개발(開發)이 전(傳)해지고 있는데 그의 하나는 Tu-144 초음속여객기(超音速旅客機)를 개조(改造)한 것이라고 하는데 동(同) 기(機)의 엔진부조(不調)와 저공고속비행능력(低空高速飛行能力)의 결함 등으로 기술적(技術的) 및 운용면(運用面)으로 보아 실용화(實用化)는 의문시(疑問視)된다는 것이다.

보다 실용성(實用性)이 높은 또 하나는 Tu-160이라고 부르는 기체(機體)가 아닌가 생각되며 가변후퇴익(可變後退翼), 초음속비행능력(超音速飛行能力)을 가지며 급유장치(給油裝置)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미 원형(原型)이 완성(完成)되었다는 정보(情報)도 있으나 빨라도 83년(年) 이후(以後)라는 설(說)이 현재(現在)로서는 유력(有力)하다. 또한 다른 종류(種類)의 신형(新型) 폭격기(爆撃機)를 개발중(開發中)이라는 설(說)도 있어 정확(正確)한 것은 파악(把握)하기 힘들다.

아몽든 소련(蘇聯)이 Backfire(기)로 만족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80년대(年代) 중반기(中半期)까지에는 새로운 폭격기(爆撃機)가 등장(登場)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폭격(爆撃)에 탑재(搭載)하는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의 최신행(最新型)은 AS-6으로서 Tu-16 기(機)에 장착(装着)되어져서 일본근해(日本近海)에 2회정도(回程度) 나타남으로써 서방측(西方側)에 위협(衝擊)을 준 바 있다.

특(特)히 극동방면(極東方面)에 의외(意外)로 빨리 나타난 것은 소련(蘇聯)의 극동(極東)/태평양(太平洋) 중시전략(重視戰略)의 일면(一面)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정(射程)은 비행고도(飛行高度)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大體)로 250~750km, 최대속도(最大速度)는 마하3이며 핵탄두능력(核彈頭能力)은 SS-20과 같이 서구(西歐)의 도시(都市) 및 항공기지(航空基地)를 쉽게 공격(攻擊)할 수 있기 때문에 크나큰 위협(威脅)이 되고 있다고 한다.

Tu-16기(機)에 장비(裝備)되고 있다는 것도 의외(意外)이지만 소련(蘇聯)은 현재(現在) Backfire용(用)의 순항(巡航)미사일을 개발중(開發中)이라고 하며, 이것이 Tu-22M의 주력장비(主力裝備)라고 생각되고 있다.

사정(射程)이 1,500km급(級)이라는 이외(以外)는 상세(詳細)한 것을 모르지만 과연(果然) 미국(美國)의 순항(巡航) 미사일 정도(程度)의 높은 정밀도(精密度)의 것인가는 의문시(疑問視)된다.

순항(巡航)미사일의 유도장비(誘導裝備)에 관(關)해서는 소련(蘇聯)은 미국(美國)보다 5~10년(年) 뒤지고 있다고 하는데 5년(年)이라고 하면 늦어도 80년대(年代) 중반기(中半期)까지에는 현재(現在)의 미순항(美巡航)미사일에 필적(匹敵)하는 신형(新型)이 출현(出現)하게 될

것이다.

이에는 엔진기술(技術) 등의 발전(發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신형(新型)이 미국(美國)의 순항(巡航)미사일 정도(程度)의 소형(小型)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무어라 말할 수 없으나 늦어도 80년대(年代) 후반(後半)에는 현재(現在)의 ALCM이나 Tomahawk와 동급(同級)의 순항(巡航)미사일이 출현(出現)할 가능성(可能性)은 충분(充分)히 있는 것이다.

요사이 미국(美國)도 신형(新型)을 등장(登場)시키고 있는 고로 기술면(技術面)의 우위(優位)는 보지(保持)될 것이나, 그 차이는 확실히 축소(縮小)되어갈 것이다.

기타(其他) AS-6의 뒤를 이은 신형(新型)의 ASM(로켓 추진(推進)) 개발설(開發說)도 있으나 상세(詳細)한 것은 조금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상발사형(地上發射型) 순항(巡航)미사일에 관(關)해서는 소련(蘇聯)이 「미국(美國)이 배치(配置)하면 이에 대항할 조치(措置)를 취한다」고 언명(言明)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역시 미국(美國)의 Tomahawk GLCM과 같은 형(型)이 개발(開發)될지 모르는 일이다.

Tomahawk GLCM은 원래(元來) 소련(蘇聯)의 SS-20이나 Tu-22M에 대항(對抗)하는 것으로서 소련(蘇聯)의 대항책(對抗策)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AS-6의 지상발사형(地上發射型)이나 개발(開發) 중(中)인 새로운 순항(巡航)미사일을 전용(轉用)하리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소련(蘇聯)은 이미 신형전술핵(新型戰術核)미사일 SS-21과 SS-22를 개발(開發)하고 있다는 고로 이러한 핵탄도(核彈道)미사일의 배치(配置)를 증강(增強)하는 대책(對策)을 세울 것으로 생각된다.

공중급유기(空中給油機), 조기경보기(早期警報機), 정찰기(偵察機)

전략폭격기(戰略爆撃機)에 대(對)한 공중급유기(空中給油機)로서는 종래(從來) M-4나 Tu-16 등의 구식화(舊式化)된 폭격기(爆撃機)의 개조형(改造型)이 사용(使用)되어 왔는데 최근(最近) 대형수송기(大型輸送機)를 개조(改造)한 본격적(本格的)인 공중급유기(空中給油機)가 출현(出現)하게 되었다.

먼저 IL-76(미국(美國)의 C-141기(機)에 필적(匹敵)하는 화물(貨物) 40톤(噸)을 5,000km 공수능력보유(空輸能力保有)을 개조(改造)한 형(型)이며, 적어도 1대(臺)는 Tu-22M기(機)에 대한 급유시험(給油試驗)에 사용(使用)된 것이 확인(確認)된 바 있는 것이다.

다분(多分) M-4기(機) 공중급유기형(空中給油機型)의 후계기(後繼機)가 아닌가 하는 경향(傾向)이 있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수(數)가 출현(出現)할지도 모른다.

또 다른 하나의 형(型)은 IL-86여객기(旅客機)(소련최초(蘇聯最初)의 광둥형(廣胴型) 여객기(旅客機), 미국(美國)의 DC-10이나 L-1011에 相當)의 개조형(改造型)으로 아직 공중급유형(空中給油型)이 출현(出現)하였다는 확실(確實)한 정보(情報)는 없으나 동기(同機)의 성격(性格)

과 능력(能力)으로 보아 크게 유망시(有望視)되고 있다. IL-86의 개조형(改造型)으로 들 수 있는 다른 형(型)은 공중조기경보관제기(空中早期警報管制機)인 것인데, 이미 Tu-114터버프롭어객기(旅客機)(Tu-95의 수송기형(輸送機型))를 개조(改造)한 Tu-126기(機)의 존재(存在)가 알려지고 있으나 그 후계기(後繼機)로서는 IL-86기(機)의 개조형(改造型)이 유력시(有力視)되고 있다는 것이다.

SU-AWACS라고 불리우고 있고, 미(美) 전략폭격기(戰略爆擊機)의 가장 적수(敵手)로 생각되고 있으며 전술(前術)한 SRAM 개조(改造)의 대(對) AWACS 공격(攻擊)미사일 개발계획(開發計劃)도 이것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IL-86 자체(自體)도 생산(生産)을 개시(開始)한데 불과(不過)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파생형(派生型)이 다수(多數) 출현(出現)하는 것은 80년대(年代) 중반기(中半期)가 될 것이나 그의 전체수(全體數)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전략정찰기(戰略偵察機)는 폭격기(爆擊機)를 개조(改造)한 것이 많으며 Tu-16, Tu-22, Tu-95, M-4기(機) 등의 정찰기형(偵察機型)이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 이미 강행정찰력(強行偵察力)은 없으며 양상초계(洋上哨戒)/정찰(偵察)이 주임무(主任務)가 되고 있다. Tu-22M의 정찰기형(偵察機型)은 아직 확인(確認)되어 있지 않으나 가까운 시일내(時日內)에 반드시 출현(出現)될 것이며, 이미 해군항공대(海軍航空隊)에 장비(裝備)되어 있는 TU-22C? 형(型)은 양상초계(洋上哨戒)/정찰력(偵察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蘇聯)에는 현시점(現時點)에서는 미국(美國)의 SR-71에 필적(匹敵)하는 초음속(超音速), 초고고도용(超高度用)의 전략(戰略) 정찰기(偵察機)의 존재(存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구태여 예(例)를 든다면 MIG-25B 정찰형(偵察型)이 있는데 중동방면(中東方面)에서의 전략정찰활동(戰略偵察活動)이 알려졌지만 SR-71에 상당(相當)하는 능력(能力)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한때 U-2기(機)와 흡사(恰似)한 장대(長大)한 날개를 가진 Mandrake(쌍발(雙發)) 고고도(高高度) 정찰기(偵察機)의 존재(存在)가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最近) 동기(同機)에 대(對)한 소식(消息)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퇴역(退役)하여 버린 것 같다.

소련(蘇聯)의 전략정찰(戰略偵察)에 관(關)해서는 대부분(大部分) 위성(衛星)에 기대(期待)를 걸고 있는 듯 하여 80년대(年代) 중(中)에 신형(新型)의 전략정찰기(戰略偵察機)가 등장(登場)할 가능성(可能性)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SALT의 앞날에 따라서는 공중사찰용(空中查察用)으로 어떠한 신형기(新型機)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오히려 위성(衛星)이 사용(使用)될 가능성(可能性)이 높다 할 것이다.

미국(美國)의 E-4에 상당(相當)하는 소련(蘇聯)의 공중사령부기(空中司令部機)의 존재(存在)는 현재(現在)로서는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전선공군(前線空軍)(미국(美國)의 전술공군(戰術空軍)에 해당(該當)용(用)의 공중(空中) 사령부기적(司令部機的)인 기체(機體)의 존재(存在)

로 전(傳)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E-4와 같은 기종(機種)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境遇) 제일(第一) 가능(可能)이 높은 기체(機體)는 IL-86의 개조형(改造型)인데 소련(蘇聯)의 방침(方針)으로는 이와 같은 기체(機體)의 존재(存在)는 공표(公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存在)의 가능성(可能性)은 충분(充分)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타(其他) YAK-27 Mangrove라는 고고도(高高度) 정찰기(偵察機)의 존재(存在)가 알려졌으나 전술용(戰術用) 정찰기(偵察機)인 것으로 해석(解釋)되고 있는 것이다.

2. 전략방공(戰略防空) System ABM

미국(美國)은 ABM의 배치(配置)를 중지(中止)하고 있는 데 대하여 소련(蘇聯)은 여전(如前)히 64기(基)의 ABM-1 Galosh를 모스크바 교외(郊外)에 배치(配置)하고 있다.

SALT I 합의(合意)에 의하면 100기(基)까지 배치(配置)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나머지 36기(基)가 다른 곳에 배치(配置)되어 있다는 증거(證據)는 보이지 않는다.

Galosh의 능력(能力)으로서는 단순(單純)한 재돌입탄두(再突入彈頭) 밖에 요격(邀擊)할 수 없기 때문에 소련(蘇聯)은 당연(當然)히 이에 대체(代替)되는 ABM 개발(開發)을 계속(繼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Galosh 본체(本體)까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며 1964년(年) 이래(以來) 모스크바의 파레이드에 참가(參加)하고 있으나 항상(恒常) 콘터에 수용(收容)되어 있어서 제(第)1단(段)의 로켓트·노즐이 4기(基)라는 것 이외는 일체(一切) 불명(不明)인 것이다.

소련(蘇聯)의 ABM연구(研究), 개발(開發)에는 나름대로의 우선도(優先度)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SALT I 협정(協定)이 파기(破棄)되면 즉시 다수(多數)의 ABM을 전개(展開)할 것으로 서방측(西方側)에서는 예상(豫想)하고 있다.

방공(防空)(요격(邀擊)전투기(戰鬪機), 기타(其他) 공대공(空對空)미사일

미국(美國)과는 대조적(對照的)으로 소련(蘇聯)은 2,600대(臺)에 달하는 방공전투기(防空戰鬪機)를 보유(保有)하며 이는 국토방공군(國土防空軍)에 소속(所屬)되어 있다.

구식화(舊式化)된 MIG-17, Su-9, Su-11C, YAK-28P, Tu-28P 등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신예기(新銳機)인 Su-15기(機)는 약(約) 900대(臺), MIG-25A는 약(約) 300대(臺)가 배치(配置)되어 있으며, 또한 전선공군(前線空軍)에서도 사용(使用)하고 있는 MIG-23B형(型)도 약(約) 400대(臺)가 있다고 한다.

Su-15는 최대속도(最大速度) 마하 2.5의 전천후(全天候) 요격전투기(邀擊戰鬪機)로서 성공작(成功作)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그의 후계기(後繼機)인 Ram K라는 별명(別名)을 가진 가변익(可變翼)이 있다.

중량(重量) 27톤(噸)의 대형(大型)으로 터보제트 1기(基)에 의해서 마하 2.5의 속도(速度)를 내며 Look-down, Shoot down 능력(能力)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美國)의 순항(巡航)미사일 요격(邀擊)을 목적(目的)으로 개발(開發)되었다고 한다.

아직 배치(配置)가 개시(開始)되었다는 확인(確認)은 없으나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라 한다. MIG-25의 후계기(後繼機)가 MIG-25E나 MIG-29라는 기체(機體)로서 그의 존재(存在)는 오래 전부터 전(傳)해지고 있다.

별명(別名)을 Super Foxbat라고 불리워지는 것 같이 MIG-25의 화기관제장치(火器管制裝置)와 저공운동능력(低空運動能力)을 대폭적(大幅的)으로 개량(改良)하고 있다.

복좌(複座)이며 Look down, Shoot down 능력(能力)을 가지고 있고, 화기관제장치(火器管制裝置)는 동시(同時)에 20개(個)의 목표물(目標物) 처리능력(處理能力)이 있다고 한다.

미(美) 해군(海軍)과 F-14기(機)에 준(準)하는 능력(能力)을 가진 기체(機體)라고 생각하여도 좋은 것이다. 또한 F-18A기(機)에 상당(相當)하는 기체(機體)로서 Ram I이라고 하는 쌍미익형전투기(雙尾翼型戰鬥機)의 존재(存在)도 전(傳)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Sukhoi의 제작(製作)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FCS레이더는 40해리(海里)의 목표물(目標物) 추적거리(追跡距離)를 가지고 최신(最新)의 공대공(空對空)미사일(AAM) AAX-9 (사정(射程)25해리(海里)) 유도능력(誘導能力)이 있다. 중량(重量) 11.5톤(噸), 터보레트 쌍발(雙發)로서 마하 2 이상(以上)의 속도(速度)를 낸다는 것 이외(以外)에는 아는 바가 없다.

과연(果然) 국토방공군(國土防空軍) 소속(所屬)의 순수요격전투기(純粹邀擊戰鬥機)인지, 또는 전선공군(前線空軍)에서도 사용(使用)하는 다용도(多用途)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아물든 이들 신예기(新銳機)는 80년대(年代) 전반기(前半期)에 제(第)1선부대(線部隊)에 배치(配置)를 개시(開始)하고 80년대(年代) 후반기(後半期)에는 주력기(主力機)가 될 것이며, 그 때에는 차기(次期) 신형기(新型機)가 출현(出現)할 것이다.

즉 90년대용(年代用)의 기체(機體)인데 미국(美國)과 달리 장대(長大)한 국경선(國境線)을 방위(防衛)하는 전투기(戰鬥機)의 필요성(必要性)은 대단(大端)히 높으며, 장래(將來)에도 그것이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형(新型) 요격기(邀擊機)의 개발(開發)은 부단(不斷)히 계속(繼續)될 것이다.

한편 1만기(萬基)가 배치(配置)되어 있다고 하는 SAM(지대공(地對空)미사일)발사대(發射臺)도 현재(現在) 급속(急速)히 SA-10으로 교대(交代)되어지고 있다.

SA-10은 1979년(年)부터 배치(配置)가 개시(開始)되었다고 하며 고도(高度) 300~5,000m까지의 공역(空域)을 마하 6으로 요격(邀擊)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가지며 유도관제(誘導管制)는 3차원(次元) 레이더를 사용(使用)하여 종단유도(終端誘導)에는 Active-Radar Homing을 사용(使用)하는 극(極)히 고도(高度)의 기동능력(機動能力)을 가지

며, 동시(同時)에 함재형(艦載型)도 개발(開發)되어 해군함정(海軍艦艇)에의 장비(裝備)도 개시(開始)되고 있다고 전(傳)해지고 있다.

현재(現在)까지의 소련(蘇聯)의 SAM보다 훨씬 진보(進步)된 형(型)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서방측(西方側)의 항공기(航空機)/미사일·시스템개발(開發), 운용상(運用上)의 큰 문제(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事實)이다.

현시점(現時點)에서는 SA-10은 배치(配置)를 개시(開始)하였을 뿐이고 후계(後繼)의 이야기도 없으나 소련(蘇聯)의 SAM개발(開發)에 대한 열의(熱意)와 그의 필요성(必要性)에서 생각할 때에 수년내(數年內)에 신형(新型)이 출현(出現)할 것이다.

다분(多分) ECCM(대전자방해책(對電子妨害策))능력(能力)을 강화(強化)하여 저공(低空)에 있어서의 소목표물(小目標物) 요격(邀擊) 능력(能力)을 강화(強化)한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방공경보(防空警報) 레이더

소련(蘇聯)의 방공경보(防空警報) 레이더 사이트 수(數)는 지난 2년간(年間)에 급속(急速)히 증가(增加)되어 종전(從前)의 6,500개소(個所)에서 7,260개소(個所) 이상(以上)으로 되었다.

아마도 미국(美國)의 순항(巡航)미사일과 서방측(西方側) 및 중공(中共)의 항공공격능력(航空攻擊能力) 향상(向上)에 대항(對抗)하기 위(爲)한 조치(措置)일 것이다.

ABM용(用) 레이더 사이트는 「모스크바」 주변(周邊)에 배치(配置)되어 있는 Golosh ABM 용(用) 사이트 4개소(個所)에 「Try-Add」라고 불리어지는 레이더가 배치(配置)되어 있다.

또한 조기경보용(早期警報用)으로서는 Hen House라고 부르는 거대(巨大)한 웨스트-어레이형(型) 레이더가 배치(配置)되었고 목표물(目標物) 포착(捕捉)과 추적용(追跡用)에는 Dog House, Cat House라고 하는 레이더가 있다.

유감(遺憾)된 일이나 소련(蘇聯)의 방공(防空)레이더에 대한 상세(詳細)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웨스트-어레이형(型), 모주라형(型)의 신형(新型) 레이더가 계속(繼續) 개발(開發)되어 급속(急速)히 배치(配置)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라·사간」의 레이더 실험장(實驗場)에는 새로운 레이더 시험(試驗)이 부단(不斷)히 계속(繼續)되고 있다고 하며 캄차카 반도(半島)에 있어서는 급속(急速) 전개설치형(展開設置型)의 신형(新型)레이더가 배치(配置)되었다고 전(傳)해지고 있다.

이런일 때문에 소련(蘇聯)은 무엇보다도 현재(現在) 최강(最強)의 방공망(防空網)을 갖는다는 것은 의심(疑心) 할 바가 아니며, 또한 미국(美國)에게 B-52의 전자장비강화(電子裝備強化)나, 신형순항(新型巡航)미사일 개발촉진(開發促進)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競爭)은 80년대(年代)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繼續)될 것이다.

우주무기(宇宙武器)

소련(蘇聯)의 우주무기(宇宙武器) 개발(開發)에 대한 열의(熱意)는 대단(大端)한 것으로서 연평균(年平均) 80~100기(基)의 위성발사(衛星發射)가 계속(繼續)되고 있다.

지난 5년간(年間)의 수(數)를 보면 1975년(年)에 85기(基), 76년(年)에 99기(基), 77년(年)에 98기(基), 78년(年)에 88기(基), 79년(年)에 87기(基)로서 미국(美國)의 3배(倍) 이상(以上)으로 되어 있다.

예(例)를 들면 78년(年) 미국(美國)은 32기(基)의 로켓을 발사(發射)하고 41개(個)의 위성(衛星)을 발사(發射)하였는데 소련(蘇聯)의 수치(數値)는 각각(各各) 88/38이다. 정찰위성(偵察衛星)을 비롯한 탐지(探知)/감지능력(感知能力)을 가진 군사용(軍事用) 위성(衛星)의 수(數)는 같은 해에 64개(個)(미국(美國)은 7개(個)), 통신위성(通信衛星)과 같은 탐지능력(探知能力)이 없는 위성(衛星)은 24개(個)(미국(美國)은 25개(個))이었다.

유인우주비행(有人宇宙飛行)도 계속(繼續)되어(미국(美國)은 1975년(年)의 Apollo Soyuz가 최후(最後) 작년(昨年)에도 175일간(日間)에 걸친 Soyuz(32호(號))의 비행(飛行)이 행하여졌고 더우기 지구귀환(地球歸還)은 후에 무인(無人)으로 발사(發射)된 다른 Soyuz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現在)는 Soyuz T라고 부르는 수송형(輸送型)이 출현(出現)하여 「사리유도 6호(號)」와 토킹하여 비행(飛行)하고 있다.

1978년(年)에 소련(蘇聯)이 발사(發射)한 정찰위성(偵察衛星)은 36개(個) (35개설(個說)도 있음)로서 평균(平均) 2주일간(週日間)에 회수(回收)되었으며 이것들은 Vosdock 위성(衛星)에서 발사(發射)된 것으로서 배터리를 전원(電源)으로 하여 왔으나 동년(同年) 1주(週)만에 발사(發射)된 Soyuz의 개조형(改造型)은 태양전지(太陽電池)를 장비(裝備)한 것 이었고 30일간(日間)의 수명(壽命)을 가지고 있었다.

1979년(年)에는 이것이 5개(個) 발사(發射)되었는 바 이들 위성중(衛星中)에는 자원탐사위성(資源探査衛星)도 포함(包含)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의 상위점(相違點)은 확실(確實)치않다.

여하간 이런 종류(種類)의 위성(衛星)의 능력(能力)이 향상(向上)되고 있는 것은 주목(注目)할만 하다.

킬러위성(衛星)은 78년(年)에 1기(基) 발사(發射)되었을 뿐이며 79년(年)에는 발사(發射)되지 않았다. 이것은 미(美)·소(蘇)간(蘇間)의 합의(合意)에 따른 것이지만 만일 결렬(決裂)된다면 즉시(即時) 실험(實驗)될 것이다. 종래(從來)의 육탄공격형(肉彈攻擊型) 위성(衛星)에서 레이저 광선(光線)을 사용(使用)한 전투함형(戰鬪艦型)으로 이행(移行)되어가 있다는 것이다.

항해위성(航海衛星)은 78년(年)에 8개(個), 79년에 6개(個) 발사(發射)되었는데(이 중(中)에 1개(個)를 측지용(測地用)이라 함) 이들 위성(衛星)은 미(美) 해군(海軍)의 트란시트 위성(衛星)과 같은 150~400메카헤츠의 주파수대(周波數帶)를 사용(使用)하고 있는데 웬 일인지

Comos-1,000만이 항해위성(航海衛星)으로 공표(公表)되어 있다. 그리고 3개(個)의 항해위성망(航海衛星網)의 존재(存在)가 알려졌다.

조기경보위성(早期警報衛星)은 코스모스·시리즈 하나 뿐으로 78, 79 양년도(兩年度)에 각(各) 2기(基)가 발사(發射)되었으며 궤도(軌道)는 모루지아 위성(衛星)과 같으나 12시간(時間)의 궤도주회시간내(軌道周回時間內)에 가급적(可及的) 장시간(長時間) 북반구(北半球)에 머물 수 있는 궤도(軌道)가 선정(選定)되어 있다.

기상위성(氣象衛星)은 78년(年)에는 없었으며 (코스모스-1066이 이것에 상당(相當)하였던 것이나 System의 고장(故障)으로 실패(失敗)한 것 같음) 79년(年)에는 3개(個)가 발사(發射)되었는데 이 중의 1개(個)도 태양궤도(太陽軌道)와 동조형(同調型)이었고 2개(個)는 극궤도형(極軌道型)이었다.

통신위성(通信衛星)은 군(軍)·민용(民用的) 구별(區別)이 곤란(困難)하지만 Gress라고 불리는 군사통신위성(軍事通信衛星)의 존재(存在)가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Molniya1형(型)에서 발달(發達)한 것으로서 4개(個)의 위성(衛星)으로 전세계(全世界)를 커버하고 미국(美國)의 방위위성(防衛衛星) 통신(通信) System과 같은 기능(機能)을 하는 것이라 한다.

1개(個)는 이미 발사(發射)되었으며 Molniya 3형(型)은 민간용(民間用)이라 하며 2개(個)가 국내(國內) 통신용(通信用)으로 발사(發射)되어 진다는 것이다. 같은 국내(國內) 통신용(通信用)인데 Raduga TV 전화중계(電話中繼) 위성(衛星)도 군사통신(軍事通信) 임무(任務)를 띠고 있다고 하며 이미 79년(年)까지에 5개(個)가 발사(發射)되었다 한다.

통신정찰용(通信偵察用)이라고 하는 위성(衛星)이 스토아·탄프 통신위성(通信衛星)으로서 세계(世界)의 통신위성(通信衛星)으로서 세계(世界)의 통신(通信)을 방수(傍受)하여 수집(蒐集)해두었다가 소련(蘇聯) 역(或)은 WARSAW 제국(諸國) 상공(上空)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전파(傳播)하는 것이다.

78년(年)에는 35개(個), 79년(年)에는 19개(個)가 발사(發射) 되었으며 이 중(中)에 1기(基)의 로켓으로 8개(個)를 발사(發射)한 것이 2회(回)이며, 1개(個)의 로켓으로 1개(個)를 발사(發射)한 것이 3회(回)이다. 이들 위성(衛星)은 특(特)히 관심(關心)이 가는 지역(地域)에는 그곳에 중점적(重點的)으로 발사(發射)되는 것이다.

해양조사(海洋調査)/감찰위성(監察衛星)은 78, 79년(年)에는 각기(各其) 6개(個)가 발사(發射)되었다. 이런 종류(種類)의 위성(衛星)은 종래(從來) 1궤도(軌道) 1개(個)였으나 최근(最近)은 79년(年) 4월(月)의 모스크바 1094, 1096과 같은 궤도(軌道)에고도(高度)는 다름 2개(個)가 올라가서 감시범위(監視範圍)를 매일(每日) 겹쳐서 날도록 되어 있다. 전력(電力)도 종전(從前)에는 원자로(原子爐)로 사용(使用)되어 왔으나 캐나다에서의 추락사고(墜落事故) 이래(以來) 태양전지(太陽電池)로 레이더를 움직이게 되어 있다 한다.

발사(發射)에는 SS-9 개조(改造)의 Booster가 사용(使用)되고 있다는 것이다.

총합적(總合的)으로 소련(蘇聯)의 위성계획(衛星計劃)은 예정(豫定)보다 3~5년(年) 늦어졌다는 것인데, 개발개발노력(開發改良努力)의 후퇴(後退)는 전혀 볼 수 없다.

더우기 서방측(西方側)의 기우(杞憂)를 부채질하는 것은 소련(蘇聯)이 무엇인가 예상외(豫想外)의 신형(新型)의 우주무기(宇宙武器)를 등장(登場)시키지 않나 하는 불안(不安)인 것이다.

한 가지 예(例)를 들면 77년(年) 7월(月) 17일(日)에 발사(發射)되어 동년(同年) 12월(月)에 회수(回收)된 모스크바929인데 서방측(西方側)에서는 그의 목적(目的) 임무(任務)를 이해(理解)할 수 없어서 유인위성(有人衛星)의 견인선(牽引船)이 아닌가 라고도 말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불가사의(不可思議)의 위성(衛星)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78년(年)에 1기(基)만을 발사(發射)한 단기간(短期間) 수명(壽命)의 군사위성(軍事衛星)도 임무(任務)가 불명확(不明確)하며 ASAT (감검(監檢)/파괴위성(破壞衛星)) 계획(計劃)에 관련(關聯)된 것으로 추정(推定)되어 지고 있다.

이상(以上)과 같은 종류(種類)의 위성(衛星)은 78년(年)에는 없었으나 77년(年)에는 표적위성(標的衛星) 3개(個)와 감검위성(監檢衛星) 4개(個)가 발사(發射)되었고 79년(年)에는 낡은 위성(衛星) (코스모스 907)을 표적(標的)으로 한 감검위성(監檢衛星)이 1개(個)(코스모스 1009)가 발사(發射)되었을 뿐인데 앞으로 새로운 계획(計劃)이 개시(開始)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充分)히 예상(豫想)할 수 있다.

소련(蘇聯)이 미국(美國)의 Space Shuttle과 흡사(恰似)한 재사용형(再使用型)의 우주선(宇宙船)을 개발(開發)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事實)이다.

이미 1976년(年)부터 그의 징후(徵候)가 보였고 (모스크바 881/882), 78년(年)에도 코스모스 997/998로 재돌입(再突入) 테스트를 실시(實施)한 바 있다.

소련(蘇聯)의 Space Shuttle은 3각익(角翼)을 가진 미국형(美國型)보다 소형(小型)의 기체(機體)로서 Tu-95를 사용(使用)한 공중투하실험(空中投下實驗)도 이미 78년경(年頃)까지에는 실기(實機)의 발사(發射)가 행하여 질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데 최초(最初)에는 사용후(使用後) 버리는 Booster를 사용(使用)하는데 90년대(年代)까지에는 Booster도 회수형(回收型)이 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우주(宇宙)가 실용화(實用化)되면 레이저나 입자(粒子)빔을 사용(使用) 우주무기(宇宙武器) 실환(實換)에도 한 걸음 가까워질 것이다.

소련(蘇聯)은 최근(最近) 레이저 무기(武器)보다 입자(粒子)빔 무기개발(武器開發)에 주력(注力)하고 있다는 바 이미 수개(數個)의 표적(標的)에 대한 입자(粒子)빔의 지상실험(地上實驗)에 성공(成功)하였다고 전(傳)해지고 있다.

이 실험(實驗)은 레닝그라드의 베타-드론을 이용(利用)해서 수대(數臺)의 입자가속기(粒子加速器)를 연결(連結)해서 행하였던 것으로 입자(粒子)는 양자(陽子)를 이용(利用)해서 100~1,000 GEV(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程度)의 침두력(尖頭力)(사정(射程) 100~750km로 단

우주공간(宇宙空間)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美) 공군(空軍)의 G. 키간대장(大將)이 발표(發表)해서 화제(話題)가 된 소련(蘇聯)의 실험용(實驗用) 핵폭탄(核爆彈)을 지하(地下)에서 폭발(爆發)시켜서 하전입자(荷電粒子)의 대출력(大出力) 빔을 공중(空中)으로 보내는 ICBM 요격(邀擊)시스템 실험장치(實驗裝置)도 소련입자(蘇聯粒子)빔 무기(武器)의 진보(進歩)를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기타(其他)에서도 소련(蘇聯)의 기술수준(技術水準)을 뒷받침하여 주는 근거(根據)가 많으며 소련(蘇聯)이 입자(粒子)빔 무기개발(武器開發)에 크나큰 노력(努力)을 경주(傾注)하여 현(現) 시점(時點)에서는 미국(美國)을 상회(上廻)하고 있는 것은 확실(確實)한 것 같다.

이것에 대항(對抗)해서 미국(美國)은 입자(粒子)빔에 관(關)한 기술적(技術的) 논문(論文) 자료(資料)의 발표(發表)를 비밀취급(秘密取扱)으로 규정(規定), 전력추격(全力追擊)에 들어 갔으나 따라가게 되는 것은 80년대(年代) 후반(後半)이 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실용화(實用化)에까지 도달한다 해도 80년대(年代)는 겨우 근거리(近距離) 방위용(防衛用)으로, 그것도 육상고정기지(陸上固定基地) 또는 함재형(艦載型)일 것이다.

항공기용(航空機用)은 90년대(年代)에 들어 가야 될 것이고 우주용(宇宙用)은 또 그 후(後)의 일일 것이며 대기중(大氣中)의 감쇠(減衰)를 생각하면 공격용(攻擊用)으로서는 오히려 우주공간(宇宙空間)의 것이 빨리 실용화(實用化) 될 것이고 대기권(大氣圈) 내(內)에서는 방어용(防禦用)이 먼저가 될 것이다.

注 1. MX의 M는 Mobile(기동식(機動式)), 혹은 Multiple(다수(多數))발사대(發射臺)의 뜻에서 온 것임.

注 2. E-4B는 항상(恒常) 1대(臺)를 가동체제(稼動體制)에 두기 위해서는 7대(臺)의 장비(裝備)가 필요(必要)하다는 것이 공군(空軍)의 의견(意見)이나 카터 정권(政權)은 이를 허가(許可)하지 않고 있다.

명장명언(名將名言)

나는 군인(軍人)이다. 군인(軍人)의 운명(運命)은 마지막 전쟁(戰爭)의 마지막 전투(戰鬪)에서 마지막 총탄을 맞고 죽는데 있다.

- 팻튼 -

의지(意志)가 없는 정신(精神)은 가치가 없고, 정신(精神)이 없는 의지(意志)는 위험하다.

- 잭트 -

소련(蘇聯)의 군항공기(軍航空機) 수출실태(輸出實態)

최양수 역(譯)

소련은 오직 한 기종의 MIG-21 Fishbed를 현재 NATO 동맹국들이 북 및 중구라파 지역에 작전배치하고 있는 모든 전술기보다 더 많이 수출하여 왔다.

최근에 수출한 MIG-21의 대수는 모든 Type을 포함하여 약 2,400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17년 이내에 30개국 이상의 나라에 2,600~2,900대의 MIG-21을 수출하여 왔다(미군용 항공기 중 가장 많이 수출된 항공기는 Northrop사의 F-5기로서, 그 중 2,200대는 27개국으로 수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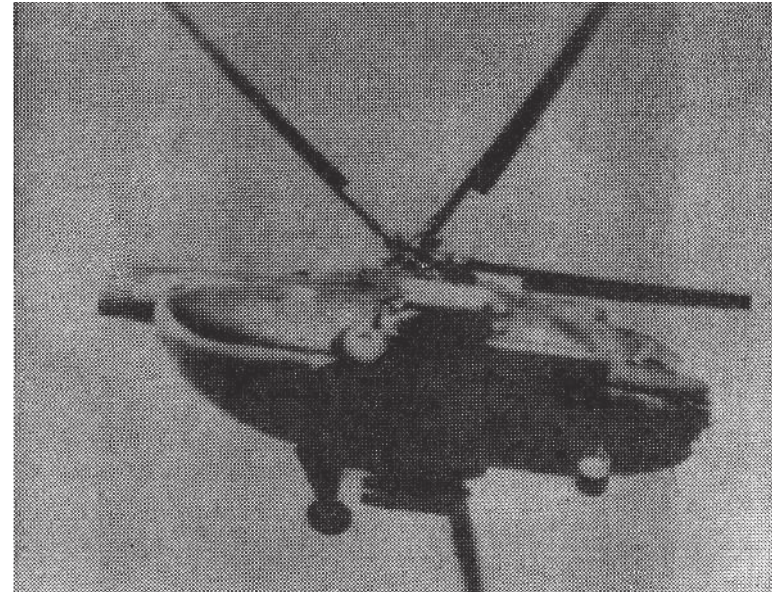
소련이 1955년에 바르샤바조약국 이외의 나라에 군용 항공기를 수출하기 시작한 이후 한 가지 이상의 Model이 적어도 세계의 41개국으로 수출되었다.

아프카니스탄 및 쿠바와 같은 국가들의 공군은 마치 바르샤바조약국의 위성 국가와 같이 소제 항공기로서 전체를 무장하고 있다. 이라크, 리비아 및 시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비록 몇 가지의 기종이 외국에서 조달되고는 있지만, 소련의 항공기가 지배적이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공군에 소련 장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나, 서방측의 항공기를 제외할 수만은 없다.

이와 같은 범례 중의 한 나라가 인도이다. 인도 공군의 전투기부대에는 소련-인도 라이센스 제작의 MIG-21(450대 이상)이 대부분 지배적이지만 150대의 Hawker Siddeley Gnat와 125대의 H. S. Hunter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아직도 한 가지 이상의 Type의 소련항공기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래의 시장성이 가능한 나라들이다. 페루가 그 대표적인 예의 국가이다. 소련은 1970년에 Mi-8 Hip 헬리콥터 3대를 Peru 국가에 제공하였으며 1973년에 3대를 더 제공하였다. 그 후 Peru 국가는 70년 중엽에 Su-22 Fitter 전투기 30대 이상을 구입하였다.

Peru국가는 이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불란서에서 Mirage 5 전투기와 미국에서 Bell 212 헬리콥터 및 Cessna A-37 경량 공격기 수대를 각각 구입하였으며, 영국공군(RAF)에서 Canberra 폭격기 수대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Nomad 경수송기 수대를 다시 구입하였다.



바르샤바 조약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된 소련 군용항공기의 총 대수는 6,000 대에서 거의 10,000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련의 군용항공기 수출이 지리적으로 확대되고 그 대수가 갑자기 많은 대수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국가들에 대해서 항공무기를 판매 및 양도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제2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중동에 있었던 최근의 예는 이 점을 예증하여 주는 것이다.

○ 북예멘의 경우

1979년 2월 하순에 미국정부는 북예멘에 대한 군장비의 공수를 발표하였다. 북예멘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라비아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남예멘과 인접 하고 있으며, 홍해에 따라 해안선을 갖고 있다.

긴급한 공수의 목적은 소련이 지원하는 남예멘의 육군에 의하여 패배한 북예멘의 군사력을 지지하고 그외에도, Sandis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위탁 중 일부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하여 인도하도록 된 Northrop사의 F-5E 전투기 12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우디에서는 이미 F-5B를 사용하여 북예멘의 조종사를 훈련하고 있었다. 그 외 예도 32대의 M-60전차, 72문의 Vulcan 방공포 및 수대의 군차량과 같은 미국의 장비가 해상수송편으로 북예멘에 수송되었다.

장비를 포함하여 미군 및 고문단의 소규모팀이 파견되었다. 대부분이 이동훈련반이었다.

이들 훈련요원들은 북예멘으로 가서 훈련을 시키고 떠났다. 팀요원은 60명을 결코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도 북예멘의 수도로 군요원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팀 요원을 급파하였으며, 전체요원이 36명 이하였다. 1980년 2월 경에는 군장비에 관련된 미군의 주재요원수는 16명으로 감소되었으며, 10명은 군인이었고 6명은 문관이었다.

남·북예멘간의 사항은 여름기간 중에 전쟁으로 돌발하지는 않았으나 최고로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다.

F-5E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9.26일 모두가 작전화되어 북예멘의 수도로 비행하였다. 15대의 MIG-21과 50대의 T-62전차 및 수개의 미사일, Howitzer포, 보병무기가 Hodeida의 홍해항구를 통하여 북예멘으로 인도되었다고 Foreign Report지와 같은 잡지들이 대략 그 시기쯤해서 보고하였다. Foreign Report지에 의하면, 무기 이외에도, 장교, 기술자, 정보 요원 등 600명 이상의 대표단이 도착하였다고 한다.

1980년이 시작됨으로써 남·북예멘은 이제는 전쟁에 직면하고 있는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의 F-5E는 비행하고 있었지만 소련의 MIG-21기들은 다 낡은 항공기의 상태로 있었다고 믿을만한 소식통이 전하였다.

그러나 많은 소련군 및 정보파견단이 북예멘에 배치되었으며, 장기간 체류하기 위하여 이동을 하였다.

이들 파견단들은 인접해 있는 남예멘에 이미 파견된 2,000명의 대파견단과 합세하였으며, 남예멘은 1979년에 MIG- 17, MIG-21 및 Su-22/20의 장비목록에 추가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MIG-21 및 MIG-23을 인수하였다.

○ 미·소의 다른 방법

북예멘의 훈련은 미·소간의 군항공기 수출방법의 차이를 강조하며, 이는 두 나라의 국가안보 및 대외정책상의 중요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소련의 군 항공기 수출에 관하여 기억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즉, 항공기는 소련의 팽창주의의 제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련이 활동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극히 중요한 부문이다.

소련항공기의 수출은 거점 확보, 즉,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로 침투해가는 방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항공기는 많은 인원을 수반한다. 이들 기술요원, 훈련요원, 고문단 및 조작용원들은 거래 조건 및 기타 조건을 수반한다.

이들 요원들은 KGB 및 GRU 정보기구 요원 및 또는 수령국의 군요원에 접근하도록 배당된 개인의 대역의 역할을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영공의 비행권, 소련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사용권, 기타의 사용권 등과

같은 양보를 얻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만약에 그 작전이 성공할 경우, 필요한 제반행동조치를 통하여 소련권으로 국가가 치우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그 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를 시험하도록 유도한다. 소련의 또 다른 목적은 소련의 정규군이 필요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소련의 최신의 군장비를 사전배치 (Preposition) 시키는 것이다.

Latin America	Europe	Mideast & Africa		Asia & Austraiasia
Cuba	Albania*	Algeria	Somalia	Afghanistan
Peru	Finland	Angola	Sudan	Bangladesh
	Yougoslavia	Egypt	Syria	China*
		Ethiopia	Tanzania*	India
		Iraq	Uganda	N. Korea
		Mozambique	N. Yemen	Laos
		Nigeria	S. Yemen	Vietnam

*China-built

이와 같은 사실은 리비아에 신기종의 항공기를 소개함으로써 그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이며, 리비아는 이들 항공기를 유용한 수준까지 운용 및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항공기와 필요한 기술 이외에도 리비아에는 완제품, Spare Part 및 주요 구성품을 저장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기후에 적합하도록 된 창고와 같은 후방지원시설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소련 요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소련세력의 물결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수중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요원을 파견하면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의 군용기 수출의 목적은 몇 가지 면에서는 소련의 군용기 수출목적과 유사하지만 수원국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미국의 대외 군사무기 판매는 미 행정부 및 미 의회의 복잡한 제제가 수반되고 공개적으로 세밀한 검토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공개되며, 오히려 신중하게 취급이 된다.

그에 반하여 소련은 비공개된 사회 내에서 작용을 하며, 준비가 되었을 때에는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에 집단요원을 투입한다. 소련에 대한 전문적인 관측자들은 최근의 소련군 항공기의 수출목적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 석유강대국의 조종권 획득
- 지중해로의 접근도 및 인도양과의 직접연결로의 획득
- 아프카니스탄 및 인도를 포함한 동구 블록 국가들이 소련의 국경을 따라 중립국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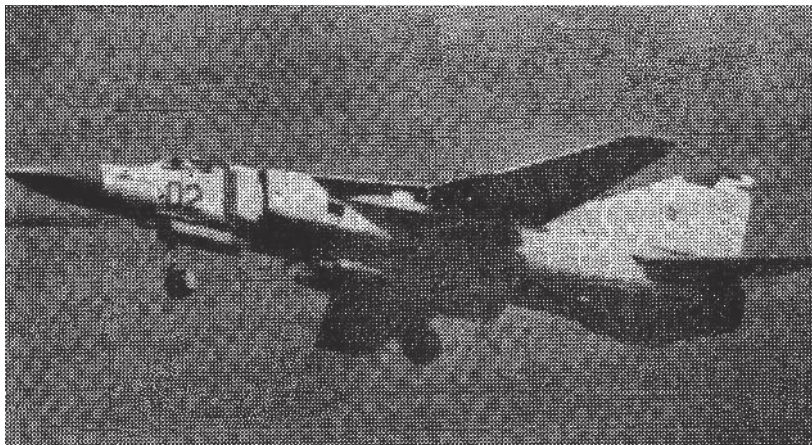
소련은 수원국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후원국이라는 평판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관측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 예로서 1973년에 발생하였던 제4차 중동전 기간 중 이집트와 시리아에게 하였던 대치장비의 집중공수를 인용하고 있다.

또한 관측자들은 Nasik에 있는 Hindustan Aeronautics 공장을 설립하는데 인도에 대한 소련의 원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였으며, 동 공장은 1966년 MIG-21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수원국가들은 소련이 신뢰할 수 있는 후원국가라고 항상 동의하지는 않았다. 20년 후에 이집트는 이집트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 고문단요원 수천명을 추방시켰다.

현재 이집트공군의 MIG-21 약 200대가 영국의 Rolls-Royce사의 엔진과 불란서의 장비를 사용, 소련의 최초의 Component와 대치하여 개조중에 있다.

1979년 중엽에 나이지리아는 소량의 부품지원과 소련의 가혹한 전술에 실증을 느끼게 된 나머지 소련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MIG-17 및 MIG-21 후기를 추방시켰다. 나이지리아는 소련의 군항공기 지원을 당분간 거절한 OPEC회원국가 중의 한 국가이다. 알제리아, 이라크 및 리비아와 같은 석유생산국인 3개 주요 OPEC회원국들은 대부분 지배적으로 소련의 군항공기로 무장을 하고 있으며, 항공기 작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훈련지원을 위해서는 소련에 그 우선권을 제일 높게 두고 있는 것 같다.



그 외에도 소련은 이들 국가들에게 최신 모델의 항공기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이들 3개국은 모두가 MIG-23/27 Flogger 전투기를 인도받았으며, 알제리아와 리비아는 정찰 및 ECM 임무용으로 무장한 MIG-25를 보유하고 있다.

중립국가의 경우를 살펴 볼 때 소련과 인접해 있는 모든 국가들은 노르웨이, 터키 및 이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소련의 오리지널한 항공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중공의 경우 이와같은 사실은 소련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한 만족을 주지 않고 있다).

모든 바르샤바조약국가들은 오직 소련의 작전용 항공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 또한 구라파에서도 핀란드의 일선용 전투기는 주로 MIG-21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아프카니스탄, 북한 및 몽고리아의 공군은 오직 소련의 항공기만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 또한 벵글라데시, 라오스 및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주로 소련의 오리지널한 항공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Spare Part의 기술지원 및 훈련 등을 제공 또는 중지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소련의 수출항공기가 쿠바나 동독과 같은 대표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앙골라 및 이디오피아에서와 같이 소련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국가들은 숙련된 요원의 "Force Multipliers"를 제공하여 소련의 요구를 감소시키고 있다.

○ 소련에서 구입하는 이유

미국이나 기타 서방국가에서 구입한 항공기가 아주 적합할 때에도 소련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국가들이 어째서 소련에서 항공기를 구입하고 있는가?

그 실례로서 페루는 어째서 MIG-21 및 Su-22 전투기를 택하여야만 하였는가? 이 답은 2가지 면에 있다고 본다. 즉 대외정책과 경제문제에 있다. 페루는 미국의 최신전투기를 구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제한된 정책에 따라 실패하였다.

소련은 대외정책의 일환으로서 기꺼이 항공기를 공급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루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외하였다. 소련은 경매가격 (Hargain-Hase-ment Prices), 장기간의 헤택 및 50년까지의 상환을 포함한 무이자 용자(No-Interest Financing) 및 어물(Fish Meal)과 같은 일용품의 일부 가격만 받는 것을 기꺼이 고려하겠다는 등 호조건을 제외하였다.

미국 및 외국의 전문가들은 소련이 수출을 성공하는데 주요한 이유로서, 예상되는 고객국가들에게 실제적으로 싼 조건으로서 특혜(Willingness)를 주고 있다고 인용하고 있다.

소련은 이해 관계가 있을 때에는 1979년에 남예멘에 MIG-21 및 MIG-23을 인도해준 것과 같이 항공기를 인도하여 준다. 고객국가들은 Dr. Faust가 유혹자(Mephistopheles)에게 어떤 가치를 지불하였던 것과 같이 실제로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한다. 즉, 고객국가가 최신항공기를 싸게 또는 무료로 구입 할 수도 있겠지만 소련세력의 침투나 실제적으로 지배를 받게 될

The "Top Ten"

Soviet military aircraft types exported to the greatest number of countries

Designation	Type	Number of Countries
MIG-21 Fishbed	Fighter	30-Plus
MIG-17 Fresco	Fighter	27
MIG-15	Helicopter	24
Mi-4	Helicopter	24
Il-14	Transport	22
Mi-8	Helicopter	19
Il-28	Bomber	18
MIG-19	Fighter	17
Su-7	Fighter / Ground Atk	16
An-2	Transport	13

Source : Jane's All the World's Aircraft (various editions); FLIGHT International World Military Aircraft Census, 29 September 1979; The Military Balance, 1979~80;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Arms Trade Registers, 1975; INTERAVIA 1/1980, World Air Forces Survey;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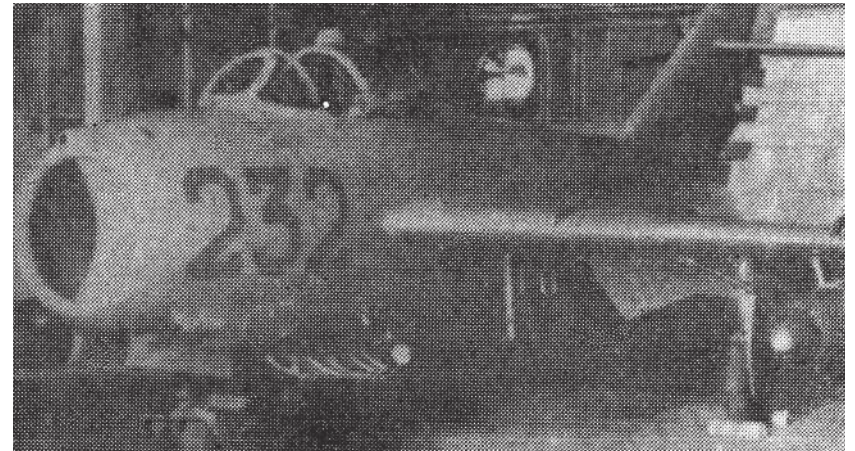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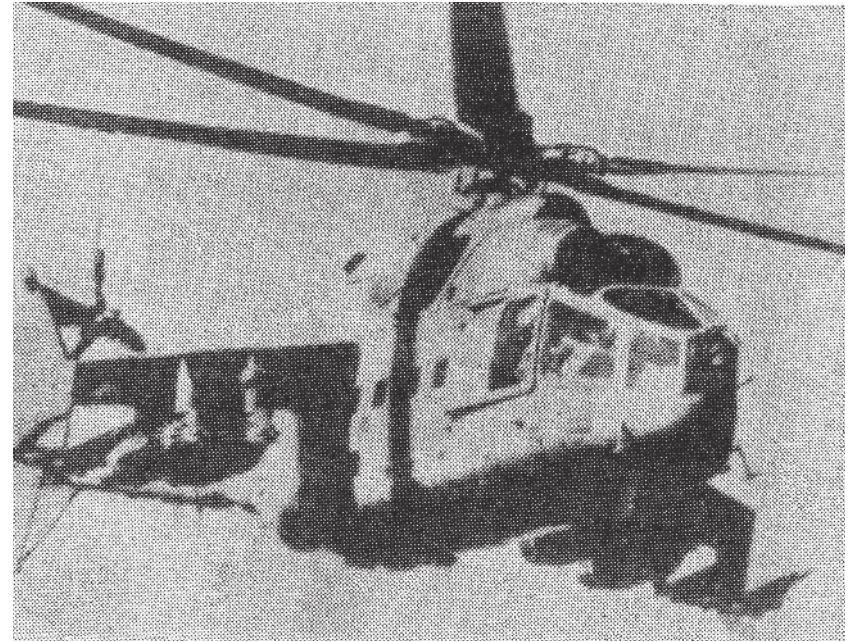
위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자들은 인용하고 있다.

소련이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또는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세계적인 Power게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국가들 간에는 일부 심각한 프리플롭 (Flip-Flops) 현상이 발생한다. 그 실례로서 아프리카의 Horn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디오피아는 수년동안 미국의 고객국가였다. 인접해 있는 소말리아는 소련의 영향권하에 있었으며, 소련이 건축한 기지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사상이 변화였다.

소련은 이디오피아에 장비(MIG-17/21/23)를 투입 시키고 있으며, 반면 소련인을 추방시킨 소말리아는 미공군 및 해군항공기 또는 함정을 구입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집트와 중공은 소련이 상실한 대외 정책을 보다 대대적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국가들로 서방 및 미국에 대해서는 이득임이 확실하다.



○ 소련에 의하여 부과된 제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국내의 비평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의 수출을 제한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제한은 카터 대통령이 1977년 5월에 항공기 수출의 제한을 발표하기 전에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카터 대통령은 무기 전환정책의 일부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바꾸어 왔다.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항공기 제작회사를 위하여 특별히 수출용전투기 (FX)를 기꺼이 개발하려 하고 있다. 수출용전투기는 F-5E나 F-16 중의 어느 것이 될 것이다. 법률 및 대외정책상의 다른 제한은 계속 유효되고 있다.

비록 소련의 지도자들은 항공기 수출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제한을 가하려는 국회의 완강한 반대를 받고 있지 않으나 지도자들은 실제로 그들 스스로가 자제를 하고 있다.

그 예로서 소련의 지도자들은 최신항공기는 수출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최신 모델의 항공기가 수출될 때에는 동 항공기는 수령국에서 얼마 동안은 소련 조종사가 단독으로 운영할 것이다.

소련은 엔진의 추력이나 또는 연료 적재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수출용항공기에 장치된 항법 및 유도체제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형장비를 대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련은 An-22 중수송기나 또는 Tu-95 전략폭격기/장거리 정찰항공기와 같은 장거리용 항공기는 수출하지 않는다.

소련은 Tu-22 초음속 투원제트폭격기와 같은 정교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리비아에게만 수출하였고 이들 두 국가들은 수출우선권이 아주 높은 수출국가들이다.

다시 말해서 보다 구형이며 능력이 보다 우수하지 못한 IL-28 Beagle 폭격기는 14개 국가에 수출하였다. 헬리콥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보다 구형인 Mi-4 및 Mi-8 헬리콥터는 24개국에 수출하였으며 19개 국가에 각각 수출하였다.

그러나 Mi-24 Hind 공격용 헬리콥터는 1979년에 리비아와 아프카니스탄에게만 관대하게 인도하였다. 바르샤바조약국의 Inventory(동독 제외)에 있기전에 이들 두 국가가 Hind Gunship을 인도 받았다는 것은 소련이 이들 두 국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우선권의 척도이다.

○ 전망

소련의 군항공기 수출에 대한 미래의 추세는 현재의 수출추세보다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목표국가에 대하여 영향력을 얻고 그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항공기 수출을 이용한 정

책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 항공기의 수출은 소련의 팽창주의의 목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서방국가의 영향력을 좌절 또는 배제시킴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동시에 항공기의 수출은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고 소련 및 조약국가들에 대한 단위당 가격을 감소시킬 것이다. 양여의 조건(Concessionary Terms)과 헐값정책은 계속 지속할 것이다.

특수 모델의 항공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MIG-21은 수출면에서 세계 각국에서 계속 압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MIG-17 및 MIG-19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그들 국가의 공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MIG-21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헬리콥터에 있어서도 Mi-24 Hind Gunship은 동맹국에 소개될 것이나 동맹국 이외의 국가로도 수출될 것이며, 신중을 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국가에서 사용 중에 있는 Mi-8 Hip 헬리콥터도, Ka-25 Hormone 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고객국가들에게 판매되거나 대여될 것이다.

끝으로 소련 수출국의 손실 및 반대현상은 소련의 고객국가들이 소련의 제반 방법에 실증을 느끼거나 편리하게 산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를 거절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명장명언(名將名言)

현대전(現代戰)에 있어서는 보급(補給)이 전투(戰鬪)의 승패(勝敗)를 결정한다.

- 롬멜 -

다목적 전투기(戰鬪機)의 찬반양론(贊反兩論)

하 원 훈 (河元勳) 역(譯)

신형 항공기를 채택하여 운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정 책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글은 미국 AIR FORCE지에 연재된 글 로 다목적 항공기와 단일 임무 항공기에 대한 양 대변자의 논쟁으로 신 기종 도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되어 발췌, 번역한 것이다.

〈역자(譯者) 주(註)〉

미 공군은 증대되는 소련의 신형 전투기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술 항공기를 현대 화시키고 있는 중인데 채택된 3개 기종의 임무와 융통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논쟁을 벌 인 양측 모두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상 제약이라는 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들의 결 론은 정반대이다. 논쟁의 쟁점은 F-15 제공 전투기의 장비와 임무 그리고 A-10과 F-16의 능력 에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무기체계 중 현재 가장 적지 침투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F-111은 그 작전 범위의 확대가 연구되고 있지만 이 임무와 성능논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먼저 제기된 문제를 살펴 보면,

첫째, 미 공군에서 항공기 현대화와 정교한 기술개발을 시도함에 있어서 제한된 재원을 가 지고서는 한 임무 이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미 공군은 구매계획 착수시에 F-15 전투기는 전장에서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적 전투기를 압도 할 수 있는 고성능을 내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F-15가 공중우세 임무시에는 이보다 성능 은 약간 떨어지지만 비용이 적게 드는 F-16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전투지역에서 공중우세가 확보되면 F-16 다목적 항공기는 지상군을 지원하고 적병력 집결지, 포대, 그밖의 지상 목표물 을 공격하는 임무를 띤 A-10기를 엄호지원하는 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둘째, 재래식 무기가 공중전에 도전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면에 따라 재래식 전쟁의 본 질은 어떤 한가지 임무에 요구되는 항공기 댓수의 계획이 불가능 하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 개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다목적 항공기를 구입함으로써 이러한 국면에서 전술적 상황에 무관 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한 계획 수립자는 「나는 단지 한 가지 임무를 우수 하게 수행 하는 것보다 3가지 임무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한다. 항공기나 그 밖 의 무기체계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알력이 생기며 이러한 의견 분할이 군대 계획에 문제 를 제기한다. 이러한 의견 분열은 간단한 문제일 수는 없다. 모든 항공기는 한 가지 특정한 임무 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 밖의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는다. 전술공군의 임무와 장비에 관한 이례적인 논쟁은 항공기 구입에 대한 재정상의 제한과 미국 및 유럽의 동맹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군의 공군력의 가공할 성장 때문에 발생 했다. 동서 양측 의 유럽에 있어서의 전력을 비교하면 항공기 댓수가 2:1이며 재래식 무기 즉, 지상군 공격전술 의 핵심인 전투차량과 대포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범주에서 숫적으로 서방측이 열세이므로 제 한된 예산으로 어떻게 이를 극복하느냐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현재의 미국 방위계획에 있어 서 공군은 NATO 전술 공군력의 절반을 차지하며 숫적으로 매우 우세한 적 공군력을 격퇴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더불어 소련과 그 동맹국들에 대해 유럽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NATO 지상군을 증강하는 것이 과제이다.

따라서 공군의 역할은 이전 어느 때 보다도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에 배당된 예산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된 것은 아니다. 결국 미국의 계획 수립자들은 일정한 공 군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더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게끔 사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미 공 군의 무기 구매계획은 1983회계년도에 종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논쟁의 쟁점은 이 무기구 입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 임무에 대하여 추가 장비 구입으로 임무를 확장할 수 있느냐, 대신에 추가로 항공기를 더 구입해야 하느냐 혹은 두 가지를 혼합하여 시행 하느냐에 맞추 어져 있다. F-15 Eagle은 1977년에 작전배치되었고 노후된 F-4 Phantom에 대체되고 있다. 현재 미 공군은 729대의 F-15 구입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항공기는 공중우세 임무를 수행하게 끄 제작되어 있으며 요격임무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이 항공기에 지상 목표물을 공격 할 수 있 도록 Bomb Rack와 이에 연관된 장비, 그리고 탄약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A-10은 적 Tank를 격파하고 그밖의 근접지원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역시 이러 한 임무에 다목적 항공기 F-4 에 대체되고 있다. 733대의 A-10 주문분 중 일부는 수년 내에 구 입된다. 현재 A-10은 미국과 유럽기지에서 전투가능 상태에 있다. 이 항공기로는 저고도 헬리 콥터를 격추하기 위한 공대공 임무에 투입하려는 연구가 계획되고 있다. F-16의 첫 생산 모델은 79년 1월에 미 공군에 공급되었다. 이 항공기는 공중우세 임무와 지상 지원임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미 공군은 650대의 F-16 구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적어도 1,388대의 구입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1980회계년도 동안 4개 F-4 대대가 2개 F-15 대대와 2개의 A-10 그리고 3개의 F-16 대대로 대체되거나 증설된다. F-15의 경우에 최대의 공대지 효과를 얻는데 필요한 Bomb Rack와 기타 장비의 가격이 F-15가 성취할 수 있는 이익에 비교하면 적게 든다고 다목적 항공기 대변자들은 주장한다. 어떤 다목적 항공기 대변자는 「공중우세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적 항공기가 지상에 있을 때 격파하는 것이다. 만약 적기가 그들의 비행장에서 이륙해 있을 경우 F-15 조종사는 Bomb를 Jettison하고 그들과 공중전을 벌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반대되는 방법은 대지공격을 주임무로 하는 추가의 항공기 구입이다. 이와 유사하게 다목적 항공기 대변자들은 F-16에 추가로 FLIR Sensor와 그 밖의 장비를 장착하여 전천후의 능력을 증가시켰으나 가격은 약간 밖에 비싸지지 않은 개량형 F-16도 생각하고 있다. A-10의 경우에는 지상군을 지원하는 한 가지 임무에 적합하도록 설계 되었지만 몇몇 공군의 계획 수립자들의 말을 빌면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증가되는 바르사바 조약군의 Hel기에 대한 A-10의 잠재적인 능력은 일찌기 알려져 있으며, 발달된 무장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A-10의 능력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전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보다 특정한 임무에 필요한 항공기 수가 더 많을 경우이다. 유럽에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근접 지원과 후방차단 임무에 항공기가 부족하면 F-15는 전장 상공에서 자기 임무를 성취하지만 이러한 임무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단일 임무 항공기 대변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다. 그들은 단일 임무 항공기가 다목적 항공기보다 더 훌륭히 임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F-15는 공중우세라는 단일 임무를 수행하도록 최고의 설계와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조종사는 한 임무에만 훈련에 열중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임무에 대해 훈련하는 것보다 더 능숙해 진다. 또 A-10의 경우에는 육군이 근접 지원에 배당된 항공기의 수와 능력을 넘어 고전하게 될 때를 위해 이 항공기가 개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적은(소수(少數)) 항공기로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A-10은 높은 생존성, 큰 화력 그리고 고성능 전투기에서 볼 수 없는 높은 저고도 저속기동성을 가지고 있다. 단일 임무 항공기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항공기와 탄약이 더 정교하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임무를 제한함으로써 항공기의 무게는 줄지 않지만 초기에 설계한 형태에서 추가할 수 있는 장비는 항공기가 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항공기에 추가 장비를 억지로 장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단일 임무 항공기는 가격이 저렴하며 지상군 지원 임무의 경우 고성능 항공기가 투입된 때와 같은 큰 손실을 모험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F-15 같은 고가의 항공기는 Tank를 격파하는 모험을 하는 항공기로서는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다.

이상에서 미 공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다목적 항공기의 찬반 양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현대화 계획의 결정적인 시험은 미·소 항공기의 성능대비에서 치루어진다. 미국 항

공기는 한국전쟁, 중동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 소련의 최고 항공기를 능가해 왔다. 그러나 항공계획 수립자들은 미국 항공기가 앞으로도 한 가지 이상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동시에 소련의 최선예기를 능가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 단일 임무 전략의 대변자들은 1970년대의 소련 항공기 발달의 새로운 경향을 주시하고 있다.

소련은 현재까지 Radar와 유도무기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도달하여 미국의 공습 항공기에 대한 매우 증대된 방공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그들은 미국의 다목적 전술 항공기가 가지는 융통성을 더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차라리 그들은 하나의 주어진 임무를 달성 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탄약을 항공기 공간의 한 치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소련의 발달된 항공기와 우수한 대공 방어망은 미국 조종사들이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한 가지 주임무를 위한 훈련에 투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에서 소련의 재래적 위협을 견제하며 그러한 전쟁에서 예상되는 높은 손실률을 대적하자면 방대한 항공기가 요구되며 항공기의 임무를 제한한다면 일면 많은 항공기를 구입해야 한다.

다목적 항공기 대변자들은 1950년대의 간단한 MIG-15부터 현재 유럽 주둔 소련군의 복잡한 MIG-23까지 항공기의 변천을 주시하고 있다. MIG-23의 기본형은 공중우세 임무를 맡도록 제작되었으나 개조형인 MIG-27은 저고도 침투용으로 만들어졌다. Su-7, Su-17, Su-19 등의 항공기는 특별히 대지공격을 위해 제작되었다. 소형 전투기에서 복잡한 항공기로의 변화는 기술발전의 결과이며, 미국 항공무기 전문가들은 소련 전략의 방어무기에서 공격무기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한다.

일부 공군 관계자들은 미래에 전방방어에서 단순한 방어로 군사계획의 전환을 피하기 원한다면 미국은 단일 임무 항공기보다 다목적과 복합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한 장거리 다목적 항공기가 사령관이 영토를 회복하고 진격을 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군의 교리에는 융통성이 있으며 융통성은 전술 공군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불려진다. 융통성은 전술공군의 임무 중 어떤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항공기의 설계는 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않는다.

경제적인 여건, 물자지원 요구, 국내 정책 공히 모두 항공기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융통성의 대변자들은 그래도 이러한 제약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교리가 전보다 더 자세히 관찰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종사 훈련시에 다목적 항공기는 특별히 훈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 조종사들은 다목적 항공기에 요구되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쉽게 배우기 어렵고 또 임무수행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다목적 항공기 대변자들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보조 조종사를 채택하고 있다.

1970년 이래 소련은 미국의 약 4배에 달하는 5,000대 이상의 전술 전투기를 생산해 왔으며, 1976년 이래 미 공군이 구입한 항공기의 총 수는 매년 400대의 율로 증가해 왔다. 항공기의 수적 불균형의 증가와 개량되는 소련의 방공망에 대해 결국 수에 대해서는 융통성으로 대처하라는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래식 전쟁의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은 계획 수립자들을 계속하여 궁지에 몰아넣는 제2의 나팔소리다. 재래식 전쟁에서 사령관은 자기의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는 알 수 없다.

모든 항공자원이 공중전에 투입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침투해 오는 적 Tank를 격파하는데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군 최고 지휘관과 정책 수립자들은 이러한 제 문제를 심사숙고 하여 정확한 정보판단과 적절한 항공기 도입으로 이러한 어려운 난제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확산(核擴散)과 미국(美國)의 대응전략(對應戰略)

박종언(朴鍾彦) 역(譯)

전략적(戰略的)인 견지(見地)에서 볼 때, 1980년대(年代) 이후(以後)에 있어 미국(美國)이 추구(追求)해야 할 전략전력(戰略戰力)에 관한 논의(論議)에서도 자주 언급(言及)되었듯이 앞으로의 세계(世界)에서는 핵무기(核武器)가 점차 확산(擴散)될 전망이 짙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정책적(政策的)인 핵확산억제(核擴散抑制)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수십년 내에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하게 될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신생핵보유국(新生核保有國)이 5~10개 더 출현(出現)함으로써 미국의 핵공격전략군사력(核攻擊戰略軍事力) 및 경우에 따라서는 핵방어군사력(核防禦軍事力)에까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며, 또한 이처럼 변화(變化)된 안보상황하(安保狀況下)에서 이에 대처(對處)할 소련의 반응(反應)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핵확산(核擴散) 전개(展望)

먼저, 15개국 이상이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하게 될 1990년대(年代)의 악화되는 국제정세에 대하여 언급(言及)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인 것 같다.

핵시대(核時代)가 처음 열린 1940년대 이래 지금까지 35년간(年間)은 단지 6개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인도—만이 핵무기를 보유(保有)하고 있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그간 수십년 동안 세계는 기술도입(技術導入)의 제한된 기회(機會)와 제한(制限)된 핵무기(核武器) 보유동기(保有動機) (핵무기(核武器) 보유(保有)에의 제한(制限)된 유인(誘因)) 때문에 많은 나라가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1990년대(年代)에 접어들면 세계(世界)는 15개국(個國) 이상이 핵(核)을 갖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확산(擴散)되기를 원치 않던 미(美)-소(蘇) 핵강대국(核強大國)들의 억제책(抑制策)으로 이루어진 특수(特殊)한 핵균형(核均衡)은 다음에 언급(言及)될 몇 가지 요인(要因)들에 의해 서서히 깨지게 될 것이다.

첫째, 금후(今後) 10년간(年間) 세계는 민간(民間) 핵발전계획(核發電計劃)의 지속적인 확대(擴大)뿐만 아니라 산업(産業)과 기술(技術)의 발전(發展)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국가들이 적어도 초보적(初步的)인 핵무기(核武器)를 제조(製造)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보유(保有)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핵발전(核發電) 설비를 갖춘 국가들이 소모된 연료(燃料)에서 Plutonium을 분리(分離)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假定)할 때, 많은 국가들이 80년대(年代) 중반까지 민간 핵발전(核發電)에 사용(使用)된 연료폐기물내(燃料廢棄物內)에서 적어도 3~6기(機)의 핵폭탄(核爆彈)을 제조(製造)하는데 충분(充分)한 Plutonium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이들 국가들이 연료(燃料)에서 추출(抽出)하지 않고 일정(一定)한 제조공정(製造工程)을 통하여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Plutonium 생산(生産) 원자로(原子爐)와 그 부대시설(附帶施設)까지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Pennsylvania의 Apollo 핵연료(核燃料) 제조공장(製造工場)으로부터 수백(百)kg의 고농축(高濃縮) Plutonium을 유용(流用)한 것과 같은 행위(行爲)는 장차 더 광범위(廣範圍)하게 전개(展開)될 국제암시장(國際暗市場)에서의 핵거래(核去來)에 대한 서곡(序曲)에 불과한 것이다. 암시장(暗市場)에서 기술상의 전문지식(專門知識)과 핵무기개발정보(核武器開發情報)까지 함께 파는 핵무기상인(核武器商人)들이 이 시기에 있어 특별(特別)히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후(今後) 세계(世界)는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코자 하면 핵연료추출능력(核燃料抽出能力)이 없는 국가들조차 핵무기(核武器)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금후(今後) 핵강국(核強國)이 확산(擴散)되는 핵(核)에 대한 기술적(技術的) 제한(制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쓸데 없는 일이며 막대(莫大)한 재산낭비(財産浪費)만 초래할 뿐이다.

둘째로, 미래(未來)에는 여러 가지 동기(動機)의 증가(增加)로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하려는 국가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同盟關係)가 다시 약화(弱化)되면, 이는 아시아의 핵보유예상국(核保有豫想國)들에게 있어서는 핵무장(核武装)을 초래케 하는 중요한 안보상(安保上)의 동기(動機)가 될 것이다. 그밖에 미국이 깊이 개입(介入)되어 있지 않은 세계의 다른 지역(地域)에서는 전통적(傳統的)인 적대국중(敵對國中) 하나—예(例)로 라틴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동남(東南)아시아의 인도(印度)나 파키스탄—가 더 큰 지역적(地域的) 영향력(影響力)이나 지위(地位)를 추구(追求)하거나 자국(自國)의 안보(安保)를 위해 상대국(相對國)이 계획(計劃)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關心)과 불확실성(不確實性) 때문에 핵무기(核武器) 보유계획(保有計劃)을 세울지도 모른다. 더욱 중요(重要)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한 국가의 핵확산(核擴散)이 여러 다른 국가의 핵확산(核擴散)을 몰고올 다발승수효과(多發乘數效果)가 예상(豫想)된다는 점이다. 만약 제 때에 억제(抑制)되지 않는다면 한 국가(國家)에 의한 핵보유결정(核保有決定)은 기술적(技術的)으로 핵보유능력(核保有能力)

이 있는 다른 이웃 국가들이 일련(一聯)의 동일(同一)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계기(契機)가 될 것이다.

또한 1980년대(年代)에 들어, 처음으로 핵(核)이 보다 광범위(廣範圍)하게 확산(擴散)되는 현상(現象)이 나타났을 때 미국과 다른 핵강대국(核強大國)들의 부적당(不適當)한 반응(反應)을 보이게 되면 90년대(年代)에는 더 많은 국가들이 핵(核)을 보유(保有)하게 될 것이다.

세째로, 핵무기(核武器) 보유예상국(保有豫想國)들의 정치(政治) 역학(力學)에 있어서는 핵무기(核武器)가 자국(自國)의 지위(地位) 확보에 중요한 요소(要素)가 되는만큼 핵무기(核武器) 보유(保有)에 관(關)한 억제력(抑制力)도 1990년대(年代)에는 크게 쇠퇴(衰退)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적대국(敵對國)의 외교적(外交的) 반응(反應)(외국(外國)의 적대적(敵對的) 반응(反應)에 대한 우려와 제재(制裁)의 불가피성도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코자 하는 절박한 안보상(安保上)의 논리적(論理的) 근거(根據)가 될 것이다. 더우기 일단 핵무기(核武器)를 보유(保有)하게 되면, 자국(自國)의 외교적(外交的), 안보적(安保的) 이유 때문에 여타 국가들이 제재(制裁), 위협(威脅)을 가(加)하기를 꺼려하게 될 것이다. 만약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장(核武装)을 하게 되면 외국(外國)의 선례(先例)를 따르는 데에 대(對)한 국내(國內) 여론의 반대(反對)도 차츰 강화(強化)되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과거보다 어쨌든 미래(未來)의 많은 국가들의 핵보유결정(核保有決定)이 앞으로와 세계에 정확(正確)한 이해타산상(利害打算上)의 균형(均衡)을 이룩할 수 있을지는 전혀 불명확(不明確)하다. 대신 상대국(相對國)의 핵보유(核保有)에 대한 즉각대응책(即刻對應策)을 강구하고 장기적(長期的)인 분규(紛糾)에 가담치 않으려는 제한된 합리성(合理性)이 세계에 마련될 것이다.

신생핵국(新生核國)의 출현(出現)과 미(美) 전략군사력(戰略軍事力)의 재정비(再整備)

이리하여 핵시대(核時代) 이후 그 다음 수십년 간에 있어서는 핵확산(核擴散)을 한정(限定)된 범위(範圍)와 속도(速度)로 제한(制限)시키는 역할(役割)을 했던 기술상(技術上)의 제약(制約), 제한(制限)된 확산동기(擴散動機), 그리고 핵강국(核強國)에 의한 강제적(強制的)인 확산억제책(擴散抑制策) 등으로 이룩된 세계의 핵균형(核均衡)이 금후(今後) 10년(年) 내(內)에 점차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균형(均衡)의 파괴(破壞)가 장래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美國)의 핵공격(核攻撃) 및 방위전략군사방면(防禦戰略軍事方面)에서 사정(査定)하기 위해서는 신생핵보유국(新生核保有國)들을 두 개의 범주(範疇)로 구분(區分)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즉 인도, 이라크, 남아공화국, 리비아, 파키스탄 같은 국가와 다른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 혹은 선진개발도상국(先進開發途上國)들을 신진핵국가(新進核國家)(Lesser Nuclear Powers)의 범주에 넣고, 일본(日本), 독일(獨逸)처럼, 단지 앞으로 십년 안에 세력균형(勢力均衡)이 깨지는 경우에 핵무장(核武装)을 할 것으

로 예상(豫想)되는 경제(經濟) 강대국(強大國)들을 잠재핵강대국(潛在核強大國) (Proto-Super Powers)의 범주(範疇)에 넣을 수 있다. 신진(新進) 핵국가(核國家)들은 거의 예외없이 그들의 핵무기(核武器)를 우선적으로 지역적(地域的)인 적대국(敵對國)이나 특정국가(特定國家)를 겨냥할 것이며, 이 핵무기(核武器)들은 공격목표(攻擊目標)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경우 핵적재 항공기(核積載航空機)나 단거리(短距離) 지대지(地對地) 미사일로 운반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신진핵국가(新進核國家)(Lesser-Nuclear Powers)가 미국이나 소련의 심장부(心臟部)를 위협하고자 한다면 미-소간에 군사력 증강을 초래해 심각(深刻)한 세력불균형(勢力不均衡)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형적(地形的) 특성(特性)과 한정(限定)된 기술능력(技術能力) 때문에 적어도 1990년대(年代)까지는 미국(美國)을 위협코자 하는 어떤 신생핵보유국(新生核保有國)도 핵무기운반(核武器運搬)을 위해서는 소위 「밀반입(密搬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나 육지를 통한 비밀반입(秘密搬入)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여러 가지로 1980년대(年代)에도 고성능수송항공기(高性能輸送航空機)를 운반수단(運搬手段)으로 사용(使用)하여 소련 영토내에 있는 목표물(目標物)에 도달(到達)할 능력(能力)을 갖는 신생핵보유국(新生核保有國)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신진핵국가(新進核國家)에 대처(對處)할 몇 가지 가능(可能)한 대응책(對應策)이 강구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은 현존(現存)하는 적성핵보유국(敵性核保有國)의 핵공격(核攻擊)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핵보복공격(核報復攻擊)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警告)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공격(攻擊)을 단념(斷念)토록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또 미국은 신생핵보유국(新生核保有國)으로부터 공격(攻擊)받은 비핵동맹국(非核同盟國)이나 우방국(友邦國)들을 위해 대리핵보복공격(代理核報復攻擊)을 가(加)할 수 있는 전략군사력(戰略軍事力)도 보유(保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美國)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중요성은 핵(核)으로 무장(武装)된 중동(中東)에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어떠한 핵공격(核攻擊)을 받는 경우, 미국이 응전(應戰)한다는 약속을 포함한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정당화(正當化) 시켜줄 것이다. 또다른 대응책(對應策)으로는 미전략공격군(美戰略攻擊軍)을 이용(利用)하여 적대국의 핵집적소(核集積所)를 파괴하고 운반수단(運搬手段), 지휘통제소(指揮統制所) 및 부대시설(附帶施設)을 파괴함으로써 신생핵보유국(新生核保有國)의 힘을 억제(抑制)하는 방법(方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억제책(抑制策)으로서의 선제공격(先制攻擊)은 신진핵보유국(新進核保有國)에 의해 침략위협(侵略威脅)에 직면(直面)하고 있는 포위(包圍)상태의 비핵우방국(非核友邦國) 혹은 맹방(盟邦)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필연적(必然的)으로 해군(海軍)과 지상군(地上軍)으로 하여금 군사개입(軍事介入)을 하도록 하는 서곡(序曲)이 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잠재적(潛在的)인 우방국(友邦國)으로 다시 상정(想定)된다. 끝으로 테러집단(集團)을 사주(使喚)해서 핵무기(核武器)를 훔치도록 하거나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과격(過激)한 우방국(友邦國)을 돕

는 따위의 대단히 파괴적(破壞的)인 행동(行動)에 종사(從事)하는 과격(過激)한 신진핵세력(新進核勢力)에 대항(對抗)해서 비핵응징(非核膺懲)을 가(加)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方法)이다.

일견(一見), 혹자(惑者)는 신진핵세력(新進核勢力)에 대(對)해 이런 여러 방책(方策)을 수행한다면 현존(現存) 전략군사력(戰略軍事力)이나 미래(未來)에 계획(計劃)된 미전략군사력(美戰略軍事力)에 대한 수정이 사실상 필요치 않게 될 것으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실행(實行)이 가능한 이러한 방법들 중에 어느 것을 쓰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檢討)해 볼 때 미국은 전략공격력(戰略攻擊力)의 일부를 재정비(再整備)하는 것이 이 핵확산세계(核擴散世界)에서 필요(必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하는데 있어 타이탄 II (Titan II)나 미니트맨 II (Minuteman II), 또는 궁극적으로 미니트맨 III (Minuteman III) 같은 구식(舊式) 대륙간탄도(大陸間彈道)미사일(ICBM)에 의존(依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멀리 떨어진 새로운 핵보유국내(核保有國內)의 목표(目標)에 도달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미니트맨 II는 대략 6,000+Statute mile(법정(法定) 마일)의 사정거리(射程距離)를 가지고 있고 타이탄 II는 7,000+mile의 사정거리(射程距離)를 갖는데 반해 이들 국가(國家)들의 대부분의 목표물(目標物)은 미본토(美本土)로부터 8,000mile, 또 어떤 경우에는 9,000 내지 10,000mile 정도 떨어져 있다. 미니트맨 III 또한 타이탄 II나 미니트맨 II에 하나의 대형(大型) 탄두(彈頭)를 부착(附着)했을 경우 불가능한 사정거리(射程距離)를 늘리기 위한 방법(方法)으로 실용적재량(實用積載量)(불필요한 운반장치를 제외한 탄두와 신관 등)만 장착(装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구되는 목표사정거리(目標射程距離)에 이르는 어렵다. 이렇게 사정거리가 짧은 것 이외에는 구식(舊式) ICBM 들은 또다른 요인, 즉 식별력(識別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수행임무(戰略遂行任務)에서 제외(除外)될 것이다. 그 거리에서는 정확성(正確性)이 감소되고 미니트맨 III 뿐만 아니라 타이탄 II와 미니트맨 II의 고성능탄두(高性能彈頭)들은 필요한 파괴행위(破壞行爲)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게 될 것이다.

특(特)히 적대국(敵對國)이 20 Kiloton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낙후된 핵(核)무기를 사용(使用)한다면 제한(制限)된 응징보복공격을 수행(遂行)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하고, 선택적(選擇的)인 공격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100 Kiloton 미만의 범위내(範圍內)에 있는 여러 핵무기중(核武器中)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부수적인 파괴를 최소화(最小化)할 수 있는 이러한 식별력(識別力) 있는 보복능력(報復能力)은 상대국(相對國)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전술(前述)한 대응책(對應策)을 수행하거나 이에 대처(對處)할 전략(戰略)을 마련하는데 있어 미국의 정책결정자(政策決定者)들은 십중팔구(十中八九)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식(舊式) ICBM인 타이탄 II나 미니트맨 II, III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핵탄두를 가진 이러한 시스템들은 핵무기 테러분자(分子)들을 선동하는 국가(國家)에 대한 가벼운 응징이 필요한 때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다.

SSBN의 일부를 이러한 새로운 핵보유국(核保有國) 파괴임무에 배치(配置)하는 것이 목표사정거리(目標射程距離)에 미달되는 현재(現在)의 지상(地上) ICBM 들이 알고 있는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하는 길이다. 그러나 SIOP계획(計劃) (Single Integrated Operation Plan)에 따라 미국은 유럽 전역(全域)에서의 분쟁(紛爭)과 관련된 작전수행(作戰遂行)을 위해 SSBN의 일부를 점차 사용(使用)함으로써 이러한 장래의 임무수행(任務遂行)에 보다 소부대로 충당(充當)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현재(現在) 보유(保有)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게 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戰略)에 수정이 없는 한 폴라리스(Polaris) A-3 MIRV 탄두와 포세이돈(Poseidon) C-3 및 트라이던트(Trident) MIRV 탄두는 여기서 언급(言及)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한(制限)된 목적(目的)을 위해 사용(使用)되기에는 너무 부적합(不適合)하다. 대륙간 탄도탄과 크루즈미사일이나 단거리공격 미사일(SRAM)을 탑재(搭載)한 유인폭격기(有人爆撃機)와의 혼합운반체제(混合運搬體制)에 바탕을 둔 미국의 미래전략계획(未來戰略計劃)에는 여러 가지 결점(缺點)이 있다. 공중(空中)에서 재급유(再給油)받은 유인폭격기(有人爆撃機)들은 훨씬 더 장거리(長距離)를 비행할 수 있으므로 공격범위(攻擊範圍)에 확대(擴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말(年代末)까지는 현재(現在)의 KC-135기(機)보다 진보(進歩)된 장거리(長距離) 급유수단(給油手段)이 개발(開發)되어 미국 본토(本土)의 항공기(航空機)가 광범위(廣範圍)하게 활동(活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신생핵보유국(新生核保有國)을 목표(目標)로 하는 이러한 핵공격(核攻撃)을 수행하는데 있어 동맹국(同盟國)들이 미국이 그들의 기지(基地)를 사용(使用)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이 임무수행상에 있어서 더욱 문제시(問題視)되는 것은, 이런 공중운반체제(空中運搬體制)로 목표(目標)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오랜 시간(時間)이 공격(攻擊)받는 신생핵보유국(新生核保有國)들이 그들의 핵무기(核武器)를 재배치(再配置)하여 미국의 무력화공격(無力化攻撃)에 대항(對抗)할 수 있는 충분(充分)한 경고(警告)의 역할(役割)을 해준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리보복행위(代理報復行爲)나 응징공격(攻擊) 임무를 수행(遂行)하는 데 있어 시간에 쫓길 정도의 긴박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인항공기(有人航空機)를 이용(利用)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공격 목표지역의 대공방어망(對空防禦網)에 의해 가해지는 위험부담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계산(政策計算)은 항공기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Stand-off급 미사일이나 Cruise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위험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RAM과 ALCM(Air-Launched Cruise Missile)의 핵탄두(核彈頭) 파괴력은 최고 200킬로톤으로서 소기(所期)의 목적(目的)을 수행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큰 파괴력으로 생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장차 핵(核)이 확산되는 세계에 있어서 신생핵보유국가(新生核保有國家)에 대응(對應)하기 위한 전략면(戰略面)에서 볼 때, 미국은 필연적으로 공격용전략전력(攻擊用戰略戰力)의 일부를 제한적(制限的)으로 재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조치(再配置)의 목적(目的)은 임무수행상(任務遂行上)의 식별력(識別力)과 융통성(融通性)을 증대시키고 전력활동범위(戰力活動範圍)를 확장하는 데 있다.

이 전략재정비(戰略再整備)는 예를 들면 MXICBM의 실효적재량(實效積載量)을 적당히 수정하여 그 일부를 이 임무에 전용(轉用)한다든가 지형(地形)에 관한 필요(必要)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 경우 공중발사 Cruise 미사일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든가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추가로 요구되는 보다 높은 식별력, 융통성, 사정거리, 대응책의 선택 (Selectivity of Response)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점은 본고(本稿)의 범주를 벗어난다. 지금부터는 보다 격(格)이 확산된 세계에 있어서 미국 전략군사력배치(戰略軍事力配置)의 또 다른 면(面)을 살펴 보자.

전략방어력(戰略防禦力) 증강과 비정규적(非正規的) 핵위협(核威脅)

1980년대(年代)에 미본토(美本土)를 위협(威脅)할 것으로 보이는 신진핵세력국(新進核勢力國)들은 과거(過去)와 다른 운반방법(運搬方法)에 의존(依存)해야만 한다는 관측(觀測)은 미전략군(美戰略軍)에게 중요(重要)한 전략상의 의미를 던져준다. 미국(美國)으로선 핵확산(核擴散)을 억제(抑制)하기 위해 약화(弱化)된 미방공능력(美防空能力)을 회복(回復)해야 하며 국경경계능력(國境警戒能力)을 강화(強化)해야만 한다. 덧붙여 항공교통통제(航空交通統制), 관측감시(觀測監視)에 있어 (군(軍)·민간(民間)에) 어떤 협력관계(協力關係)가(이런 협력(協力)은 어떤 조직(組織)이 상업용(商業用) 항공기(航空機)를 이용(利用), 핵병기(核兵器)를 미국(美國)으로 밀수(密輸)하려 한다는 정보(情報)가 입수(入手)된 후에 더욱 절실(切實)하지만) 더욱 강화(強化)되어야 한다. 그러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System으로서의 Light Area Missile Defense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

90년대말(年代末)까지는 신진핵보유국(新進核保有國)들도 장거리(長距離) Missile에 관한 기술(技術)을 습득(習得)하게 될 것이며, 특히 우주항공기술(宇宙航空技術)이 국제적(國際的)으로 합법적(合法的)인 무역품목(貿易品目)이 된다면 이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예(例)를 들어 브라질이나 인디아는 이미 이 분야(分野)에 대한 연구(研究)를 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개발도상국(先進開發途上國)들도 이에 대한 연구(研究)에 착수(着手)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생핵보유(新生核保有) 국가(國家)들은 어느 나라도 향후 10년간 미국(美國)을 공격목표(攻擊目標)로 할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가상적(假想的)인 가능성(可能性)과는 반대(反對)로, 모든 불가능(不可能)한 경우를 고려(考慮)할 때 그 시기에 있어서 적어도 신생핵국(新生

核國)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Light Ballistic Missile Area Defense가 필요(必要)하다는 결론(結論)은 내리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소련은 신진핵국가(新進核國家)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自國)의 대공방위력강화(對空防衛力強化)에 역점(力點)을 둘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Light Area Ballistic Missile Defense에 대한 관심(關心)은, 아직 소련(蘇聯)을 위협(威脅)하는 국가(國家) 중(中) 단도(彈道) Missile로 무장(武装)된 신생핵보유국(新生核保有國)이 없으므로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소련(蘇聯)의 대응(對應)자세는 미국의 핵방위전략태세(核防衛戰略態勢)에 어떠한 간접적(間接的)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日本)과 서독(西獨)이 핵무기(核武器) Program을 갖게 된다면 소련(蘇聯)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반응(反應)을 보일 것이다.

일본(日本)과 서독(西獨)의 핵무장(核武装)의 의미(意味)

향후(向後) 10년내(年內)에 또 다른 핵보유국(核保有國)이 나타나리라는 가능성(可能性)보다는 훨씬 희박(稀薄)하지만, 1990년대말(年代末) 이전(以前)에 일본(日本)이나 서독(西獨)이 핵보유(核保有)를 결정(決定)할 가능성(可能性)은 충분(充分)히 있다. 더우기 이들 국가(國家)의 핵무장(核武装)이 초래 할 결과(結果)는 이들의 핵잠재력(核潛在力)이 현재(現在)의 핵강대국(核強大國)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진핵국가(新進核國家)들 보다는 훨씬 우위(優位)에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深刻)한 것이다. 이들의 핵무장(核武装)에 대해 소련(蘇聯)은 이를 자국안보(自國安保)에 대한 중대(重大)한 위협(威脅)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소련(蘇聯)의 즉각적(即刻的)인 대응책(對應策)은 미국(美國)의 핵공격(核攻擊)·방어전략(防禦戰略)에 간접적(間接的)으로 중대(重大)한 결과(結果)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핵(核)을 보유(保有)하게 된 이들 맹방(盟邦)(일(日)·독(獨))이 우호적인 대미태도(對美態度)를 바꿔 미국(美國)에 대해 적의(敵意)를 갖게 된다면 이는 미대응전략(美對應戰略)에 직접적(直接的)이고 중대(重大)한 결과(結果)를 야기시킬 것이다. 일본(日本)과 서독(西獨)의 핵무장(核武装)은 소련(蘇聯)에 직접 압력(壓力)을 가하게 되어 소련(蘇聯)의 공격(攻擊) 및 방어전략(防禦戰略)의 증강(增強)을 초래할 것이다. 소련(蘇聯)은 일방적(一方的)으로 전력(戰力)을 증강(增強)하는 한편 미국(美國)에 대(對)해 현(現) 전략무기제한선(戰略武器制限線)의 재협상(再協商)을 요구할 것이다.

한편, 소련(蘇聯)은 이러한 일(日)·독(獨)의 핵보유(核保有)에 대해 부분적(部分的)인 대응책(對應策)으로 서독(西獨) 및 일본(日本)을 목표(目標)로 한 중거리탄도(中距離彈道) Missile(IRBM)을 추가로 보유(保有)하려 할 것이며 일본(日本)과 같은 보다 먼 목표(目標)에 사용(使用)키 위한 ICBM의 추가(追加) 보유(保有)를 위해 소련(蘇聯)의 전략전력(戰略戰力)수준에 대한 상한선(上限線)을 재협상(再協商)하자고 미국(美國)에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와 함

께 소련(蘇聯)은 일본(日本) 및 서독(西獨)의 SSBN 배치(配置)에 필적(匹敵)하기 위해 자국(自國)의 SLBM 발사대(Launcher)의 수(數)도 다시 협상하려 들 것이다.

특(特)히 이런 필사적(必死的)인 전력(戰力)증강 노력은 소련(蘇聯)이 군사적(軍事的)으로나 정치적(政治的)으로 서방국가(西方國家)들에 대해 대등(對等)한 위치(位置)에 서려 하는 의도(意圖)를 나타내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이는 돌이켜 불만한 가치가 있다. 소련(蘇聯)은 SALT I 잠정협정에 따른 NATO 맹방(盟邦)들의 SSBN에 대(對)해 일방적인 성명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反映)시켰었다. 그 성명에서 소련(蘇聯)은, 만일 NATO 동맹국(同盟國)들이 동(同) 협정(協定)이 체결될 당시 제작중(製作中)이거나 배치(配置)된 숫자 이상으로 잠수함 수(數)를 증가(增加)시키면 이에 맞서 소련(蘇聯)도 그들의 잠수함 수(數)를 늘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主張) 했었다.

또 다른 한편, 일본(日本)과 서독(西獨)의 핵무장(核武装)은 소련지도층(蘇聯指導層)으로 하여금 1972년(年) 대탄도(對彈道) Missile 제한협정(制限協定)에 대한 재협상(再協商)내지 유보(留保), 혹은 폐지(廢止)토록 하는 결정(決定)으로까지 몰고가게 만들 것이다. 한국(韓國), 이스라엘, 터키까지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국가(國家)들이 핵(核)을 보유(保有)해 신생핵국(新生核國)의 일원(一員)이 된다면 소련(蘇聯)은 핵(核)으로 포위(包圍)되므로 소련(蘇聯)의 핵포위(核包圍) 위협(威脅)에 대(對)한 공포(恐怖)는 크게 고조(高潮)될 것이며, 이에 의한 심리적(心理的) 효과(效果)는 소련(蘇聯)으로 하여금 전략개념(戰略概念)을 핵분쟁(核紛爭)에 연관(連關)시켜 그 대책에 역점(力點)을 두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상황하에서는 소련(蘇聯)은 전략방어개념(戰略防禦概念)을 틀림 없이 1970년대(年代)의 변칙적(變則的) 정책(政策)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상 두 가지 소련(蘇聯)의 전략대응책(戰略對應策)은 간접적(間接的)으로나마 미국(美國)의 핵전략전력(核戰略戰力)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상대적(相對的)인 국제협력균형(國際勢力均衡)을 유지(維持)하려면 미국(美國)은 증강(增強)된 소련(蘇聯)의 ICBM과 SSBN만큼 전력(戰力)을 증강(增強)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미국(美國)은 소련(蘇聯)과 상호협상(相互協商)에 의해 증대(增大)된 전략전력(戰略戰力)을 배치(配置)함으로써 소련(蘇聯)이 탄도(彈道)미사일 제한조약(制限條約)의 일방적(一方的) 폐지(廢止)나 소련(蘇聯)의 일방적(一方的)인 전력증강(戰力增強)에 대해 미국(美國)이 이를 묵인(默認)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국(美國)은 뜻밖의 공격(攻擊)에 대항(對抗)키 위한 Light Area Ballistic Missile Defense와는 별도로, 소련(蘇聯)의 방위전력(防衛戰力)을 제한(制限)해서 소련(蘇聯)의 갑작스런 무력증강(武力增強)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 대소전략(對蘇戰略) 균형(均衡)의 차(差)를 최소화(最小化)하기 위해 소련(蘇聯)과의 협상(協商)을 서두를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日本)과 서독(西獨)의 핵무장(核武装)이 미국(美國)에 영향을 주는 과정(過程)이란, 이들의 핵무장(核武装)에 소련(蘇聯)이 즉각적(即刻的)으로 대응(對應)하게 되고 이

런 소련(蘇聯)의 행동(行動)에 대처(對處)하기 위해 어떤 조치(措置)를 취하는 식(式)이 된다는 이상(以上)의 주장(主張)에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단서(但書)를 붙인다. 만일 일본(日本)과 서독(西獨)이 일부 사람들의 우려대로 급격(急激)한 반미정책변환(反美政策變換) 속에 핵무장(核武装)을 하게 되면 미국(美國)이 대단히 위협(威脅)을 받게 되며 궁극적(窮極的)으로 미국(美國)은 핵공격(核攻擊) 및 방어전력(防禦戰力)을 증대(增大)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美國)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던 맹방(盟邦)이 미국(美國)에 등을 돌릴지도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들의 적대행위(敵對行爲)에 대비(對備)해 Light Area Defense를 필요로 한다면 혹은 배반(背反)한 이들 국가를 미국의 공격목표(攻擊目標)로 삼아야 할 정도로 심각(深刻)한 상황(狀況)을 야기(惹起)시킬 정도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미국(美國)은 이러한 새로운 핵국가(核國家)들과 보다 공고(鞏固)한 유대관계(紐帶關係)를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진영(自由陣營)의 핵무력(核勢力)들의 결속(結束)은 이에 대한 소련(蘇聯)의 우려(憂慮)를 크게 고조(高潮)시켜 소련(蘇聯)으로 하여금 이들 잠재적(潛在的)인 핵강국(核強國)이 주도(主導)하는 서방세계(西方世界)의 전반적(全般的)인 핵전력증강(核戰力增強)에 필적(匹敵)하려는 일련(一連)의 조치(措置)를 합리화(合理化)시킬 수 있는 동기(動機)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1980년대말(年代末) 이후(以後)의 미국(美國)의 핵전략전력(核戰略戰力)에 관(關)해 논(論)하는 자리에서도 자주 지적(指摘)됐듯이 앞으로 세계(世界)의 안보적(安保的)인 추세(趨勢)를 볼 때 많은 국가들이 핵(核)을 보유(保有)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서 핵확산문제(核擴散問題)가 심각(深刻)할 정도로 대두(擡頭)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것을 종합(綜合)하면, 결론적(結論的)으로 세계적(世界的)인 핵확산(核擴散)이 미국(美國)의 전략전력(戰略戰力)에 미치는 충격(衝擊)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응책(對應策)이 생각될 수 있다.

첫째, 신진핵보유국(新進核保有國)이 증가(增加)하면서 야기(惹起)되는 군사적(軍事的), 정치적(政治的) 위협(威脅)에 대처(對處)하기 위해서 미국(美國)은 핵확산억제임무(核擴散抑制任務)를 수행(遂行)하는데 따른 충분(充分)한 사정거리(射程距離) 확보와 목표식별력(目標識別力) 및 신축성(伸縮性) 등을 강화(強化) 혹은 보강(補強)하기 위해 전략공격력(戰略攻擊力)을 일부(一部) 제한적(制限的)으로 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전력결정요소(戰力決定要素)와 비교(比較)해 볼 때 이에 의한 변화의 폭은 어느 한계(限界)가 있지만, 핵확산세계(核擴散世界)에 있어서의 미국(美國)의 이익(利益)을 보호(保護)하는 데에는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할 것이다.

둘째로, 가능성(可能性)은 희박(稀薄)하지만 일본(日本)과 서독(西獨)같은 잠재핵강대국(潛在核強大國)이 핵무장(核武装)을 하게 되면 미국(美國)은 소련(蘇聯)과 마찬가지로 전략적(戰略的)인 핵공격력(核攻擊力) 및 방어력(防禦力)을 증대(增大)시켜야 하며 따라서 현재(現在)의

전략무기제한(戰略武器制限)이라는 근본적(根本的)인 억제책(抑制策)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소련(蘇聯)과 마찬가지로 미국(美國)도 자국(自國)의 정치적(政治的), 군사적(軍事的) 이해관계가 각기 논리적(論理的) 대응책(對應策)을 활발(活潑)히 전개(展開)토록 유도(誘導)할 것이다. 아무도 이 시기에 확산(擴散)하는 핵세계(核世界)가 미핵전략전력(美核戰略戰力)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략군(戰略軍)과 핵전쟁(核戰爭) 억지(抑止)

브라운 미국방장관(美國防長官)의 미해군대학(美海軍大學) 연설(演說)

해롤드 브라운 미국방장관(美國防長官)은, 미국(美國) 전략군(戰略軍)은 “평화를 유지하고 핵전쟁(核戰爭)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지난 8월 20일 해군대학(海軍大學)에서 연설하면서 브라운 장관(長官)은 미국(美國)의 전략정책(戰略政策)을 “병력(兵力) 현대화(現代化), 협상에 의한 제한 및 설득력(說得力) 있고 효과적인 억지(抑止) 노선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묘사했다.

다음은 브라운 장관(長官)의 연설 전문(全文)이다.

편 집 실 (編輯室)

해군대학(海軍大學)에 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수학(修學)하는 것은 일상(日常) 군무(軍務)에서 물러나서 여러가지 중요한 국가안보(國家安保) 문제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고찰해 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國家) 안보(安保)문제 중에서 가장 중대한 것의 하나이고 또 현재 일반 국민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는 전략핵(戰略核) 정책이다. 이것이 오늘 본인의 논제(論題)이다.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核戰爭)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핵(戰略核)정책을 수립하려면 냉정한 분석, 균형잡힌 판단 그리고 핵시대(核時代)의 복잡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전략군(戰略軍)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핵전쟁(核戰爭)을 억지하는 일이다. 전략핵(戰略核)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이룩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소련(蘇聯)의 선제(先制)공격을 받고 나서도 그들에게 무서운 타격을 가함으로써

써 보복할 수 있는 전략핵군(戰略核軍)을 가져야 한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안보상(安保上)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또 우리 자신의 병력(兵力)계획과 무기(武器)통제협정(協定)으로 가능하게 된 가장 낮고, 가장 안전한 수준에서 전반적인 전략(戰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소련(蘇聯)이 핵전쟁(核戰爭)을 초래하는 노선을 택함으로써 그들이 지불해야 할, 받아들일 수 없는 대가(代價)보다도 더 큰 이점(利點)을 결코 차지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소련(蘇聯)측에게 분명히 납득시켜줄 우리의 군(軍) 사용(필요하다면)을 위한 원칙과 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기습공격을 받고도 살아 남을 수 있는 우리 군(軍)의 능력은 억지(抑止)의 본질(本質)이다. 오늘날 우리의 전략핵군(戰略核軍)의 3개(個) 요소는 우리의 억지력(抑止力)이 '생잔(生殘)'할 수 있음을 다짐 해준다. 그러나 미래에 가서는 소련(蘇聯)의 군사계획(軍事計劃)이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우리 전략군(戰略軍)의 각 요소의 살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의 ICBM (대륙간 탄도유도탄)에 대해서는 이 소련(蘇聯)의 위협 가능성이 현실화되었거나 그에 가까와졌다. 소련(蘇聯)은 현재 우리의 고정(固定)위치의 미니트맨 유도탄(誘導彈) 지하호(地下壕)를 위협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ICBM탄두(彈頭)를 수(數) 천개(千個)나 배치하고 있다. 우리 폭격기(爆擊機)에 대해서는 그 위협은 더욱 멀고, SLBM (잠수함발사용(潛水艦發射用) 탄도(彈導) 유도탄(誘導彈))에 대해서는 그 위협이 더욱 더 가설적(假說的)이다. 그러나 소련(蘇聯)은 1980년대(年代) 중엽(中葉)에 배치할 목적으로 공중(空中) 레이다와 우리의 침투용 B-52기(機)를 격추시키기 위한 대공(對空)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蘇聯)은 우리의 유도탄 잠수함을 탐지해서 격파하기 위한 무기 체제를 맹렬히 연구 중에 있다. 소련(蘇聯)의 노력은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전반적인 전략핵(戰略核)능력을 적절히 강화함으로써 이들 현재 및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이는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능력이 본질적으로는 비슷하지만 1970년대(年代)의 소련(蘇聯) 계획의 규모와 추진력(推進力)이 필연적으로 1980년대(年代)의 그들의 무기배치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美國)은 그것을 상쇄(相殺)할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MIRV (다탄두(多彈頭) 각개(各個) 유도(誘導) 핵(核)미사일)의 핵탄두(核彈頭)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지만 1970년대(年代)의 전략(戰略)계획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소련(蘇聯)이 그들의 전략(戰略)계획에서 사용한 액수의 3분(分)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1980년대(年代) 중엽(中葉)에 가서는 고작해야 우리가 열세(劣勢)임을 깨닫게 되거나, 최악(最惡)의 경우에는 핵(核)에 의한 협박을 당할 실제적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략군(戰略軍)의 3개(個)요소를 모두 강화하고 있다. 즉, 우리는 3년(年) 반(半)만에 '트라이덴트 유도탄(誘導彈) 및 잠수함(潛水艦) 계획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 놓았다. 우리는 포세이돈 잠수함(潛水艦)을 새로운 트라이덴트 1호(號) 유도탄(誘導彈)으로 장비

하기 시작 했는데, 이로써 이 잠수함이 초계(哨戒)하면서 표적권(標的圈)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대양(大洋)의 범위가 10배(倍)로 늘어난다. 최초의 트라이덴트 잠수함(潛水艦)인 오하이오호(號)는 금년(今年)에 해상시운전(海上試運轉)을 시작하여 명년(明年)에 핵잠수함대(核潛水艦隊)에 편입될 것이다. 그 자매함(姊妹艦)인 미시간호(號)도 머지 않아 진수(進水)될 것이다.

우리는 활력(活力) 있고, 효과적인 폭격기군(軍)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大統領)은 취임 초 공중(空中) 발사용(發射用) 크루즈 미사일이 B-1폭격기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전략(戰略)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후에 이루어진 미국(美國)의 기술적 발전과 그리고 소련(蘇聯)의 공중(空中) 방위(防衛)에서의 발전에 관한 정보(情報)는 카터의 이 판단이 옳았음을 강력히 확인해 주었다.

한편 우리는 신형(新型) 크루즈 미사일 적재용(積載用) 항공기(航空機)와 신형(新型) 폭격기가 1990년대(年代)와 그 이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설계(設計)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數年)동안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軍事的) 약점(弱點)은 우리의 고정(固定) 지하호(地下壕) 속의 ICBM의 취약성이 될 것이다. 옵서버들은 여러 해 전부터 이러한 추세를 예견(豫見)해 왔으나 아무런 건전한 기술적 해결책도 찾지 못하다가 1979년에 MX복식(複式) 보호호(保護壕)의 개념이 개발되어 선택되었다. 국회(國會)와 일반 국민이 계속 지지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계획은 장기적(長期的) 전략(戰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전략군(戰略軍)의 다른 요소들은 1980년대초(年代初)에 급속히 개선될 것인데, 이 요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ICBM이 일시적으로 취약한 기간 동안 균형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견제력을 유지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무한(無限)히 끌고 가기를 원하는 정세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략군(戰略軍)의 3개(個) 요소 중 다른 요소가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비(對備)해서 만전(萬全)을 기하고 또 예를 들면 소련(蘇聯)이 대잠수함(對潛水艦) 능력을 개발하는 데만 몰두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MX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MX의 '생잔(生殘) 능력을 확실케 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상당한 비용을 감당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전략군(戰略軍)을 보복적(報復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생잔(生殘)할 수 있는 무기(武器)체제는 그것이 대처하게 될 취약한 무기(武器)체제보다 우리에게 대한 위협을 줄여줄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 전략군(戰略軍)의 일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핵(核) 균형을 위해 절대로 중요한 것으로 전투지역(戰鬪地域) 핵군(核軍)이 있다. 작년에 나토(북대동맹(北大同盟) 조약(條約)기구)는 소련의 전투지역(戰鬪地域) 핵군(核軍) 대규모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일부 맹방(盟邦)에게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 결정에는 미국(美國)의 장기적인 전투지역(戰鬪地域) 핵군(核軍)—지상발사용(地上發射用) 크루즈 미사일과 퍼싱II호(號)—을 개선하고 소련과 쌍방(雙方)의 전투지역(戰鬪地域) 핵군(核軍)에 대한 공평하고 확인(確認)(증(證))할 수 있는 제한을 협상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포함된다.

우리는 또한 트라이덴트 유도탄을 현대화(現代化)된 영국핵군(英國核軍)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최근의 협정으로 강력한 동맹국(同盟國) 핵(核) 능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증명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잠수함(潛水艦)의 디자인과 성능, 크루즈 미사일의 정확성과 소형화 그리고 육상기지(陸上基地) 유도탄의 기동성을 위한 효과적 개념 등 분야에서의 미국(美國)의 기술적 역량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 계획은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책들이다. 특히 전략군(戰略軍)의 경우,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 필요에 적합한 무기 체제에 우리의 재원(財源)을 투입해야만 하며 조속한, 그러나 불완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해결책을 위해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 계획은 억지력(抑止力)을 강화한다. 이들은 소련 위협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우리 전략군(戰略軍)에게 제고(提高)된 생존능력(生殘能力)을 제공한다. 이들은 우리의 핵억지능력(核戰抑止能力)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戰略的) 안정(安定)을 유지시킨다.

전략적(戰略的) 안정(安定)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은 제2단계 SALT조약과 같은, 공평하고 확인 가능한 전략무기통제(戰略武器統制) 협정(協定)들의 추구이다. 무기통제(武器統制)는 적극적인 군(軍)의 현대화를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련 전략군(戰略軍)의 규모와 능력에 효과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이를 보강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무기통제(武器統制)는 우리들에게 전략적(戰略的) 균형(均衡)의 유지를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

핵시대(核時代)의 개막 이래 역대 대통령들의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한 행정부도, 우리의 적국(敵國)들에 대한 선심이다. 또는 그들의 정체(正體)에 대한 어떠한 환상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보(安保)와 세계평화를 증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핵무기통제(核武器統制)를 추구해 왔다. 우리가 소련과 또 소련이 우리와 무기통제협정(武器統制協定)을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적대국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협정(協定)은 우방간(友邦間)에는 불필요한 것이다. 초강대국(超強大國)들 사이의 무기통제(武器統制) 협정(協定)의 경우는 모두 상호 관심이 추진력이며 상호의 이득이 필요한 기준이다.

제2단계 SALT는, 이 제2단계 SALT의 제한이 없는 경우보다도, 소련 전략무기(戰略武器)의 증강(增強)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억제해 줄 것이다.……소련은 그들의 현 전략핵군(戰略核軍)을 약 10%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그들이 배치하는 탄두수(彈頭數)를 제한받게 된다.

제2단계 SALT는 소련의 전략군(戰略軍)을 수적(數的)으로나 특정면에서나 다 같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방위계획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제2단계 SALT는 소련과의 불필요하고 무제한적이며, 또 매우 고가(高價)한 전략군비경쟁(戰略軍備競爭)을 예방하여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자금을 재래식(在來式) 군(軍)에게 투입해야 할 긴급한 필요—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결과로 오늘날 더 긴급성을 띠게 된 필요—에 직면한 이때 더욱 더 중요한 것이다.

합동참모부(合同參謀部)는 제2단계 SALT 조약(條約)에서 부과된 제약들이 우리의 국가안보(國家安保)에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우리가 소련의 행동을 평가하고 또 필요한 대응책을 취하는 동안 현실적 정치면에서 제2단계 기준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조약을 비준하는 일은 아직도 우리의 국가안보(國家安保) 이익(利益)에 중요하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전략군(戰略軍) 이외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위한 정책 체제를 필요로 한다. 억지력(抑止力)이 계속 유효(有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확정, 전략핵군(戰略核軍) 및 이에 상응한 지휘(指揮), 통제(統制), 통신체제(通信體制)들의 획득을 위한 우리의 조달전략(調達戰略)의 지도, 그리고 필요시 전쟁에 우리 전략군(戰略軍)을 사용하기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 등이다.

우리의 군현대화(軍現代化) 노력(努力) 및 우리의 무기(武器) 통제협상(統制協商)에 대한 보안책으로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억지력(抑止力)을 보다 확실하고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우리의 전략(戰略)독트린의 보다 훌륭한 기획 및 보다 설득력있는 천명 등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분석적 내지 운용상의 조치들을 취해 왔다.

1977년 여름, 카터 대통령(大統領)은 우리의 표적(標的) 설정정책(設定政策)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지시 했었다. 그 후 18개월 동안에 걸쳐, 그러한 연구가, 소련의 관점, 역량 및 취약점과 더불어, 우리의 부대들, 계획, 문제점 및 능력들을 감안하면서, 군(軍) 및 민간(民間) 전문가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본인이 그 분석에 관해 대통령(大統領)에게 보고한 이래, 우리는 그 기본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들을 취해 오고 있다. 본인은 이 대응전략(對應戰略)의 주요 원리들을 1979년 초의 본인의 국방보고서(國防報告書)를 통하여 요약한 바 있고 금년 1월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다.

금년 6월에 나토 핵기획(核企劃)그룹 회의(會議)에서 본인은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우리가 도달한 결론과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이들 동맹국(同盟國)들은 미국(美國)이 광범위한 전략적(戰略的) 핵선택안(核選擇案)들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우리의 대응전략(對應戰略)은 나토의 융통성 있는 대응과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실로 그같은 동맹전략(同盟戰略)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카터 대통령(大統領)은 최근 우리의 재 천명 된 독트린을 성문화하고 또 우리의 기획 및 무기 체제 획득의 계속적 발전에 지침이 되는 시행제시(施行指示)—대통령(大統領) 지시(指示) 59호—를 하달했다.

분명히 우리 기획의 세부 사항들은 철저히 보호된 기밀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우리의 안보(安保)를 약화시킴이 없이 명백히 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의 억지정책(抑止政策)과 그리고 침략의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우방(友邦)과

적국(敵國)들에게 분명히 이해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선 본인은 대통령(大統領) 지시(指示) 59호는 새로운 전략적(戰略的) 독트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우리 전략정책(戰略政策)에서의 근본적인 이탈이 아니다. 사실상 그것은 이전에 천명되었던 우리 전략정책(戰略政策)의 정리 내지 명문화이다. 대통령(大統領) 지시(指示) 59호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전략(戰略) 독트린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상황 및 현재의 능력에 비추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보다 설득력있게 재 천명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러한 노선(路線)에 따른 본인의 과거 성명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인 자신이 이 제목을 직접 설명드리는 목적의 하나는, 소련(蘇聯)에게 우리의 대응전략(對應戰略)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리자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美國)의 잠재적 적국(敵國)이나 혹은 그 동맹국(同盟國)들이 혹시라도 침략이 초래할 대가(代價)를 우습게 보고 침략은 해 볼만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분쟁의 수준이 여하한 것이든 해당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래해 왔듯이 억지력(抑止力)은 우리의 기본 전략목표(戰略目標)이다. 그러나 억지력(抑止力)은 미국(美國) 도시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만이 아닌 보다 훨씬 광범위한 위협들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전면 핵전쟁(核戰爭)을 초래할 수 있는 여하한 적국에 의한 여하한 행동도 저지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와 전략군(戰略軍)은 또한 미국내(美國內)의 소규모 목표물들이나 미군(美軍)에 대한 핵(核)공격을 억지(抑止)해야 하며, 우리의 맹방(盟邦)들에 대한 핵(核)협박이나 핵(核)공격을 막는 방벽(防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군(戰略軍)은 전투지역(戰鬪地域) 핵군(核軍)과 함께 재래식 침략의 저지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우리는 핵군(核軍)은 물론이고 핵군(核軍)사용을 위한 가장 현명한 이론(理論)도 우리와 우리 동맹국들의 가능한 재래식 전쟁 억지력(抑止力)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도움을 준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의 분석과 계획에서 우리는 전쟁 억지(抑止)가 실패할 경우에 양측(兩側)(미(美)·소(蘇))이 핵(核)전쟁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遂行)할 것인가에 보다 큰 주의(注意)를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이 어떻게 수행(遂行)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이러한 주의집중(注意集中)과, 상호 전쟁억지(抑止)에 의한 우리의 꾸준한 평화 확보(確保)의 목적 간에 모순은 없다. 사실, 이러한 주의집중(注意集中)은 우리의 보복 능력이 충분히 믿음만한 것임을 보장함으로써 전쟁 억지(抑止)와 평화 달성을 돕는다.

개념상(概念上), 성공적인 전쟁 억지(抑止)는 무엇보다도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어떠한 위협과 손실이 침략에 뒤따르는가에 대한 소련측(蘇聯側) 견해(見解)를 형성(形成)케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소련(蘇聯)이 승리의 개념을 여하히 정의(定義)할지언정, 소련(蘇聯) 지도층이 핵무기(核武器)의 사용을 초래할 어떠한 전쟁, 어떠한 침략도—어떠한 규모의 공격, 어떠한 정

도의 전투에서 건—결코 승리로 이르지 못할 것임을 소련(蘇聯)지도층에게 확신시킬 군사력, 출발사태 대비(對備)계획, 그리고 지휘 및 통어(統御) 능력 등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기본적인 진실을 소련(蘇聯) 지도층에게 확신케 하는 일이 소련(蘇聯) 지도층의 침략 유혹에 대한 가장 안전한 억지책(抑止策)이다.

작전상(作戰上), 소련(蘇聯)에 대항하는 우리의 전략(戰略)은 우리의 계획과 능력이 미국(美國)에 대한 대량 공격에 대응하는 전면적 보복에 의거할 뿐 아니라 전략핵군(戰略核軍)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더욱 치중하게끔 구성(構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련(蘇聯) 지도층이 어떤 중간급(中間級)의 공격을 택할 경우에 우리가 선택적이고 대규모의 (그러나 아직 최대규모에는 이르지 않은) 핵(核)공격에 의해서 소련(蘇聯)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은 일들, 즉 정치적(政治的) 및 군사적(軍事的) 통어(統御), 핵(核) 및 재래식(在來式) 양면(兩面)의 군사력 그리고 전 쟁을 수행할 수 있는 공업능력 등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높은 대가(代價)를 치르게 되리라는 점을 소련(蘇聯) 지도층에게 확지(確知)시키는 일이 우리의 정책이며 또한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증대하는 수단과 세부 계획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서 전쟁 종결(終結)문제를 소홀히 한적 없을 뿐 아니라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도 전쟁 종결(終結)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현재 우리는 소련(蘇聯)으로부터의 타격(打擊)에 대한 적절한 대응(對應)이 된다면 소련(蘇聯)의 경제적(經濟的) 근거지를 포함한 전체 목표물들을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생산(生殘) 가능한 지속적인 능력을 현재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가질 것이다.

대통령(大統領)의 지시로 국방성(國防省)은 1977년 이래 우리 군사력의 고유한 능력을 활용하는 우리 계획들의 신축성을 늘이려고 노력해 왔다. 우리는 또한 핵(核)전쟁 중에 퍼지게 될 매우 불안정하고도 혼란스러운 사태에서도 우리 군대의 능률적인 통신과 지휘 및 통어(統御)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향상 시키려고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전쟁 억지력(抑止力)을 대폭 강화시켜 준다.

본인이 앞서 강조했듯이 이러한 정책(政策)은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다. 미국(美國)은 단지 소련(蘇聯)의 도시들에 대한 반사적인 대량 공격만을 기초로 한 정책(政策)을 가진 적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보다 선택적으로(도시 및 산업지역에 대한 가해(加害)를 제한하는 대안(代案)들), 그리고 보다 포괄적으로(일련의 군사목표물들) 계획해 왔다.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의 행정부(行政府)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협소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전략(戰略)독트린의 불충분성을 인정했다. 우리의 핵정책(核政策)의 발달에 가장 헌신한 바 있는 2명의 나의 전임자(前任者), 예컨대 맥나마라 전(前) 국방장관(國防長官)과 슐레진저 전(前) 국방장관(國防長官)의 양인(兩人)이 1세대(世代)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개념상(概念上)의 토대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련(蘇聯)에 대한 대응전략(對應戰略)의 기본적 전제(前提)이다. 현(現) 행정부(行政府)는 광범위한 규모의 전쟁억지(抑止), 혹은 향상된 신축성, 혹은 전쟁억지(抑止)가 실패할 경우 우리 자신의 군사력의 안전하고도 믿음만한 지휘 및 통어(統御), 혹은 군사력의 효

율적인 표적화(標的化),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정치적(政治的) 리더십 및 군사적 통어(統御) 등에 대한 필요성을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 독트린의 이러한 발전(發展)은 전쟁 억지력(抑止力)을 향상시키며, 핵(核)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그러한 발전은 우리의 핵현대화(核現代化) 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대의 생산(生殘)가능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의 보복공격에 의해 소련(蘇聯)의 도시 및 공업 단지 뿐 아니라 소련(蘇聯)의 힘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강타(強打)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련 측에게 전해주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소련의 군사력, 독트린, 그리고 계획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능력, 독트린, 그리고 계획들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는 일이었다. 소련 지도층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적어도 비교적 장기화된 교전(交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며 적어도 그들 일각(一角)에서는 이같은 (장기화된) 전쟁에 있어서의 이론상(理論上)의 승리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상(以上)과 같은 그들의 견해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군사력면에 있어서나 정책면에 있어서나 핵(核)전쟁에 있어서의 여하한 승리의 이념(念)도 비현실적(非現實的)인 것이라는 사실을 소련과 그리고 세계에 명백히 밝히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소련이 침략을 선택할 경우 우리의 전략(戰略)을 실행(實行)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대안들의 규모, 다양성 그리고 신축성 등의 점차적인 확대와 같은 우리 작전(作戰)계획상의 일부(一部) 수정(修正)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정(修正)의 일부는 1977년 이래 이미 이루어져 왔다. 더 많은 수정(修正)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지휘 및 통어(統御)의 생산(生殘) 능력 및 지구력(持久力)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것은 선제(先制)공격 전략(戰略)이 아니다. 우리는 소련의 공격에 대응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책과 그리고(소련 공격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취하려는 대책(對策)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속에서 핵(核)전쟁이 우리의 안보(安保) 목표들을 달성시켜 주는 사려깊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대목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핵(核)전쟁은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 지도층이 핵(核)전쟁은 그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거나 혹은 핵(核)전쟁의 위협(威脅)이 그들의 위압(威壓)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환상(幻想)을 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을 허용할 수 없다.

가장 위험한 정세하(情勢下)에서도 우리는 소련의 승리는 방지하려는 우리의 능력과 의도를 선언함에 있어서 핵(核)전쟁이 인류(人類)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 아무런 환상(幻想)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대재난(大災難)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핵무기(核武器) 사용(使用)에서 오는 엄청난 불안(不安)을 모르고 있지 않다. 우리는 처음에 제어(制御)된, 제한(制限)된 공격이라고 생각되어 시작한 공격이 쉽사리 전면적인 핵(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본인의 견해로는 매우 쉽사리 전면(全面) 핵전(核戰)으로 발전할 것 같다. 더우기, 우리는 한정(限定)된 핵교전(核交戰)일지라도 엄청

난 사상자(死傷者)와 파괴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중대하지만 아직 한정(限定)된 도발행위(挑發行爲)에 대응하여 대량(大量)보복 이외의 대안을 언제나 필요로 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소련 전략(戰略)능력의 증대(增大)와 아울러 소련이 핵(核)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염려가 미국(美國)으로 하여금 점점 더 선택적이고도 보복을 강화하는 대안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강요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독트린 및 계획상(計劃上)의 방안(方案)들은 우리의 병력 현대화(現代化)계획과 함께 모든 범위의 위협에 대한 우리 전략핵군(戰略核軍)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쟁(戰爭)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련의 지도층이 그러한 전쟁(戰爭)이 소련의 국가권력(國家權力)과 소련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뜻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수 없도록 다짐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이해를 명확하게 해준다.

요컨대 우리의 전략(戰略) 정책(政策)은 병력현대화(兵力現代化) 협상에 의한 제한, 그리고 설득력(說得力) 있고 효과적인 억지(抑止)독트린(원칙)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우리는 평화(平和)를 유지하고, 핵전쟁(核戰爭)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졌을 뿐이다. 이는 동시에 군사적(軍事的), 정치적(政治的) 및 도덕적(道德的) 목적이다. 우리는 무기(武器)경쟁의 안정을 추구하고, 독트린을 개선하고 그리고 소련이 핵전쟁(核戰爭)에서의 승리를 어떻게 정의(定義)하건 또 어떤 수준의 전쟁(戰爭)을 하건 핵전쟁(核戰爭)에서의 승리에 대한 소련의 희망을 거부하도록 계획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군(軍)을 유지하고 현대화해 나가는 통합적 정책(政策)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우리의 핵억지(核抑止)정책을 미국(美國) 국민들, 우리의 우방(友邦)과 맹방(盟邦) 그리고 우리의 적대국(敵對國)들이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연설의 목적이다. 여러분과 같은 직업 군인들이 복잡하지만 절대로 중요한 국가안보정책(國家安保政策)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사실 이 일은 정책(政策)을 입안(立案)하거나 수행함으로써 미국(美國)의 국가안보(國家安保)에 이바지하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비행 행진곡

최용덕 작사
김성태 작곡



대담하게
1. 씩씩한 이 나라에 대한 의아 - 들 - 빛나든
2. 용감한 젊은이 대한 의아 - 들 - 하늘도



백 달 문화 전 통 을 잊 - 고 - 새로운
좁 을 세라 용 솟 는 의 - 기 - 날 새인



자 유 낙 원 건 설 하고 자 - 거룩한 싸 움 터에 이 몸 바쳤
애 기에 - 몸 을 실 고 서 - 오늘도 날 고 나 네 무른 하늘



(후렴)
네 - 저 하 - 늘 - 넓은 들 에 날
로 하 늘 - 은 - 우리 들 의 영



개 려 - 가 세 낙 힘 이 있 - 을 -
윈 - 한 소 상 하 들 은 우 리 들 -



1. 가 위 도 - 아 래 도 하
의 영 원 한 일 터

보라매의 꿈

성훈감실 작사
여 대영 작곡

즐겁게



1. 기 상 의 나 팔 소 리 나 - 를 깨 우 고
2. 출 격 의 요 동 소 리 지 - 속 혼 들 고



우 령 찬 폭 음 소 리 삼 천 만 을 깨 우 - 네
목 음 이 메 아 리 처 하 - 늘 - 지 긴 - 다



길 무 른 하 늘 위 에 하 얌 줄 무 느 -
오늘 도 나 른 - 다 저 하 늘 높 이 -



오늘 도 우 리 - 는 하 - 늘 - 에 산 - 다
오늘 도 나 른 - 다 저 - 하 - 늘 높 - 이

(후렴)



이 곳 이 내 집 이 다 내 목 - 숨 건 곳



끝 없 이 펼 쳐 지 는 보 라 매 의 꿈

진 군 가

장두진 작사
강만식 작곡



물 음 산 길 은 물 을 탁 차 고 나 가 는
복 동 우 물 아 치 고 외 들 이 와 - 도



사 나 이 진 군 에 늘 밤 낮 이 없 - 다
저 친 불 험 한 숲 을 헤 쳐 나 간 - 다



늘 러 쓴 칠 모 밑 에 충 성 이 불 타 고
늘 러 쓴 칠 모 밑 에 충 령 이 불 타 고



백 두 산 까 지 라 도 밀 고 나 가 자
압 록 강 까 지 라 도 밀 고 나 가 자

(후렴)



한 자 루 총 을 메 고 군 세 계 전 진 하 는



우 리 이 동 - 위 - 기 조 국 이 있 다

전선의 용사

윤중현 작사
이혁 작곡



네 와 - 나 는 이 전 - 선 지 키 - 는 용 사
네 와 - 나 는 이 전 - 선 하 나 - 의 목 숨



어 제 - 밤 도 고 지 에서 함 - 께 - 새 윗 다
새 벽 - 별 을 바라 보며 철 책 선에 나 섰 다



글 계 잡 은 총 검 - 에 힘 을 - 너 주 어
마 주 보 는 적 진 앞 에 철 모 - 끈 죄 고



가 습 속 에 새 겠 노 라 군 인 의 길 을
오 - 늘 도 외 쳐 보 는 별 공 의 함 성



적 탄 의 비바 람 이 세 차 세물 아 쳐 도
원 수 의 붉은 이 리 예 지 어 밭 어 와 도



목 숨 다 해 지 키 리라 피 맺 힌 전 선
목 숨 다 해 싸 우리라 전 선 의 용 사

충무공(忠武公)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 8 >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공(公)은 모친(母親)의 상중(喪中)에
막내 아들 면마저 왜적의 무리에 숨을 거두니 그 비분함이야 ……」

편 집 실(編輯室)

21. 명량대승첩(鳴梁大勝捷)

충무공(忠武公)이 벽파진(碧波津)에 이르러서는 문득 남 모르는 전략을 생각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9월 15일에는 12척과 전선과 부하 장병들을 이끌고 벽파진(碧波津)을 떠나, 우수영으로 올라 갔던 것이다.

「9월 15일, 나는 조수를 타고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서 진(陣)을 우수영(右水營)(해남군(海南郡) 문내면(門內面)) 앞바다로 옮겼다. 그것은 벽파정(碧波亭) 뒤에 명량(鳴梁)이 있는데 수효 적은 수군으로 명량(鳴梁)을 등지고 진(陣)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되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필사즉생(必死則生), 필생즉사(必生則死)) 했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일부당경(一夫當徑), 족구천부(足懼千夫))는 말도 있는데 모두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군율(軍律)대로 시행해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 하고 약속했다. (정유(丁酉) 9월(月) 15일(日))

과연 엄격한 명령이었다. 공(公)은 특히 이곳의 지형과 조수의 밀고 썬는 것을 보고, 하나의 전략을 생각하고서, 명량해협(鳴梁海峽) 뒷머리에 있는 우수영으로 진을 옮겨진 것이었다.

명량(鳴梁)은 바다의 조수라 하기보다는 어떤 폭포가 쏟아지는 강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곳이다.

바닷목은 좁고 물살은 세고 빨라, 호수(湖水) 우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데다. 그래서 이곳을 일러 「울돌목」이라 부르는 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은 바로 이 지리적 특색을 이용하려는 전략으로, 짐짓 명량(鳴梁) 위에 있는 우수영에다 진을 치고, 서쪽으로 올라오는 적을 막아 싸우려 했던 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이 우수영으로 진을 옮겼던 9월 15일 밤에,

「이날밤 신인(神人)이 꿈에 나타나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고 하는 것이었다.」

고 공(公)의 일기에 적어 둔 것이 있음을 본다. 이야말로 지성 소치인 것이다.

그 밤을 자고 난 9월 16일! 동서고금(東西古今)에 유례가 없는 명량해전(鳴梁海戰)이 벌어졌다.

공(公)의 친필일기(親筆日記)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보자.

「이른 아침에 특별 정찰부대가 달려와서 적선 무려 2백여척이 명량(鳴梁)을 거쳐 곧장 우리 가 진치고 있는 이곳 우수영(右水營)을 향해 들어온다고 한다.」

이 정찰 부대는 충무공(忠武公)에게 직속되어 있던 망군(望軍) 임준영(任俊英)의 이름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곧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려 바다로 나갔다. 그러자 적선(敵船) 1백 33척이 우리 배를 에워싸는 것이었다.

여러 장수들은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대적(對敵)하는 것이라, 스스로 낙심하고 모두 회피할 피만 내는데, 전라(全羅) 우수사 김억추(金億秋)가 탄 배는 벌써 2마장 밖에 나가 있었다.」

여기에서 2마장이란 것은 8백 「미터」를 이름이요, 이 때 김억추(金億秋)만이 아니요, 장수들 거의 전부가 겁만 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노를 바빠 저어 앞으로 돌진하며, 지자(地字), 현자(玄字) 등 각종 총통을 마구 쏘았다. 탄환은 폭풍우와 같이 쏟아지고, 군관들이 배 위에 촘촘히 들어서서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적들이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다 하기만 했다.」

충무공(忠武公)은 자기 몸소 죽음을 무릅쓰고 진두(陣頭) 지휘함으로써 사기(士氣)를 올리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겹으로 둘러 싸여서, 형세가 어찌될지 알 수 없었다.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 보니 모두 얼굴빛이 질려있었다. 이때 나는 조용히 타일렀다. 적선이 비록 많다 해도 우리 배를 침범치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을 동하지 말고 힘을 다 해서 적을 쏘라고 했다.」

충무공(忠武公)은 그렇게 급할 때에, 그렇게 힘찬 말로 그렇게 침착하게 군사들의 기운을 돋우기에 전력을 기울였었다.

「여러 장수의 배들을 돌아보니 먼 바다에 물러가 있는데 배를 돌려 군령(軍令)을 내리자니, 적들이 더 대들 것이라, 나라도 물러나도 못할 형편이 되었다. 영각(令角) (호령하는 나팔)을 불어 중군령 내리는 기를 세우게 하고 또 초요기(招搖旗) (군사(軍士) 부르는 깃발)를 세웠더니,

중군장 미조항(彌助項) 첨사 김응성(金應誠)의 배가 차차 내 배 가까이 왔으며, 거제(巨濟) 현감 안위(安衛)의 배가 그보다 먼저 왔다.」

충무공(忠武公)은 그들에게 외쳤다.

「안위(安衛)야, 군법에 죽고 싶으나. 내가 군법에 죽고 싶으나.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응성(應誠)아, 너는 중군으로서 멀리 피하여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지만 정세(情勢)가 급하므로 우선 공을 세우게 둔다.」

「그래서 두 배가 적진을 향해 앞서 나갔다. 그 때 적장이 탄 배가 그 휘하의 배 2척에 지령하여, 일시에 안위(安衛)의 배에 개미 붙듯하여 서로 올라가려 하자 안위(安衛)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혹은 모난 몽둥이로, 혹은 긴 창으로 또 혹은 수마석(水磨石)덩어리로 무수히 치고 막다가 마침내 기진맥진해졌다.」

이같이 부하의 배가 위급하게 된 것을 본 충무공(忠武公)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나는 뱃머리를 돌려, 그 쪽으로 쫓아 들어가, 총과 화살을 빗발치듯 마구 쏘았다. 적선 3척이 모두 없어지자 녹도만호(鹿島萬戶) 송여량(宋汝暲), 평산포 대장(代將) 정응두(鄭應斗)의 배가 뒤 따라 와서 협력해 쏘아, 적들은 한 놈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이냐. 어깨가 으쓱 해지고, 주먹이 쥐어지는 피끓는 기록이다.

「일찍 투항해 온 왜인 준사(俊沙)란 자가 내 배에 같이 타고 있다가, 바다에 빠져 있는 적을 굶어보더니 그림무늬 놓은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안골포(安骨浦) 적장 마다시(馬多時)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무상(無上) (물길는 군사(軍士)) 김돌손(金玆孫)을 시켜 갈고리로 낚아 올린 즉 준사(俊沙)가 좋아 날뛰면서, 분명 마다시(馬多時)라고 말하므로, 곧 명령하여 토막을 자르게 하자 적의 기운은 꺾여지고 말았다.」

이때의 왜인 준사(俊沙)란 자는, 본시 안골포 적진 속에서 죄를 짓고 충무공(忠武公)에게로 와서 투항한 자요, 마다시(馬多時)라는 왜장은 내도총통(來島通總)이었다.

「우리 배들은 적이 다시 범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일제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 들어가, 지자(地字)-현자(玄字) 대포를 쏘니 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고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 적선 31척을 깨뜨리자 적선이 퇴각하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것이 충무공(忠武公) 자신의 일기에 적힌 명량해전(鳴梁海戰)의 승첩기사 전문이었다. 일기 그대로 귀중한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려니와, 12척 적은 배로써 1백 33척의 왜적을 무찌른 그 날의 승첩이야말로 세계해전사상(世界海戰史上)에 오직 여기만 있었던 특이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 날 이 전쟁을 보고 있던 피난민들은 양쪽 언덕 위에 모여서서, 적선은 바다를 덮었는데 우리 배는 겨우 12척인 것을 보고, 대포 소리와 검붉은 불연기 속에서 충무공(忠武公)인들 어찌 살 수 있으랴 하며 서로 붙들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온 것은 다만 통제사 믿고 왔는데, 오늘 형편이 이러하니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인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전쟁이 끝나고 연기가 걷힌 뒤에 보니 적선은 물거품같이 다 없어지고, 우리 배 12척은 하나도 상함없이 그대로 동실동실 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기쁨! 그 놀라움! 그 통쾌함! 피난민들의 환호성은 진도(珍島) 우수영(右水營)의 천지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이 때 충무공(忠武公)은 피난민들과 이같은 문답을 주고 받았다.

충무공(忠武公)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피난민 「사또 믿고 따라 왔읍니다.」

충무공(忠武公) 「내가 하라는대로면 너희들이 살 것 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겠느냐?」

피난민 「무엇이나 명령대로 쫓겠습니다.」

충무공(忠武公) 「지금 날씨는 추운데 장수들이 옷도 없고 밥도 없으니, 무슨 힘으로 적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쓰고 남은 옷과 양식을 조금씩이라도 보태어 주면 그것으로써 적과 싸울 수 있고 그래서 너희들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대중들은 즐거이 서로 다투어 옷과 양식을 가져 왔다. 그래서 공(公)은 과연 그것으로써 군사들을 먹이고 입혀, 그날의 전쟁을 치러 내었던 것이다(〈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행록(行錄)).

충무공(忠武公)은 이같이 사랑과 대화로써 국민 대중을 대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충무공(忠武公)을 따랐던 것이다.

이 명량해전(鳴梁海戰)의 승첩(勝捷)이 서울에 알려지자 우리 조정에서는 물론이요, 명(明)나라 장수들까지도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었다. 명(明)나라 경리(經理) 양호(楊鎬)는 우리 선조대왕(宣祖大王)에게,

「순신(舜臣)이 흠어진 나머지에서 전선(戰船)을 거두어, 능히 큰 공을 패한 곳에서 세웠으니 지극히 가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자(銀子)와 비단으로서 상을 주려 합니다.」 하고 아뢰기까지 했었다. (〈선조실록(宣祖實錄)〉 권(卷)93, 정유(丁酉)10월(月)).

이 전쟁의 승첩은 너무도 기적적이어서 보통 군사상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양(楊) 경리(經理) 뿐 아니라, 명(明)나라 장수들 전부가 충무공(忠武公)의 신기한 전술에 탄복하여 서로 다투어 축하의 선물을 보내 왔던 것이니, 유격(遊擊) 계금(季金), 천은(千揆) 강인약(江麟躍) 등 15명이었으며 그들이 보낸 축하 선물의 점수는 모두 70점이나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현충사(顯忠祠)에 보관 되어 있는 금대(金帶)는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에게서 받은 것이요, 화주배(花酒盃) 한 쌍은 파은(把摠) 진국경(陳國敬)에게서 받은 것임을 나는 진작 밝혀 둔 바 있었다.

충무공(忠武公)이 명량(鳴梁)해전에서 승첩한 날 밤은 당순도(唐荀島) (무안군(務安郡) 암태면(岩泰面))에서 자고 다시 옥구(沃溝)땅 고군산도(古群山島)로 올라 갔었다.

충무공(忠武公)은 이 섬에 이르러 무릇 열흘 동안이나 머물렀었다. 전쟁 뒤라 그랬던지 몸이 몹시 불편했고 허한조차 흘러면서 신음 속에서 지냈었다(9월(月) 21일(日)부터 10월(月) 1일(日)까지).

또 명량(鳴梁)해전의 승첩 장계를 이 섬에서 초했었는데 (9월(月) 27일(日)), 그같이 중요한 장계가 보관되지 못하여 지금은 상고할 길 없음이 한스럽다.

또 그때 병조(兵曹)에 소속된 역자(驛子)가 공문을 가지고 내려와서,

「아산(牙山) 집이 왜적들에게 분탕질을 당해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읍니다.」 (정유(丁酉) 10월(月) 1일(日))

하고 소식을 전하자 충무공(忠武公)은 곧 마안들 회(薈)를 서해(西海)로 해서 아산(牙山) 본택으로 올려 보낸 곳이 역시 이 섬이었다.

그 뒤 충무공(忠武公)은 다시 이곳을 떠나 우수영(右水營)으로 돌아온 것은 10월 9일이었다.

「우수영으로 돌아와 보니 성 안팎에 인가(人家)라고는 모두 없어지고, 또 사람의 그림자조차 하나 없어 보기에 참담하기 이를 길 없다.」 (정유(丁酉) 10월(月) 9일(日) 일기(日記))

참으로 기막힌 정경이었다. 명량해전(鳴梁海戰)에서 참패를 당한 왜적들이 한쪽으로는 충청도(忠淸道)로 올라가 충무공(忠武公)의 본가(本家)에 보복으로 불을 질렀고, 또 한쪽으로는 해남(海南)으로 쳐들어와 역시 민가에 불을 질러 보복했던 것이다.

22. 아들 면의 전사(戰死)

충무공(忠武公)은 우수영(右水營)에서 10월 14일의 일기에 이같은 기사를 적었다.

「새벽 2시쯤 꿈에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를 달리다가 말이 헛디터 넷 가운데 떨어지긴 했으나 거꾸러지지는 않았는데 막내 아들 면(勉)을 붙들어 앉는 형상을 하다가 그만 깨었다.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쓰기를,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天安)서 와서 집안 편지를 전하는데 걸봉을 뜯기도 전에 빼와 살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혼란해졌다. 걸봉을 대강 뜯고 보니 속봉투 위에 예(悅)(둘째 아들)의 글씨로 「통곡」 두 자가 씌어 있어 면(勉)이 전사한 것을 알고 간담이 떨어져 목을 놓고 통곡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쓰기를,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박정하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만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이치에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렇게 어긋난 일이 어디 있던 말이나.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기로 하늘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는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화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 있은들 누구에게 의지한단 말이나. 너를 따라 같이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며 같이 울고 싶건만 네 형, 네 누이, 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아직은 참고 연명이나

한다만, 속은 다 썩고 형상만 남아 있어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했다. 잠으로 애통한 문자다. 이 위에 더 곡진(曲盡)할 수 없는 피맺힌 글이다.

충무공(忠武公)은 19일에도 밤새도록 눈물을 지었다. 그러다가 코피를 한 되 남짓이나 흘리기까지 했다.

지난달 명량해전(鳴梁海戰)에서 참패한 적들이 보복으로 아산(牙山) 고을을 찾아가 충무공(忠武公)의 본가는 물론이요, 온 마을을 불지를 적에 면(勉)은 그때 어머님을 모시고 고향집에 있다가 그것을 보고 비분함은 참지 못해 적군들 속으로 달려 들어가 싸우다가 마침내 길 옆에 숨어 있던 왜적 복병(伏兵)의 칼에 맞아 순국하니 미혼(未婚)의 총각 몸으로 나이는 21세이었다.

이 아들이 전사한 뒷이야기로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 행록(行錄)에 이런 기이한 기사가 실려있다. 그로부터 넉달이 지난 뒤 충무공(忠武公)이 고금도(古今島)에 진치고 계실 적에 어느 날 낮에 잠깐 졸고 있노라니 꿈에 면(勉)이 울며 나타나,

「날 죽인 적을 아버지께서 죽여 주십시오.»

하므로 공(公)은,

「네가 살아서 힘이 장사였는데 죽어서는 그 적을 못죽이겠단 말이나.»

하자 면(勉)은 다시,

「제가 그 놈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 놈을 못 죽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이어 하는 말이,

「아버지로서 자식의 원수를 갚는 일에 저승과 이승이 무슨 간격이 있겠습니까. 원수를 같은 진중에 두어 두고도 제 말을 예사로 듣고 죽이지를 앓는단 말입니까.»

하고 슬피 울면서 가버리므로, 공(公)은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나 새로 잡아온 왜적 포로 한놈이 배 안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잡아내어 그놈의 한 일을 자세히 심문해 보니 과연 그 놈이 면(勉)을 죽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동강내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었다(行錄).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이 너무도 애통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혼이 충무공(忠武公)에게 감응(感應)되었던 것이리라.

23. 고하도(高下島) 이진(移陣)

충무공(忠武公)은 우수영에서 20일동안 머무른 뒤에 이곳을 떠나 목포(木浦)를 향해 가다가, 건너 편 보화도(寶花島)(지금의 고하도(高下島))에 배를 대고 살펴보니 서북풍을 막을만도 하고 또 배를 감추어 두기에도 적당한 곳인 데다가, 섬에 내려서 육지로 올라가 보니, 더욱 더 진을 칠 만한 곳이므로 여기다 자리를 잡기로 결정하니, 10월 29일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은 여기서 진치고 거할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새집 짓는 곳으로 올라가 친히 감독도 했었다.

어느 때는 너무도 추워서 군사들과 함께 배 밑에서 같이 웅크리고 앉아 탄식(歎息)도 했고(11월(月) 1일(日)), 또 전사한 아들을 그리며 애통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기도 했다(11월(月) 7

일(日), 23(日)).

그러나 그보다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일은 선조(宣祖)대왕이 충무공(忠武公)에게 어머니 상중(喪中)이라고 해서 구태어 채소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어 힘을 내라고 유서(諭書)와 함께 고기 반찬을 내리기까지 한 그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은 고하도(高下島)로 진을 옮긴 뒤에 가장 문제되는 점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한 일이 있었으니, 무엇보다도 군량문제가 그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의 승첩 소문이 퍼져 나가자, 군사들이 제 발로 모여든 것까지는 좋으나 그럴수록 군량이 가장 문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본적인 군량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추운 겨울을 날 수도 없고, 또 전쟁을 치를 수도 없을 것이므로 혼자 스스로 연구한 끝에 해로통행첩(海路通行帖)이란 것을 구상해 내었다.

「3도 연해를 통행하는 배는 공사선(公私船)을 막론하고, 증명서(帖紙)가 없는 배는 간세(奸細)(간첩(間諜))로 인정하고 통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모두 와서 통행첩(通行帖)을 받도록 하라.» <선묘중흥지(宣廟中興志)> 고 명령을 내렸다.

모든 피난민들은 하나도 빠짐 없이 모여 들었다. 그 때 공(公)은 배의 대(大) 중(中) 소(小)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의해서 큰 배는 3섬, 중간배는 2섬, 작은 배는 1섬을 바치고 통행첩(通行帖)을 받아가게 했다.

공(公)은 또 한편으로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흩어진 군사들을 불러 모으며, 구리와 쇠를 거두어 들여, 대포를 새로 만들고 나무를 찍어다가 배를 만들며, 백성들에게 각기 생업을 주어 장사도 하게 했던 것이다.

24. 고금도 이진(古今島 移陣)

이로부터 충무공(忠武公)은 다시 완전히 제해권(制海權)을 그 손에 쥐었다. 그래서 왜적이 서해쪽으로는 한 척의 배도 얼른거리지 못했다.

공(公)은 정유년(丁酉年) 겨울을 지나, 54세 되던 전쟁 마지막 해 무술년(戊戌年) 2월 17일에 해군 8천여명을 이끌고 고금도(古今島)(지금 완도군(莞島郡) 고금면(古今面))로 진을 옮겼다. 충무공(忠武公)은 고금도로 들어가, 지금 덕동(德洞)에 진을 쳤다.

「공(公)이 고금도에 이르렀을 때는 군대의 위세도 장했거니와 섬안에 민가만도 수 만호에 이르러, 옛날 한산도 시대보다도 오히려 10배나 되었었다.» (<징비록(懲毖錄)> 권(卷)2) 한 기록이 바로 그때의 현상을 증거해주고 있다.

충무공(忠武公)이 고금도(古今島)에 진을 옮긴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명(明)나라 수군도독(水軍都督) 진린(陳璘)이 절강(浙江) 수군 5백여척을 거느리고 충청도 당진(唐津)에 도착한 것은 무술년(戊戌年) 2월 1일이었다.

그의 성격이 너무도 포악한 것을 유성룡(柳成龍)은 그의 <징비록(懲毖錄)>에 이같이 적었다.

「임금이 청파(靑坡)들까지 나와, 전라도로 내려가는 진린(陳璘)의 군사가 노끈으로 찰방(察

訪) 이상규(李尙規)의 목을 매어 끌어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같이 앉았던 대신들에게 말하되 야갑게도 이순신(李舜臣)의 군사마저 또 패하겠구나. 저러한 진린(陳麟)과 군중에 같이 있으면 견제(牽制)를 당하고 의견이 서로 틀려서 반드시 장수의 권한을 빼앗고 우리 군사들을 학대할 것이다. 어찌 순신(舜臣)의 군사가 안 패하겠는가 했더니 모두들 그렇다 하고 서로 탄식할 따름이었다.» (〈징비록(懲毖錄) 권(卷)2)

이같이 포악한 명(明)나라 수군도독(水軍都督) 진린(陳麟)이 충무공(忠武公)이 진치고 있는 고금도에 도착한 것은 실로 7월 16일이었던 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은 진린(陳麟)의 배가 바다 위에 보이기 시작하자 군대의 의식을 갖추어 멀리까지 나가 영접하고 그와 그의 부하 장병들을 만족하게 먹였더니 그는 첫날부터 공(公)에게 경외(敬畏)하는 생각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명(明)나라 군사들 전부가 서로 이르기를,

「과연 훌륭한 장군이라.»

하고 탄복했던 것이다.

고금도 안에서도 충무공(忠武公)이 진을 친 곳은 덕동(德洞)이요. 명(明)나라 수군도독(水軍都督) 진린(陳麟)이 진을 친 곳은 거기서 서쪽으로 약 2백 「미터」 떨어진 묘당도(廟堂島)였던 것이다. 7월 18일이었다.

적선 1백여척이 녹도(鹿島)방면을 침범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충무공(忠武公)과 진도독(陳都督)은 각각 소속 전선을 거느리고 동쪽에 있는 금당도(金堂島)(완도군(莞島郡) 금일면(金日面))로 나갔다.

공(公)과 진도독(陳都督)은 거기서 밤을 드새고 도로 본진으로 돌아오며 공(公)은 녹도 만호 송여량(宋汝淸)으로 하여금 정예선 8척을 이끌고 좀 더 동쪽으로 절이도(折爾島)(지금 고흥군(高興郡) 금산면(錦山面) 거금도(居金島))에서 복병(伏兵)케 하고, 진도독(陳都督)도 역시 저희 배 30척을 같이 머물러 있어 대비하게 하였다.

그런지 6일 뒤 7월 24일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은 진도독(陳都督)을 운주당(運籌堂)으로 초청하여 다시 위로의 술잔을 대접하고 있었는데, 이때 도독의 부하 천총(千摠)(군중 장관직) 한 사람이 절이도(折爾島)로부터 와서, 「새벽에 적을 만나기는 했으나 조선수군(朝鮮水軍)들이 다 잡아버리고 명(明)나라 수군들은 풍세가 순하지 않아 싸우지 못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도독은 금시로 크게 노하여 술잔을 집어 던지고 술상을 발로 박차며 벼락같은 호령으로 천총(千摠)을 잡아내어 큰 벌을 줄 기색이라 공(公)은 그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노부(老翁)! 우리가 잡은 적의 머리 전부를 노부(老翁)께 드릴 것이니 노부(老翁)께서는 이것으로써 본국의 황제(皇帝)폐하께 승첩을 아뢰시면 얼마나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했다.

공(公)의 이 말 한 마디에 진도독(陳都督)은 너무도 기뻐 공(公)의 손목을 덥석 잡고,

「내가 우리 본국에서부터 공(公)의 이름을 익히 들었더니, 과연 허명이 아니었군요.»

하며, 그로부터는 진도독(陳都督)도 공(公)을 대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부(老翁)라고 존칭해서 부르는 것이었다.

그 사연을 들은 우리 조정(朝廷)에서는 공(公)에 대하여 모두들 감탄하기를 말지 못했다.

그런 일만이 아니었다. 공(公)은 진도독(陳都督)의 부하수군 전체를 지휘하게 된 일이 있었다.

명(明)나라 수군들은 고금도(古今島)에 도착한 뒤로 우리 민가를 함부로 드나들며 왜적 이상으로 약탈을 자행하는 것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은 그같은 약탈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공(公)은 어느 날 군중에 명령을 내려 크고 작은 집들을 동시에 헐게 하고 또 자기의 침구와 의복들을 배에다 옮겨 싣게 했다. 도독은 이 소식을 듣고 부하를 보내어 그 까닭을 묻는 것이므로 공(公)은 대답했다.

「우리는 귀국(貴國) 수군을 하늘같이 믿었는데 도리어 약탈을 심히 하므로 우리 백성들이 모두 여기를 떠나려합니다. 나는 이 나라 대장이라 혼자 여기 남아 있을 수가 없어 같이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도독은 깜짝 놀라 뒤꿈박질로 달려와 공(公)의 손목을 잡고 만류하는 것이었다.

이때 공(公)은 정중한 말로,

「그럼 대감도 내 말을 들어주시오. 귀국 군사들의 잘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 서로 보존할 도리가 있겠습니다.»

하자 진도독(陳都督)은 두 말 없이 그대로 할 것을 승락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로부터 명(明)나라 수군 한 사람도 우리 민가를 침범하지 못했거니와 진도독(陳都督)은 충심으로 충무공(忠武公)의 인격에 감화되고 능력에 경탄한 나머지,

「공(公)은 과연 작은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에 가면 나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할것입니다.»

하며, 중국으로 가자고 권하기를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公)은 물론 웃을 뿐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이 고금도(古今島)에서 진치고 있던 동안, 전쟁 마지막 해 무술년(戊戌年)(서기(西紀) 1598년(年) 8월 18일! 이날은 임진란의 원흉 풍신수길(豊臣秀吉)이 마침내 복견성(伏見城)에서 숨을 거둔 날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청정(淸正)·행장(行長)·의홍(義弘) 등 왜적들은 전부가 철귀(撤歸)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충무공(忠武公)은 내 동포의 피를 헛되이 흘려버리고 말게 할 수는 없었다. 공(公)은 언제나 「한 척의 배도 못 돌아간다」(편범불반(片帆不返))는 것으로써, 전쟁에 임하는 결의를 삼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우리는 아직 수길(秀吉)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적들이 철귀(撤歸)하려 한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충무공(忠武公)과 진도독(陳都督)은 합의한 끝에 고금도를 떠나 적극적인 출격 태세를 갖기로 하였다.

25. 왜교(倭橋)의 전투(戰鬪)

충무공(忠武公)과 진도독(陳都督)의 연합함대는 9월 15일에 고금도를 떠났다.

진도독(陳都督)은 충무공(忠武公)이 하자는대로 나섰다. 그같이 오만 포악한 진도독(陳都督)도 이제 와서는 완전히 충무공(忠武公)의 지휘 아래 공손한 추종자가 되고 말았다.

이 때 충무공(忠武公)의 출격 목표는 순천(順天) 예교(曳橋)에 진치고 있는 소서행장(小西行長)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은 유도(柚島)로 진군했다. 유도(柚島)는 지금 광양(光陽) 앞바다 골약면송도(骨若面松島)를 이른다. 행장(行長)이 진치고 있던 예교(曳橋)로부터 겨우 물길로 5「킬로」정도 앞에 있는 섬이다.

육지에는 명(明)나라 유정(劉挺)의 군대가 뒷덜미를 누르고 있어, 수륙 연합 공격으로서 행장(行長)을 떨게 했었다.

이 때 왜적들은 각터마다에서 초조하기 시작했다.

그릴수록 우리 측의 기세는 더욱 더 강성했던 것이니, 공(公)의 9월 30일 일기에 「이날 저녁 명나라 유격(遊擊) 왕원주(王元周)·복일승(福日昇), 파총(把總) 이천상(李天常) 등이 배 1백여 척을 거느리고 진에 왔다. 이날 밤 등불 빛이 휘황하여 적도들의 간담이 떨어졌을 것이다.」

했던 만큼 우리 수군들의 기세는 참으로 왕성했었다.

이튿날 10월 초1일, 명(明)나라 수군 도독(都督) 진린(陳璘)이 육군 제독 유정(劉挺)을 찾아가 군사에 대한 밀담(密談)이 있었고 초2일에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되었다.

물론 육군의 유정(劉挺)의 군대와 함께 수륙 합공이었다.

우리 수군들은 빗발같은 적탄을 무릅 쓰면서 행장(行長)이 있는 왜성(倭城) 60보 앞에까지 진격했으나 웬 일인지 유제독(劉提督)의 진격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는 새에 조수가 물러나는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 수군은 부득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명(明)나라 군사들만 머뭇거리고 있다가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다만 그 때 전사한 황세득(黃世得)은 공(公)의 부인의 사촌 오빠였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이 공(公)에게 조문을 드리자 공(公)은 도리어 말하되,

「세득은 국사에 죽었으니 그 죽음이야말로 영광스럽다.」(세극사어왕사(世得死於王事) 기사야영(其死也榮))

했다. 참으로 충무공(忠武公)다운 대답이었다.

순천(順天) 왜교(倭橋)에 있는 소서행장(小西行長) 하나를 상대로 하고 조(朝)·명(明) 연합수군과 명(明)나라 육군이 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일, 3일의 1차, 2차 전투에서 왜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가.

제1차 전투에 대해서도 이덕형(李德馨)은 「유(劉)제독의 태도가 극히 의심스럽다」하고 장계를 올린 일이 있었거니와 제2차 전투에 대해서도,

「초3일 수군이 조수를 타고 와서 피나게 싸웠읍니다. 대표로써 행장(行長)의 방을 맞히자 왜적들은 황급하여 모두 동쪽으로 몰렸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서쪽을 트고 들어갔더라면 성은 함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김수(金晬)(유정(劉挺)의 접반사(接伴使))가 진격을 청했으나 정(艇)은 노하기까지 하면서 끝내 동원령을 내리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어 마치 낫빠진 사람같이 얼마나 통분한 일이었더냐. 더우기 유(劉)제독은 군량조차 내버리고 순천방면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그래서 충무공(忠武公)도 10월 9일에 진도독(陳都督)과 함께 순천 앞바다를 떠나, 다시 일단 고금도 본진으로 돌아왔다가 11월 9일에 다시 고금도를 떠났다.

바닷가에는 수 많은 피난민들이 떼지어 나와 떠나가는 충무공(忠武公)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충무공(忠武公)이 이날로써 고금도를 떠나간 뒤에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고, 또 충무공(忠武公) 자신도 열흘 뒤에 닥쳐올 운명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은 다시 순천 왜교 앞바다에 도착했다. 10여척의 적선이 바다로 나왔다가 공(公)에게 쫓겨 들어가고, 공(公)은 그대로 왜교의 바로 앞에 있는 장도(獐島)(광양군골약면(光陽郡骨若面))에 진을 쳤다(11 월(月) 13일(日) 일기(日記)).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 진린(陳璘)과 소서행장(小西行長)과의 사이에는 더러운 교섭이 진행되었다. 진도독(陳都督)은 행장(行長)의 뇌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심지어 공(公)에게 적이 청하는 강화(講和)를 허락해 주자는 것을 명령하려고 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줄 충무공(忠武公)이 아님은 물론이었다.

「대장은 강화를 말할 수 없소. 그리고 원수를 그냥 놓아 보낼 수도 없소.」하고 말하는 충무공(忠武公)의 엄숙한 태도 앞에 도독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엔 행장(行長)이 충무공(忠武公)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총과 칼 등을 선물로 바치며 간절히 비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포복절도할 일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은 호령을 내렸다.

「임진년(壬辰年) 이후로 너희 왜적들을 무수히 잡았고 총칼 얻는 것도 산더미같이 쌓였다. 어서 가지고 물러 가라.」

고 하여 심부름 왔던 왜적은 달아나다사피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실패한 행장(行長)은 또 다시 진린(陳璘)에게 대량의 뇌물을 잇달아 보내며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애걸하자, 진린(陳璘)도 부득이 뇌물값을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는 공(公)을 찾아와 영동한 말을 했다.

「나는 잠깐 행장(行長)을 버려두고 먼저 남해(南海)로 가서 거기 있는 적들을 토벌하려고 하오.」

하는 것이었다. 공(公)은 물론 진린(陳璘)의 뜻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말에 항의했다.

「안 되오. 더우기 남해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모두 포로된 우리 동포들이오.」

하자, 진린(陣璘)은 다시 말하되,
 『그러나 이미 적에 붙었으니, 적과 마찬가지로 아니오.』
 하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한편으로는 수고 없이 사람의 머리를 베어 적의 머리라고 보고하여 전공(戰功)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은 그의 하는 것이 너무도 껄뻐해서,
 「귀국 황제의 명령이 적을 무찔러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라 한 것인데 장군은 도리어 적을 살려 보내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하고 또 한 번 꾸짖듯 항의하자, 진린(陣璘)은 부끄러운 끝에 문득 허리에 찔던 칼을 빼들고,
 「이 칼은 우리 황제께서 주신 것이오.』
 하며 충무공(忠武公)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때 공(公)도 마주 일어서며 태연한 자세, 엄숙한 목소리로,
 「한 번 죽는 것은 아깝지 아니하오. 나는 대장이 되어 결코 적을 놓아주고, 내 동포를 죽일 수는 없소.』
 하자, 진린(陣璘)은 공(公)의 동포애와 정의감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잘못된 것을 사과했던 것이다.
 행장(行長)은 진린(陣璘)에게 마지막 청으로,
 「저희들 여러 진으로 사람을 내 보내어 같이 돌아갈 것을 약속이라도 하게 해 주시오.」(선묘중흥지(宣廟中興志))
 하여 린(璘)의 허락을 받고 작은 배 한 척을 내보냈다. 이것은 물론 행장(行長)의 간사한 꾀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충무공(忠武公)은 급히 군관 송희립(宋希立)과 해남(海南) 현관 유휴형(柳曄) 등 여러 장수들을 불러 의논했다.
 「적의 통신선(通信船)이 나갔으니 반드시 적의 후원군이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복배수적(腹背受敵)이 될 것이라 미리 한 바다로 나가서 전투를 결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는 결론을 얻었다.
 진린(陣璘)의 배신행위 하나가 장차 큰 화를 불러 오게 된 것이다.



단편소설

살모사

이 범 선 (李範宣) 작(作)

삐걱 삐걱 차체를 뒤틀며 종로 네거리를 을지로 입구 쪽으로 돌고 있는 전차 창문에 붙어서서, 더위에 축 늘어진 거리를 막연히 내다보고 있던 나는 흠칫 놀랐다.

거기, 건너는 길목에 서서 신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분명 살모사(殺母蛇)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가슴이 섬뜩하였다. 나는 얼른 뒷 창문계로 다가갔다.

신호가 열린 모양이었다. 기다리고 서 있던 사람들이 양편에서 와르르 차도로 들어섰다. 나는 그 사람들 틈에서 다시 살모사를 확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미처 살모사를 찾아내기 전에 전차는 이미 을지로 입구 쪽으로 쑥 돌아 나와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나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강파른 몸매하며, 찌푸린 미간에 독살스레 곤두세운 세모진 눈하며, 매부리 코 밑에 꼭 악물은 유난히 얇은 입술은 틀림없는 살모사였다.

다만 의심하자면, 그 살모사가 어찌하여 이 서울에, 그도 종로 네거리에 있는가 하는 그 점 뿐이었다.

나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갔다.

열 세살 소년인 나는 이북에 있는 내 고향 보통학교(지금은 공산치하에서 인민학교로 그 명칭이 변했겠지만) 6학년 교실에 가 섰다. 같은 또래의 애들이 한 60명 모여서서 떠들고들 있다. 나는 한 반이던 그 애들의 얼굴을 기억 속에서 하나 하나 더듬어 보았다.

친하던 순서대로 그들을 대개 다음과 같이 세 층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이름과 별명과 그리고 얼굴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가장 친하던 몇몇 애들, 그리고 다음은 메기, 도깨비, 염소, 미친개 따위 기괴한 별명과 함께, 마치 그 별명에 맞추어서 태어나거나 한 것같은 인상만이 선히 남고 막상 중요한 그 본명은 어디론가 빠져버린 애들, 그리고 맨 끝으로는 그 이름도 또 별명도 모습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의미없는 웃음만을 헤헤 웃고 있는, 말하자면 그림의 배경같은 많은 애들.

그런데 그 중에 꼭 한 애, 예외가 있었다.

친하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친하기는 커녕 가장 싫어하고 꺼리던 애면서, 아직 그 이름과 별명과 그리고 인상이 너무나 똑똑히 기억 나는 애. 그 애가 바로 본명이 궁남(弓男)이고 별명이 살모사였다.

우선 그 성부터가 전교 내에 단 하나인 궁(弓)이었던 그는 정말 괴팍스러운 애였다.

그의 세모진 두 눈에는 항상 독기가 가득 차 있었고, 칼로 쪽 금만 찢 것같은 얇은 입술은 꼭 악물어 살기가 싸늘하게 서려 있었다.

어쩌다 누가 한 마디 뭐라고 하거나 하면, 과히 거슬리는 말도 아닌데 그는 팍하고 성이 나 마주 돌아서서는,

「뭐? 뭐야 이 씨끼야」

하며 입 안에서 어금니를 아드득 가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렇게 모든 애들을 그저 적대시하려고만 드는 그를 좋아하는 애가 있을 리 없었다. 그래 누가 맨 처음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살모사라는 별명 그대로 정말 뱀을 대하듯이 모든 애들이 그를 꺼렸고, 따라서 그는 점점 더 비틀려 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나는 그 살모사와 한 책상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6학년 초였다.

선생님은 전반 애들을 키 순서대로 운동장에 세우고 번호를 부른 다음 우향 우, 하고 2열 중대를 만들었다. 그때 내 오른쪽으로 쭉 나선 애가 바로 살모사였다. 그것이 바로 돌썩 앉게 된 책상에 나란히 앉아야 하는 짝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자리를 정한 첫 시간이었다. 살모사는 선생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호주머니에서 연필 깎는 칼을 꺼내었다. 그러고는 책상 까만 판을 요리조리 재더니 꼭 반에다 금을 썰는 것이었다. 아니, 금을 썰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선생님의 눈을 피해가며 거의 한 시간이나 걸려서 거기 아주 도량을 팠다. 그러자 그는 나의 팔꿈치를 툭 건드리고,

「야, 이거 알디. 절대로 넘디 않기다.」

낮은 소리로 경고하며 책상 밑에서 칼을 한 번 세워 보였다.

나는 그보다 키는 크면서도 나이는 한 살 아래였다. 그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도무지 그와 뭐라고 마주 다룰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영악한 애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이었다.

그가 책상 밑에서 세워 보이는 그 칼만 해도 그랬다. 그 칼은 연필을 깎기 위한 어린애들의 칼 치고는 너무나 새파랗게 날이 서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도 그는 그 칼로 도깨비라는 별명을 가진, 반에서 세째로 큰애의 어깨를 찢은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날만 해도 따지고 보면 잘못은 살모사에게 있었던 것이다.

쉬는 시간이었다. 살모사가 지나가며 도깨비의 책상을 건드렸다. 그러자 책상 속에 들어있던 도시락이 떨렁하고 마루 바닥에 떨어지며 장아찌와 조밥이 몽땅 쏟아졌다.

살모사는 걸음을 멈추고 힐끔 돌아보았다. 도깨비라는 애는 어쩌나 보자는 듯이 살모사를 던지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살모사의 얼굴에는 일순 당황하는 표정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순간이었고,

「이 씨끼가 와 보니?」

하며 도리어 도깨비에게 대드는 것이었다. 분명 속으로는 잘못했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 소리를 못하는 살모사였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의 슬픈 성격이었는지도 모른다.

「요 씨끼가 요거 정말…」

체통이 커다란 도깨비가 가만 있을리가 없다. 어느 새 쥐어박았는지 살모사는 거기 책상 사이에 쓰러졌다.

도깨비는 상대도 안 된다는 듯이 쑥 돌아섰다. 그렇게 그가 돌아서서 자기 책상쪽으로 한 걸음을 걸어갈 때였다. 모여섰던 애들이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때는 벌써 살모사의 칼이 도깨비의 왼쪽 어깨에 꽂혀 있었다. 도깨비는 어깨를 움켜 쥐고 주저앉았고. 그 등 뒤에서 살모사는 그 얇은 입술을 꼭 악물고 아드득 어금니를 갈고 있었다.

그런 애가 살모사이고 보니, 그야말로 정말 살모사를 다루듯이 아주 그것을 때려서 죽여버리지 못할 바에는, 그저 적당히 지나쳐버리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나는 제법 슬기로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뭐 나만의 슬기가 아니라 그 때 그 6학년 애들 전원의 태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나와 살모사의 그 책상 경계에서는 거의 매시간마다 사소한 충돌사건이 발생하곤 하였다.

어쩌다 내 교과서의 한 모서리가 그 경계선을 조금 넘는 수가 있다. 그러면 살모사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나의 책을 핵 밀어 치우는 것이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책상에만 경계선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허공으로 연장하여 나의 몸과 살모사의 몸과의 사이까지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 옷자락이나 무릎이 어쩌다 그 허공에 연장된 경계선을 조금이라도 넘었다고 생각되면, 그는 연필이나 콤팩스나 삼각자 같은 것으로 사정없이 록 내리 찍는 것이었다. 그래 나는 공부 시간에 무의식 중으로 아야 소리를 지르고는 당황하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와 마주 싸우지를 않았다. 아니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일 싸운다면 힘은 거의 비등한 판이니까 때리고 맞고 피장 파장일지는 모르나, 내가 이길 가능성은 절대로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아주 없애버리지 못하는 한, 그는 반드시 나의 어깨에 칼을 꽂고야 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철저한데 비하여 도저히 그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쳐 놓을 자신이 없었던 나는, 반대로 아주 그를 너그럽게 대해 주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그는 또 그렇게 매사에 저주기만 하는 내 태도에서 이번에는 도리어 어떤 경멸같은 것을 느꼈던 모양으로 더욱 더 신경을 날카롭게하여 나의 표정과 말투까지를 살피기 시작하였다.

산수시간이었다. 쓰다 놓은 내 연필이 또르르 굴러 갔다. 소위 경계선을 3분지 2나 넘었다. 나의 손과 살모사의 손이 거의 동시에 그 연필을 한 끝씩 던졌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가운데로 하고, 나는 고무가 달린 쪽을 손으로 눌렀고, 그는 또 탄 쪽을 던졌다.

나는 그렇게 손으로 연필을 누른 채 우선 선생님의 얼굴부터 살폈다. 그런데 살모사는 한 손에 어느 새 칼을 피 들고 있었다. 나는 넋지시 연필을 끌어 당겼다. 그러나 연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살모사가 누르고 있는 부분은 연필의 거의 3분지 2였고, 내가 누르고 있는 부분은 겨우 고무가 달린 부분 뿐이었으니까 힘이 써지지 않을 것이다.

살모사는 파랑계 날이 선 칼을 나의 손끝으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경계선에서 연필을 짜를 작정이었다. 그는 칼을 연필에 가져다대고 나를 한 번 바라보았다.

그 때의 그 웃음, 어련때답지 않게 눈 꼬리와 입 가장자리에 잔주름을 지으며 소리 없이 웃던 그 때의 그 살모사의 야릇한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그의 그런 미소에서 얼음을 만진 때처럼 선뜻함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연필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그는 다시 연필로 얼굴을 돌렸다. 칼날을 경계선과 정확하니 맞추었다. 이제 그 산지 얼마 안 되는 파랑 연필을, 고무가 달린 바로 밑에서 두 동강으로 짜를 판인 것이다.

「그냥 너 가져.」

나는 어쩐지 그 연필을 마치 목을 자르듯이 고무 밑에서 싹 자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살모사는 연필 모가지에 칼날을 가져다 댄 채로 빙글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곧 결심한 듯이 얇은 입술을 꼭 악물면서 싹둑 연필을 자르고야 말았다. 정말 싹둑 잘랐다. 그렇게 그의 칼은 잘 들었다.

나는 때구루루 나의 공책 모서리로 굴러오는 그 연필 모가지를 보는 순간, 어쩐지 내 손가락 끝에 따가운 통증을 느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손에 쥐었던 연필동강을 이번에는 한 치만큼씩 짧게 몇 동강으로 고 난도질을 하는 것이었다. 싹둑 싹둑 정말 잘 드는 칼이었다.

그렇게 한 동강을 자를 때마다 그의 입술과 칼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어쩐지 그런 그가 겁이 났다.

수업이 끝났다. 반장의 구령에 의하여 모두 일어서서 선생님께 경례를 하였다. 그런데 살모사만은 일어설지 않았다. 그는 앉은 채 그 조그마한 연필 동강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궁남!」

선생님이 반 애들을 세워둔 채 그렇게 불렀다. 그는 여전히 못들은 채였다.

「궁남, 왜 안 일어나지?」

그래도 여전히 못들은 채였다.

「일어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살 해야지.」

40이 넘으셨던 선생님의 말씀은 부드러운데. 그래도 그는 꼼짝도 안했다. 그저 책상 위의 연필 동강들만 응시하고 있었다.

「궁남, 일어나!」

선생님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다.

「안 일어나?」

선생님의 음성이 약간 노기를 띠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는 마지 못하는 태도로 일어나 섰다.

「인사해 봐.」

일어서긴 했으나 이번에는 또 그대로 고개를 뺨뺨이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는 채 인사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살 해야지.」

「.....」

「인사 안 해?」

「.....」

「인살 해!」

또 선생님의 음성이 커졌다. 그러자 그는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 경례가 보통 경례가 아니라 90°로 허리를 굽힌 최경례(最敬禮)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니 꼬운 표정으로 그렇게 90°로 굽히는 경례를 꾸벅 꾸벅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반 애들이 와하하하 웃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분명 노기가 솟았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역시 능란하신 분이였다.

「그래. 그렇게 내가 다음 시간에 들어올 때까지 인살 계속하고 있어.」

하고 쓰게 웃으며 교실을 나가셨다.

반 애들은 그 때 살모사가 왜 그랬는지를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그 때의 그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 뒤로 나는 점점 더 그를 대하기가 힘들어졌다. 너그럽게 저주면 저주는 대로 그렇고, 그렇다고 그의 그 잔인도(殘忍度)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고. 그래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절대로 그와의 경계선을 건드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와 말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말을 하지 않고 지내면 따라서 별 사고가 나

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었다.

과연 그것은 현명한 방안이었다. 한 달쯤은 정말 말 한 마디 없이 지극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어떤 날 기어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그날은 나흘째 계속되는 장마가 주룩 주룩 내리고 있었다. 교실 안은 습기 찬 애들의 몸냄새로 퀴퀴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애들은 즐거웠다. 쉬는 시간이면 조그마한 청개구리를 잡아다 여학생 애들의 책상에 올려놓아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다들 자기 좌석으로 달려가 앉았다. 그런데 난처한 것은 청개구리들이었다. 청개구리는 애들의 책상 밑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어쩌다 내 무릎 위에 조그마한 청개구리가 한 마리 올라왔다. 나는 선생님 모르게 그 놈을 잡았다. 책상 위의 국어책을 병풍처럼 세웠다. 청개구리를 그 안에 살며시 놓았다. 파란 놈이 하얀 배를 할딱 할딱하며 두 눈을 뒤룩뒤룩 나를 올려다 보고 있었다. 여간 귀엽지가 않았다. 나는 정말 그 놈을 필통 아래라도 넣어 두고 보고 싶었다. 책상 모서리에 있는 필통을 살며시 끌어 당겼다. 그러나 세워 놓은 책을 건드렸다.

병풍처럼 막아 서 있던 책이 넘어졌다. 다행히 책은 경계선을 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놀란 청개구리란 놈이 훌쩍 뛰었다. 경계선을 넘어 살모사의 공책 위에 가 쪼그리고 앉았다. 나는 얼른 살모사의 얼굴부터 살폈다. 아나나 다를까, 살모사의 입술이 꼭 악물어지며 어금니가 아드득 소리를 내었다. 그는 한 손으로 그 조그마한 개구리를 덮쳤다. 그리고 마치 무슨 발작처럼 칠판을 향하여 자기 힘껏 그 청개구리를 두들겨 던졌다.

정말 어쩌나 악을 쓰고 힘껏 던졌던지, 딱 하는 소리 와 함께 청개구리는 납작하니 되어 칠판에 찰싹 달라붙어 버렸다.

놀란 것은 생도들보다 선생님이었다.

그렇게 무참히 학살되어 칠판에 착 달라붙은 청개구리를 본 선생님은 천천히 애들을 향하여 돌아섰다.

「누구지, 이처럼 잔인한 짓을 한 것은?」

선생님의 음성은 지극히 부드럽고 낮았다. 그러나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잠깐 잠잠하였다. 선생님은 교실 안 애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눈으로 더듬고 있었다. 아무도 일어서질 않았다.

「좋다. 일어서지 말아. 차라리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것이 좋겠다. …무서운 일이다!」

선생님은 슬픈 얼굴로 그렇게 한숨처럼 말씀하시고 끝나는 중도 나기 전에 그대로 교실을 나가 버리셨다.

정말 살모사는 무서운 애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아니 살모사 뿐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역시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나는 듣고 있었

다. 그의 어머니조차도 그의 아버지를 분명히는 모르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것처럼 살모사의 출생은 그 잉태부터가 기구한 것이었다.

살모사의 어머니는 중농가(中農家)의 딸로서 꽤 예쁘게 생긴 여인이었다. 열 여덟살 나던 해에 그녀는 궁(弓)씨 문중으로 시집을 갔다. 궁씨네는 그 조상에 꽤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있었다 하여 고을 안에서는 제법 양반으로 행세하는 가문이었다. 재산으로 말하자면 과수원과 논밭이 약간 남아 있을 뿐 당시 벌써 몰락한 양반의 궁씨 집안이었으나, 평생 지체가 낮은 것이 한이던 살모사 어머니네로서는 양반집과 혼사를 지낸다는 것만이 만족스러워 딸을 준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을 한 지 3년이 되도록 어린애가 없었다.

본시 궁가네가 자손이 바른 씨족이라 그렇다고도 하였고, 남편이 폐병이 있어 그렇다고도 하였다. 그래 그들 젊은 부부는 남편의 폐병에 좋다하여 마을 뒤 과수원으로 옮겨 살았다.

그해 겨울 어느 날 밤이었다.

오래간만에 부부사이의 뜨거운 애무를 치른 그들은 녹아들 듯이 잠이 들어버렸다. 그렇게 얼마를 잤는지 모른다.

여인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며 눈을 떴다. 불을 끈 방 안은 캄캄한데 사나이 가슴이 또 콕콕 젓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이, 두 번씩 이러면 어떡하우. 몸을 돌봐야다…」

그렇게 걱정은 하면서도 그녀는 사나이의 허리를 자꾸만 끌어 당기고 있었다. 사나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욕정은 차츰 더 끓어 오르는 듯 미친 듯이 여인의 온 몸을 짓어겨 왔다. 그렇게 약한 남편의 몸에서 이런 폭포같은 정열이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여인도 차츰 불이 타 올랐다.

이윽고 사나이가 슬며시 몸을 일으켰다. 여인은 황홀한 허탈상태 속에서도 남편의 건강을 위한 후회로 한숨을 쉬며 머리맡의 성냥갑을 더듬었다.

「불 켜디 말라!」

그 소리에 여인은 발딱 몸을 일으켰다. 그건 남편의 목소리와는 너무나 다른 굵고 거칠은 소리였던 것이다. 그녀는 무어라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목이 딱 말라붙어 말을 듣지 않았다.

「네가 처녀 때부터의 소원이었다.」

사나이는 문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고도 한참 동안이나 떨고만 있던 여인은 간신히 성냥을 그었다. 그렇게 그어 든 성냥불 밑에 그녀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목에 노끈을 감은 남편이 두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죽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난 애가 바로 살모사였던 것이다. 궁씨 문중에서는 그날 밤 이야기를 여인에게서 자세히 들은 후 그 애를 호적에 넣었다. 물론 여인은 그 정체를 모를 사나리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일만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인은 어린애에게 젖을물리고 앉기만 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었다.

사랑인가, 원수인가?

그러나 점점 자라는 애에게서는 무어 하나 남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였다. 어린애가 차츰 하나의 개체로써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던 다섯 여섯살 무렵부터, 그애를 바라보는 그녀의 심정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져 갔다.

남편을 죽인 자의 씨로서의 증오와, 또 하나는 자기의 뱃 속에서 자기의 피를 빨고 자랐다는, 그 어쩔 수 없는 동물적인 본능에서 오는 애정과 남편이 그 지경을 당하고 난 후, 거의 절대(絶代) 되다시피 사그라진 시가에서 과수원을 팔아 받아가지고, 읍 가까운 어느 언덕 밑 초가를 사 들고 살던 그녀는, 문득 문득 어떤 공포를 느끼곤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깊은 밤에 등잔불 밑에서 잠든 애의 얼굴을 바라보노라면, 그날밤 그 사나이의,

「불 켜디 말라!」

하던 굵은 음성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휩싸 오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으레 그녀는,

「보면 알 테디. 그런들 제 새끼야 모를라구.»

하고 중얼거리며 잠든 애의 얼굴을 밀어 내듯이 노력하곤 하는 것이었다.

나는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여러 애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매우 섭섭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 애들과 헤어지는 섭섭함보다도 살모사 한 애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시원함이 더 컸다.

나는 평양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였다. 그해 첫번 여름방학에 집으로 돌아 오던 나는, 역 플랫폼에서 살모사를 보았다. 커다란 빨강 모자를 헐렁하니 쓰고 앞에는 도시락과 보리차 병이 가득히 담긴 목판을 한쪽 어깨에 끈으로 해 맨 그는,

「벤또 벤또, 오차 오차. (도시락 차)」 하며 기차 창문 밑을 분주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그렇게도 미워하던 그가 어쩐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궁남이!」

나는 그를 불렀다. 저만치 걸어가던 그는 얼른 돌아섰다. 그러나 부른 것이 나라는 걸 알자 그는,

「첻!」

하고 다시 돌아서, 어른 같은 목소리로 「벤또 덴또, 오차 오차」

소리 지르며 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거의 그를 잊어버려가던 무렵이었다. 중학교를 마치고 잠깐 고향에 돌아와 지낼 때, 나는 그가 어느 탄광에 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또 몇 해 지나서였다. 나는 그가 광산에서 싸움 끝에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문과 그와는 반대로 그의 어머니는 또 거의 미치도록 기독교에 열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그들 모자의 소문을 들던 내 눈 앞에는 까만 칠판에 네 다리를 짝 벌리고 배

를 깔고 붙어 죽은 청개구리와,

「...무서운 일이다!」 하며 한숨을 쉬던 선생님의 얼굴이 선히 떠올랐다.

그 다음, 소문이 아니고 정말 살모사를 본 것은, 해방되던 해 겨울이었다.

공산당들은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지주들의 토지를 전부 몰수하고, 그 집에서마저 추방을 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나의 집에도 읍내의 민청원(民靑員)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각기 손에 낫이나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낫이나 몽둥이가 아니라 그들 민청원을 지휘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살모사라는 점이었다. 내가 스물 넷이었으니까 아마 스물 다섯살이었을 그는, 어디서 얻어 쓴 것인지, 캡의 앞 단추를 뜯어서 측 뒤로 밀어 제쳐 쓰고, 나의 집 안뜰 한가운데 있는 우물 턱에 걸터앉아, 언젠가 어려서 한 번 본 일이 있다고 기억되는 그 야릇한 웃음을 입 가장자리 잔주름에 띄우며 마루 위의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길로 나의 집 식구들은 38선을 넘어오고 말았다.

그 후에 나는 남한으로 넘어온 고향 사람들을 통하여 살모사의 소식을 들었다. 그 고향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해방이 되자 숨어 살던 만주에서 돌아온 살모사가 그 때 그렇게 공산당에게 중히 쓰이게 된 이유는, 그가 해방 전에 탄광에서 투전 끝에 죽인 사람이 광부가 아니라 사무직원이었다는 데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노동자의 착취분자를 죽였으니 그건 노동자의 영웅이 아니겠는가 하는 논법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은,

「아, 그 뿐인 줄 아나?」

하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렇게 지주 추방에 열성이던 그는 어떤 날 민청원들을 끌고 기어이 자기의 외할아버지 집엘 갔다.

「네, 이놈 그런들 네놈이 이 외할아버지 몽둥이로 쫓아내!」

그의 늙은 외할아버지는 도리끼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며,

「이놈! 나는 이 땅들을 땀 흘려 일하고 샀다. 이놈! 난 달밭에도 감해서 이 땅 샀다. 이 날도 독놈들, 이 할아버지도 모르는 빨갱이 놈아!」

하고 외손자의 멱살에 매달려 기절을 했다. 그러나 살모사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동무들!」

살모사는 자기의 멱살을 쥔 채 기절한 노인의 손을 떼어 뿌리치며 소리질렀다. 그러자 민청원들은 훔발 그대로 방에 들어가 세간들을 마구 밖으로 내 동댕이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게 한창 세간들이 굴러 나오는데 그 집 머슴인 최(崔) 서방이 헐레벌떡 뛰어 들었다.

「여보게 남이, 이렇지 말게. 그런들 이럴 수가 있나. 내 낮을 봐선들 이래서야 쓰겠나.」

최서방은 살모사 앞으로 다가가며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 었다.

「뭐라구? 이 머슴 동무가 미쳤나? 여보 동무, 동문 그래 평생을 남의 집에서 이렇게 머슴살이를 하구두 분하다두 았우?」

살모사의 말이 었다.

「아니래두, 여보게 남이, 날 좀 보시. 날 좀 보라구. 내가 자네 애빌세. 애비야!」

「……?」

살모사는 세모진 눈을 더욱 곤두세웠다. 그는 얼른 주위를 둘러 보았다. 다행히 같이 온 민청원들은 모두 세간을 내던지기에 바빴고, 외가집 식구들은 저만치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웅성거리고 었었다.

「이너무 영감이 미쳤나, 정말.」

살모사는 최서방의 멱살을 잡았다.

「아니야, 아니래두. 분명히 네 에빈 나라니까. 그러니까 넌 최가야. 네 어머니한테 가서…」

최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살모사는 최서방의 면상을 주먹으로 쳤다. ‘아이쿠!’ 하고 거꾸러지는 최서방의 코에서는 금새 떨건 피가 쏟아져 나왔다.

「동무들, 이제 그쫘 하구 갑시다.」

살모사는 그렇게 소리지르고 먼저 대문 밖으로 나와버렸다.

읍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모사는 몹시 불쾌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 어머니에게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날 밤 괴한에게 살해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었었다.

그런데 그날 최서방의 말에 의하면 그가 자기의 아버지라 하니, 그는 도무지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최서방이 혹 자기 아버지를 죽인 괴한이 아닐까? 아버지의 원수. 아니 그렇지도 았지. 최서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죽은 건 아버지도 아무 것도 아니지 았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살모사는 무언가 잘 풀리지 았는 수수께끼처럼, 그 문제를 생각하며 걸었다. 그러나 어쩐지 최(崔)가 자기 성이라고는 좀처럼 생각하기가 았었다.

— 미친 영감쟁이야.—

살모사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날 그 일은 그것으로 머리에서 떨어 버리려 애썼다.

그렇게 살모사가 외할아버지까지도 상관 았고, 당 과업에 열성적이 었다는 공으로, 읍 인민위원회는 그를 정식 당원으로 가입시켜 주도록 상부에 추천했다.

살모사는 만족하였다. 이제 정식 당원이 되기만 하면 무슨 뚜렷한 자리가 하나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열성을 내어 꼭 출세를 하고야 말리라고 마음 속으로 다짐 하는 것이 었었다.

그런데 상부에 제출되었던 추천서는 뜻밖에 종이꼬리를 달고 돌아 내려오고 말았다.

출신성분이 좋지 았다는 것이 었었다. 어머니는 그런대로 중농출신이니 어찌 어찌 됐다 치더라도, 아버지가 소위 양반이란 집안에 태어난 유한계급이었으니, 좀 더 두고 그의 열성도를 시험하라는 것이 었었다.

인민위원회 간부에게서 그 사실을 들은 살모사는 정말 실망하였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딴 일이라면 어떤 잔인한 짓이건 다 해낼 열의와 자신이 있는 살모사였으나, 출신성분만은 그의 힘으로도 어찌할 도리가 았는 것이 었었다.

그러던 그는 문득 어떤 구멍을 발견하였다.

그날 저녁 살모사는 식사를 바치자 예배당으로 가려는 그의 어머니를 붙들고 물었다.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듯이 대답 대신 그를 뻘히 바라만 보았다.

「외가집에 있는 최서방 알디요?」

「그래서?」

「그가 누구디요?」

「누구라니?」

「내 아버지라면서요?」

살모사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들이 대었다. 순간 그의 어머니는 얼굴이 핏색해졌다. 그녀는 한참이나 잠잠하였다. 그녀로서도 오랫동안 두고두고 생각해 오던 일이 었었다. 그날 밤에 들은 음성은 겹겹에 들은 것이니 그만 두고라도 아들의 모습이 자랄수록 누군가 낮익은 사람을 닮아간다고 생각하였다. 그 낮익은 사람이 누굴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그녀는 아들의 그 매부리코와 유난히 았은 입술에서, 자기 집 머슴을 보았던 것이 었었다. 더구나 그날 밤 나가면서,

「네가 체네 때부터의 소원이 었다.」 하던 그 말로 미루어, 그 사나이가 어려서부터 그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었고, 이런 점 저런 점으로 보아 그것은 자기 집 머슴 최서방이었으리라는 것을 거의 단정한 지도 오래면서도 그녀는 그것을 사실화하려고 하지는 았았던 것이 었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이 그렇게 들이대는 마당에야 굳이 아니라고 숨기고 싶지도 았았다.

「그런디도 모르디.」

「그런디도 모른다니요?」

그녀는 그 이상 더 아들과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았고, 성경책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살모사는 그 다음으로 최서방을 찾아 갔다. 그렇게 최서방을 찾아보고 밤 늦게야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미 궁남이 아니라 최남이로 성을 갈고 었었다.

다음날, 머슴 최서방은 읍 인민위원회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25년 전의 살인 강간을 자백하였던 것이 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기 전에,

「궁동무, 아니 참 최동무, 동무는 참 훌륭한 아바질 가졌수다.」

하고 인민위원장으로 하여금 살모사의 어깨를 두들기게 하였으며, 며칠 후에 살모사는 당당

한 공산당원으로 당원증을 목에 걸고 민주청년동맹 위원장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 후 살모사를 거의 잊어버린 채 지냈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6. 25사변이 일어났다.

공산군이 불의에 밀고 내려왔으나 9월 28일에는 다시 서울로 탈환한 국군은 그대로 적을 물고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나는 중군기자의 자격으로 국군을 따라 북한으로 들어갔다. 시월 중순께 나는 고향 읍엘 갈 수 있었다. 내가 먼저 투성이가 되어 군 추력에서 내려올 때, 고향 읍 경찰서 뒤 방공호 속에서는 학살된 읍민들의 시체를 끌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나는 경찰서 뒷마당으로 돌아가 보았다. 온통 울음 바다였다. 마치 타다 남은 장작개비처럼 시꺼멓게 썩은 시체가 주르르 줄을 지어 누워 있고, 그 시체 머리말과 발 끝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부녀자들은 반 미쳐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어 돌아서는 나의 팔굽이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도깨비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역시 틀림 없구나. 야 반갑다. 정말!」

오랫동안 굴 속에 숨어 있었노라는 그 도깨비란 별명의 옛 친구는 얼굴이 누렇게 부었고, 머리카락이 거의 귀를 덮었으며, 입고 있는 옥양목 바지 저고리에는 여기 저기 벌건 진흙물이 들어 있었다.

「데거 봤디?」

그는 턱으로 시체를 가리켰다. 나는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고 새끼 정말 잡으면 각을 떠서 죽여야 할 텐데!」

도깨비는 흥분한 어조였다.

「누구?」

나는 도깨비에게 담배를 권하며 물었다.

「아, 고 살모사 말이야!」

「살모사?」

「그래. 그 살모사너무 새끼 짓 아니가. 서른 네명이나 된단 말이야!」

도깨비는 또 한 번 시체를 돌아보며 분개 하는 것이었다.

나는 경찰서 앞마당으로 돌아나오며 살모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쨌든 살모사의 잔인한 짓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군이 평양을 점령한 다음날이었다.

살모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청에 비밀지령이 내려졌다.

수감 중인 소위 반동분자들과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을 모조리 처치해 버리고 곧 북쪽으로 후퇴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살모사는 입안에서 어금니를 아드득 갈았다.

그는 몇 명의 민청원을 거느리고 반동 분자들을 수감해 둔 창고로 갔다. 두 사람씩 두 사람씩 전기줄로 묶어서 창고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 길로 그들은 경찰서 뒷마당에 있는 방공호로 끌려갔다. 그렇게 서른 네 명의 남녀가 팔을 뒤로 묶인 채 경찰서 뒷마당으로 들어갈 때였다.

그 소위 반동분자 대열 속에서

「이봐. 애, 나 좀 봐!」

하며 50이 훨씬 넘어 보이는 허름한 사나이가 거기 문 옆에서 있는 살모사를 자꾸 부르는 것이었다. 최서방이었다.

살모사는 힐끔 최서방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싸늘한 표정 그대로 하나 하나 인원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두 시간쯤 후였다. 햇볕이 짹짹 내리쬐는 가을 오후였다. 경찰서 뒤 방공호 속에서는 네 발의 폭음이 들려 왔다.

「이젠 예수쟁이들만 처치하면 되디!」

방공호 속에 네 개의 수류탄을 던져 넣고, 뒤에 둘러서 있던 민청원들을 향해 돌아서는 살모사의 혼잣말이었다.

거기까지 이야기 한 도깨비란 친구는 손 끝까지 탄 담배를 꼬집어 쥐며 한 번 더 깊이 빨았다.

「그런데 그 최서방은 자기 아버지한테 어째서……?」

나는 아까부터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도깨비란 친구는 담배 꼬다리를 땅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끄면서,

「흥, 애비가 소용이 있나, 공출을 숙인 반동분자걸. 하기가 평생을 남의 집 머슴이었으니, 아들 덕에 분배 받은 주인 집 논밭으로 좀 살아보고 싶었겠지만!」 하고 껄껄 웃는 것이었다.

「그러군, 살모산 도망쳤군!」

나는 그의 우묵하니 들이간 두 눈에서 옛 모습을 더듬어 보며 물었다.

「아니, 그러구 곧 도망친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구 곧 도망친 거군. 결국 도망치던 길에 살모사는 또 사람을 죽였지. 이번엔 50명도 더!」

도깨비란 그 친구는 쑥 돌아서며 읍 북쪽에 있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함석으로 지붕을 덮은 예배당 종각이 서 있었다!」

그렇게 방공호를 폭파시킨 살모사는 민청원들을 모아 거느리고 읍 북쪽으로 난 큰길로 나갔다.

주민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리는 그들 민청원의 신경을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였다. 아니, 민청원들 행렬 맨 선두에 떠발총을 거꾸로 메고 걷고 있던 살모사는, 제편에서 도리어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한 새끼도 없구나. 그렇다니까, 그 새끼들 다 반동이었던 걸 모르고—

살모사는 자취를 감추어 버린 읍민들에 대한 강한 분노로 두 눈이 새빨갭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누구든 자기 눈에 얼핏 띄기만 하면 그저 단방에 갈겨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읍 북쪽 언덕길 위까지 올라갔다. 살모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대원들도 따라 섰다. 살모사는 잠깐 귀를 기울였다. 사방은 여전히 괴괴하였다. 어느 집에서 기어나온 것인지 까만 고양이 한 마리 살모사의 발뿌리를 지나, 가을 햇볕이 짙게 내리쬐는 한길을 가로질러 갔다.

「분명히 예수쟁이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다고 그랬다?」

살모사는 대원들을 향하여, 정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듯이 그렇게 다져 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그 살기 먼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조금 전에 확인한 상황에 비하면, 분위기가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약 10미터쯤 골목길을 들어간 곳에 있는 예배당에는 조금 전까지 5,60명의 남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고요했던 것이다.

「도와,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

살모사는 따발총을 옆구리로 끌어올려 끼며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다.

살모사는 열려있는 예배당 문턱에 왼쪽 발을 하나 올려 놓고, 그 무릎에 따발 총을 걸치고, 한 바퀴 예배당 안을 둘러 보았다. 분명히 자기의 어머니도 어디 앉아 있으리란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살모사는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하였다. 그리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가져다 걸었다.

바로 그 때였다. 저 앞쪽 단 위에 쭈그리고 돌아 앉아서 기도를 하던 목사가 일어섰다. 교인들을 향하여 돌아섰다.

「자 그럼, 찬송가 462장, 다 같이...」

늙은 목사는 말을 딱 그쳤다. 거기 문에 버티고 서 있는 살모사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자 교인들의 머리가 목사의 시선을 따라 등 뒤 문계로 일제히 돌아 왔다.

「아! 누군가 여자의 비명이 날카롭게 예배당 안을 흔들었다. 그것은 살모사의 어머니였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센 살모사의 어머니는, 저 앞에 강대 바로 밑에서부터 앉아 있는 교인들을 헤치며 뒷 문계로 허둥지둥 달려나오고 있었다.

「궁남아! 얘 야,.....하나님이.....」

살모사의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지르는 바람에 교인들도 와르르 일어섰다. 그렇게 교인들이 모두 일어선 것과, 따발총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을 뿜은 것은 거의 동시였다.

내가 살모사에 관하여 들은 바는 거기까지였다.

그런데 나는 그 살모사를 종로 네거리에서 분명히 본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사람이 두 서너명만 모인 곳이면 반드시 그들의 얼굴을 살피는 버릇이 생겨버렸다. 혹 거기 살모사가 끼어 있거나 않나 하는 생각에서다.

그렇다고 나는 결코 살모사가 보고 싶은 것은 아니다. 아니 도리어 그를 또 만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자꾸만 그렇게 주변을 살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불안이 거의 병적인 데까지 이르러 버렸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다. 대문 안에 떨어진 조간 신문을 줍다가 나는 흠짓 놀랐다. 꼭 그 신문지 아래 살모사가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켰던 것이다.

바로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책을 보고 앉아 있는 내 걸상 밑에서, 대가리가 삼각형인 살모사가 그 바늘같은 혀를 날름거리며 사르르 기어나와 산뜻한 몸뚱아리로 나의 벗은 발목을 감으며 발뒤꿈치를 물고 늘어질 것만 같은 것이다. 아니, 벽에 세워 놓은 책상 밑에서도, 살모사가 기어 나오는 것이다. 전축 밑에서도, 방석 밑에서도, 창 의 커튼 뒤에서도, 심지어는 천장의 형광등 위에서도, 살모사가 기어 나오는 것이다. 이대로는 정말 잠시도 안정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나는 눈을 비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편에서 먼저 살모사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생각한다. 기어이 그를 찾아내어서 그 정체를 밝혀야겠다. 먹살을 쥐고 따져야겠다. 「너는 정말 살모사인가. 너는 정말 살모사인가!」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락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 공군교재창
편집실 전화 : 829-3511, (호)-5241
인쇄 : 1981년 4월 20일
발행 : 1981년 4월 25일

군인(軍人)의 길

나는 영광(榮光)스러운 대한민국(大韓民國) 군인(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忠誠)에 있다.
조국(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勝利)에 있다.
불굴(不屈)의 투지(鬪志)와 전기(戰枝)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통일(統一)에 있다.
기필(期必)코 공산적(共產敵)을 쳐 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군율(軍律)에 있다.
엄숙히 예절(禮節)과 책임(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단결(團結)에 있다.
지휘관(指揮官)을 핵심(核心)으로 생사(生死)를 같이 한다.



필승의 공군 되자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공군(空軍)의 결의(決意)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